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

이 책을 들어가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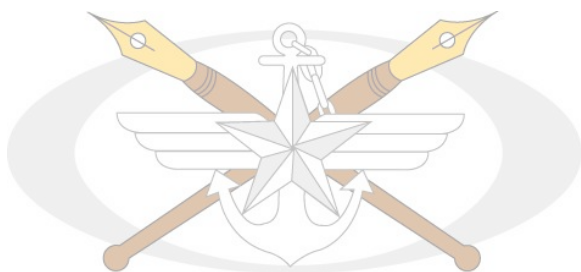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이 과연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활약을 펼쳤으며,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 침체된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학도의용군에 대한 용어 정의, 대상 및 범위를 재검토 하였다. 그리고 학도의용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 되었으며, 그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간사



우리민족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은 발발한 지 어느덧 60여 년이 흘러 이제 점점 잊혀진 전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이 자행하는 일련의 도발로 인해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전후세대의 안보의식이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전쟁은 전방과 후방의 경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군간의 일치된 노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총력전의 양상을 띠었던 6·25전쟁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국군과 함께 나이 어린 소년으로부터 학생은 물론 중장년층에 이르는 남녀노소 모두가 힘을 합쳐 공산군의 침략에 대응함으로써 민족적인 재앙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펜 대신 총을 들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쟁터로 달려간 학도의용군의 용기와 애국심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유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번은 물론 계급도 없이 정든 부모형제와 꿈으로 가득 찬 교정을 뒤로한 채 스스로 전선으로 뛰어든 이들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약화된 안보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소는 이들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와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서와 자료집의 발간은 국가 총력전이었던 6·25전쟁의 실상과 학도의용군이 보여준 애국적 행동을 재조명할 뿐 아니라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자료를 집대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권의 연구서 중 먼저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에서는 관련 현행법령을 검토하고 용어 및 자격을 재분석함으로써 연구 목적의 핵심인 학도의용군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학도호국

단의 창설과 6·25전쟁 이전의 병력충원 체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학도의용군의 활동을 전쟁단계에 따라 시기 및 지역별로, 그리고 활동단체별로 조명함으로써 전쟁기간 중 이들이 보여준 활동을 평가하고 그 의의를 밝히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에는 참전자의 증언녹취록과 체험담, 참전자 및 전사자 명부, 주요 참전단체의 현황 및 활동사항 등을 수록함으로써 연구의 사실성 및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연구서와 자료집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가 6·25전쟁에 참가한 수많은 학도의용군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임을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 성과가 6·25전쟁 시 국가 총력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 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참전자를 대상으로 증언을 청취하고 새로운 자료발굴에 힘쓴 육군사관학교 나종남 교수를 비롯한 집필진과 원고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고견을 내어주신 감수 및 자문위원, 출판에 도움을 주신 국군인쇄창 관계관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라사랑이라는 고귀한 신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홀연히 전쟁터에 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학도의용군 참전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최 북 진**

일러두기

1. 이 책의 장 · 절 · 항 · 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1)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2) 절 : 1, 2, 3,

(3) 항 : (1), (2), (3),

(4) 목 : 1), 2), 3),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안에 넣었다.

3.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 지명, 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에서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 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5. 북한군과 관련한 용어는 군의 ‘정신교육지침’과 국방부의 대외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공산군, 인민군 등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6.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해당 면의 하단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7. 이 책의 각종 <표>의 명칭은 본래 명칭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이용하되, 명칭이 없는 경우는 본문의 내용과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명명하였으며,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순번을 표기하였다.

8. 이 책에 사용된 일자 및 시간표기는 다음과 같다.

(1) 일자 :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7일, ...

(2) 시간 : 04시, 10시, 04시 30분, ...

9.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 : 인명, 지명, 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2)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3)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4) 「 」 :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10. 자료집에 수록된 증언 및 체험담은 해당 참전자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으며, 학술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11. 자료집에 수록된 학도의용군 관련 현충시설 현황은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정보를 발췌, 정리하였다.

12. 이 책은 6·25전쟁 참전 학도의용군에 관한 학술서 발간을 목적으로 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위탁편찬계획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편찬한 것이다.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목 차

■ 발 간 사

■ 일 러 두 기

■ 참전자 증언녹취록 및 체험담 | 1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문창순, 손영준, 경서호, 홍수용)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김완기)

응진학도유격부대 전우회 (목영설, 권승훈)

백골 전우회 (왕선구)

서울학도포병대 동지회 (김석찬, 강성모)

태극단 동지회 (이순창)

전국학련 - 반공반탁 학생운동기념사업회 (최극)

6·25참전 학도병 동지회 (정효명)

대한학도의병 동지회 (윤병국)

기타 (이문규, 윤원덕, 백영기)

체험담 (홍수용, 목영설, 김두수, 김현철, 임영환, 최장석)

■ 주요 학도의용군 참전단체 현황 | 277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대한학도의병 동지회

서울학도포병대 동지회

6·25참전학도병 동지회

인천학도의용대

기타

■ 학도의용군 관련 사진자료 | 364

■ 학도의용군 관련 현충시설 현황 | 403

학도의용군 현충시설 현황 (I)

- | | |
|-------------------------|-----------------------------|
| 1. 6·25기계안강지구 학도의용군 전적비 | 13. 전몰학도 충혼탑 |
| 2. 6·25참전 학도병기념비 | 14. 태백중학교학도병 전적비 |
| 3. 6·25참전학도병 순국충혼탑 | 15. 학도병 6·25참전기념비 |
| 4. 6·25학도병 참전기념상 | 16. 학도병 전적비 |
| 5. 가평학도의용대 참전기념비 | 17. 학도병기념관(태백중학교) |
| 6.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현충탑 | 18. 학도의용군 6·25전적비 |
| 7. 무주학도 6·25참전기념비 | 19.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포항) |
| 8. 서울학도병 참전기념비 | 20. 학도의용군 파주지대 6·25동란 참전기념비 |
| 9. 순국학도현충비 | 21. 학도의용군 현충비 |
| 10.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 | 22. 학도의용군 6·25참전기념상(비) |
| 11. 재일학도의용군 참전비 | 23. 호국학도충의탑 |
| 12. 전몰 학도병 추념비 | 24.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

학도의용군 현충시설 현황 (II)

1. 6·25참전 영도 유격대 유적지비
2. 강화 유격용사 위령탑
3. 고원청년유격대 위령비
4. 독수리 유격대 전적비
5. 반공유격전적비
6. 반공유격전적비
7. 영도유격부대선열동지추모비
8. 유격 백마부대충혼탑
9. 유격군충혼전적비
10. 호림유격전적비
11. 6·25참전전몰학우위령탑
12. 헌7학병 6·25참전기념비

[참전자 증언녹취록 및 체험담]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문창순, 손영준, 경서호, 홍수용)	2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김완기)	49
웅진학도유격부대 전우회 (목영설, 권승훈)	61
백골 전우회 (왕선구)	82
서울학도포병대 동지회 (김석찬, 강성모)	87
태극단 동지회 (이순창)	103
전국학련 - 반공반탁 학생운동기념사업회 (최극)	118
6·25참전 학도병 동지회 (정효명)	126
대한학도의병 동지회 (윤병국)	133
기타 (이문규, 윤원덕, 백영기)	139
체험담 (홍수용, 목영설, 김두수, 김현철, 임영환, 최장석)	199

[대한민국 학도의용군 회]

● 문창순 구술 개관

- 구 술 자 : 문창순
- 면 담 자 : 성연춘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기
- 면담 일시 : 2011년 4월 18일
- 면담 장소 :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사무실

● 구술 내용

어떻게 학도의용군이 되셨어요? 그때 학생신분이셨으면 어느 학교학생이었고, 학도의용군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 저는 1950년도에 춘천고등학교에 재학생, 그러니까 지금은 고등학교지만 당시에는 중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6·25가 나던 첫날부터 우리 집 가까운 곳에 포탄이 떨어지는 광경을 본 아주 산증인입니다.

그때 그러면 춘천에 계셨습니까? 네, 춘천시내, 우연히 공교롭게도 내가 살고 있었던 곳이 춘천 최북방에 있었는데, 새벽부터 피난민들이, 더구나 시골여자들이 보따리를 이고, 복장도 정상적이지 않은 옷을 입고 내려오는 광경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구경을 하러 나갔는데, 멀리보이는 우두벌판이라는 곳, 지금은 아마 많이 달라졌겠지만, 이상한 연기도 나고 소리도

나고 그래서 비로소 전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26일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집이 춘천이 아니고 고향이 정선이다 보니까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은 정선이었는데, 춘천에서 유학중이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주민까지도 피난을 가는 와중에 제가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차제에 고향에 갈 작정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 8일 걸어서 제천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제천에 가니까 제천에서 정선으로 들어가는, 지금과는 달라서 정기버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선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은 정선에 들어가는 트럭에 올라타고 들어가는 것인데, 차량이 한 이틀을 거기서 머물다보니까 오히려 정선에서 제천으로 피난을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강릉 쪽에서 인민군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적군의 치하를 내가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향에서 한 300백리 떨어진 곳에서 방향을 바꿔서 남쪽으로 무조건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다니셨습니까? 학교엔 고향 친구들이 몇 있었지만 제천에서 갈라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고집을 부리고 고향으로 들어갔고, 나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차제에 남쪽으로 한번 안 가본 곳으로 가보자 하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엄청난 고생, 굶고, 거의 걷다시피 해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기차를 타고 내려간 곳이 부산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피난민수용소에서 무위도식하다시피 하다가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난을 시작한 것이 6월 26일이었고, 8월 달에 부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8월 15일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기념식장에서 나라가 적군에게 포위가 돼서 여기까지 후퇴를 한 판에 청년들은 군

대에 가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아무도 응하지 않는 판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 당시 피난민수용소는 대개 초등학교였습니다. 그 피난민수용소에서는 하루에 주먹밥 2개하고 잠자리는 아무것도, 초등학교 교실에서 책상과 의자를 치우고, 재주껏 자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피난민수용소가 피난민에게 제공하는 전부였는데, 모병하러 오는 사람이 무서워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대개 아침밥만 얻어먹고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걸 안 다음부터는 한 개도 안 얻어먹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한 개 더 얻어가지고 숨겨놨다가 자기 연고자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없는 피난민수용소에 있는 젊은 사람들끼리 우리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의사가 맞는 몇 명이 그 중에는 학생이 한 서너 명이 있었고, 이북에서 내려온 우리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열일곱이었을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나이는.. 내가 32년생이니까,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지원입대를 하러 같이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학도병, 아, 그 당시는 모든 중학교에 학도호국단이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학도호국단 지원병 대기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고, 학도, 학생이 아니었던 이북에서 온 청년들은 더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 당시, 그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부산에 있는 대기소였나요? 부산에서.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상역, 어느 근처 언덕에서 찾아들어갔는데, 특권을 췌습니다. 너희는 많지 않은 학도병, 지원자다. 칭찬을 해주고, 대신 너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현역군인이었습니까? 현역군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원하는 데가 간

부후보생. 간부후보생이라는 것은 단기간 교육을 받고 임관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장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싫다고 했더니 그 다음은 헌병, 의무병, 비교적 공부를 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이었습니다. 난 헌병도 싫다. 그러니까 넌 뭇 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좀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2, 3일 됐는데, 유엔군이 있는 데는 어떠냐? 유엔군이 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미군이 한국 전에 참전을 한다. 한국에 참전하는 미군부대에 한국군을 같이 넣어주면 한국의 지리, 풍속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로 가라 이거예요. 나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부대로 가면 영어라도 조금 배울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시골중학교를 마치고, 정선이라는 고장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어렵게 춘천고등학교를 입학했으니까, 내가 정선서도 보지 못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당시 4학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땀데,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공보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내 나름대로 영어공부를 조금 남보다 열심히 했고, 피난을 나오면서도 우연히 눈에 띄는 영어책을 줍다시피, 훑치다시피 해가지고, 영어책을 들고 공부를 하면서 피난을 했습니다. 아, 내가 거기 가면 영어를 공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욕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포에 있는 초등학교로 그 다음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8월 하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사변이 난지 두 달 만에 나는 신병교육대에 들어간 겁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학도호국단에 예전에 가입돼 있으셨습니까?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학도호국단 단원입니다. 거기서 예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미군 군복을 주고, 미군 군화를 신고, 정말 미국 군인이 되나보다 했는데, 훈련을 시작해서 기초적인 신병교육을 하는데.

미군들이 교육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군인들이 했습니다. 한국군 신병훈련소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니까, 구포초등학교에서 신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지난 어느 날 집합, 트럭 타! 그러더니 어느 밤중에, 거의 밤새우다시피 해서 가더니 어느 장소에서 내려! 그것이 바로 내가 최전선에 배치된 날입니다, 그때가 아마 8월 말경,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지만 9월초순경, 그러니까 신병교육을 마치지도 못하고, 아마 전황이 급박해졌는지, 최전선 최일선에 일등병, 아니 이등병이지요. 배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대였습니까? 미군 25사단 이진 나중엔 안됩니다. 34연대, 1대대인지, 2대대인지,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영산근처였습니까? 아니, 그 당시는 부대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같은 일행 중에 여기가 마산을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산.

하동북쪽이었습니까? 마산 북방의 어느 지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거의 인민군이 발악을 하다시피 해서 인민군이 낙동강을 점령, 넘어오려고 할 때, 미군이 거기에 배치가 되고, 우리는 그 남쪽에 낙동강 남쪽에 배치가 된 겁니다. 최격전지 일선에 배치가 됐습니다.

지명은 모르셨습니까? 지명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민군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것만 들었고. 거기서부터 전투는 없었습니다. 강은 남쪽에 있었고, 인민군은 강 북쪽에 있었으니까, 더러 드문 드문 포탄이 날아올 정도고, 인민군이 후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무장은 어떻게, 한국군에게 받은 것이었습니까? 처음에 받은 것은

M1 하나뿐이었습니다.

철모도 없었나요? 철모는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교모를 쓰고, 내가 학생복을 입고, 학생모를 쓰고 그것과 철모를 바꾸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문자 그대로 교복과 군복을 바꿔 입고, 내가 쓰고 있던 교모와 철모를 바꿔 쓴 겁니다. 그게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그때 군적에 기입이 되신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번을 받으신 겁니까? 내가 아마,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후에 내가 병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군번도 있고, 입대날짜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분명히 내가 K1100. 그런데 카투사, 지금은 그러니까 카투사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는 카투사란 말이 없었습니다. K 군번으로 나갔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카투사로 배치되신 겁니까? 카투사 1, 2기쯤 될 겁니다. 내가. 날짜를 보면은……. 그렇게 내가 군대에 입대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학생신분이고, 어느 마을인지도 모르고, 지도, 지리를 모르니까. 기억나는 것은 함안, 산청, 전라도 쪽으로 해서 북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전투는 정말로…….

지휘는 그럼 미군들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군부대에……. 그 당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배속되었던 우리는 카투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당시는 정확한 이름이 없었지만, 1개 중대에 미군 1개 중대에 많아야 서너, 너댓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대에 한사람, 두 사람 배치되다 보니까, 말 한마디 못하죠. 미군 1개 중대에 한 두 사람

끼었으니, 말 한마디 못하죠. 나는 조금 ABC라도 알지만, 그 때 당시 그 부대에 배속되었던 대부분의 사병들은 거제도 출신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나이가 많은 30대가 넘는 사병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징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끼어서 영어 한마디 모르는 우리말만 가지고, 말도 못하고, 참 비참한 군인생활이었고, 거기다 전투가 벌어지면,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위험한 전시에 위험한 모든 구질구질하고 위험한 모든 일 카투사에게 미군이 위임을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전투가 한참 격렬할 적에 머리를 들거나 몸을 낮추어 있는 전투에서, 예를 들어 탄약이 모자라면, 손가락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면 이쪽으로 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탄약 무겁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M1 탄약이 조그만 박스에 들었는데, 그걸 3개, 4개 들고, 전투현장까지 다시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머리만 들어도 위험한데, 이 무거운 걸 들고 고지까지 올라가서 그 격전기에……. 이걸 조그마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푸대접이라 할까, 학대라 할까, 차별대우라 할까. 참 비참한 그런 전투를 겪고, 엄청난 전투를 했습니다.

북진하면서 계속 전투를 하신 겁니까? 네.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트럭을 타고, GMC지요. 군용 GMC를 타고 이북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올라간 데가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만, 낙동강(압록강) 남쪽. 지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듣기로는 압록강에서 7~80리 남았다는 어느 높은 고지에 배치되어서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말, 12월 초 같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상한 전세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중공군의 참전 첫날입니다. 그때 상황을 내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배속된 것이 35연대 2대대라고 가정합시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부대가 비교적 높은 고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방향은 모두가 북쪽을 향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높은

고지에 북쪽을 향해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밤늦게,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을 향해서 배치가 되어있고 우리의 후방, 동쪽 서쪽 남쪽에서 멀리 피리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피리소리가 나다가 그치면 서쪽에서 피리소리가 나고, 점점 가깝게 더 피리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깝게 들리기 시작한 다음에는 북소린지 뿡과리 소린지 조금 더 큰 소리로 피리소리보다, 뿡과린지 뿡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고, 거기 있던 군인들은 공포에…….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걸 포위됐다. 거의 지휘관부터 모두가 다 그만 전의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지휘관의 명령에 별 움직이지 않고 각자가 마치 패잔병처럼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후퇴를 하나면 피리소리가 안 나는 쪽, 그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 본격적으로 부대가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있게 후퇴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통제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후퇴를 하는데, 나는 비교적 그 후퇴선에 선두, 앞자리에 선두 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선두 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쪽에서 막 기관총 소리가 들리고 따쿵따쿵 소리가 들리고 하더니, 거기서는 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점점 더 앞지르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나니까 또 뒤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나중에 나 혼자 생각한 것은 선두에는 몇 사람 안 되고, 조금 더 주력부대라고 할까요. 숫자가 많은 병력이 나타났을 때는 마치 사이에 끼워놓은, 양쪽에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적군의 유도전에 유혹을 당해서 덮에,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몇 놈이 갈 적에 하면 나머지 부대가 안 올 테니까, 다행히 우리는 운 좋게 앞에 선두에서 갈 때에는 통과를 시키고, 주력부대가 지나갈 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했고, 그 다음에 어디인지 모르고, 지금 기억나는 것은 추웠고, 눈이

끌려있었고, 그 다음날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종일 남하를 했지만 하나도 먹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보병이지만 거의 걷지를 못합니다. 나는 시골서 자라고 또 거의 걸어다니다시피 하니까, 남보다 다리가 좀, 비교적 계속해서 선두에 있었고, 저녁때 추워지면 미국 군인들은 밤새도록 쭈그리고 앉아서 우물우물하지만은 역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나를 살려준건데, 옥수수 대궁을 남쪽에서도 그랬는데, 거기서도 대궁을 샷샷모양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난 그 대궁 안쪽으로 기어들어가서, 비교적 추위를 덜 땀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던 몇 사람은 저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니까 옥수수 쪽정이, 쪽정이란 좀 덜 여물은 거에 옥수수가 보면 잘 익은 것은 따고, 조그마하고 덜 익은 것은 옥수수 대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시골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걸 대고 몇 개씩 안 붙어있는 옥수수를 주머니에 좀 넣고 옆에 사람들도 그게 뭐냐 해서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퇴를 하면서 그걸 입에다 넣고 한 시간씩 불리면 깨물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후퇴를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거의 굶다시피 했지만, 나하고 같이 간 사람들은 조금씩 옥수수라도 얻어 먹으면서 사흘만엔가 어느 지점에서 집결지를 발견했고, 다시 재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대에 복귀를 한거죠. 그러나 거의 원대복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피해는 그때가 제일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후퇴해가지고는 부대가 지리멸렬되다시피 하니까는 예비사단이라고 할까요? 자동차로 내려와 가지고는 재편성이라고 할까 하는 한 열흘 동안 하더니 다시 트럭을 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만은 임진강 남쪽, 장단군 어느 산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엔군이 임진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최후저지선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국인을 KSC라는 이름으로 군인 아닌 민간인을 군부대에서 필요한 사역병,

아니면 노무자 비슷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락호도 파고, 개인호도 파고, 군인들이 너무 전세가 급하니까, 군인들을 도와줬습니다. 우리도 그런 작업을 하곤 하는데, 내려다보니까 임진강은 얼어붙어 있고, 남쪽으로 강변이죠, 강변에다가 철조망을 2중이죠, 적어도 2중으로 쳤습니다. 철조망 높이가 내 키만큼 되는 철조망을 작업할 때 보니까 2중으로 쳤습니다. 어떤 데는 3중으로 쳐놓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 철조망과 제2철조망 사이에는 대인지뢰를 깔았습니다. 대인지뢰를 굉장히 크게 깔고 철조망을 또 하고 예를 들어 3중이라면 아! 여기는 이제 못 넘어올 거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23일인가 24일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미국 군인들은 그걸 보면서 너희들 이제 건너오지를 못한다하면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니까 맥주도 마시고, 희희낙락하고 있었습니다. 내 무식한 소견으로는 여기는 뚫고 넘어오지를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4일 아니면 25일겁니다, 아니면 26일겁니다. 그 전선이, 최후 전선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최전선에서 내가 밤중에 그걸 봤는데, 지뢰가 터지는 곳에서 비로소 술을 마시고 있던 미군들이 내려다보니까 파파파파하고 모래밭에 있던 지뢰가 다 터지는 겁니다. 아니. 지휘관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릴 수는 없는... 그리고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뢰가 터지고 6피트나 되는 철조망을 넘는 방법이, 가마니하고, 피난간 집에서 가져온 이불, 요 뭐든지 갖다가, 총을, 기관총을 막 쏠게 아십니까? 죽으면 그 뒷놈이 업고, 매고 와가지고, 철조망에 그걸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한 놈, 두 놈 타고 넘을게 아닙니까? 그렇게 막 오는 겁니다. 지뢰가 어떻게 저렇게 터지는가? 나는 내 눈으로 봤습니다. 손으로 뭘 던져요. 이걸 공격신호로 뭘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동시에 파파파 터지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젠

내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터졌는가! 우리가 내려다 봤을 때는, 산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현장이 보이냐면 조명탄이 있죠. 조명탄이 계속 터지니까 환하게 내려다보이는데, 이게 사람인지 개미인지 모를 정도로 강변에 꼭 깔려가지고 제1철조망은 그런 식으로 넘었고, 제2철조망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손으로 흔들어서 뒤에서 넘어오라는 신호 인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철조망을 넘는 방법은 아주 묘합니다. 가서 어떤 놈이 하나 엎드립니다. 등을 대고 그러면 뒤에 놈이 이걸 밟고 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우리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한 놈이 엎드리고 총에 맞아 쓰러지면 한 놈이 또 엎드립니다. 이 등을 밟고 넘어갑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그래서 또 왔다가 또 한참 있다 다시 동시에 터지고. 이거를 본 미군은 아주 기절을 한 겁니다. 절대로 이 전선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건 내 혼자의 짐작입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지뢰는 대인지뢰는 부비트랩, 영어로 부비트랩이니까 우리말로는 인계철선이라고 그러나요? 지뢰는 뭔가 땡겨야 터집니다. 나는 사병입니다만 지나가다 보면 다리에 걸려서 지뢰가 터집니다. 노끈이라든지, 가느다란 철사라든지 돌맹이를 묶어가지고, 던질 수 있는 거리, 5m도 좋고 10m도 좋고 뭔가 당길 수 있는 거리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꺼번에 땡겨하는 시그널에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동시에 터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터지는 걸 나 혼자 생각에 분명히, 내가 군대생활 그 후에 장장 7년을 했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본 것이 인계철선을 그런 식으로 이 손을 던졌다는 것은 뒷사람보고 오라는 신호가 아니라 돌이라던가 무언가를 던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냥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 포기하고,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50년 12월 하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4일이던지, 우리부대가 있었던 곳은 장단군. 25사단이 있었던 곳은 장단군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1·4후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51년 1월 4일 서울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의 방어를 맡았던 부대가 12월 말에 포기했고, 우리는 오산 훨씬 더 남쪽,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부대를 재편성했어요.

선생님, 그때까지 미군들과 의사소통은 계속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그마한 영어를, 중학교 때 남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한 인연입니다만 나만큼 영어단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대대에서 급한 일 있으면, 되거나 말거나 내가 통역을 맡아야만 했고, 어쨌든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이 내가 최전선에서 조금 남보다 후방에, 대대장 주위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목숨을 살려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남보다는 조금 더 단어를 많이 알았고, 영어에 조금 더 접촉이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 가지고, 내 카투사 생활을... 그 다음에 전투는 기억할 만한 게 없고, 51년 6월인가 7월에 우리 25사단이 화천근처에 있을 적에, 아, 이것이 하나 기억나는군요. 서울을 부대가, 우리부대가 진격을 해서 점령을 하고, 우리부대가 있었던 청량리역 근처에 「시조사」라는 잡지사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은 빨간색 벽돌로 된 건물 여러 곳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우리부대가 주둔해 있었고, 그 다음 점점 화천, 더 북방으로 진격을 하는 도중 고열, 아무렇지도 아프지도 않은데, 37~8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육군병원, 육군병원이 아니라 뒤로 후방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설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한국군 육군병원, 36육군병원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돈암동 네거리에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국군 36육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게 51년 6, 7월경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투사로 배속되었던 것이 50년 9월초라고 한다면 사실 1년도 못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완치된 것이 한 8, 9월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국군으로 원대복귀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퇴원되면 내가 소속되어 있었던 25사단으로 복귀할 줄 알았더니 너희들은 한국군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한국군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의 병원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있던 부대에 가서 소지품을 가서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내가 있던 부대에 가서 내 소지품을 챙기려고 봤더니, 내 이름으로 온 두꺼운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뜯어서 봤더니, 육군본부 고급부관이름으로 문창순이는 내 이름으로 귀관은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육군본부 인사국으로 출두하라! 상라도 못할! 이등병인가? 당시 내 계급을 모릅니다. 내가 당시 육군 일등병인가, 이등병인가,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당시 카투사, 카투사들이 겪는 천대, 차별대우, 고독, 내 눈에 띄는 대로 그대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을 몇 월 며칠.. 마치 일기 쓰듯이 해가지고, 참모총장 앞으로, 국방장관 앞으로, 심지어는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복무 중에 내셨나요? 현역에 근무하면서 했습니다. 뭐 대답이 있긴 말 건. 당시 한국군에 전우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오. 하루종일 말 한마디 못하는 카투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실정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 상황을 내가 다 그대로 실황을, 이런 사실을 당국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내려 보내 준 것이, 육군본부 인사국 고급부관실, 고급부관실에 유엔군 인사과, 당시에는 카투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부관실 내 카투사 인사과, 그 당시에는 유엔군 인사과입니다. 그리로 내가 발령이 났습니다. 왜 그리로 발령이 났냐면, 너야말로 카투사 생활을 한 유일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전할 수 있고, 또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여기서 근무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발탁이 되어가지고, 전투병 일등병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육군본부로 발령이 난 겁니다. 육군

본부로 발령이 나면서부터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통역장교란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통역장교란 것은 민간인 중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영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단기로 군사교육을 시켜가지고, 불과 두 달 만인가 육군중위로 현지에서 임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보다 했는데, 민간인 출신을 2개월 교육했다고 해서, 군에 대해 아는 것이 적으니까 사병 중에서 이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현지에서 통역장교보다는 조금 더 군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해서, 그런 시험을 친다는 것을 내가 육군인사국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한 3개월, 한 4~5개월 동안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잠을 안자는 방법은 불침번을 내가 맡는 겁니다. 내가 불침번을 맡는다고 하면 다들 고맙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침번을 도맡다시피해서, 졸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면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보충대에서 통역장교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것이 4월 말입니다. 한 일주일만에 결과를 보러 갔더니, 합격이 됐어요. 합격과 동시에 대구에 있는 보충대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집합. 그러니까 시험을 친지 아마 일주일만에 통역장교로 임관이 된 겁니다. 당시 내 계급은 하사. 당시에는 일등병 다음이 하사, 지금 계급으로 치면 상병입니다. 쉽게 말해 육군 상병이 육군중위로. 이거야 말로 한국군에서 많지는 않은 특혜, 특전이었을 겁니다. 남들은 임관식을 했는데, 나는 제외가 됐습니다. 내가 32년 5월 16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51년 5월 4일 날 임관을 했는데, 만 20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년 제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32년생이다. 잘못됐다. 가서 확인해보시오. 어디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내가 영어시험 성적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 20이 되기도 전에 일약 상병이 육군중위로, 아마 한국군에서 이런 특혜를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아마 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장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교가 되어가지고, 한국군 38연대의 창설요원으로 배속이 되었습니다. 대개 1개

연대에 통역장교가 4-5명인데, 이것은 창설부대이다보니 두 사람만이 1개 연대에 통역장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나하고 같이 배속된 친구는 문장은 나보다 나은데, 말이 완전히 병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창설된 1개 연대에 한 명인데, 38연대 각 대대마다 미국 군사고문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통역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같은 동기생보다 영어가 빨리 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가 처음으로 배속된 것이 포로경비로 배속이 됐습니다. 도트 장군이 포로들에게 학대를 당한 이후에 포로경비사를 더욱 강화하게 돼서 막 창설된 38연대가 배속이 됐는데, 당시 내 기억으로는 포로 중에는 아주 과격해서, 아. 포로경비수용소에서는 이것을 분류했습니다. 가장 비교적 남쪽에서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은 영천, 경상북도 영천에다가 수용을 했고,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부산의 하양에다가 수용을 했고, 그 다음은 마산,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영천, 하양, 마산 세 군데고, 나머지는 다 거제도에다가 수용을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은 용초도라는 무인도에다가. 그러니 이 연대에는 나 하나, 둘이지만 이 사람은 병어리니까, 나는 완전히 바빴습니다. 그러니 나는 남보다 영어가 빨리 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부대가 26사단에 편입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부대가 사창리에서 사단 창설이 되어서 26사단 38연대 통역장교로 복무 중에, 52년, 52년 아마 늦가을 아니면 초가을에 육해공군 주재로 미국 및 미국을 위시한 해외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근무할 무관을 보조해주는 보조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년을 마치는 장교는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소령으로 임시계급으로 해서 해외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의 보좌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선에서 후방으로 가는 것만도 영광인데, 1년 후 외국으로 가고, 소령으로 특진을 하고 이걸 뒀. 우리 26사단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통역장교가 20여 명 가까이 있었는데, 적어도 50명 가까이 아파 응시를 했습니다. 1군단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예비시험이니

다. 이것도 운 좋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시험이 대구의 어느 초등학교에 집합하라.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육기관의 2차 시험이죠. 또 합격을 했습니다. 심중팔구는 아마 내가 키가 크니까 키 순서대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과 동시에 바로 개교가, 개학이죠. 개교식을 하고, 그날 국방부 또는 육군본부에서 엄청나게 높은 분들이 내려와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장교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하고 입교식을 했는데, 입교식이 끝나고 8명을 호출을 하는 겁니다. “기관들은 오늘부로 교관으로 임명한다.” 학생으로 합격한 것만도 감지덕진데 교관으로 임명한다니 이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교관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교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영어 과정. 이것이 특수전략정보 과정이다 보니까 따로 그 과정이 없으니까 육군정보학교에 병설로 만들었습니다. 육군정보학교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복장에 있습니다. 당시 모든 한국군은 전투복에 전투모에 군화를 신었는데, 아. 영어 30명, 중국어 20명, 러시아어 10명 총 60명이 합격을 했는데, 60명이 육군정보, 정복, 단화, 이것을 입고 시내에 나오면 대령도, 장군도 저건 어느 나라 군대냐고 물을 정도로 그런 특별대우를 받았는데, 영어 30명을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한반에 10명씩 만들어서 동시에 교관이 3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A반, B반, C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군대식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50주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요일만 빼놓고 그야말로 강행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영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것도 1년을 매일 8시간씩 영어 한 가지만 했으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교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약속을 했냐면 교관들은 다음 1년 후 무관보로 나갈 최우선권을 주겠다. 그렇게 알고 공부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육군본부로 발령이 났는데, 나와 몇 사람은 발령이 안 났습니다. 이건 약속위반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 가면 누가 가르치냐? 1년만 고생하면 더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3년간 붙잡혔습니다. 대구에서 3년간 교관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 과정을 마친.... 난 그 때 육군중위였고, 나중에 대위로 승진을 했지만, 그 안에는 소령, 중령, 대령까지 있었습니다. 뭐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2기생입니다. 2기생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분들이 별을 달기 전입니다. 또 내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같은 과정의 교관을 하다보니까, 내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경력이 많고, 가장 잘 가르치는 교관으로 뽑혀서, 위에서 특명으로 낙제를 시키면 안 되는 학생에게 “문 대위 내가 책임지고 이 학생은 졸업을 시켜!” 거기서는 일정한 성적이 안 되면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무서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총각인데, 그 대상자 대령, 고급장교에게 가서, 한방에서 살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일 많았던 학생은 8기생이었습니다. 8기생들이 혁명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죠? 거기에 내가 1년을 가르친 제자라면, 참, 어떻게 보면 육사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이렇게 1년 동안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유대가 강한 교육과정에서 많은 고급장교들에게. 그런데 난 3년을 붙잡혀 있었던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였겠습니까? 벌써 끝났지. 내가 제대하게 57년이니까. 57년에 4기생이 또 남게 되었습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내가 만기가 돼서 만기제대로 교관을 면하고 퇴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기생을 안 가르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나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나와 같이 교관으로 들어간, 심지어는 교육생까지도 외국무관으로 나가고 아니면 보좌관으로 나가고 또는 거기다 못나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 군인들이 제일가고 싶어 하는 데가 CIC, HID, 국방부 인사국, 또는 육군본부 인사국, 전부 이런 자리로 가고 있는데, 나는 끝까지 교관으로

남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한탄도 하곤 했는데, 내가 3년 있다 보니까 영어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제대와 동시에 운이 좋아서 미국대사관에서 직원모집을 하는데, 또 거기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대사관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남보다 많았는데, 내가 8남매의 장남이고 시골에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대사관은 그 당시 5일 근무를 했습니다.

정확한 출근시간이 있고 정확한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나가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겠다해서 새벽반 강의를 하고 출근을 했고, 퇴근하고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미국대사관에 나간다는 타이틀로 학원에서 타임, 뉴스위크, 고급영문해석, 고급영작문 과정을 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타임, 뉴스위크를 가르치는 학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서울에 있는 모든 학원이 시사영어 과정으로 타임, 뉴스위크를 가르치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학생을 내가 독점하다보니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독립을 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느냐?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바로 그 건너편에 어디였냐면, 내가 있던 학원은 지금의 YMCA, 지금이나 그때나 YMCA 자리는 그 대론데, 그 바로 앞에 내가 시사영어학원이라고 조그만 한 칸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서울의 시사영어를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독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좀 벌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에서 생활영어강좌가 있었는데, 내가 뽑혀서 5분 영어라는 제목으로 원고도 쓰고 해설도 하고 강의를 맡아가지고... 1년 계약으로 했는데, 더 계속하라는 청취자들의 요청으로 2년인가 3년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텔레비전에 얼굴도 나오게 되어 돈도 좀 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간단한 인생기입니다.

전쟁 중에 피난하면서 가족들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헤어
진 후 교관생활 중에 연락이 되신 겁니까? 정전 후에 연락이 되신 겁니
까? 정전 후에 완전히 연락이 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연락이 났습니다.
덧붙일 얘기는 나하고 같이 피난하던 친구로, 나는 남하할 적에 이 친구는
고향에 들어가서 인민군들에게 강제로 끌려갔어요.

의용군으로 참전했습니까? 의용군까지는 안 갔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부역을 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그 이후의 생활에 어
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걸 보면 내가 잘했구나. 내가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투의 계
속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전투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나머지 시
간은 지루할 정도로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미국 군인들은 그 당
시 위문품을 보낼 적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꼭 읽을거리를 보냅니다. 책이
든지 만화든지. 그런데 이놈들은 거들떠도 안보고 다 버리는데, 내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무조건 읽었습니다. 책이 없으니 한 개를 가지고 몇 번씩
읽고, 한 가지 얘기를 더하겠습니다. 내가 춘천고등학교에 간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6·25가 났습니다. 나한테는 춘천고등학교에 갔다는 것이 자랑
이었는데, 불과 1년 몇 개월 만에 6·25가 났으니, 그리고 내가 현역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내 친구들은 대학에 가고, 나는 현역이니까 졸업장이 없
고, 내 만50세에 제대를 한다면 50세에 내가 어디를 가서 고등학교 졸업
장을 따겠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낙망했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때를 썼습
니다. 나를 어떻게 할 거냐? 학교가 난감했던 겁니다. 방법이 없었던 겁니
다. 현역인건 확실하고, 학생이었던 것도 분명한 근거가 있고, 학교가 나
를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하여 복학을 허락해 줬습니다. 현역군인이 복학을
하게 됐지 뭐니까? 그래서 몸은 일선에 있으면서 재학으로 해가지고 나는
군대생활을 하면서 졸업장을 땀고, 그래가지고 나는 모교의 특별배려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땀고,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구에서 교관생활을 하면서 대구에 처음생긴 청구대학이라는 야간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대구의 청구대학이라는 처음 생기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제대를 하고 보니까 대구에서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미국 대사관의 위치가 지금, 시내 한복판이었는데 지금 빨리 생각은 나지 않지만, 여기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국민대학이라고 청와대 가는 쪽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국민대학 야간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한 달에 몇 번씩 못나가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것이 정식교육을 받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어에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시사영어에, 최고급 영문해석에, 최고급의 영작문을 가르쳤다는 것을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은퇴를 하면 방문을 가보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안 가본 놈이 영어로 먹고 살았으니 아이러니죠. 그리고 나는 평생 다른 직업 가져본 적 없었고 종신 영어로 살았습니다. 내가 은퇴한 다음에는 나는 가톨릭 신자인데. 그래도 이게 썩기 전에 어떻게 봉사할 데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다행히 대전에 있는 가톨릭대학에 나가서 일학년, 이학년 교양영어를 맡아서 약 십년 가까이 교양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의 상당수가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됐습니다.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신학교는 입학을 한 다음에 만 9년이 넘어야 서품을 받습니다. 2학년을 마치면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은 의무적으로 군 입대를 시킵니다. 2, 3년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3학년이 되고 그래서 또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과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한 15~16명의 내가 가르친 신부가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지만 한 7~8년 후에는 나한테 영어를 배운 사제가 적어도 200~300명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일생에 돈을 남보다 더 벌었다는 것보다 내가 배운 영어를 남에게 봉사했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손영준 구술 개관

- 구 술 자 : 손영준
- 먼 담 자 : 성연춘
- 먼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기
- 먼담 일시 : 2011년 9월 17일
- 먼담 장소 :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사무실

● 구술 내용

모였던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한 700~800명 정도 됐습니다. 7월 달에 밤에 키순으로 세웠어요. 우리는 키가 작아서 잘렸어요. 나머지는 교실로 들어가라. 그 당시 군복도 없고 교복에 학도호국단 표시만 있고 그래서 결국은 대구에서 먼저 간 사람은 포항으로 가는 줄 몰랐죠. 그러곤 남산초등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앞에 가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교육받으러. 우리는 이를 더 자고 기차타고 경산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기차에 헌병이 8명이 들어와요. 못 내리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한 칸에 거의 100명 찼어요. 남은 애들이 1,000여 명 남았어요. 갑자기 기차가 안 가는 거예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사는 주먹밥을 주는데 그게 먹힙니까? 흥분이 되가지고 안 먹힙니다. 학도호국단 노래를 불렀어요. 목이 터져라고. 그러다보니 한 오후쯤 되서 아침 10시에 차를 탔는데. 한 2, 3시 돼서 기차가 중앙선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의성을 지나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보니까 피난민들이 내려오는 거야. 피난민인 줄 몰랐죠. 모르니까 헌병대는 안 가르쳐줘요. 모른다고.

그때 우리는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모르죠. 그때는 피난민이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니깐, 새벽에 4시 그때 여름이니깐 날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의성 지나서 군위 지나서 왔어요. 그때 안동 밑이었어요. 근데 간이역 비슷한 곳에 차를 대니까 내리는 거야. 학생들 전부 지쳐서, 그리고는 조금 있다 그 당시에 일본 닛산 트럭이 있어요. 길거리에 배치가 돼있는데 학생들 내려서 몇 명씩 자르는 거예요. 몇 사단 몇 사단 배치를 하는 거였죠. 저희는 아무도 몰랐죠. 3사단, 4사단, 6사단 이렇게 나뉘었어요. 우리는 배치를 받았는데 7연대로 받았어요. 제가 군번이 1705087인데

군번이 등록이 됐습니까? 되질 않아요. 그 당시에 학교 모자 쓰고 형산강이라고 있어요. 포항으로 흐르는 강인데, 인민군들은 말 타고 내려가요. 지휘관들은 타고 내려오고 소대장이랑 기마병들이 내려오는데.

훈련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훈련이 어디 있어요. 학도호국단에서 받은 교육훈련이지. 배치시키고 총은 그냥 M1총을 그냥 주는 거야. 우리가 배치 받을 때 새벽에 M1총이랑 대검이랑 실탄 6발 그거밖에 안줬어요. 그게 아마 12줄 우리 학생들이 8발 나가고 나면 노리쇠가 후진이 안되면 고장 났다고 그랬어요. 장전을 할 줄 모르니까 M1총 누르고 장전을 해야 되는데 몰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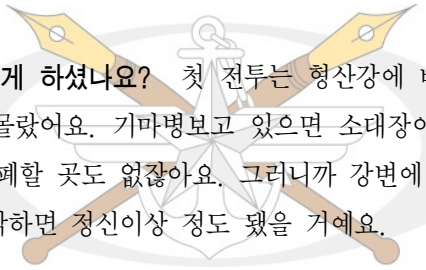
그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그때가 일주일 7월중순경. 그때 당시만 해도 부상병들이 실려 내려가고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불타는 조국애를 가져도 떨리는 거예요.

제6사단 7연대 1대대 몇 중대였습니까? 군번은 받으셨습니까? 군번

은 저기 진격을 하면서 제가 군번받은 날은 9월 15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냥 가라는 말도 안하고 그냥 계속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배속이 되었으니까 학도의용군이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린 거야.

지휘는 누가하셨습니다까? 지휘는 그 당시에 장교들이 하고 처음에는 우리 소대장은 동아대학에 다녔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현역장교였습니까? 현역장교 아니죠. 학도의용군 중에 상급생들이 중대장, 소대장 말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첫 전투는 어떻게 하셨나요? 첫 전투는 형산강에 배치시켰는데 그때는 전쟁이 뭔지 몰랐어요. 기마병보고 있으면 소대장이 쏘라고 하면 은폐해야 되는데 은폐할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변에 배치시켰어요. 그런 게 지금도 생각하면 정신이상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적도 대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개들은 말 타고 파발총을 쏘고 가는 거예요. 앞이 안보이죠.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무력이 안돼서 후퇴해서 밀리는 거예요. 철수하는 거죠.

매복해서 쏘면 적 쪽에서도 사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나중에는 보니까 다리 맞고, 팔 맞고 인민군들은 계속 밀려들어오고 철수를 하면 후퇴를 하는데 협조를 안했어요. 한 몇 천 미터 도망가고 나오게 되면 또 매복시켜서 또 하고, 또 하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몰랐나요? 모르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내려

갔나 하면 신녕, 영천전투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더웠어요. 8월 달인데 신녕전투 때 저는 학도호국단에 있었으니 그 때만해도 육군보병학교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동래중학교에 있었어요. 결국은 3학년 이상되면 보내고 했어요. 지금 알아보니까 지휘관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저는 가서 일주일 교육을 받아서 이질에 걸려서 살았지. 그 당시 임관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보병학교에 입대하신 이후는요? 입교했다가 이질 걸려서 누굴 만났냐면 학교에서 우리 배속장교 대위 분을 만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육상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놓으니까 그 당시만 했어도 이질 걸리면 별도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어요. 그러다 결국 운 좋게도 배 대위로 하여금 7연대 그때 당시 팔공산 기슭에 있다가 영천으로 해서 문경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본부대하고는 약 20일정도 뒤늦게 따라갔어요. 그 당시 어린 몸으로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가질 못했어요.

집으로 가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어리석은 생각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찾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1950년도에 10월 26일날 압록강에 갔었어요. 결국은 중공군이 나와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임부택 씨가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초산에 태극기를 꽂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후퇴를 하느냐 말이야. 안 하는 거예요.

포위됐지 않습니까? 포위됐죠. 그런데 포위됐는지 몰랐어요. 압록강변에 있는데 여기다 배치를 1중대, 2중대, 3중대 배치를 했는데, 압록강의 뗏목에다가 총을 못 쏴게 하더라고. 인민군들 뗏목타고 가더라고 내가

봤어요. 전쟁기념관에 자원봉사활동하고 있는데 가서 실제 사진을 보니
너무 그냥 가슴이 벅칩니다.

영천에 있다가 복진을... 저는 복진을 할 적에 문경을 지나 청주를 지나서... 그때 당시에 군번을 바꿨어요. 주민번호는 못 외어도 군번은 외웠어요.

그때 계속 교복이 아니라 군복을 받으셨습니까? 올라갈 때 받았죠.
부대 배치되니까 미제군복 받았어요.

그 당시 6사단 7연대에선 선생님을 뭘로 불렀습니까? 정식군인은 아니고, 학생이라고 불렀죠. 야, 야, 임마! 그러면서 그 당시 얘기는 정말 말로 얘기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숨이 너무 급해서. 대단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천 때만 하더라도 개네들은 포로를 때렸지만, 우리는 포로를 때리지 못했어요.

영천 6사단 7연대요? 영천은 보면 8사단 만들어서 한 적이 있는데, 이상훈 대령 그 양반이 결국은 거기에서 9월 달에 명령이 떨어져서 총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얘길 아셨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신녕전투 때 얘기 들으니 부산항에 LGT배가 말이죠. 수천정이 왔어요. 왜냐하면 무너지면 타고 건너가야 된다 해서 우리 군인들끼리도 나왔었다니까요. 우리 학도의용군들이 한 7만 정도 됐을 거예요.

7만 정도가 전부 다 군번은 못 받은 상태였나요? 네. 그러다가 진격

하면서 집에 가는 애들도 있었고...

어느 순간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은... 보내줬어요. 하지만 우리 6사단에선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51년 4월달에 결국은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미 저는 51년도에 압록강에 갔다가 연천으로 후퇴를 해서 연천에 배치돼있는데, 결국은 1·4후퇴를 하게 됐잖아요. 연천에서.

초산에서 포위됐을 땐 어떻게 되셨나요? 초산에서 일단은 지도로 보면 고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장까지 우리 GMC를 찾으러 가서 정식으로는 우리 미군 GMC 차였는데 그 차를 지스차라고 하더라고. 그 차를 타고 1대대에서 노획한 겁니다. 노획한 거 만해도 100이 넘었어요. 운전할 줄 아는 애들은 전부 탔어요. 고장에 갔는데 가면 못 내려와요.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교량이 파괴됐다는 거야. 그 교량을 끊어서 차량을 운전해야 되는데 공병들 동원해서 나무를 잘라서 겨우 교량을 이었어요. 잇고 난 다음에 12월달에. 근데 앞에서 신호탄이 올라가는데 포탄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멈춰있는 상태에서 추격해와서... 그렇죠. 도하를 했다가 올라가기 전에 총을 든 채로 배낭도 못 메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 뛰어내리는 놈이 총을 가진 애도 있고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뒤에 가면 백산이 있어요. 백산에 올라가니까 7연대 연대장이 그다음 장교들, 사병 600명 정도 있었어요.

완전 패잔병이었네요. 패잔병이죠. 고문관에 무선을 쳐서 헬리콥터 와서 엄호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돌고, 낙하산으로 내리는데 바람이 부니 북쪽으로 가는 거야. 무거우니까. 실탄하고 총 든 거 전방에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포장을 뜯으니 담배, 건빵 이런 거만 들어있지 무기는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연대장이 타고 갈려니까 전부 그냥 못간다고 사병이 통곡을 하는 거야. 고문관 세 사람만 태워가요. 그때부터는 연대장이 뭐라고 하면 10명씩 1조를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운 좋게도 청천강으로 가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니까 아군들이 집결돼 있는 거예요. 산불을 낼 뻔했어요. 우리 부대 앞에만 그랬어요. 그러다보니 애들이 산이 불타니까 도망가서 청천강을 건너오면서 밤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 장병들이 잡혔으니까 지키라고. 청천강을 건너면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 중대만 해도.

그 당시 계급이... 일등병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어리셨는데, 나는 집에 가도 될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예요. 그 당시 진격할 때만 해도 전쟁인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공문을 받은 게 그전에 학생이었고 그 후로 군번을 받아서 군인이었지.

그 다음 전쟁 끝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언제 제대를 했냐면요. 1953년 7월 19일 날 백암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백암산에 인성훈 대령이 연대장으로 와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일등중사였습니다. 8월 달에 제가 2등상사로 진급한 걸 알았는데 7월 19일 날 말하자면 부상을 당해서 후송이 됐어요. 저는 억울하게도 다음달에 2등상사로 진급할 때도 1등중사로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전역하실 때 나이가 19살쯤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21살쯤 53년 7월 19일 날 부상당해서 울산까지 후송됐다가 제대했어요. 학교

를 복학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못다녔죠. 저는 국방부 학도의용군이 나온 게 7월 8월 9월로 나왔어요. 나머진 현역이 됐으니까.

학도의용군의 보훈혜택이라던가 그런 거 없으셨습니까?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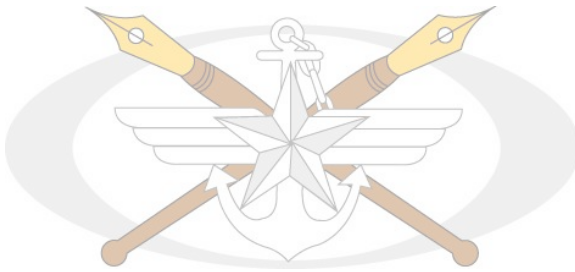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그럼 현역병이랑 똑같은 예우를 받으셨나요? 그렇죠. 6·25참전 유공자란 사람이랑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조금 아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만 해도 10원하나 간게 없어요. 광주민주화운동이 퍼지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만 했어도 가스설비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송정에 가면 유리컵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향토예비군 무기고에 가서, 칼빈총이에요. 거기서 나눠주더라고. 나는 그 당시에 차를 뺏겼어요. 나중에 차를 찾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는 혜택을 보는 게 국가에 초산지구에서 육군 일등병 때 화랑훈장 받은 게 있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져요.

훈장받고 하시는 게 의용군 신분인 사람으로... 이미 벌써 의용군은 현역으로 됐으니까.

의용군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학도의용군얘기할 때 학생이었다는 분도 있고 학적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연령대가 소년대라고... 학도의용군 말 자체가 학생의 신분으로 나라의 부름에도 받지 않고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소위 나이가 동갑이니까 학도의용군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뭐냐면 학도호국단에서 다 군사훈련 받았어. 일주일에 군사훈련을 두 시간씩 받아.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화 그런 게 아니라 애들한테 군사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국가관이 없어요. 한심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학도의용군 보면서 학생들보면 다 그냥 데리고 가버려요. 선생님도 설명도 안하고



● 경서호 구술 개관

- 구 술 자 : 경서호
- 면 담 자 : 김은비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기
- 면담 일시 : 2011년 4월 18일
- 면담 장소 :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사무실

● 구술 내용

안녕하세요? 구술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국가관이 없어. 우리는 그 당시 6·25사변 전에는 학교에서 군 사훈련을 받았다고. 누구나 국가에 대한 이념이 투철했어. 그리고 우리 세대는 왜정 때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이야. 일본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소위 일본의 ‘야마도 다마시’ 일본의 정신. 투철하잖아. 그래서 그 정신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남아있다고. 지금도 남아있다고.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그때 그 사람들하고는 질이 달라. 사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학도의용군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나라가 없어요. 낙동강 최후의 전투에서 우리 학생들이 총받이 아니야. 부산까지 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사수했잖아. 그러니까 이념이 달라요. 우리는 자발적이야.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나간 사람들이 학도의용군이지. 누가 나와라, 너 나와라 해서 나간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6·25났을 때 부대에서, 각 대대나 연대에서 부관들이 이리이러한 전투가 있는데 급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가자, 가자해서 자발적으로 했지 강제로 한 것은 없어. 참전과정은 학생 신분에서 나라가 위급하다는 걸 알고 나간거지.

국가에서 학도의용군에 대한 예우는 하나도 없어요. 국가가 위급할 때 전투에 참전한 우리 학도의용군한테 아는 척하는 사람 없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되고, 후손들이 잘 사니까 흐뭇한 거야.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는 어떻게 결성된 단체인가요? 단체가 여러 곳이 있던데요. 우리 단체가 이게 모체인데, 1955년도에 우리 학도의용군회를 만들었어. 6·25전쟁이 휴전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휴전이 된 후에 학도의용군회를 소집을 했지. 우리가 작년부터 안보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의 상황과 참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시겠어요? 내가 당시 1950년 6·25당시 중학교 5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피란을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인민군들이 그 당시에 춘천을 점령해가지구. 그때가 언제냐면 7월 8월쯤 됐을 거야. 인민군들이 소위 의용군들 모집하고 그랬다고. 나는 인민군들이 싫어 가지고 산에 숨어있다. 밤에 내려와서 어머니가 해준 주먹밥 싸가지고 새벽이 되면 다시 산에 올라가고 그런 거야. 9·28 수복이 돼가지고 춘천에 8사단 21연대가 들어왔다고. 8사단 21연대 2대대 그 당시 8기생 송택구 중위. 대대부관. 당시 대대부관이 중위야. 이 양반이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송 씨라. 이 양반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내가 이제 얘기한 거지, “나 형이랑 같이 나가겠다”, “너 가겠느냐?”, “좋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딜 가느냐 그랬는데, “난 가겠다” 그래서 당시 내가 뭐였냐면, 당시 학교 동기들, “난 군대 가니까 너흰 오고 싶은 데로 와” 해가지고, 그 당시에 농협학교, 사범학교 한 80여명 나왔다고. 그래서 복진을 한 거야. 우리가 중학교 4학년 때, 우리는 근로동원을 해가지고 호를 땀다고. 38선 근로간 호를 땀는데, 1주일씩 가서 호를 파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서 싸웠거든. 상당히 감개무량 하더라고. 그 당시 연대장이 하갑청 씨야. 내가 알

기론. 이양반이 작전명령을 내리고 할 때 보니까 하갑청 씨야. 그 양반이 21연대장인데, 싸우다가, 복진하다가 우리가 다시 후퇴했거든. 그래서 횡성 전투에서, 그러니까 고탄 전투. 거기서 전투했어. 우리가 횡성전투에서, 당시 8사단, 5사단, 3사단이 거기서 망할 때야. 사단기를 거기서 뺏겼어. 우리가 그때 오마치 고개에서, 우린 거기서 수색대거든. 수색대는 소모품이야. 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고해주고. 아주 갖은 고생을 다했지. 그래가지고 고탄 38선 근교까지 갔다가 후퇴해가지고, 삼마치 고개가 그때 그게 1·4후퇴야. 51년도 1·4후퇴가 그 때라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밀려가지고 중공군이 내려와서. 그 때 나간거지.

송택구 중위를 만나셨을 때가 서울수복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계속 댁에서 계셨던 겁니까? 송택구 중위가 오기 전까지는 숨어있었지. 집에서. 우리 동기들도 의용군 많아. 나한테 오고, 애 어디 가서 없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거짓말 한 거지.

그 전에 참전하시기 전에는 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갔던 일이 별로 없었던 건가요? 없었지. 재탈환해서 나갈 때 그 때 나간거지. 전쟁 때.

횡성전투 참전 이후에는요? 횡성전투 이후에 우리가 8사단이 공비토벌을 나갔다고. 공비토벌은 8사단이 대구에서 재집결해서, 사단사령부가 대구고, 21연대가 경산이고, 10연대가 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병력을 해가지고 공비토벌을 간거야. 전라도 지리산공비토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에 사령부가 있었다고. 공비토벌도 하고. 51년도까지 하다가 52년도에 학생들은 다 학교에 복귀하라고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거지. 그래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 나와 가지고....

공비토벌 때도 군번 같은 건 없었던 거죠? 현지입대 하라는걸 나는 공부하겠다고 그랬지. 학도의용군으로 갔다가 현지입대한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나는 공부를 더 해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현지입대를 안했지)

이후 국가적 예우에 대한 의견은요? 나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한 게, 불만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숨은 사람이 많다고. 전쟁에서 숨어서 일한 사람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국가를 위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겉에서 드러나는 사실도 아니고 구경하고 이러던 사람들한테는 국가에서 혜택을 준단 말이야. 난 국가에 달라고 안 그래. 국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 단체의 회원 중 그들의 증명을 어떻게 하시나요? 나는 회원들에게 이걸 받고 있어요. 그 당시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를 보면 금방 다 알아요. 50년도에 학생이라는 거. 대개가, 내가 33년생인데, 옛날에는 사망률이 높아서 1년쯤 늦게 올린다고. 뭐냐면 35년~30년생들이 다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학도의용군들이예요. 보면 금방 알지 뭐. 학도의용군이냐 아니냐는 실제적으로 병적증명서랑 학력증명서만 보면 다 알아. 주민등록등본이랑 병적증명서랑 학력증명서를 다들 내가 지고 우리 회원들은 이 서류들을 구비하고 있어요. 금방 알지 뭐. 아니라는 건 금방 우리가 아니깐.

당시 57년도인가에 병역법이 개정됐어요. 학도의용군을 간 사람은 병역필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당시 참전정력을 다 쓰고 증명사진 있는 사람들은 다 냈다고. 그래서 그 당시 한 사람들은 다 된 거라고. 근데 지금 가짜라는 건 뭐냐면 국가 뭐~ 그냥 한 거야.

내가 진짜 가짜 따질 수가 없거든. 넌 아니다, 기다. 그러나 서류 가져와봐라.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아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 못받는 거야.

실제 참전한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한 2~3만 밖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1만 명도 안 될 거야. 다 가짜들이 많아 가지고.

훈련은 못 받으셨죠. 훈련이 어디 있어. 그냥 들어가지고 총 분해하는 거, M1과 카빈을. 당시 M1이 나한테 끌렸어. 당시 M1이 얼마나 무겁던지 말이야. 지금도 국군들이 M1을 모르잖아. 당시 M1 소총분해하는 거 알려 주고, 총 쏘는 거, 몇 번씩 한 번씩 봐보고. 수색대대에 선임하사들 있잖아. 의용군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만 알지, 전체적으로 말이야. 너무 많이 알면 다 가짜야. 어떻게 알아? 기껏해야 나도 연대장 하갑청인거 알았지.

그때 우리하고 같이 간건 1대대, 난 2대대인데 당시 각 대대로 분산됐거든. 그때 간 친구들 다 죽었어. 죽은 사람 많아.

정기적으로 병력이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보충된 거군요. 그럼~ 그때는, 밥 먹는 것도 당시에 주먹밥을 소금 뿌려가지고, 신문지도 없었어. 갈잎에다 싸서 가고 그랬어. 지금 군인들한테 주면 죽인다고 이런 걸 먹느냐고 그럴 거야.

특별히 지휘체계는 있었나요? 지휘체계 측면에서는 수색소대장이 있었지. 이름은 안... 안소위였어. 1개 소대를 그 사람이 지휘했고, 그 사람이 명령하면 따르는 거야. 그때 무전기. 지금 생각하면 성능이나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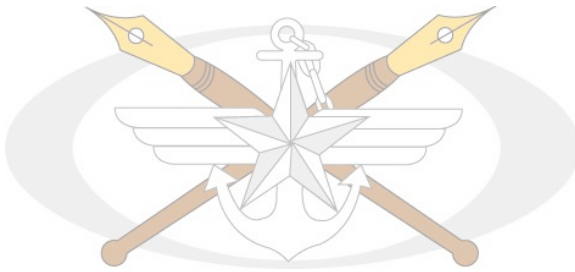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학도의용군들이 기존의 병사들보다 훨씬 어렸을 거 아니에요? 챙겨주거나 그런 건? 그런 게 어디 있어. 서로 살기 바빴지. 전시인데... 게다가

우린 보급품도 없잖아. 우린 보급도 못 받아~ 난 그때 횡성전투 때 우리 옆에 영국부대가 있었거든, 근데 중공군들이 와서 포위하고 했을 때 거기서 영국군이 총을 맞아 죽었어. 근데 파카가 너무 좋아. 그래서 파카하고 총이 카빈, 그때 M2가 있었다고. 우리 한국군은 M2가 없었어. 그걸 내가 파카를 벗겨 입고.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죽은 사람 벗겨 입었어. 추워가지고. 그리고 중공군이 있잖아. 밤에 물이 먹고 싶어 가지고, 그게 어디냐 하면 단양이었던 것 같아. 물을 엮으려서 먹는데, 엮으려서 물을 먹고 나니깐 중공군 시체야. 물을 먹었어. 캄캄하니까~ 근데 보니깐 중공군 시체한테 물을 먹었어. 모르는 거야. 지금 애들은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우린 전쟁 직접 해봤으니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데, 나는 사람을 죽여 봤다고.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군인들한테 국가관을 줘야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 다들 잘들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더 주입시켜가지고, 우리 전쟁할 적에는 반항이 어디 있어~ 뭐 시키면 서로들 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잖아.. 그래도 요즘 좀 나아졌어. 내가 느낀 것은 연평도하고 천안함사건이 우리 국민을 자극시킨거야. 그래서 아. 내가 됐다. 지금 우리가 단합할 수 있는 길이다.. 간첩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 이 사건 나가지고 대통령이 정신차려가지고, 난 지금 국방부장관이 참 맘에 들어. 개혁하고 그러는 게 참 맘에 들어.

또 다른 경험담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부대가 횡성전투에서 포위당해 가지고 없어진 거야. 어디로 집결~! 포위당해서 부대가 없는 거야, 사단기 뺏겼는데 뭘~ 대구로 집결해라 해가지고 다 모이고 그 이후에 다시 공비토벌 들어간거지. 공비토벌 할 때는 별로 안 힘들었어. 산 뭐 해가지고 그냥 지키고 있는 거지 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나는 전쟁 끝나고 대 학나와 가지고, 바로 공무원 임용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서 공직생활 쪽 하다가 정년되니까 학도의용군 조직이 돼가지고, 내가 20대 회장인데, 학 도의용군들이 일을, 조직이 되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한 분이 없어. 왜냐하면 회원들 간에 복지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거 한 게 없고 그냥 뿔뿔이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내가 회장한 이후로 단합이 돼가지고, 정부서 뭐 한다 나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런다고. 왜 그 러냐면 리더가 하기에 달렸어.



● 홍수용 구술 개관

- 구 술 자 : 홍수용
- 면 담 자 : 성연준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9월 19일
- 면담 장소 :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사무실

● 구술 내용

전 알고 싶은 게 학도의용군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느 학교에서 무슨 학생활동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학도의용군에서 어떻게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을 인터뷰하니깐, 계속 군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복귀하신 분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1950년도에 북괴군이 남침을 해서 개전과 동시에 며칠이 안돼서 수도 서울이 함락 됐습니다. 피난민들이 내 고향 대구까지 내려왔죠. 그때 당시 학교에선 학도호국단이 편성돼서 기초적인 훈련만 받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 대열에 끼어서 더 남하하느냐 안하느냐 갈 때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대구 어느 학교를 다니신 겁니까? 저는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5년제 중학교인데, 4학년 17살때 초등교원 양성소에서 중교사 자격증을 양성 받습니다. 시험을 치고 9월 학교에 입학하기로 예정됐는데 6·25가 터졌죠. 학교를 나갔는데 정상수업은 안되고 갈 때마다 학교에선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중심이 돼서 출정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전 학도호국단 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전시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시민단체일겁니다. 각 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 학생부에 동원

담당자로서 봉사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친구들이 전부 중군 권유를 받고 선배들이 지원하는데, 지원병들이 물결을 치고 전송을 하고 군가가 울려 퍼지고 할 때 좀 공허한 감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3사단 직할 학도의용군이라는 곳에서 3사단 김석원 장군 휘하에 중화기 1개 중대 지원병이 필요하다는 전갈이 왔어요.

학교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모병하는 곳에서. 그때는 국방부 정훈 직속 학도의용대라고 학생들을 모병하고 학교마다 와서 권유하고 선배들에게 권유도 받고, 17살인데 너무 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는 일도 전시대책위원회에서 일을 보니까 거리에서 강제로 동원되는 그런 일은 없고 모병소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김석원 장군에 대한 평가는 그때 그분이 성남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교장하다가 일본 육사로 갔었는데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서 3사단장으로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교장으로 있었다보니까 선배들이 피난대열에 따라가 안동 72명이 공항에 집결했다가 8월11일 날 포항사령부 사수 작전에서 48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그 부대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충병으로서 대구에서 120명이 출정했죠. 자원입대해서.

그럼 급하게... 예. 그렇죠. 아마 그때는 경상북도 도청 광장에 많은 지원병들이 와서 부대별로 필요한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 데리고 가고 했죠. 보충대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밤 우린 포항으로 동네친구들 학생 동기를 가서 포항에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부터.

그럼 교복을 입고 계셨습니까? 예. 군복도 없었죠. 없는데 이틀 후에 M1소총을 지급받았어요. 낮에는 그 총을 가지고 분해결합. 그때 군복도 헌거 그런 걸 지급받고 갈아입고 야간엔 사단사령부 전방, 후방 경비에

입하고 주간엔 보초병만 두고 다시 들어와서, 군사훈련 받고.

3사단에서 신병훈련 받으신 겁니까? 포항... 네. 포항에. 근데 그 당시에 학도병으로서 학생들만 구성되어 있는 곳 중에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72명이 1기생으로 가서 48명이 희생당한 전투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희생들이 잇따랐죠. 72명의 학생들은 거의 48명이 죽고, 나머지는 포로나 부상당해서 그 부대재건을 해서 다시 입대한 것이 우리 입장이 됩니다. 갔을 때 그게 8월 24일 경인데 거기서 아까 말하다시피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포항 북방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효자동 전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학도병만 있던 부대가 그럼 지휘는 누가 했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72명 학생들은 순수하게 대학생이 중대장, 소대장 편성했지만 우리 2기생들은 1소대, 2소대는 육군 소위 한 분이 지휘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3, 4소대는 육사 1기생으로 소위 임관해서 남상선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그 분도 작고하셨죠. 부대를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실탄 사격, 실전한다고 배치된 곳이 최전방이었습니다. 효자동 고지라고 1, 2소대는 최전선에 배치되고 3, 4소대는 조금 후방이었나 봅니다. 근데 밤새도록 운전을 하고 그냥 지휘관들 시키는 대로 사격하고, 비도 오고 그런 상황에 전투를 했죠.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투가 시작된 건가요? 예. 훈련이 아니죠. 그냥 실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죠. 무조건.

선생님은 어느 소대였죠? 난 1소대 최전방이죠. 근데 제가 같이 갔던 친구 고등학생이 포격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시체라도 수

송하겠다고, 총탄이 막 오니까 무작정 사격을 하는 걸 하고 그래서 전투 첫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밤이 되니 사단공병대가 학도병 전원 철수하라 그러곤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따라 내려갔죠. 내려가서 3, 4소대 남상선 소위가 후방에 갔죠. 근데 많은 희생자를 얻고 다들 찾으러 왔다만. 거기서 정비해서 다시 경북 도구라는데 가서 부대정비하고 그 무렵이 아마 인천상륙작전 성공했을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아군이 반격을 했죠.

선생님 몇 월 몇 일부로 입대한지 기억나십니까? 8월 24일입니다. 포항에 다시 들어가서 복진을 하는데 그 전에 김석원장군이 사단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이종찬 장군한테 사단장 이임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이임식이라고 학생들 모아서 훈시하고 가는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이종찬 장군은 학생들이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48명이나 희생을 했으니, 더 이상 학생들 희생이 없도록 할 테니 배려해달라는 부탁을 하니까. 나를 다시 따라 올 생각 말고 부대생활에 충실히 하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느 장소였습니까? 모여 있는 상태예요? 전선에서요? 후방이니까 강당도 아니고. 뭐 공터에서.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은 사단사령부 경비가 주 임무였습니다. 그 전투를 끝으로 해서 노소연이라는 사람은 행방불명이었으니까 좋지 않게 보고 있죠. 우리를 버렸다. 그때 당시 17세의 나이에 지휘관이라는 존재는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전선에 투입시켜놓고 전황이 어떻게 불리했던 간에 마지막에 학도병들을 수습해서 후방안전지대나 후퇴나 전진이던지 지휘체제가 없어지고 우리끼리 그냥 분산해서 3, 4소대가 있는 곳으로 철수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노 소위가 없어지고 남상선 소위 체제로 소대가 사단사령

부로 복진했습니다. 그때 복진방법은 군용차량이 이런 게 있어서 작전지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단 전투부대가 빨리 복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성을 출발해서 강원도 강릉까지, 의성으로 복진을 했습니다. 강릉에 상륙하고 다음에 부대를 재편해서 사단에서 움직이는 차량으로 복진했죠. 근데 배를 두 척에 나눠서 타고 오는데 제가 탄 배는 강릉까지 잘 갔는데 나머지 배는 오다가 목포라는 곳에서 인민군 패잔병 기습을 받아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또 그때 부상당해서 지금 또 만나는 사람 한 분(손용길, 개명해서 현재 손주형) 있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귀향했을 때 그땐 군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치료나 야전치료 받으면 말이지요. 부상당하면 귀향을 시켰죠. 그런 게 하나도 기록에 남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복진할 때는 차량으로 가고 그게 복진전투였죠. 전투는 없고 원산 입성해가지곤 저희가 또 사단사령부 경비를 맡고 있을 때, 인민군 패잔병 소탕이라는 특수임무를 띄고 또 민가를 수색해서 머리 뺄뻣 각은 인민군이 있으면 잡아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했죠. 인민군보고 “너 인민군이지?” 그러면 “예.” 대답하면 “이리와!” 또 원산역 광장에 아마 수만 명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 포로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고, 그때 3사단에선 기억하기로는 18연대, 22연대, 23연대, 26연대가 3사단이었는데 원산 입성할 무렵에는 26연대가 수도사단으로 가고 18연대가 백골부대죠? 그 부대가 3사단으로 편제가 개편되지 않았나? 그 사단장님의 특별명령이 원산입성 먼저하는 부대는 1계급 특진한다는 명령이 있었죠. 23연대하고 26연대와 18연대가 경합이 돼서 23연대가 최초 입성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표창받고 우리 학도병은 어떻게 했냐면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상금을 받았습니다. 3만원쯤 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걸로 압니다. 이북 화폐하고 우리나라 화폐는 차이가 나니까 아마 3만원이라고 하면 아마 거액에 가까웠습니다. 풍족하게 썼습니다.

현금으로 다 바꿔서요? 예. 후에 들은 얘기지만 저희가 현역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관에 준 급여가 아닌가. 그때 육군 이등병은 3천원쯤 받았습시다. 그럴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홍남과 다시 복진을 동해안에서 타고 가서 함경북도 길주까지 사단사령부까지 주둔하고, 청진 입성을 앞두고 갑자기 전황이 불리하다는 전보가 왔습시다. 그때 저희들은 간접적으로나마 대통령이 학도병에 대한 복귀령이 내렸다는 걸 들었습시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복고령이 내렸더라도 전선에 있는 일선부대까지도 그게 명령이 전달돼서 적용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있겠죠. 반면에 그대놓고 3사단에서 우리 의견은 무시하고 현역군인으로 그만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군번이 3601 군번과 학도병 군번 038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도병도 그때 군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에 편입되어야 군번이 나오는데 난 현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360844라는 군번을 받고 그때 또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분산 전달이 안됐습시다. 그 후에 안 사실입니다. 대학생 재학생에게는 육군 2등중사. 그리고 중학교 4학년 이상 대학교 미만은 하사, 중학교 4학년 이하는 일등병. 그렇게 특진 조치를 받았어요.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청진까지 갔다가 다시 중공군 때문에 후퇴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LSD로 부산까지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홍남철수작전에 참여했습시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2년을 잡고 있지만은 박인표라는 대원이 보급열차를 보급품 가득 실은 열차를 그때는 북한 사람이 기관차를 운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황이 불리하니까 기관차를 두고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그 기관차를 몰고 홍남까지 갔어요. 물론 그건 소각처리하고 조치를 했겠지만 일단은 후퇴할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학도의용부대에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학도의용군들은 일반부대로 있었습니까? 학도의용 단일부대
였습니다. 사단사령부 경비업무...

사단사령부 직할로 했던 것입니까? 예. 직할학도의용대라 해서 그래서.

그걸 다 한꺼번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본인들한테 통보가 안돼서
몰랐는데 언제 알았냐 하면은, 청진서 후퇴해가지고 LSD로 후퇴해서 부산
에 상륙해서 다시 육로로 해서 경북 포항까지 갔죠. 경주로 다시 나와서
강원도 홍천까지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학도병 해
산하고 현역병 360844 군번이 나왔다고 복교령이 적용돼서 기왕 했을 사
람들도 있는 거 같아요. 저희는 전선에 있어서 전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홍천에서 다시 육로로 495리를 일주일 만에 경북 춘양까지 후퇴를 했습니
다. 그때 사단사령부 조치는 전방에서 내려오는 낙오병들을 무조건 부대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했어요. 먼저 온 학생들은 23연대로 갔습니다. 그 후로
경남 진해에서 온 학도병들이었는데 몽땅 갔어요. 저는 조금 늦게 도착했
는데 3사단 특별부대에 현역으로 그때 육군하사를 받았어요. 그때 중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그때 나이가 19살? 18살 때겠죠. 군번은 03825번 이래가지고 360844
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전역 후에 알아서 항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받고 현역복무가 시작됐죠. 근데 이런 애길 해서 될 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 의문을 지울 수 없고 혼란스러운 것은 학도의
용군들이 참전했다는 사실이 전사 기록을 편찬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리 전시행정이지만은 내가 군번이 2개라는 것은 그때
전역 후에 알았습니다. 그 360844로 되는 게 확인서를 내니까 행방불명으

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방불명입니까? 내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항의하고 2년 6개월 동안 탄원을 내서 육본에선 군번이 부여된 후에 병적이 되어 있으면 관리를 하지, 그 이전엔 모릅니다. 우린 현역복무 했음에도 현역병 대우를 못받고, 근데 기록카드도 50년 7월 24일 입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8월 24일 날 했는데, 물론 전시행정이라 이해는 간다 하지만 사실을 밝히려고 탄원을 하고 기록을 내고 했는데 결국 해답은 그런 해답이고 지금도 탄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행방불명이 돼서 사실은 조치가 되어 있을 거라서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명이라도 국가가 해줘야 될 몫이지, 내가 밝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겁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선 말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모든 기록이 학도의용군에 대한 이 기록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학도의용군의 의용정신은 말입니다. 국난극복을 위해 위급할 때 권유도 없이 자진해서 종군을 했으면 그건 어찌면 후세에 교육적인 가치라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자료발굴과 정부당국의 몫이지 우리 개인이 아무리 어떻게 해달라해도 입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건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게 불만이고 또 제가 22연대 1대대 3중대 병기계 일을 현역복무하면서,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투 중 제가 부상을 당했는데 아주 격렬한 아직도 파편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때는 자대치료를 끝나느냐? 병기계나 행정반에 일하는 사람가지고 제한된 인원가지고 즉각 조치가 안 됩니다. 치료를 하다보니까 약간 경련이 오니까 그다음에 치료하니까 낡아서 보행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대치료로 끝나고 표창장 받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전역하고 난 다음엔 밀린 학업도 계속 하다 보니 차차 부상 부위 후유증이 나타나서 쓰리고, 그래서 증상확인을 보건청에다 서류를 올렸죠. 놀랍게도 올리면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미달이라는... 만약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밝히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국군이 국난극복을 위해서 사실 권유도

없이 우리 자발적으로 한건데 국가상대로 해서 국가소송으로 해서 내 권위를 찾긴 싫으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찾아야할 몫이 아니냐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 줄 사람도 없지만 제 일생에 전투 경력입니다.

그럼 철수하셔서 하사계급을 갖고 계시다가 전쟁 끝나고 전역까진 어떻게 지내셨나요? 현역에서 육군하사부터 일등중사까지 진급한 과정에서 분대장 경험도 있고 소대장도 하고 중대 병기계에서 일을 보고 휴전 직후에 만기제대 했습니다. 22연대에서요, 1954년도.

주둔지는 어딴니까? 강원도 인제, 금화, 원통리 그 일대에서 전선에만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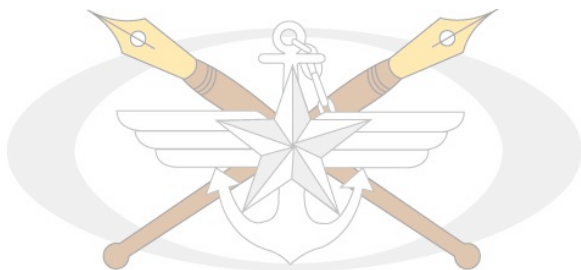
계속 그럼 3사단 사령부에서만 예. 22연대.

그럼 그때 사단 직할로 있었던 학도의용부대가 다 현역으로 전환되면서 현역 군번을 받으시고 후퇴를 하셨다가 다시 패잔병 수습 과정에서 다시 22연대 2, 3년 뒤에 집어넣고 다시 22연대. 저는 사단사령부 특별대대에 근무하다가 한 1년 쯤 있다가 22연대 보충병으로 특별대대 해체하고 다시 22연대 들어가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그때 제대하고 나오니까 내 동기들이 영장이 나왔습니다. 21세 적령기가 돼서 나온 모양입니다. 밀린 학업도 계속해야 되고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을 마치고 그다음엔 그 당시엔 직장생활 충실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대한학도의용군 생존자 동기회라는 것을 그 당시 동기들이 모여서 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기는

김석원 장군이 성남고등학교 교장으로 복귀해가지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때문에 희생당한 학도병들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있었나봐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도 권유를 해서 지금 흑석동에 있는 고 김춘식 이후 48주 학도의용군 현충비가 있습니다. 동작동 말고 흑석동 그건 김석원장군의 힘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개막식을 해가지고 동기회를 만들자 해서 1955년도부터 시작해서 학도의용군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도 바쁘고 해서 등한시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고 김춘식 48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흑석동 학도의용군 현충비는 기념비로서 값어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48명이 전사하고 후속조치는 사실상 48명 유해는 72명 학도병 우리가 두 번째 갔을 때도 기억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겪은 게 포항여고 앞에 그냥 간이무덤을 만들어 놓고 방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역하고 난 뒤 해마다 8월 11일 그날 전국 전문 학도병 추모식을 지내왔습니다. 그때마다 공관계나 정부당국에 유택마련이 돼서 우리 회의 차원에서 요청하고 건의하고 했습니다. 근데 1963년도 9월 24일 제97차 국무회의에서 학도의용군 국립묘지 현충원내에 학도의용군 묘역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엔 6·25 당시 초전에 참전했을 7천여 전문학도병들이 조국 어디서 잠들고 있는 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해로 남아있는 게 48주 플러스 우리 2기생들이 효장전투에서 전사한 2명의 유해를 합장에서 50주입니다. 사실은 그 명단이 하나도 안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고 김춘식 외 48주라는 비목을 근거로 해서 그 무덤을 국민을 거쳐서 학도의용군 묘역을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절차도 대단하게 잘했습니다. 포항, 대구, 대전시청 앞에선 동작동까지 연도에 학생들이 나열해서 그래서 조성된 것이 국립묘지에 현충원 옆에 있는 무명용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도의용군 묘역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위병제는 전국적인 위병제는 11월 3일 학생의

날에 하고 있고 8월 11일은 왜 11일이냐면 기록을 보면 최초의 학도병 전사일이 11일입니다. 고 김춘식 등 48명이 8월 10일 날 포항을 왔다가 전투에 참여해 그런 작전입니다.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 김완기 구술 개관

- 구 술 자 : 김완기
- 면 담 자 : 성연춘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기
- 면담 일시 : 2011년 4월 23일
- 면담 장소 : 여의도 재일학도의용군회 사무실

● 구술 내용

저희가 학도의용군 단체를 조사하고 활동내용 참전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지 또 어떻게 학도의용군이 되어 참전하셨고 그 후엔 어떻게 지내시는지 혜택이나 그런 걸 받으셨는지 여쭙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젊을 때 해외에서 살면 애국자가 됩니다. 일본에서 살다보면 조국 사랑하고, 우리민족 사랑하고 우리 조국이 잘되기를 원했지. 그러다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이 탄생되면서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통일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됐든 미국, 일본이 싸워서 일본이 패전국이 됐잖아요. 이후에 우리도 남북이 서로 간에 차단이 됐었는데 조총련이라는 게 있어요. 조총련 단체하고 거류민단 청년들하고 매일 싸웠어요. 일반인도 있었지만 싸웠는데

6·25가 터졌으니까 해외에 살면 나라사랑이 지독합니다. 옛날부터 일본사람이 한국사람 보고 업신여기고 탄광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전부 한국사람들이고 다 끌려갔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1950년도 6·25가 터지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사람취급을 못받아요. 일본은 공항가면은 미국사람들 신분증 보여주면 그냥 들여보내줬는데 한국사람 가면 다 뒤져요. 전부 나라가 못살면. 지금은 잘사니까 괜찮은데 예전엔 엉망이에요. 그러다가 6·25가 터지니까 전장에 나왔어요.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고 일본 패전국이 되니까 맥아더 사령관이 일본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맥아더사령부에 부탁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우리가 642명밖에 안 왔는데 그 때 지원자가 2,000명이 됐어요.

그럼 민단 소속의 학생들이었습니까?
학생이었지.

그럼 유학생이었습니까?
유학생은 아니고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들은 일본에 나서 자라났고 일본에 유학한 사람도 있었고. 다 모여서 맥아더 사령관 본부에 가서 허가를 맡아야지 지원이 됩니다. 미군이 얼마나 빨리 조사를 했는지 여덟 줄 세워놓고 네 줄을 “뒤로 돌아” 해서 내보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니 조총련 청년들이라고 같이 왔으면 다 싸죽일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도 보시다시피 비행기 조종사가 있잖아요. 박두원이라고 잘 탔어요. 김신 장군이 단장을 할 때 제일 잘 타던 사람이에요. 이북 폭격하러 갔다가 적 총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국가유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 정권은 잘못된 걸 밝히고 있어 서류를 만들어서 정부에 내고 있고 그래요. 얘기 다 하려면 끝도 없지.

학도의용군 단체는 언제 결성되었나요?

1951년에 만들었어요.

같은 부대로 활동하셨나요?

다 달라요. 처음 금화전투에 싸운 사람도 있고 이북에 어디에서 싸운지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비유엔군 사단에 배속 돼가지고 배속이 다릅니다. 642명중에 배치가 다르죠. 중공군이 나올려 하니까 미군이 훈련가라고 했다가 중공군이 나올 거 같으니까 일본으로 보내버리고, 일부는 종합학교에서 장교로 배속되고 일부는 부산에 하사관학교로 보내고 전부 기록이 어디 어딘지 나와 있어요. 9월 달 인천에 상륙기념탑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준. 그 돈은 우리 단체가 중앙정보부 김재규 씨가 있을 때 대통령 지시를 받고 기부금 모아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린 감독하고 보훈처가 만들었어요. 만들 때 위원자금 사용사역 위원장이 했어요. 지금은 행사할 때 미군하고 같이 합니다. 미 8군하고 인천상륙할 때 맥아더 사령관 지휘 하에 2만5천 톤 배를 타고 우리 갔을 때 일본군이 왔다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수봉공원에 탑을 만들었어요.

단체를 의용군 선발한 다음에 바로 첫 투입한 게...

육·해·공군이 낙동강 후퇴하고 우리 군들 다 없을 때 맥아더 사령관이 인천상륙할 때 그 배를 타고 올라온 사람이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부산 일부를 제외하곤 전부 공산군이 점령하고 당하고 있을 때 비로소 맥아더 사령관이 인천상륙작전에 1진, 2진, 3진 나뉘서 북진 대열에 참전해서 우리나라가 굳건한 경제발전에 민주국가를 이루는 기초가 인천상륙작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구, 부산 제외한 국토를 공산군이 점령할 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북진대열에 우리가 참여 안했으면 오늘날이 없죠. 요즘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참전계기가 있었는지, 학도의용군이 어떤 과정이나 전투를 했는지, 단체에 어떤 병과를 하셨는지...

1950년도에 조총련과 민단과의 대결로 일본에 있는 동포들끼리 투쟁을 해 오던 도중에 인민군이 남침을 해서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청년학도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목숨 바치자 자발적인 쫓기와 동시에 자원을 해서 아까 얘기하듯이 아사카 지방사단에 입대를 하는 수속이 수월하지 않았습다. 민단이 맥아더사령부에 참전을 해달라고 기다리는 도중에 우리 조국은 전 국토가 인민군 점령 하에 있었을 때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청년 학도입니다. 그래서 북진대열에서 공산군과 싸워 조국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노병이죠. 지금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어떤 전투에서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일본으로 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투에 참전을 했다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고, 각 전투대에 배치돼서 백마고지 전투, 인천상륙작전 1차, 2차, 5차까지 나눠서 분리돼서, 유엔군사령부에 배치돼서 전선에 북진대열에서 전과를 올렸고 나머지 많습다.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최전방에서 공을 많이 세우신 분들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금화-철원 전투를 했는데 금화에서 총을 맞아 미 3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에 배속이 되었습니까?

예.

전부 다 미군에 배속?

아니요. 다 달라요. 7사단에 배속된 사람도 있고, 우리는 미 3사단.

그럼 군번은?

우린 전부 군번이 있어요. 군번 없는 사람도 많아요. 맥아더사령부에서 입대한 사람 초보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 홍남 어디지? 홍남 장진호 전투. 장진호 전투 갔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두 명이 또 있어요.

미군에 속해서?

예, 장진호 전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된 악전고투에서 피난된 사람들 보호하고, 거기서 싸웠고, 일 년에 한 번씩 군에서 불러요. 그 사람들 파티해주고 8군에서 다 하고, 근데 우리 국방부나 정부는 학도의용군을 잘 몰라요. 내막을...

현재 카투사 제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미 제1기갑사단에 배속돼서 인천 상륙작전의 시초다. 그래서 카투사제도의 원조다. 우리 청년학도들이 미군에 속한다 해서 8군에서 우리하고 가까워요. 연락처를 주거든요. 저런 거 줄 때 읽어보면 자기들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와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요. 그리고 표창을 줬다니까요. 표창은 별로 없어요. 7개 밖에.

회장님은 그럼 일본에서 학생신분이셨습니까?

학생으로 있었죠. 학교 1학년 다니다가 동국제국대학교 센다이협회 망했죠. 전쟁 바람에 학교도 못하고 물론 여기 나와서 정전 이후에 공무원이 돼서 성균관대학교로 갔어요. 대학원 1학년 제대로 배워지나요? 아니지. 전두환 씨가 정권 잡았을 때 군인출신이 야간 대학원을 많이 왔어요. 우리 같이 다녔어요. 안 그러면 그거나 그렇게 해서 다녔지, 안 그러면 못 다녔죠. 그러나 우리는 나이 어릴 때 전장 나와서 정부가 제대로 봐주지 않고,

우리하고 총칼 맞았던 이북에서 군인들이 넘어오면 장갑하나 주죠. 책도 주죠. 우리는 주는 게 없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조국을 위해 참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 보통 생각으로 하면 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국이 완전히 공산화가 되면 안 되겠다. 조국을 수호하자. 일본에서 6·25직후부터 여러 가지 모든 힘을 해외동포로서 우리 아군이 승리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정반대로 인민군의 강세에 우리가 밀려서 낙동강 전투에 한창 요즘 말로 하면 전투에서도 결정적인 전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항상 조국을 위해 싸우러 가자. 그 당시엔 우리 복넉이 없어요. 싸우러 가는 길도 없고 모두 막혀있고 우리 민단본부 주일대표 그뎨 대사관이 아닙니다. 대표부. 맥아더 사령부에 정용을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조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을 택해 달라. 그러던 와중에 공산군에 아군이 밀려서 낙동강 전투에선 풍전등화로 조국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걸 듣고서야 맥아더 사령부에서 참전할 수 있다는 허가로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이 와서 우리 젊은 청년학도들이 참전할 수 있었는데 우린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선생님 그럼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동경이 아니라 지방에서 해방 직후에 조총련과 민단사이에 투쟁이 심했어요.

대학생이셨습니까?

아니요.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왜했냐면 귀국동포, 광복 이후에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는데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조총련. 기존에 있던 조총련도 자생을 한겁니다. 정부에서 지원받고 출발한 게 아니라 민단도 마찬가지인데.

민단일을 하셨던 거군요?

민단에서 조직생활을 하다가 내 나름대로 우리 귀국동포를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또 남은 사람들이 생계유지 젊은 나이에도 그러한 뜻을 가지고, 무직자 일본에 거주하는 전부 실업자예요. 그래서 미 군정 하에 있을 때 일본정부는 행사를 못했어요. 8군 산하에 있었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오카야마 지방에서.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교포들이 강제노동으로 징병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해방돼서 우리 집단이 군데군데 많았습니다. 배를 만든다, 군함을 만든다, 노동력을 전부 집중시켜놓은 데가 전부 교포들이 있습니다. 광복의 기쁨이라고나 할까 너나 할 거 없이 기뻐하고 그 당시엔 조선건국 만세, 동포들끼리 눈물을 흘리고 반가워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일본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그런 건 백지입니다. 일본도 그런 교육을 안 시켰고. 우리 조선하고 한민족이 슬픔이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말을 일본정부가 조선어 폐지 말살을 시켰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영어도 적성국의 말을 배워선 안 된다 해서 중지시켰어요. 우리 나이는 대학을 갔다 뭐를 갔다 해도 요즘 문명을 따라가는 교육을 못 받았어요. 지금은 교육이 개방되었지만 그때 당시엔 우리나라 말 자체도 못쓰고 단지 일본어만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는데, 조총련... 전쟁이 가까우면서 동포끼리 엇그제까지도 친구로 지내다가 조총련과 민단의 대립이 강했습니다. 너죽고 나죽자 정도로 격화됐어. 민단 조직에 발을 디디서 활동을 했는데, 활동하는 동시에 뜻하지 않은 조선인민군 선전포고 없이 38도선에서 아군과 교전중이다. 6월 25일에 식구들하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라디오, 신문, 마이니치, 요미우리 3대 신문에 호희가 그리고 뉴스가 그때는 TV가 없고 제일 빠른 것이 라디오, 신문 그 외엔 없었습니다. 50년도엔 우리나라

라가 그 옛날에서부터 문화발전이 굉장히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60년 전엔 라디오, 전화, 신문이 최고 우선 홍보 선전 자료였습니다. 6·25 자체가 인민군이 선전, 일본말로 선전포고 없이 38선을 넘어 아군과 교전중이다. 우리는 “설마 아군이 쳐부수겠지. 교전에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날이 갈수록 수도 서울이 점령당했다. 우리는 우리 아군이 이겨줬으면 했는데 조총련은 반대로 “얼씨구 잘 싸운다. 인민군 잘 싸운다.” 그리고 있는데 우리 수도 서울이 인민군 강력하게 점령해서 당했다. 젊은 사람들 조총련하고 싸우는데 조총련은 왕성하고 민단 쪽은 사기가 죽는 거예요. 설마설마하고 있는데 수원점령, 또 대전점령, 나중에 우리는 뉴스를 접해 민단 대표 그 맥아더 사령부에서 우리는 해외 동포라서 병역의 의무는 없으나 조국을 위해서 참전케 해달라고 서류를 냈단 말이야. 전 일본에 있는 민단 청년학도들은 똑같은 생각으로 참전을 시켜 달라. 기다리는 도중에 낙동강 전투에서 조국의 운명이 좌우가 판가름이 난다. 중요한 전투다. 위에서 보태서 말하자면 눈으로 못 봐어도 신문, 라디오 전국에 퍼져 나오는 정보, 신문, 라디오에 집중돼서 낙동강에서 흐르는 물이 피만 물만 혈투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조바심에 빨리 가서 조국전선에 가서 싸워서 우리 인민군을 물리치고 조국 통일하는데 일조가 되어야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미8군 사령부에서.

민단에 있는 청년들이 다 참전할 수 있다는...

그렇죠. 통보를 받고 동경은 동경대로. 학교, 민단 관서, 관동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합동작전이라고 하니까 지도 권유가. 민단 대 의용군 재일 청년학도의용군에 지도가 설치돼서 거기서 지도 안내를 받아서 우리는 미 제1지방사단 입소를 해서 초보적인 군사훈련 기초훈련이 그것도 한 일주일 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코하마에서 200명 가까이 따로따로 참전을 했으니까, 거기서 인천상륙작전까지 제2기, 제1기는 이미 우리

한국군 해병대와 동경에서 출발한 학생 87명이 1차로 상륙했고, 나는 2차 참전을 해서 미군 예하부대에서 제3병참 19부대에 배속돼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전방에 가고 싶어서 보내달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작전이 있으니까 우리 정부 배속된 참전된 학도들이 하나로 부평 8군 사령부 연병장에 모여서 31대대라는 독립부대를 창설했어요. 미군, 일본인 2세 미군이 참모, 31대대 총지휘를 맡아서 독립대대를 창설했는데 한참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공산군이 인민군과 같이 북에서 막으려 침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대대는 2주 만에 해산령이 떨어졌어요. 복귀하라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우성을 하니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이다. 그래서 복귀해서 정상복무를 하라 이렇게 해서 뜻을 못 이뤘는데, 하물며 그래서 북진대대 미 유엔군과 같이 북진해서 싸웠다. 공을 세워서 그 당시를 회상한다면 공을 세워서 일조를 했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최전방을 못 갔어요. 아쉽게도 전방 얘기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전방에 있었든. 후방에 있든. 종전 때도 계셨습니까?

아니죠. 도중에 종전직전에 근무 중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긴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북진, 군에 일조를 했다는 걸로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선생님은 미군 군번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네. 한국에도 없고 미군에도 없는 이름표만 남기고, 우리가 미군 예하부대에 배속이 돼서 군번 없는 군인노릇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미군에 가셨고
또 한국군에도 가고

미군들이 불러준 대로 간 겁니까?

아니지 사령부에서 가라는 대로 군대식으로 예하부대에 배속시켰죠. 우리야 뭐 부대명령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셨겠네요?

그 당시에 육군종합학교 간사람. 하사로 학교 간사람. 전부 나옵니다. 나 오는데 제가 애기한 건 1차적으로 예하부대에서 일본으로 다시 갔어요. 일본은 다시 작전상 후퇴하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일본 시모노세키 미 제3사단 보충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눈물 먹고 싸우지도 못하고, 동경으로 직행을 해서 자원을 재차해서 우리 정상적인 국군에 한 사람으로서 조국 전선에 가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58명이 자원을 해서 육군 제2하사관학교 거기에 입소를 해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전투에 임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육군병원에 입원 후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엔 명예제대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편리한대로 제대를 받는 방향으로. 머리 부상한데가 재발만 안 되도록 나으면 가서 다시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제대를 해서 국내에서 정착도 애매한, 정작 일본에 출전 장소로 출전지로 교환대기를 한다. 그래서 군번 없이 제대한 사람 임시수용소가 소임사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다가 일반 미일 강화조약이 성립되면서 일본정치가 한사람이라도 내보내야했는데 너희 맥아더 사령부가 있을 때 조국을 위해서 싸우러 갔는지 그냥 왔는지 알 수 없다 해서 정지가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동기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한국 국적을 받으셨나요?

네. 군번 받았죠. 그래가지고 목적은 남북통일을 이뤘어야 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한 때 애국을 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편히 있지 왜 고생하느냐 위로 말을 들을 때가 있지만 정말 더 구체적인 얘기

를 하자면 기고만장 할 얘기죠. 참 고생 많았습니다. 확고한 얘기를 하자면 난데없이 17년 후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보십쇼 하고 그 유학 갔던 애국청년들이 책가방을 던지고 조국을 위해 간 이스라엘 조국들을 보십쇼. 설쳤는데 우리는 57년 전에 와서 싸운 사람들 아무런 칭찬도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거 산증인이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조국사랑 자유사랑 이게 완전히 통일될 때까지 유비무환, 북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도발, 도전 수없이 해놓고선 뻔뻔스럽게 저희들이 잘했다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악정을 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 번도 이복 닳을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왜 그러냐고 위정자들이 앞장을 서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신문에도 안 나와요. 그렇게 무서운가봐 무서우면 좌파가 우파를 누르려고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이북에서 싸워라 이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 돌이고 몽둥이고 가서 때리고 싶어. 싸우는 사람 따로, 조국을 지키는 사람 따로, 민주화운동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되고 진짜 조국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로 참고...

그럼 정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업은?

생활은 여기서 2세들이 좀 벌고

한국에선 직장을...

직장은 5·16직후에 한때 국가적으로 받았어요. 공무원 생활도 했죠. 그거 보수해 봐야 생활비도 안돼. 차비도 안돼요. 직장생활도 해보고 단체생활도 해보고.

이 단체가 계속 유지가 된 거네요. 소임사가.... 남았을 때부터.

네. 그 당시 국가가 정용원이라고 있어요. 그건 갈 때가 없는 사람들. 식

량이나 그런 걸 주고 집단생활 하는데 별 도리도 없이 살다가 5·16혁명 후에 직장을 지원받았죠. 이번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정착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 여기 책에 다 나와요. 참고하시고 이게 잘되면 참 충신이고 못되면 역적이라고 우리 현대가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 다 성공했어요. 우리 같은 애국자는 어디 가 있는 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데모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안했어요. 잘 좀 봐주세요.

선생님 존함이...

김완기.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총괄해서 했고 민단 조총련이 대립이 심했어요. 오늘날까지 싸우고 있어요.



[용진학도유격부대 전우회]

● 목영설 구술 개관

- 구 술 자 : 목영설
- 면 담 자 : 장성진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4월 22일
- 면담 장소 : 목영설 자택(고양시 덕양구)

● 구술 내용

먼저 간략한 약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도 용진군 서면 소강리에서 출생했고, 6·25전에는 서울 배재중학교 6학년이었어요.

당시 학적부는 있나요? 5학년까지는 있고, 6학년 것은 없지. 6학년 다니다가 나갔으니까 아마 없을거야. 그러나 6학년 학생들은 졸업장 준다 해서 학교가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졸업을 못했으니. 학교가 본교로 복귀해서 졸업할 테니까 방송이 라디오 단파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백령도에서 서울로 갔지. 53년 9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발발시 상황은요? 전쟁발발시 8240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맥아더는 외신보도를 통해 알았어요. 맥아더가 그 소식을 듣고 육군 본부에 전화하니까 낙성식 때문에 술을 먹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 그래서 대사관에 전화를 들었어. 대사관에 무관이 미 군정 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대사관 호칭은 아니었지. 무관 대령이 전화를 받았어. 맥아더가 전화해서 “무슨 일이야?” 했단 말이야. 한국에서는 애치슨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했던 거지.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맥아더가 정보가 있어야 작전계획을 세우도록 보고하라고 지시했지. 그때 무관이 사비를 털어서 사람을 사는 거야. 그래서 정보수집을 하기 시작했지. 그 첩자들이 8240부대 시초야. 일제시대 때 B-17 1대가 조선 상공에 뜨면 조선반도와 일본에 전 사이렌이 울렸어. 한 대만 떠도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KLO가 2개월 후에야 그 효과가 나타났던 거지. 그래서 인천상륙작전 할 때 월미도 등대도 8240부대야. 8240부대 정보에 의하여 한국전에서도 B-29가 나타나서 5대, 30대까지 나갈 수 있었어. 미국은 한국을 몰라. 미국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하면 그것을 다 믿었지. 호림부대, 유격부대, 백골단 등이 있었는데. 김종필 소령이 북쪽에서 보냈지만 북귀하지를 못했어. 한국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서 작전계획을 세웠느냐 아니야. 사비를 털어서 정보로 북진을 했던 거지.

8240부대의 중요성은 잘 알겠습니다. 서울 배재중학교에 다니고 계실 때 전쟁발발시 어떻게 학도의용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남매를 이끌고 엄마가 인천으로 피난을 왔어. 내가 인천에서 만났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하니깐, 아버지는 의사니까 치료를 해줘야한다고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피난을 안했어. 의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황해도 웅진 소강병원에 남아계신다고 하는 거야. 그때 전선은 천안을 지나갔어. 그래서 나는 북으로 아버지를 찾겠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북으로 갔어. 걸어서 갔어. 한강을 건너서 남으로 피난 가는데. 나는 북으로 갔던 거지. 그래서 15일만에 고향땅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났어. 다시 1·4후퇴가 시작됐어. 다시 피난을 갈 때에 인민군 아이들이 소강 동네에 불을 냈어. 그래서 1·4후퇴 때 재 남침할 때 병원에서 일하던 청소부가 공산당의 지시로 병원에 있는 모든 것을 불 지르도록 명령을 받았어.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창고가 되고 말았어. 웅진에서 일생에 걸쳐 병원을 했는데. 허탈해서 아버지는 병이 들었고, 그때 돌아가셨어. 북진할 당시에 웅진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서울, 인천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내가 ‘서북학도대’를 조직했지. 고향에서 지하에 숨어 있다가 서울 소식을 많이 묻더라고. 그때는 숨어 있다가 유엔군이 북진할 때 학생들 집합해서 웅진 서북학도대를 조직했지. 1·4후퇴 때 서울단체까지 포함되어서 싸움이 날 뻔 했는데. 그때 서울 단체 대표중의 한명이 권승훈 씨가 있었고. 그래서 권승훈 씨와 손을 잡고 학생단체들이 싸우면 안 된다.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고 했지. 웅진중학교 학도호국단 간판과 서북학도대 간판을 합쳐서 웅진 학도의용대라고 해서 조직이 됐지. 그래서 그 조직이 창린도라는 섬으로 갔지.

서북학도대가 언제쯤 결성되었나요? 10월 28일쯤이었어요. 웅진 해방됐을 때였죠.

결성하게 된 이유는요? 국군이 웅진에 왔는데 왜 조성이 되었나요? 미군과 한국군이 북진했지만, 학교가 정상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지. 그래서 국군을 위해서 해야 된다. 총칼이 없으니까 라디오를 틀어서 나오면 그 내용을 써서 홍보 활동을 했지. 그렇게 하다가 창린도로 피난가서 거기에서 유격대를 세웠던 거지.

정리해보면 6·25전쟁 시 피난 갔다가 아버님 때문에 다시 북으로 올라가셨고, 웅진에서 북한군에게 숨어계셨고 아버님도 계속 병원 진료를 했고 10월에 유엔군 북진 시 해방됐던 거네요. 그런데 유엔군이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반공의식이 생겼지. 무엇인가 공산당하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해주사범학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사범학교라는 것이 그때 조선반도에 8개가 있었는데. 시험을 한날한시에 봤어. 시험문제도 똑같았지. 사범학교는 관립이어서 문교부에서 직접 감독하고 시험 나고 했어. 2월 16일 날 똑같이 봐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엘리트 아이들만 우선 뽑는 것이 사범학교야. 4월 달에 중학교 시험 봐요. 시험 보고나서 사범학교에서 해방되고 나서 38선이 생겼는데. 해주는 이북이고 집은 이남이었지. 방학할 때 집으로 갈 때에는 소련군이 지키던 것을 인민군이 근무를 하는데. 그때부터 38선이 강화되었어. 그런데 해주에서 가다가 권총을 멘 군인이 “나 따라오쇼” 하더니 잡혀가서 해북도청 지하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해주형무소에서 2개월 동안 있었어. 해주형무소 요소요소에는 고문관이 있었고 당시에도 법무장교가 있었어. 누구누구를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난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신의주사건이 났는데,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신의주학생사건을 알고 남쪽의 지원을 받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난 아니라고 했지. 소련사람은 남쪽의 지원을 위한 스파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난 3학년이니까 학년이 작아서 2개월, 선배들은 4개월까지 있었어. 그 선배들은 다 죽었어. 6·25때 다 죽었지.

웅진학도의용군 활동은? 웅진중학교 학생 15명, 우리가 40명 정도로 됐어. 그래서 55명으로 시작했고. 창린도로 이동했지.

섬으로 이동해서 창린도에 있었던 이유는요? 서북학도대하고 웅진학도대하고 소강 때에서 먹고살고 했고 그래서 내가 대장을 했지. 병원이 하루 아침에 불살라지고, 아버님이 아파서 난 창린도로 못갔지. 나만 남아서 아버지 운명하실 때까지 남아있었어. 학도대가 창린도에 갔지만 피난민처럼 우왕좌왕했던거지. 그러다가 인민군이 학도대장을 찾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창린도로 건너갔는데, 어머니는 안갔어. 어머니는 혼자계시다가 학도대장 집을 찾으니까 도망가다가 창린도로 나왔어요. 배 멀미하고 장티푸스 전염병으로 4일 만에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나는 그 때 학도대장을 하기 싫었어. 그래서 간부들을 집합시켜서 대장할 의욕이 없으니 나이 많은 사람을 선출하라고 했지. 그래서 추천된 사람이 이종학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종학 씨를 만나서 이북에 대학교 다니지 않았느냐. 김일성대학교 다닌 대학생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국제대학 다녔다고 하더라고. 대학생인 것이 증명됐으니 사람들을 맡겨 달라고 했지, 나보다 6살 위였어. 학도대는 소강분교에서 침식을 했지. 난 안 나갔지. 그런데 이종학 씨가 할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대원 30여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적을 만나서 전투해서 15명이 죽었어. 내가 나중에 가보니 대원들이 없더라고. 정보는 알고 들어갔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 부대장이 데리고 나가서 싸웠던 거지.

50여 명이 먹을 식량과 무기는요? 무기는 없었고. 처음에는 집에서 혹은 동네 어른들한테 쌀을 얻었지. 한달 동안 쌀 한가머니로 건넸지. 나가기 전에 창린도에서 대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 서면 면장이 내 사촌인데, 우리 가족은 그 쌀을 먹었는데. 창린도 대원들은 쌀이 없었지. 그래서 쌀을 먹기 위해서 들락날락했던 것이 나중에 유격대 활동 시 들락날락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지. 동키11연대라고 승인이 되면서 그 때부터 쌀을

받을 수 있었어.

동키11연대가 되면서 인원이 늘었나요? 쌀과 무기도 받고 했지. 미군 첩보부대야.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첩보장교. 레오포드 부대라고 해서 표부대라고 불렀지.

부대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학생인지 어떻게 구분했나요? 청년방위대 대원인지 학생인지 알 수 있었어. 15살 이하는 오지도 않고 17세 이상이 와. 웅진에 학교가 많아. 4개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학년이었습니다 하더라고. 생존을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 갖고 오곤 했지. 그런데 무기를 들고 공산당원 집으로 가서 위협해서 갖고오곤 했지. 전쟁 초기에 웅진에서 국군이 철수할 때 학생들만 남아있었어. 나중에 국군이 북진할 때 웅진중학생들이 누가 빨갱이인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려줬어. 식별을 경찰이나 군인보다 학생들이 더 잘 했던 거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복했지. 냉천리 비행장에 수백 명이 보복을 당했어. 비행장 격납고에 가둬놔어.

의용군 활동도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요? 유엔군 올라와도 영어로 설명할 수 없어. 아버지가 영어를 하셔서 영어로 유엔군 부대에게 알려줬지.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조국을 위해서 뭉쳐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조직된 것이지.

군대나 경찰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나요? 군대가 북진하기에 바빠서 모병이 없었어. 전쟁이 끝나면 학교가서 공부할 생각했지. 군대갈 생각을 못했지.

동키11연대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백령도에서 타이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유격전을 했지. 유격전은 7명 이하가 하는 것이지. 우리 부대는 100명 이상이 나가서 작전을 한 것이 두 개가 있어. 안락리전투였어. 52년 6월에 들어갔는데. 6월 25일 이전에 인민군 귀순자가 왔는데. 1개 대대병력이 주둔하는 위치를 알려줬어. 그때 권승훈 씨가 동키11연대 정보참모였어. 그래서 정보를 입수했는데. 권승훈 씨 고향이 안락리야.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파악했지. 공격하자 해서 편성된 대대로 52년 6월 25일 밤에 바다를 건너가서 ㄷ자로 매복하고. 새벽에 점호하고 연결할 때 사격개시 신호탄을 시작으로 집중사격을 가해 전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의 대응없이 큰 전과를 이루었지. 정보가 정확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얻었던 거지. 6·25전쟁 발발시 정보의 중요성처럼 그래서 8240부대가 생겼던 것처럼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지.

100명 이상이 참여한 또 다른 전투는요? 52년 1월 1일 우리 학도대가 용호도로 이동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김일성의 특명이 하달됐어. 서해 도서 해방시키라고 했던 거지.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휴전선을 현 전선으로 하자고 하니까 육지하고 가까운 어린도, 청린도는 1기로 안되는데 거의 모두 아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모두 유격대였던 말이야. 신의주 앞에 있는 대화도부터 연평도까지 동키부대들이었던지. 그래서 1월 1일 용호도가 점령당했지. 1월 3일 순위도가 당했지. 그리고 1월 5일 어화도가 떨어졌지. 그래서 창린도만 남았어. 그래서 7일 경에는 창린도로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고 각 섬에서 철수한 병력이 다 창린도로 집결했어. 그래서 작전회의를 했지. 각 담당구역도 나누었어. 그런데 피난민이 10만 명이상이 창린도에 있었어. 그때 나의 고민은 피난민을 어떻게 할까였어. 그래서 백령도에 무전을 보냈어. 우리 부대는 무전기가 2대 있었는데. 피난민을 수송하기 위해 LST 10대 보내달라고 했어. 군수물자 수송 배도 없는

데, 10대를 어떻게 보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더라고. 내가 3일 날 부탁을 했다고. 그런데도 배를 안보내주길래, 내가 다시 5일에 다시 무전을 보내지. 통역관에게 다시 얘기했지. 유격대원 가족들이 피난민이다. 우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유격대활동을 했는데. 꼭 배를 보내달라고 했지. 그런데 7일 날 창린도로 안 들어오더라고. 배가 7일 날 7척이 왔어 15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배를 보내더라고. LST를 요청했던 것이 국군이 아니지. 내 신분은 학생이었거든. 학생이 미군에게 요청해서 가족을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지. 각 섬에 배를 보냈지. 인민군은 섬을 점령해 놓고 바로 본대로 복귀했어. 그래서 LST가 들어가서 피난민들을 다 실어서 반은 목포, 반은 군산으로 보낼 수 있었지. 그래서 아직도 피난민들이 목포와 군산에 많아. 그런데 8일 날 인민군이 안 오고 9일 날 새벽에 들어오더라고. 각 섬에서 철수한 병력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병사들이 전염되어서 1대대까지 전염이 되더라고. 기린도로 철수했어. 각 대대장도 도망가고. 참모장하고 나만 남았어. 보리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해염을 쳐서 갔어. 그런데 구조선이 와야 살 수 있는데. 밤에는 굴에 들어가 살았지. 다음날 구조선에 타고 기린도로 들어갔지. 기린도에서 정비를 했지. 1개월 후에 창린도로 상륙하라는 명령으로 창린도로 가니까 인민군들은 없더라고. 고문관 대위가 말하더라고. 일본 군대처럼 사수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섬은 정치적인 가치가 있는 섬이 아니다. 정규군이 들어와 있을만한 섬이 아니다. 단지 유격대가 하룻밤 쉬는 그런 지역이다. 1월 9일 날 추워서 많이 얼어 죽기도 했어. 이 섬에 당신네 부하가 많이 있는 것처럼 양동작전으로 포도 쏘고 훈련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북한군은 반드시 첩자나 관측을 통해 확인해서 다시 공격할 것이다. 그때에는 어화도로 철수를 해라. 그러면 섬만 남지 않느냐. 그러면 미 공군과 해군으로 섬을 초토화시키겠다. 작전 D-11이라고 했지. 2월 27일경에 다시 상륙해서 미 마샬 대위와 협조했던 것이지. 15일 날 인민군 1개 대대가 상륙했지. 그래서 작전 D-11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 다음날 재상륙하기로 했지. 작전계획대로 움직이니까. 나는 대대장인데. 대대, 연대 명칭은 국군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한 거야. 그래서 동키야. 동키호테의 동키이지. 어쨌든 그날 연대로 무전을 보냈어. 5~7시까지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어화도로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비화도로 뱃머리를 돌렸어. 무전기로 연대본부하고 장창연 통신대장이 지뢰를 폭파시켜봐라 해도 안 나와. 포화를 울려도 안나와오더라고. 연대본부에서 근무한 장창연이 연대본부 기질을 알아. 연대본부에서 하는 버릇이 방송국 소리로 채널을 바꾸는 것을 알아. 그래서 방송국 채널로 해서 동키11 채널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겨우 무선 통신이 됐어. 그래서 다시 비화도로 가다가 연대본부가 있는 어화도로 들어갔지. 내가 화가 엄청났지. 작전참모한테 엄청 욕했지. 백령도에 보고를 하니까 내일 새벽을 기해 재상륙하라고 하더라고. 난 잠 좀 자야 되는데. 1대대만으로 안되겠더라고 안락리 전투에서 연대 전투했던 것처럼 연대 전투해야 된다고 했지. 1대대가 주공이고. 2대대가 조공으로 했지. 그렇게 해서 다음날 올라갔지. 현역 같으면 철수한 부대를 예비대로 돌렸을 거야. 잠도 못잔 우리 부대는 힘들었지. 하지만 내 성격에 우리 부대가 가야된다고 했을 거야. 큰 기함도 보이더라고. 창린도까지 갔지. 소대장한테 지뢰를 묻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올라갔지. 양키 고문관이 공지작전을 위해서 나랑 같이 움직였어. 그런데 올라가다가 적의 기관총사격을 받았어. 그러다가 측면에서 기관총사격으로 미군 고문관이 꿀떡 일어나서 목구멍에 총을 맞았어. 그러면 비행기하고 어떻게 작전을 해. 내가 미 고문관 무전기를 받고, 미군은 후송시켰어. 그렇게 해서 인민군 300명을 전멸시켰어. 비행기하고 통화하니까 적군과 아군 식별 불가하니까. 피아가 식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재킷을 다 벗었어. 비행기에서 '라지'하고 하면서 화력지원을 했지. 아군은 중상자 1명이 생겼지.

동키11부대 있으면서 유격대라는 명칭을 사용했지. 을지병단이 해체되어

서 학생 이외에 을지병단 인원들이 흡수되었지. 1,200여명으로 늘어났지. 중학교 4개이니까 1,200명 되겠지. 학생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인천으로 가면 친척도 없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들어 왔던 거지.

50여 명에서 1,2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전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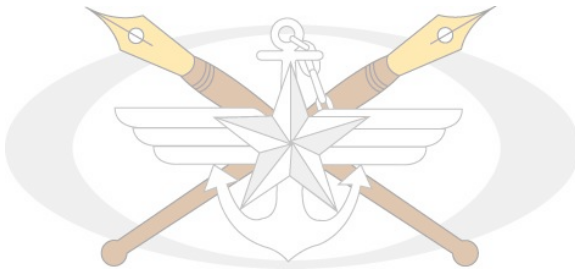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정전 이후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정전 이후 현역으로 근무했지. 간부로 있던 사람은 장교로, 대원은 병으로 갔지. 장교는 소위에서 대위까지 갔지. 대대장은 중위. 연대장은 대위로 갔지. 이종학 부대장만 대위로 갔지. 정전 이후에는 한국군으로 갔던 거지.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학생들 복귀했는데요? 우리들은 다 군대로 갔어. 억울한 것은 웅진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3년 동안 전투를 했어. 사병들은 3년 동안 했는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국가에서 군복무한 것으로 이해해줘야 되는데. 또 다시 군복무를 해서 2중 복무를 했던 말이야. 이것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거야. 38선 이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지. 월남했으면 현역 군무를 해야 되지만. 또 3년 동안 싸우고, 또 3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되는거야. 나도 나중에 병적확인서를 떼보니까 경력이 인정 안 되어 있더라고.

처음에 55명이 자발적으로 했고. 미군에서 쌀도 주고 무기도 주고 하니까 인원이 늘어났던 거네요? 그렇지. 55명이 거의 다 죽고 10명이 남아있어. 명단도 남아있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육사, 해사, 공사가 있었지만. 미군들

은 전쟁 이후 유격사관학교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난 수료증도 있어. 한국사람들은 미군 사람들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군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투기간은 왜 빠느냐? 전투기간이 중요한 것인데, 왜 이것을 빠느냐가 나의 불만이죠.



● 권승훈 구술 개관

- 구 술 자 : 권승훈
- 면 담 자 : 장성진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4월 22일
- 면담 장소 : 목영설 자택(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학도의용군 참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인터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학도의용군의 특성, 고충 그리고 전투도중 죽기 직전에 마지막 4~50명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뒤는 바다이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배가 구출하러 오면 위에서 북한군이 깔기고 하고 내 동기생이 작전관이고 하고 오후 3시쯤 내 앞으로 오더니 너하고 나하고는 무참히 죽을테니 우리 둘이 먼저 가자고 권총을 대더라고. 이렇게 내가 어려웠던 일을 먼저 얘기하고 인터뷰를 할게요. 권총에 실탄이 남아있었는데. 여기서 너와 내가 죽으면 4~50명이 다 죽을텐데 끝까지 싸우다가 적을 1명이라도 죽여야지. 12월 31일 기습하고 난 정월 초하루인데 그래서 권총을 넣으라고 했어요. 아직 우리 부대 사기가 죽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러면 미리 죽는다. 같은 동기생이지만 “명령이야! 권총 넣어” 했지. 적이 우리가 머리를 들면 사격을 하고 하더라고. 그리고 있을 때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부근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오늘까지 20여 년 동안 단란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났는데 눈물이 엄청나게 흘렸어. 비 오 듯 눈물을 흘렸어. 성령의 부름을 받는다는건데, 완전히 죽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했어. 기진맥진해서 저녁에 잠도 못자고 물도 못

먹었으니까. 용호도 병목된 지점에서 그 좁은 길을 건너야 하는데, 인민군 돌격부대가 먼저 와서 두 놈이 견장을 달고 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좁은 길인데 먼저 올라가서 고개를 들어야 쏘는데 아직 불리했어요. 20m 후퇴해서 다시 싸웠어요.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났는데, 뜨거운 열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공포심이 없어졌어요. 인민군과 목통 싸움을 하고나서 함대온다고 적이 소리지르고 했어요, 물속에서 들어갔던 무전기가 가동이 안 되던 그 무전기가 갑자기 작동이 됐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안타까워하던 찰나에 무전기가 되니까 화력을 요청했어요. 그 이후 우리 부근에 항공폭탄이 떨어졌고, 적과 아군을 정확히 보고는 피아식별이 안된다고 하기에, 우리가 런닝을 벗어 놓을 테니 그냥 쏘달라고 했어요. 수류탄의 중요성을 그때 느꼈어요. 수류탄이 다 떨어지니 2~3명이 있는데 던지고 했어요. 1개 편대가 기총소사를 시작했는데 5~20m 앞으로 갈아서 인민군이 한 30여명 정도 중에서 일부 도망가고 20여명 정도 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는데, 내 자랑 같아서 친한 사람들에게만 하는데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마지막 배를 탔어요. 내 직속 부하도 아닌데 우리 유격대원 2명이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라고. 여태껏 살려줬는데 저 애들을 어떻게 그냥 두냐 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다 친구들이 고생을 사서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즐거워서 택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기도를 내 생애 처음 해봤는데. 그때가 제일 어려웠고. 웅진에서 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맡았느냐고 하면 선전부에서 라디오를 듣고 청취해서 써서 벽보에 붙여 주는 것을 했는데. 그때가 미해병대가 장진호 전투에서 내려오면서 하갈우리 부분을 내가 켜던 부분이 기억이 나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후퇴를 했어요. 다른 팀은 육지로 갔는데. 나 혼자서 아무데로 가도 되는데, 내 팀이 20명 되는데 소강으로 가고 했는데 아버지가 소강에서 교장을 하셨으니까. 일단 소강으로 가서 어디로 가든 하자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단체를 이

끌고 가는데, 식솔 열댓 명 식량을 공급이 없으니까, 친구네 집은 1달 이상 얻어먹기에는 참 갈등도 있고 했어요. 먹을 것을 안주겠다고 해서 섬을 떠나겠다는 생각도 하고, 동기동창에게 식량을 조달할 때가 없을까하니까 적들이 가까운데 버리고 간 것을 가져오자고 해서 3~4명을 데리고 가자고 하더라고. 그때 청방(청년 방위군)에서 500여명 왔을 때였거든요. 그 사람에게 연락을 우선 하고, 쌀을 한 4~5가마니 싣고 왔는데 그 때 이제 살았구나 쉽더라고. 전쟁 와중에도 먹을 것의 소중함을 느껴, 때 되면 챙겨줘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창린도에 갔던 기억이 나요. 안락리 전투는 내 고향이었는데, 우리 3대대 공작대원, 예전의 비호대대원이 쌀도 가지러 가고 했었어요. 우리 부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부대는 적지에서 쌀을 실어오면 나누어 주는데, 우리 동키부대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줬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안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볼 틈이 없었어요. 군수와 홍성걸이 나한테 30키로 정도 되는 쌀을 주기에 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나니까 그가 나에게 줄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친구가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칼빈 총으로 쏘고 싶더라고. 그래서 30발을 공중에서 다 쏘았어요. 내가 친구를 쏘까봐요. 지휘관과 참모에게 복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랬어요. 두고두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창린도 전투는 다 얘기해서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독안에 든 쥐를 잡는 식이 아니라 둘 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주파수를 맞추어 적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서로 통성명이나 하고 싸웠는데, 그 애들이 어떻게 장거리포를 잘 쏘았어요. 우리가 제공권과 제해권을 갖고 있는데도 많이 당했어요. 이 친구(목영설)가 통신으로 그렇게 영어를 해서 승리를 이끈 것이 자랑스럽고, 지상군사령관 나오라고 해서 나중에 대접을 받고 올 때 나는 위스키를 달라고 했을 텐데 초콜릿을 달라고 해서 받아왔더라고. 대강 먹을 것 때문에 곤란했던 일.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위기를 넘긴 일. 동료들을 어떻게 덜 고생시킬까

하는 마음은 지휘관이면 다 갖게 된다는 그런 생각. 평소에는 나약하던 부하들이 얼마나 용감해지던지 하던 경험. 업페, 차페 같은 거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학생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고요. 어려웠던 일은 이 정도로 참고해 주세요.

선생님, 6·25전쟁이 발발할 때 웅진에 계셨는데요. 당시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졸업장은 받았지만 5학년까지 밖에 수업을 안했어요. 웅진중학교 다닌 걸로 하시면 되요. 전부 동창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웅진중학교에 있다가 6·25전쟁이 일어난 거죠.

웅진에서 피난을 하신건가요? 피난을 순위도로 했어요. 6·25발발시 인천 앞까지 피난갔다가 좋은 배였는데요. HID대원이 두 명 탔어요. 자기들이 인민군이 온다는 것을 보고했는데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 앞까지 왔는데 라디오방송에서 인천에 적이 있으니 인천에 대질 못하겠다고 더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했겠다고 하더라고요. HID대원 둘은 인천 앞에서 학생이라고 해서 저도 내리면 안 되냐고 하니깐 선장은 순위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순위도로 도로 갔어요. 순위도에서 큰 아버지네 집이 3~4km 떨어졌어요. 큰아버지 집에 가니 사촌들은 없고 날더러 이북 놈들의 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20일간 있었어요. 10여일 후 집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집으로 오면 인민군으로 끌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곳 안락리초등학교 교장이 우리 아버지 후임이었는데. 나를 좀 봐주어서 학교 선생으로 채용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해야 인민군에게 끌려가지 않는다고요. 내가 제일 크고 동생들이 다섯 있는데. 여섯하고 어머니하고를 부양해야 하는데, 피뢰군 남침하던 해 3월 13일 부친이 사망하고 장남으로서 가장이 됐어요. 인민군대를 끌려 갈 수는 없고 해서 인민학교 선생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채용이 되었어요. 성분이 나쁘다고 해서 발령이 안 되고 10일 동안 발령이 안 났어요. 아버지가 교장, 대학청년단장하고 해서 7가지 장을 한 사람의 자식이 어떻게 선생할 수가 있냐고 했어요. 선생 아니면 인민군으로 낙동강 전선으로 끌려가는데. 어머니는 전쟁에서 죽을까봐 결사적으로 나서서 결국 채용이 되었어요. 일요일에 교회에 나갔더니 교회에 나오지 않던 청년이 누가 나왔나 조사하러 나온 줄도 모르고 나갔더니, 그가 자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못나가고.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몰래 만나서 생활했던 이야기하고 헤어지고 했어요. 인민학교 선생을 한 달 열흘인가 보름을 했어요. 그러던 중 청년들(선생 포함)을 모아 강제복송 대열에 끼어 있었는데, 그 대열에서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밤에 여기에서 뛰어야 한다고 해서 그 밤에 셋이 튀어서 웅진 쪽으로 왔어요. 뚱뚱한 사람이 “손들어” 하더니 어디를 가냐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가족들이 남쪽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인민군에게서 이탈하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위험한 데까지 피해서 안내주었어요. 그래서 남으로 돌아왔어요. 학도호국단장이 구자현이라고 있었는데. 너 나와서 도와줘야지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인민학교 선생한 자를 조사받으라고 해서 웅진경찰서에 갔는데 부친사망으로 줄지에 7식구의 가장이 되어 인천까지 갔다가 인민군대 끌려가지 않기 위해 선생노릇을 했다고 하니까 강요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간단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방면해주더라고요.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학도호국단 요청에 따라 선전부에서 뉴스 나오는 것 청취해서 부치는 것을 하다가 다시 1·4후퇴 때 소강 목영설이네로 가서 결성이 된 거죠.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죠? 웅진지구 학도호국단이라고 했는데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연합회라고 했는데. 기록에는 웅진중학교 학도호국단이라고 해서 기록이 된 거죠. 학교별로 학도호국단이 있는

데 웅진지구 학도호국단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각 학교별 학도호국단이 있어도 웅진지구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서울에 유학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웅진지구 학도호국단이라고 한 거죠. 그 단장이 구자현이었어요. 구자현은 웅진중학교 6학년 동기동창입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달구지로 싣고 가는데, 달구지로 갈 때 붙들려 갈 것 같겠다 싶어서 해안가 배로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죽마지우가 있는 소장으로 나의 일행을 거느리고 간 겁니다.

통합된 일련의 지휘는 없었던 거네요? 군대식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호국단의 임무로서 적에게 학살당한 시체 수습도 하고, 악질 노릇을 한 사람들을 경찰서에 넘기고, 라디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으니까 청취한 내용을 게시판에 부착놓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전황을 알 수 있었죠.

학도호국단이 언제 결성되었던 건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각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사회단체 명칭으로 생각하면 되죠. 9·28수복 후 곧 웅진지구 학도호국단 혹은 웅진중학교 학도호국단이 결성된 것으로 압니다.

언제 결성된 것이죠? 9·28수복 이후 결성이 되었죠. 9·28수복 이후 학도호국단 활동이 시작된 거죠. 그때는 지하조직 활동하다가 학살당하기도 하고, 우리 선생 중에서도 학살당한 사람도 있고. 그때에도 그런 활동을 하다가 9·28수복 후 결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결단식이니 뭐니 그런 것 없었어요. 삼삼오오 모여서 수복이 되었으니 경찰을 도와서 하자고 해서 중공군이 해주를 통과하고 난 후에는 행정기관이 도망갔기 때문에 거의 진공상태나 같았어요. 백령도 사령부에 속해 있고 난 후에도 인민군 주

력이 50년에서 51년까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평양에 1개 군단밖에 없었는데 전선이 진지화 되었을 때 4개 군단, 18~20만의 병력으로 늘어났어요. 한 5개 군단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백령도에서도 사령부에서 전투를 잘 한 것이 우리가 전투에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해안선이 넓으니까 접근로가 많았어요. 전부 그 지역 단위로 해서 부대가 편성되어 있고, 공작대가 17개 있었는데, 나중에는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가 기습당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작전 거점인데, 거기에서 도와줘야 우리가 작전을 할 수 있죠. 웅진반도가 지도상에는 좁지만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거기를 전부 지킬 수 없죠. 적들도 많이 오지 않고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안락리 전투와 창린도 전투는 천우신조죠.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가능했죠. 8240부대 경찰사령부의 소부대가 파견나와서 공군작전을 했기 때문에 항공편대까지 파견나왔기 때문에 서해 지구 활동에 굉장히 효과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장교로 첩보 제공을 많이 하셨나요? 17개 공작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많이 하고, 그 정보도 많지만 전투작전에 필요한거고, 귀순한 것 그리고 우리가 작전한 것 등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전술 작전에 필요한 75%가 아니고 우리 예상은 80% 이상을 우리 한국 유격군의 정보에 의한 것이 여러 기록에 나타나죠. 우리가 납치한 것, 귀순시킨 것. 장교들, 통신소령, 중공군 사병들도 몇 명 잡았죠. 우리가 유격군 중에서 전투를 많이 했어요.

다른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학교 복교령이 내려졌는데요? 우리는 미군 산하에 들어가면서 지휘체계가 미 8240부대 게릴라부대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동키11부대라고 했고 지휘관이라고 하지 않고 리더라고 했죠.

동키부대 명칭은? 51년 4월 1일이 맞아요. 보급을 받았던 것 아니냐? 그런데 명칭을 받은 것이 4월 1일이거든요. 우리부대 창설일과도 연관이 되죠. 의용대 결성한 날인 51년 2월 4일 창린도 초등학교 교정이었어요. 그때 내 직책은 선전부장이었죠. 그때 부대장은 이종학인지 창린도에 가선지 기억이 안나요. 초도 보급을 받고 한 것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의용군 결성 시 처음에는 몇 명이었나요? 처음에는 5~6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1,200명까지 늘어났는데요? 다른 지역 도서가 많거든요. 순위도, 용호도, 창린도, 어화도, 기린도 등 조그마한 섬까지 10개 도서가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6~70명이 되었고. 나중에는 동키 11부대 정식 명칭을 받고 나서는 지휘체계가 서고 나서는 부대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언제 인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교동전투가 시작되면서부터 완전히 섬에 있던 학생들이 우리 부대에 들어왔으니까 쌍호대대, 비호대대 등으로 불리어졌고 각 대대병력이 5~60여 명 되었어요. 백령도 사령부에 속하고 나서 좀 밀고 들어와서 800명, 1,000명, 을지병단 26연대 박봉수 대대장. 박봉수하고 저의 아버지하고도 친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편입되고 나서는 각별히 모시었어요. 청방하고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맞지 않았어요.

교동전투는 언제 일어났나요? 동키부대 명칭이 있는 후입니다. 당시 무기는 많지 않지만 칼빈 혹은 M1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4월 중순쯤으로 기억되네요.

교동전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시고 있던 사람을 조그마한 생각으로 나무랄 수는 없죠, 그래도 무장을 하고 4~50여 명을 데리고 적지에 상륙했다는 전투경험을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팀만 갔을 거예요. 주목적이 단점을 이야기 한다면 작전상 기지라든지 첩자 구출이라든지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 곳 장악이라든지 등에 있어서 작전목적이 아닌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5~60명에서 시작한 인원이 51년 4월 1일경 인원은 몇 명 정도였어요? 그 때에는 조직되었을 때에는 몇 명 안 되었어요. 일단 무전기가 있던지 한 것은 이후였어요. 각 섬마다 중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늘 가족들도 섬과 섬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연락이 되어요.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나요? 많았죠. 청방 말고도 많았죠.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안다니는 사람들처럼 학생 아닌 사람도 있었죠. 시골이라는 게 부모가 죽으면 가게를 위해서 혹은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놀던 사람들도 있고 했습니다.

훈련은 어떻게 하셨나요? 미군이 대청도에 있을 때 시켰고. 미군들이 직접 시키기도 했고. 중학교 때 왜정 때 전투훈련을 했어요. 웅진중학교니까 17연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제식훈련 같은 것은 아주 잘하고. 우리는 웅진지역이어서 전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 붙으면 해본다하는 자신감 등이 있었죠.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군에 있고. 내가 학점을 못 따서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다니고 그렇게 해서 62년 초에 졸업하지 못하고 고충이 많게 후반에 졸업을 했어요. 국방대학이었어요. 그래서 명예도 회

복하고 임관도 시켰지만, 전투기간을 인정 안해주고. 하사관 전투기간 등은 인정을 전혀 안 해주었어요. 우리가 미 육군에서 우리 전투기록이 2급 비밀로 되어 있었고, 94년에 비밀해제 되었어요. 제대 후 몇 년 후에 알았거든요.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작년에 입법하라는 국방부장관 결정이 있었는데, 천안함 포격 사건이니 해서 애도 기간에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한편으로 우리는 학도부대인데 300여명 죽었는데, 섬을 다 지키고 그랬는데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귀한 자식인데 요새 죽은 사람들만 귀할 줄 알고, 광주 사건은 법을 다 만들고 했는데, 대통령이 말만하고 민주국가가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너무 늦게 안 되니까 섭섭하게 그래요. 내가 여든 셋인데 벌써 치매가 2명인가 걸리는데. 치매가 걸리기 전에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았으면 하는 거고, 개별적인 신앙 이야기를 하면 나는 편하게 살았거든요. 아들이 없을 뿐이지, 사범대 위탁교육을 나와서 고등검찰부장도 하고 했거든요. 6군단 법무참모, 주월사 법무참모 대리 등 군사실무약정서 등도 작성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했어요. 육사에서 군 형법도 하고,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도일규 총장이랑 친하기도 했고요. 나 자신은 집사람과 놀러 다니고 쉽지만, 유격군 전우회 활동과 탈북자들 돕다가 북으로 선교 좀 하라고 애들에게는 말했어요. 애들에게 보람 있는 것을 하라고 해요.

기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사진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병대와 특전사에서든 특강을 했는데 육사에서도 특강을 하고 싶네요.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역사에 기록을 남겨서 역사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후세에서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백골 전우회]

● 왕선구 구술 개관

- 구 술 자 : 왕선구
- 면 담 자 : 장성진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7월 15일
- 면담 장소 : 용산

● 구술 내용

학도의용군에 어떻게 참전하게 되었죠? 내 고향은 청단인데. 논밭은 이북이고 그래요. 해방되었을 때 청단공립소학교를 졸업했지. 나는 소련군이 들어오는 것을 다 봤어. 그때 전쟁을 했다고. 엄청나게 피난민을 많이 봤지. 김원희 중령 등 유명한 사람들 많이 봤어. 1948년인가 1940년에 연안중학교 다니다가 개성에 사촌들이 잘살아서 송도중학교로 전학갔어. 조그마한 기차로 사리원에서 토성까지 갔다가 큰 기차로 개성까지 갔지. 그 전날 방학 때 고향에 갔는데, 정미소를 했어. 방학 때 박격포, 로켓포, 권총사격 훈련하는 것을 봤지. 청단경찰서하고 군인들이 인민군들과 싸우는 것도 보고 그랬지. 우리 외할아버지 창고에 무기도 있었고. 나도 군인들한테 이쁨도 받으면서 전쟁하는 것을 눈으로 봤지. 길 안내도 해주고. 밤 따라 이북에 들어가서 국군들과 같이 따먹고. 인민군들도 다 아는 사

람이고, 피난민도 우리 따라가면 안전하고 그랬어. 그런 곳에서 자랐던 것이지. 6·25전쟁 전날 국군이 모병한다고 개성시내를 장갑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봤어. 아침에 기차에서 엄청난 숫자가 인민군이 내리더라고. 송악산에서 호도 파고했었거든. 김밥도 날라주고 하면서 군인들하고 친했는데. 나는 기차타고 집으로 갈려고 했는데. 전쟁이 난 것이지. 다시 집으로 가다가 고향으로 가다가 18연대 상사가 있었는데. 똑똑하고 글씨 잘 쓰는 아저씨였어. 그때 내 별명인 유복이라고 부르더라고. 바로 그 상사였어. 나한테 백석포 가는 길을 물어보더라고. 연백군 일대인데. 군인을 데리러 백석포로 가려니까 긴장을 많이 했지. 군인들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농수로로 백석포 방향으로 갔지. 보니까 빨갱이들이 사람들 막 사살하고 그러던 것을 내가 봤지. 전부 다 시체를 목격했지. 어두워져서 가니까 배는 없고, 밀물이 들어오니까 나뭇조각들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서 7명이 탔어. 3~4사람은 기관단총을 지니고, 수류탄 몇 개 지니고 탔어. 썰물 때 강화도 쪽으로 갔다가 밀물 때 김포 방향으로 갔지. 국군 장갑차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김포반도에 상륙을 했지. 하룻밤을 꼬박 세웠지. 다 젖어있었지. 거기에서 국군을 만나서 5끼를 굶고 맛있게 먹었지. 거기에서 계인수 대령이라는 분을 만났어. 신상사는 전형적인 군인이었지. 김포 쪽 행주나루로 후퇴하는데 길에서 이상한 군복을 입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군복이더라고. 옛날 구도로에 있을 때야. 빨갱이들이 설치고 다녀서 다닐 수 없는 거야. 기갑부대들도 영등포로 들어오지 못하고 빠지게 된 거야. 그 때 18연대 1대대 3중대를 만났어. 탄약은 없고 장갑차에서 무전소리 들으며 그냥 간 것 같아. 그래서 안양천을 타고 구류동을 가니까 집결지 시흥 쪽으로 가도 없더라고. 도요타 38년식 같은 차량에 공랭식 기관총이 그냥 서있더라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서 있더라고. 군인들이 입으로 해서 기름을 넣고 부상병들을 실어서 가는데. 갑자기 썩썩이가 와서 그거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수원 쪽으로 갔

어. 수원으로 가니까 헌병들이 조치원으로 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지. 나도 칼빈총을 두 개 메고, 힘에 부쳐서 힘들었지. 난 스미스 부대도 보고 했지. 미군 오고 나서 안심을 했지. 무조건 1사단 출신들은 대전으로, 나머지는 청주로 가라고 하더라고. 청주에 김석원 장군이 있는데. 학생들이 진천, 서울 등에서 100여명 등이 있었고. 그중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려. 그래서 대전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피난민들 따라 대전으로 가다가. 그 전에 진천 전투 시에 18연대 1대대 중대장을 만나서 탄도 날라주고 했어. 성은진 중위였어. 18연대는 서북청년이 많아요.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피난가다가 피난민 속에서 누가 사격을 하더라고. 맨 처음에 경찰들이 99소총으로 사격을 하더라고. 그때 보도연맹들이 다 사살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중에 경찰들이 마음먹고 사살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실까지는 모르지. 속리산에서 있었던 일이야. 미군들이 못들어오게 무조건 쏜 거야. 언덕 꼭대기에서 18연대 차를 타고 상주, 예천으로 가더라고. 나는 예천에서부터 실질적인 전투를 했지. 나중에 전사를 보니까 예천에서 괴뢰군들이 있다고 해서 진을 쳤단 말이야. 예천에서 전투를 하다가 헌병대장이 후퇴하라고 해서 빠져나가고 우리밖에 안 남았어. 거기에서 칼빈총으로 사격을 해봤지. 집결지가 안동이라고 하더라고. 신상사랑 같이 안동으로 갔어. 안동에 가보니 장비를 그대로 두고 후퇴를 했더라고요. 자동차도 움직이면 터지게끔 부비트랩도 설치하고 했어요. 학도병 천여 명이 부산, 밀양 등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난 경상도 말이 이상하더라고. 18연대 부연대장이 1연대장으로 가면서 18연대 병사들을 진급시키고, 그 자리를 학도병으로 채워서 1연대로 갔다고 하더라고.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의성초등학교에서 학도병 157명인가 보충이 되었지. 그런데 나이가 어렸지만 난 전투경험이 있으니까 학도병 중에는 제일로 고참이지. 의협심으로 탄 300발을 두르고 가다가 탄을 버리고도 하고 그랬어.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었어. 기계전투 때에는 대승을 거두었지.

전쟁발발 이후 피난을 해왔고, 의성초등학교에서 다른 학도병을 만나건가요? 그전에 안동초등학교 학도병을 만났어요. 18연대는 다 현역으로 해주었어요. 다 군번을 주었어요. 장교는 없고, 상사들이 너는 몇 번 몇 번 하고 군번을 주었어. 내가 다 눈으로 봤지. 내군번은 0784261. 57년도에 귀향증을 받아서 서울에 와서 KLO부대 생활하다가 귀향증을 가지고 8240부대 등이 있었는데, 김포에서 만난 계인수 대령이 인천상륙작전 정보 제공도 했지.

KLO부대 명칭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울프팩 부대 2에 소속되어 있었어. 모자쓰고 12명이 들어가서 다 잡히기도 했는데, 평양에서 사리원으로 내려오는 도중 탈출했어. 같은 KLO부대에서는 탈출요령이 있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신호탄을 하면 어디에 보트가 있다 등의 탈출 신호가 있지. 3~4일간 교육받고 CW정도는 할 수 있었지. 우리 대장은 임진강 건너오다가 죽었어. 그 사람은 현역인 것 같은데 전쟁영웅이었어. 첩보대였지.

중학교 2학년 때 피난가면서 18연대에 포함되어 있다가 어떻게 울프팩 부대로 가게 된 거죠? 북진해서 갔지. 난 군번도 없이 고참이 되어 버린 거야. 책에 다 기술해놨어요. 신고산을 넘어서 탄약상자 실은 차가 공격받고 이런저런 일을 겪었어. 57년도에 학도의용군 발족할 때 참여했는데, 별 의별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 그때 당시 민주당이었지. 유승훈 대령이 잘 알고 있어서 사실상 5·16때에도 그 연락을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왔어요. 야당에 있어도 그런 정신은 있었지. 박정희 대통령은 학도병 출신이면 무조건 채용했어. 그래도 나는 야당에 남아있었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청년부장을 할 때에 내가 감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

왜 18연대에서 울프팩 부대로 가게 된 거죠? 신고산에서 부상을 당해

서 열이 나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성항에서 후송갔지. 원산이 아닌 함흥으로 가더라고. 함흥에서 치료를 받았지.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어. 그래서 열이 내렸고 부산으로 후퇴를 했어. 병원을 가라고 했는데, 교통수단이 있어야 내가 병원을 다니지. 군번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갔어.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았어. 너무 심하니까 동래 3169병원에 갔어. 군번 없다고 했지. 18연대 학도의용군이라고 하니까 치료해 주라고 하더라고. 부산역 앞에 병원에서 마산 결핵병원으로 후송시켰어. 그러다가 다시 3169병원으로 와서 51년 4월까지 치료를 받았어. 그때 얼굴이 많이 상했고. 그때 말을 더듬었어. 육사에서 강의로 하고 말을 잘했는데. 58년도 병역법 62조 입대, 제대를 동시에 하게 되었어.

*** 주변 여건으로 1차 인터뷰 종료.**



[서울학도포병대 동지회]

● 김석찬 구술 개관

- 구 술 자 : 김석찬
- 면 담 자 : 장성진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4월 20일
- 면담 장소 : 육군사관학교 교수 연구실

● 구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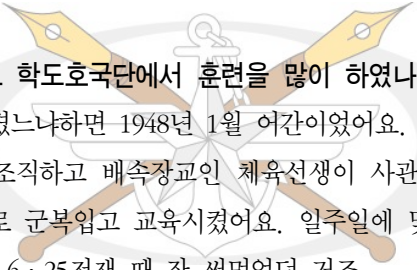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조국은 부른다>라는 책을 왜 쓰시게 되었나요? 1995년 <서울학도의용군>, 1986년 <가자! 평양으로>를 출판하였는데, 이제 6·25전쟁 60주년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작년에 책을 출판했어요. 다시 정리해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다 학교까지 기록할 수 있었나요? 병적부하고 모임 때마다 확인했어요. 저희가 340여 명이 있는데 덕천전투에서 한 100명 없어지고 그 다음에 1·4후퇴 때 50포병대대로 전속되고 해서, 학도의용군 친구들 중에 6~70명 정도 남았는데 가족같이 보냈어요. 다 같이 보냈죠. 휴전되고 나서 매년 모임을 갖습니다. 10월 20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매년 모이죠. 매년 2~30명 정도 모입니다.

책도 만드시고, 모임도 하시고, 기념탑도 만드시고 하네요? 이 사진은 용산고등학교에 건립한 거로, 제막식행사 때 했던 겁니다. 작년에 6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장도 보내고, 참전해서 1년 되던 해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사진 중에서 세상 뜬 사람이 5~6명 정도 되고 합니다. 작년 행사 사진입니다. 그리고 경과보고 했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1년에 2번 모여 행사를 하는데, 사진은 많아요.

10월에 참전했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25전쟁 일어나서 3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굶고 다니고 나오면 잡혀 고생하다가 9·28수복 때 적개심에 가득 차 있었죠.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어요. 저도 2번 잡혔다가 살아 돌아왔거든요. 붙잡혔다 도망간 이야기들이 책에 있어요. 서울에다 폭격하고 불타고 해서 공부도 안 되고 국군은 이북으로 북진한다고 그렇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용산고등학교 거기에서 학도의용군 모집공고를 냈어요. 7사단 18포병대대에서 냈어요. 그때 고등학교가 35~40개 되었는데 학교에다 다 부쳤어요. 그래서 “용산고등학교로 모여라, 금방 평양 간다” 그리고 “2개월 후에는 전쟁이 끝나니까 학교에 복귀시켜준다”고 그랬죠, 우리 생각에는 2달 후에 공부하자는 생각을 했죠. 학교에는 1,000명이 모였어요. 그중에서 선발된 인원이 340명 되었어요. 10월 17일, 18일, 21일 3차였는데. 저는 3차로 갔어요. 저는 21일에 갔어요. 포차에 학생들을 싣고서 용산고등학교에서 트럭 10대를 타고 38선 넘어 황해도 곡산으로 갔어요. 그때 주먹밥 먹고 가는데 고생하는 줄 몰랐어요. 22일 날 오후 늦게 평양 시가전 끝나고 나서 부교를 이용해서 평양 광성중학교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7사단 18포병대대가 주둔해서 재편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학생들을 데려왔을까요?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가 미군에게 M2A1 곡사포를 받았는데 영어와 수학을 알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70%가 무학자

였어요. 어떻게 포병이 무학자로 대포를 쓰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려가자해서 학도의용군을 모집한거죠.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들어가게 된거죠. 우리가 왜 왔는지 군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고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영어와 수학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영어지만 알파벳이라도 알고 간단한 영어해석도 해야 하는데, 간단한 번역도 그렇고 고참병들이 할 수 없었죠. 그리고 9·28수복하고 만 18세 이상 징집한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 보충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 동원되었죠. 학생들이 학도호국단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서 제식동작도 하고 분대, 소대, 중대훈련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동원된 거죠? 무학자가 많아서 문맹퇴치운동을 70년대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학도호국단에서 훈련을 많이 하였나요? 그렇죠. 학도호국단이 언제 생겼느냐하면 1948년 1월 어간이었어요. 문교부에서 학교별로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고 배속장교인 체육선생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고 예비역 육군 소위로 군복입고 교육시켰어요. 일주일여 몇 시간씩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6·25전쟁 때 잘 써먹었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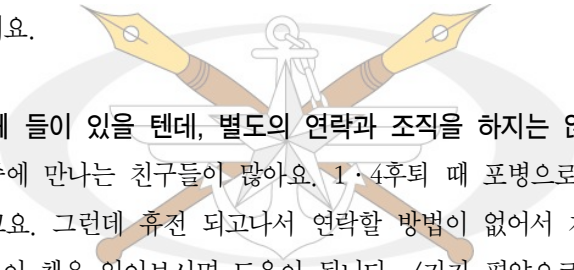
실질적으로 훈련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있죠. 학생들 모집해놓고 일렬 종대, 앞으로 가, 우로 좌로 앞으로 가 다 했죠.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할 수 있었죠. 아 군대조직은 분대서부터 소대, 대대, 연대까지 다 알았죠. 제식훈련까지 했던거죠. 1년 반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왜 하필 포병부대였을까요? 우리가 기록을 남겼으니까 그런 거지. 1·4후퇴 전에 제2국민동원령 발효되었을 때 학생들이 포병부대로 많이 갔어요.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렇지. 대구에서는 거의 강제로 동원이 되었어요. 거의 마지막이니까 학교에서 막 데려갔어요. 학생이 동원된 것이 한

5만 명이요. 한동안 군복무를 했죠.

학도의용군 명칭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학도의용군인데, 의용군하면 인민군 냄새가 나서 우리가 학도군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지. 당시 모집당시에는 학도의용군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의용군을 빼고 학도병으로 하자고 한 거죠. 그러면 학도의용군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학생의 신분으로 자진해서 입대했으면 학도병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렸어요.

서울학도포병대라고 정의한 이유는요? 포병이라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 단체 들이 있을 텐데, 별도의 연락과 조직을 하지는 않나요? 임 관해서 나중에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1·4후퇴 때 포병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휴전 되고나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제대로 연락을 못했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자 평양으로>와 내용이 똑같은데. 국정원에서 내가 군무를 했었는데. 시국이 어렵다는 생각에 책을 내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 하라하고 복귀시키지 않았나요? 그 얘기 좀 할게요. 20년 전에 육사 교수님들이 복귀령 내리게 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책에도 썼어요.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3월 달에 대통령 훈령이 내려졌는데 우리가 공부도 못했다고 하니깐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부분도 책에 이렇게 썼어요. 안동에 있을 때인데요. 51년 3월이었어요. 18포병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2사단 배속되어 있을 때

훈련받고 있었는데, 일과 시작 전에 전 중대 집합해서 나갔더니 학도호국단 수첩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신분증이야. 그래서 평양에서도 중공군 포로 시에도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너 이거 왜 갖고 있어 하고는 그 신분증을 찢어버리더라고. 20년 전에 사관학교 교수님들과 얘기할 때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포병대대는 다 학생들이한테 그렇게 되면 부대 해산이니까 목살된 것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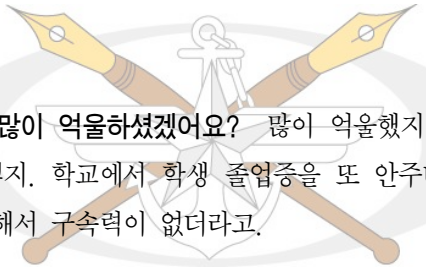
그러면 계급은 어떻게 해서 부여가 된 거예요? 우린 애들이니까 몰랐다고. 우리가 현역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갔어. 평양에서 점호하니까 육군 포병 이등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육군 포병 이등병 김석찬입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중대장이 “이등병이므로 도망가면 즉결처분한다”고 하더라고. 10월 21일에 평양 들어가서 29~30일쯤 출동해서 평안남도 순천에서 하루 종일 서고, 보초도 썼어. 평양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웠어. 어디서 인민군 누비옷을 가져왔어. 그러니 완전 인민군이지 머. 그런데 18포병대대라고 붙이고, 모자를 아무것이나 쓰고, “나가서 줄게 되면 적에게 잡혀간다, 총살이다”라는 말로 근무를 썼어. 그래서 안주까지 가서 주둔했는데 18포병대 1중대에서 칼빈총을 분해결합을 거기에서 했어요. 학생들이 머리가 빨라서 금방 분해결합했지. 아침에 애국가 부르고 서서좌, 앉아좌, 엎드려좌를 거기에서 배우고 아침부터 출동해서 청천강을 건넜어. 청천강을 건너서 박천군에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사격을 했지. 북에다가 사격을 하고 그랬지. 책에도 썼지만, 보초를 서는데 아군 보병에게 포로로 잡혀간 애들도 있고 했어. 그래서 고참병들이랑 같이 학생병들이 같이 근무도 서고했어. 밤에 탱크 소리가 나더라고 고참병들이 얘기하는 것이 한국군 7사단이 중부전선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공부하긴 틀렸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 다음날 중부전선으로 이동했어. 105밀리 포차를 타고 가는데 사주경계를 하라고 하더라

고. 영변을 지나서 개천군으로 들어갔어. 중공군하고 붙었어요. 군번이 11월 15일에 나왔어요. 난 군번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난 서울에 복귀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군번이 나왔다는 사실어요. 덕천을 넘어가는데 아리랑고개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심하게 했어요. 중공군이 산에 배치되고, 우리 탄착점이 보이더라고, 시한폭탄으로 공중 폭탄도 쓰고, 야간에는 후방으로 포병을 뒤로 빼고 하면서 전투하다가 덕천으로 왔어. 그런데 중공군이 더 내려왔다 하더라고. 학도병이 중공군 포로를 잡았어. 그놈이 중공군 척후더라고. 그리고 상황이 긴박하니까 포진지 주위에 학생병들이 배치되어서 탄 거 없이 밤에는 잠복하고 공제선을 보고 “이상 물체가 있으면 3m 유인해서 쏘라, 잡자면 중공군에게 잡혀가니 절대 잡자지 마라”는 명령 정도였어. 그 때 장교들이 지식이 있어야지? 왜정 때 배운 것이니까, “돌격 앞으로” 하고 “절대사수” 그것밖에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 당시 배운 것이 있어야 말이지.

용산고등학교에서 혹시 공고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냥 서울학도 의용군 모집이었어. 장소: 서울 용산중학교, 그 옆에 2개월 후 학창 복귀라고 조건을 붙였어. 나머지 부분은 기억이 안나. 용산고등학교로 와라. 용산고등학교에 가니까 부대에서 하사관과 장교들이 책장을 놓고 면접을 하더라고. 위생병이 보고 건강상태 보고 건강상태 합격한 것이 340명이지.

평양에 가서 훈련은 안했나요? 평양에서는 훈련하지 않고, 학생들 관리하는 것이 문제였어. 그리고 있다가 중대 배치하는 것이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딱 잘라서 이쪽은 1중대, 2중대, 3중대, 대대본부라고 했어. 난 2중대로 배속 받았어. 친구들은 1중대로 다 가고, 그래서 1중대로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1중대로 갔어. 학생병과 고참병들의 비율은 학생병들이 절대 우세야. 고참병들이 1개 분대인가 그렇던 것 같아요.

포는 어떻게 쏘어요? 학생들이 눈치가 빨라서 고참병들보다 나왔어요. 처음에 1주일동안 눈여겨 보고나서 할 수 있었죠. 전투하면서 고참병들 행동을 보고 따라했죠. 1개 분대 고참병 3~4명, 나머지 학생들이야. 탄약은 반, 보조, 포 사격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1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더 잘 쏘어요. 그런데 보니 포 사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 11월 20일쯤 30포병대대 창설 기간요원으로 고참병들 무학자들을 다 보냈어. 그래서 7~80%가 학생들로 남게 되었어. 어느 정도인가하면 점호 보고할 때 고참병이 점호내용을 읽어보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라고 시키고 다 외웠던 거지. 당시에는 왜정 때 농촌에서 자라고 그런 사람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거지. 당시 문맹률이 7~80%였으니까.



복귀령 명령에 많이 억울하셨어요? 많이 억울했지. 대통령 훈령까지 깎아뭇냈다고 그렇지. 학교에서 학생 졸업증을 또 안주더라고. 그리고 대통령 훈령이라고 해서 구속력이 없더라고.

훈령을 알았는데, 분위기상 현역으로 남은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 묵살해버린거죠.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깎아뭇냈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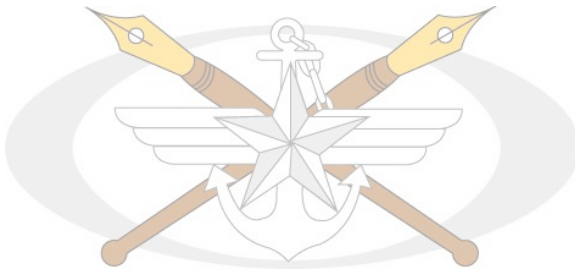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18포병대대의 주요 전투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덕천에서 포위되어서 중공군에게 사격하고 그랬는데, 고참병들이 도망가니까 같이 도망갔지. 자세를 낮추어서 지그재그로 뛰어서 도망갔어. 켈리버 50으로 우리한테 쏘더라고. 공이 뭉치만 빼서 버리고 칼빈소총 메고 뛰어서 나왔어. 11월 25일 저녁 덕천군 묘향산 부근이었어요. 저녁에 통신이 다 끊겼어요. 중공군이 와서 저녁에 다 끊은 거예요. 지휘관들이 출동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조금 기다려 보니까, 11월 26일 새벽에 중공군들이 몰려오더라고. 개인호를 너무 깊이 파서 일락이라는 늪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잡혔어. 총을 쏘니까 도로 기어들어가서 중공군에게 잡혔지. 여기에서 100여명 정도가 없어진 거지. 340명 중에 100여명. 덕천에서 습격을 당해서 덕천부락으로 내려와서 아침 8시 정도 되었을 때 고참병들 따라 내려갔어. 그래서 피난민 속에 끼여서 내려갔어. 아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서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적 척후병이더라고. 그래서 한 판 붙었어. 패잔병이 되니까 하늘에 대고 쏘고 정조준이 안 돼요. 마침 미군 전투기가 폭격을 해서 우리가 살았지. 덕천 들어가서 먹을 만한 것이 있으면 다 먹었어요. 덕천강에 가니까 교통호를 파고 있는데, 중공군이 다리를 못건너도록 차단하고 있더라고. 그것을 못 뚫어 개천으로 밀고 나가자고 해서 막 나가는데, 중공군 병력이 얼마 안 되는데 뚫지 못하더라고. 독안에 든 죄지. 패잔병하고 낙오병이 6, 7, 8사단해서 한 만 명 되는 것 같아.

지휘는 어떻게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지휘가 어디에 있어, 7사단 5연 대장이 일본군 출신이었는데, 권총을 쏘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해도 하나도 안 듣더라고. 장교들이 계급장 떼기가 바뻐서. 할 수 없어. 우리 대대장도 포로가 되었는데 총살당했다고 하더라고. 힘이 쭉 빠지게 되어 있다고. 우리랑 같이 있던 부중대장이 포위를 뚫고 산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포기한 모양이야. 알고 보니까 계급장 띠었던 거야. 그 당시에 장교들 교육이 제대로 되었겠어.

그러면 강을 건너서 계속 철수를 한 건가요? 캄캄한 밤에 6, 7, 8사단 낙오병들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산에서 중공군 피리 소리가 들려. 어찌나 처량한지. 신호하는 거더라고.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하고. 한 7, 8시쯤 됐을 때 3보 간격으로 가고 있는데, 휴식하는 동안 잠들어서

앞 사람과 끊기기도 하고. 나중에 계곡에 올라가니까 피난민들도 만나고, 부락에는 떼놈들이 잤다라고 하고. 9시나 10시쯤에 일어나서 서울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 양지바른 쪽이 북쪽이고, 눈이 많은 쪽이 남쪽이다라고 해서 남으로 내려왔어. 내려오는데 중공군들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8사단 10연대 중화기중대더라고. 중대장이 용감하더라고. 박격포, 기관총 다 메고 이동하더라고. 이런 군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지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 강성모 구술 개관

- 구 술 자 : 강성모
- 면 담 자 : 장성진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7월 15일
- 면담 장소 : 린나이 가스 사장실

● 구술 내용

먼저 서울학도포병 참전하셨는데, 참전과정을 설명해주세요. 50년에 6·25에 발발시 서울시내에 살았어요, 종로 예지동에 살았어요. 밤중에 빵빵소리가 났죠. 밖에 나갔다가 군인들 귀태하라는 스피커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로 네거리에서 돈암동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 무렵에서 부대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북괴놈들이 내려오는데. 밤중에 좌랑 좌랑하는 소리가 들려요. 새벽이 되니까, 28일인가 큰길로 탱크들이 내려와요. 골목에서 군인들이 숨어서 소총으로 탱크를 사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병부대들이 내려오고요. 악덕분자들이 깃발들을 흔들었어요. 종로 네거리에서요. 탱크에 군인이 뛰어올라가서 조금 있더니 팽 소리가 나요, 수류탄을 던져서 을지로 사거리에서 불에 탔어요. 그래서 2~3년 그 자리에 불타서 있었어요. 참 용감한 군인이었어요, 서울시내에 와서 수색하고, B-29가 폭격하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난 북에서 월남한 사람인데. 북에서 월남한 사람들 몇 월 몇 시에 교정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상하다 했어요, 마침 친척이 폭격 때문에 부상 입었어요. 그분을 리어카에 싣고 새벽에 모이라고 하기 전날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량리 방향으로 가는데 붙잡혔어요, 왜 의용군

안가냐고 해서 환자 때문에 간다. 그러나 그럼 몇 살이나 그래서 한 살 더 내려서 16살이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퇴계원까지 이동해서, 퇴계원에서 숨어있었어요. 그러다가 9·28수복 때 큰 길에 국군 해병대 들어오는 것이 보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퇴계원에서 서울로 들어왔어요. 석 달 동안 사람들 죽이고, 이북에서 온 사람들 모두 많이 죽었어요. 중랑교에서 시체 산더미를 봤어요.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7사단 18포병대대 최철 대위, 그 분이 장군까지 하셨죠. 그분이 학도병 모집을 했어요. 전쟁 중에 공부하기 글렀는데 가자. 학생들이 용산고등학교에 350이 모였죠. 그래서 350명이 모여서 10월 20일이죠. 시험을 쳐서 350명이 트럭을 타고 7사단 평양 입성에 같이 들어가면서 참전하게 되었죠. 덕천까지 갔다가, 덕천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고 어려움을 겪었고, 포병이 육박전을 했죠, 6, 7, 8사단이 모여서 덕천 시내에서 중공군하고 싸웠죠. 그때 중공군이라고 하는 게 소수병력이 산꼭대기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갑자기 쾅과 리, 나팔 불고 심리전하니까 포위당했구나 하고 거기에서 북창이라고 하는 곳으로 빠져나왔지. 북창에 집결해서 다시 나오는데, 중공군 포위 과정에서 대낮에 아주 그냥 보병 1개 대대가 대대장 지휘 하에 전원이 무장해서 큰길로 나오니까 중공군이 덤벼들지 못하더라고. 지휘관을 잘 만나면 부대가 산다는 것을 지휘관에 따라 당당하게, 그래서 지휘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

퇴계원에서 3개월 동안 생활은 어땠나요? 당시 퇴계원은 시골이니까. 시골까지 생활은 북한 놈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어요.

왜 월남을 생각하셨습니까? 해방된 다음해에 소학교 6학년 때 해방되죠. 해방됐는데 북한에는 러시아. 남한에는 미군이 있었죠. 외가는 부산, 아버지는 함경도 사람인데. 부친이 서울을 들락날락했는데. 서울을 왔다가

다시 와서, 러시아 군대하고 미국 군대하고 천지 차이다. 러시아 군대는 북한에 들어와서는 질서도 없고, 한국 사람들 시계 다 뺏어가고 해서 러시아군 이미지가 안 좋았어.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소학교 6학년 졸업하자마자 서울에서 공부해야겠다 해서 월남했어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어머니도 모시고 서울로 내려오게 됐죠.

그럼 47년도에 용산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가요? 아니, 46년도에 중학교는 명문중학교, 고등학교는 국립체신고등학교였어.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학도의용군으로 갈 때 집에서 반대는? 그 때 분위기는 가도 되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복진할 때, 학생 영웅 심리로 참전하게 되신 건가요? 그 때 최철 대위가 석 달만 근무해라, 전쟁은 한 달이면 끝나니까. 끝나고 보내주마. 그런데 중공군이 나오니까 육군 이등병으로 편입하게 된거죠.

언제 이등병으로 편입하게 되었죠? 편입된 것이 11월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육군 이등병으로 편입된 것 같아요.

언제 그 사실을 알았나요? 전쟁 때라서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서, 나중에 알았죠. 중공군 들어와서 많은 희생이 있어서 근속이니 그런 생각이 없었죠.

복장은요? 학생복입고 들어가서 평양에서 인민군 주둔한 학교에 들어가서 창고에서 인민군 군복도 입고, 부대 고참 군복도 입었어요. 군복에

18FA라고 썼죠. 옷지 못 할 일종의 하나는 인민군 군복을 입어서 미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 그래서 부대 표시 외에는 피아식별이 안되었던 거지. 그래서 외출도 시키지도 않았어. 그래서 숙천 전투로 바로 올라갔지. 그러면서 고참병들 옷을 다 갈아입으면서 해결됐어.

군대 생활은 언제까지 했나요? 육사 모집이 있었지. 11기 모집하는데 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모자란다고 해서 떨어졌고. 그 다음해에는 고참병들이 못가게 해서 못 갔지. 간부후보생 특명이 났는데. 사단에서 독촉 공문이 왔어요. 대구 보충대로 갔어요. 18포병대대 있다가 5포병단으로 전속가서 포병단 통신본부 나중엔 포병사령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간부후보생으로 늦게 가서 김석찬이는 48기로 들어가고. 나는 다음기수로 들어갔는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원래 크리스천이 아닌데.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한달 동안 여기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대구에 2군사령부 생겼는데. 군종부에 가서 일을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군사령부에서 차트 만드는 일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근무하다가 제대하라고 했는데. 저는 명령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2군사령부 특명을 내주어서 56년 2월 달에 거기에서 제대했습니다. 6년 동안 근무했어요. 그때에는 전부 제대를 안 시켰어요. 그 무렵부터 만기 제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2군사령부에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근무했죠. 휴전하고 한참이니까 54년경부터 2군사령부에 있었죠. 그러니 18포병대대에 있다가. 5포병단 사령부에 있다가 2군사령부에 있었던 거죠. 전역당시 이등상사, 지금의 중사로 전역했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내린 학생들 복귀명령은 들었나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되었죠.

용산고등학교에서 모인 사람은 모두 포병으로 갔나요? 모두 포병으로 갔죠. 최철 대위가 포병부대에서 나왔고, 나중에 대대장까지 한 분이니까요.

서울 수복 이후 최철 대위 외에 학생들 나오라고 한 사람은 없었나요? 없었죠.

최철 대위만 한 이유는요? 포병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학생들을 모집한 거죠.

그래서 18포병대대가 다 학생들만으로 구성되었나요? 그렇죠. 물론 고참병도 있었죠. 옛날 포병 1대대였어요, 서북청년원이 창설멤버였어요. 포병 창설하면서 포병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작된 부대였어요. 최철 장군이 함경도 분이예요. 원산학교를 다녔고, 육사 들어갔죠.

이북출신이 상당히 많았나요? 김석찬과 저는 이북이지만, 이북 출신 학생들은 호응해서 있긴 했지만 전부 이북은 아니예요.

전역 이후 다시 학교로 복귀했나요. 전역하면서 고시시험보고 해서 대학 입학자격 얻고, 국제대학 야간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포병부대로는 2개 있는데요, 최극이 포함된 대전중학교에서 창설된 포병부대와 용산고등학교에서 창설한 2개인데 서로 교류는 없었나요? 전국에 학도병 모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대우받는 것은 있나요? 아직까지 없어요. 저희 용산고등학교 기념비 만드는데 보훈처에서 도와주셨고. 모임에 찬조해 주시고, 1년에 한번 참여해주셔서 고맙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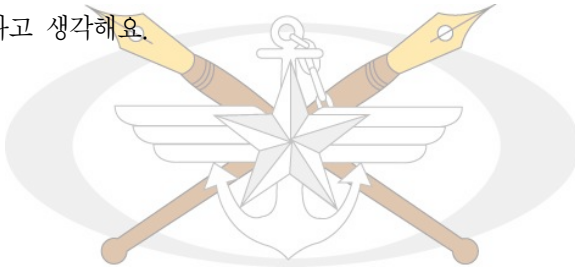
참전용사비용을 받거나 그렇지 않나요? 화랑무공훈장을 탔는데. 그것 때문에 18만원씩 보훈처에서 들어옵니다. 사창리 전투에서 얻었죠. 6사단이 사창리전투에서 당했죠. 미 기관포, 탱크부대가 완전히 녹은 자리이죠. 2사단 17연대가 탈환하기 위해서 들어간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떤 작전을 했느냐하면요. 17연대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해서 중공군이 토치카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때려부수는 전략을 할 때 제가 연대 OP 관측병을 했습니다. 무선병을 했는데 유선이 잘려서 유선이 통하질 않았어요. 밤을 새서 헤매고 해서 산꼭대기 OP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619무전기를 들고가서 유선이 끊어진 것을 제 무전기로 화력유도하고 해서 작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쌍안경으로 미군 신무기의 효용을 봤죠. 보병이 올라가도 안 되고 비행기로도 토치카 파괴가 안되었죠. 그래서 포병하고 보병하고 공동작전했죠. 계속 쏘니까 토치카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토치카가 무너지니까 중공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VT탄을 공중에서 떨어뜨렸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나중에 사창리를 회복할 수 있었죠. 내 무전기로 작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서 무공훈장을 탔어요.

중공군 토치카가 주방어선에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병들이 올라 갈 수 없었습니다. 병커들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땅굴파는 것과 밤에 산 타는 것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중공군 포로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통신병 역할을 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웬만한 것은 제가 고치고 했습니다.

학도의용군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위기에 참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6·25전쟁 시 양민학살하고 하는데 위기에 있을 때 눈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 뛰어든 거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방부에 하고 싶은 말은? 육사에 하고 싶습니다. 이 심리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부대 안에 심리전을 담당하는 부서, 장교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도 심리전이 있어야 하거든요. 요즘 군부대에 총기사건도 나고 하는데, 저는 모두 심리전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마음을 읽어주고 어떻게 적을 대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단 동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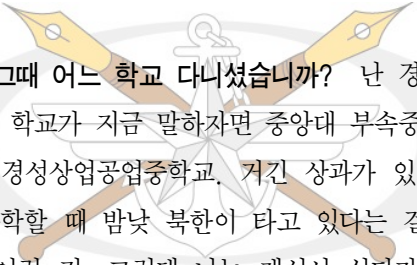
● 이순창 구술 개관

- 구 술 자 : 이순창
- 면 담 자 : 성연준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7월 21일
- 면담 장소 : 태극단 동지회사무실

● 구술 내용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학도의용군이 여러 단체가 있는 데 그중에서 태극단 동지회는 어떤 단체였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구성됐고 회장님은 어떻게 태극단 동지회에 입회하게 되셨고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태극단 동지회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보상이나 대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학도의용군에 대해서 정확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혜택을 받았는지 태극단 동지회가 평소에 활동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우리 태극단은 6·25 전에 주로 경의선, 경의선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시발이 용산역이고 거기에서 개성 지나서 토성까지 가는 열차가 있어요. 거기에서 통학하더니 학생들로 부상이 되는 것이 주로 태극단 놈들이야 요즘 어딜

가든 성폭행 그러잖아. 젊은 놈들이 비비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때 지하철 보고 그랬어. 지하철 만들자고 러시아워 시간에. 우리가 6·25 당시에 지정석이 있어서 열차 지정석 공무원석 맨 뒤가 여학생 칸 하나 공무원 일반인 그전에 학생 칸. 학생 칸은 두 개야 우리가 해방돼서 5년 만에 6·25 발생 났다고. 나는 4학년 때 4년 동안 통학을 했지. 통학하는 학생들은 학생 칸에만 타야 돼. 한 놈이 그때 당시 해방정국에서 공산당들 폭력하고 말이야. 서울에선 빨갱이들 지랄하고 그러니까 남산 남대문에 만나서 대충돌이 있을 때도 있어. 혼란스러운 한국이야. 그리고 지금 한성중 학교는 그건 옛날부터 빨갱이학교라고 그랬어. 지금도 폭동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6·25가 났다고.



선생님은 혹시 그때 어느 학교 다니셨습니까? 난 경성 상공중학교. 지금은 없어졌어. 그 학교가 지금 말하자면 중앙대 부속중학교야. 지금은 중대부고고, 옛날엔 경성상업공업중학교. 거긴 상과가 있고 공과가 있잖아. 난 전기과였어. 통학할 때 밤낮 북한이 타고 있다는 걸 알지. 어느 학교 빨갱이는 누구다 이런 거. 그런데 나는 개성서 살다가 3살 때 수색으로 왔어요. 해방되던 해 졸업을 해서 내가 경북 배정으로 떨어져서 우리 형님이 좋은 학교 보낸다고, 다시 1학년. 6학년을 다시 배워서 7학년 졸업생이야. 상고 다 떨어졌어. 2차까지. 지금은 실력이지만 옛날엔 가정환경이었어. 형은 돈벌고 동생들은 많고 그래서 떨어졌어. 2년차에 상공학교에 갔어. 통학을 할 때 그때는 파주 금촌 6·25 이전에 이사를 왔어. 내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활이 안돼서 집을 팔았어. 우리 형님이 서울 지금 수도공고 토목과를 나왔어. 그리고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바로 철도에서 일한 걸 봐서 형을 채용 했다고.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철도에서 일을 하고 일본 측량사들은 술 처먹고 있고, 형님이 설비 일 하고. 그래서 형님을 설득했기 때문에 집 팔고 다시 개성

으로 가서 살다가 금촌 보선교육으로 왔기 때문에 파주 금촌으로. 거기서 6·25전쟁 날 때쯤에 동네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인민군이 오니까 나오라 이거야. 지금도 인민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군인가족, 경찰가족은 다 나왔어. 안 나올 수가 없지.

인민위원회나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민위원회 조직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게....

그때는 몇 살이셨습니까? 난 18살이었지. 원래 고등학교 2학년이어야 되는데, 1년을 더 공부를 해서. 금촌역에 나가서 기다리니까 저쪽에서 오는데 처음엔 주력부대가 안 오잖아. 초병만 오지. 수색대에서 1개 분대가 오니까 깜짝 놀라지. 여군들도 있고. 그래서 박수를 치지. 아무 말도 안하고 일산으로 갔지. 그 전엔 후퇴할 적에 당황해서 그냥 일반 집에 가서 민간인 옷 좀 달라고 후퇴하고 그 다음날일거야. 박수치고 나니까 집으로 갈려니까 가지말래. 인솔해 가는 거야. 의용군 나가라는 거야. 공무원, 가족, 군인가족, 경찰가족.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누이는 노동자였거든. 철공소 다니다가 작은형은 국방경비대를 가서 나는 그러니까 군인가족 아니야? 안 나가면 큰일 난다. 거기서 이제 서약서 받고 그래서 집으로 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그래서 수색으로 가고.

부모님은 그때 어떠셨습니까? 나는 여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나하고 형수, 동생밖에 없었지.

그럼 수색으로 오신 겁니까? 그렇지 나 혼자 수색으로 갔지. 가가지고 수색땅 3분의 2가 다 그집 김서방네 땅이니까 개가 나하고 친구고. 개 형이 육군사관학교 9기생이라고. 난 어릴 적에 배가 고파도 그 집에 가면

아주머니가 밥 먹으라고 실정을 알았기 때문에 신세를 많이 졌지. 도망오 다시피 했는데 그놈하고 의형제 맺고, 또 황상균이라고 초등학교 동창 내가 1년 선배지만 동창이 됐지. 그래가지고 이 세 놈이 배낭 들고 돈은 애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병구. 김병구라는 애랑 황상균이란 애랑 일산에 가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밴드부에 갔지. 1사단사령부에 가니까 군인도 없고 인민군도 자위대 빨갱이들만 지키고 있는 거야. 정문을 지키니까 산 넘어서 들어가서 약기가 있더라고. 창고가 20평 정도 될 거야. 가니까 수류탄이 있는 거야. 둘러메고 산타고 나와서 그런데 검문이 있으니까 참외밭에 가서 참외 서너 개 갖고 와서 참외를 얹혀놓고, 하나는 방에 천정에다가 넣고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느냐? 나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여기 죽은 45명 가운데 3분의 1이 내가 조직한 사람이야. 나는 살고 다 죽었던 말이야.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산 사람이 해줘야지. 우리 가정도 지금 엉망이지만 죽어서 천당 가서 돈 쓴다면 돈 안 쓰지 그렇잖아? 말이 계속 옆으로 가지만 지금 대한민국 깜깜해요. 지금 어떻게 부정부패를 그렇게 해? 이순창이 똥도 못 먹어. 국회에서 그 지랄 하니까 기업도 내가 번거 외국에 돌려놓는다는데. 돈을 뺏기는 이 그렇잖아.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해. 그래서 조직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꼬맹이니까 안 되겠다. 나이 좀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지시받고 학교 선배들이지.

보니까 파주 개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곳도 많이 했지.

다 그렇게 활동하시는 사람들끼리 조직이 돼서 구역을 나눠서 활동하신 겁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부들이 한번 모인 적 있어. 너희들이 알아

서 빠라를 뿌리려면 뿌리고 알아서 하라고. 나는 어리니까 더 많이 돌아다녔어. 목적은 태극기를 쫓기로 했었거든. 서울에 사는 형하고 나하고 말이야.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에 그래서 계획을 해서 그걸 감행하려고 인천상륙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 혼자만 넘어온 거야. 그전엔 다 붙잡혔지. 어떻게 나 혼자 살아? 이려고.

구체적으로 회장님께서 하신 활동 내용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주로 돌아다니고 목적은 서울의 형이랑 낮에는 북괴군 수송열차가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보급을 해야 되는데 밤에는 다닌다고. 기차가 보급을 해야 되니까 탄약 싣고 쌀 수송열차가 밤에 다닌다고. 우리가 철로를 끊자,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화정 지나서 커브 길이 있다고. 그런데 그거 못 끊어요. 택도 없어. 두꺼운 게 있는데 빠루 가지고 어떻게 해 그걸 우리 형님이 관내 소장이니까 누구한테 시키면 돼. 어디다 감춰놓으면 되는 거야. 그걸 뽑아도 5m, 6m 뽑아내도 천만의 말씀! 기차가 9m, 10m가 되는데 그걸 다 뽑아야 돼 다 뽑아서 이걸 3m 뽑아선 이것까지고 안 돼. 이걸 10m 이상 뽑아야 돼. 이걸 어떻게 제끼냐면 뽑아서 타이어 다 뽑아줬잖아. 이렇게 들어서 빠루를 밀어서 이렇게 밀면 돼. 거긴 10m. 그래갖고선 그거 때문에 참 난리였어.

전체 확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체 확인은 할 수 없었지. 한번 있을까 말까 그냥 계획하자. 이려고 행동은 못해.

근데 궁금한 게 인민군 치하면, 그런 게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평소 이제 반공의식이 있든지 아니면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애당초 조직할 적에 군인가족, 지주 이렇게 한 놈들이기 때문에 병신들은 비켜야지. 아니 돈 있는 사람들

지주들 얼마나 숨어 다녔어. 그러니까 공무원 가족, 경찰가족, 군인가족, 지주가족 이것들로 형성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잘 사는 놈들끼리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민군이 내려오면 다 쏘 죽여 버렸지. 죽으니깐 애네가 뭘 아냐고 내가 작업을 하는 데 참고적으로 보여줄게. 지금 전쟁기념관에 많이 있거든. 전쟁기념관에 전시하려고 이제 무기가 있거든. 장병들이 권총을 찾는 거야. 우리가 다 쓰고서는 땅속에 묻어버렸거든. 평범한 생활하고 잊어버렸지. 전쟁기념관에서 전시할 거 내라고 해서 이게 있어. 우리 친구한테 무기 그냥 꺼낼 순 없잖아. 우리 친구가 쓰던 권총이 전쟁기념관에 전시하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보안부대에 직접 와서 요원 와서 찾아서 나온 거야. 예전엔 그냥 쏘 죽여서 개관됐다고. 또 책에 다 있어요. 9·28 인천상륙해서 경인국도 타고 온 거 아니야. 여기는 미 해병대 하고 경찰들이 왔어요. 군인도 없고 미군인들 하고, 해병대. 김포에선 행주로 들어와서 능곡이 해방됐잖아. 작전상 서울을 점령해야 되니까, 재탈환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군이 능곡에서 서울로 향했고, 우리는 일산, 금촌 저쪽 아니야? 태극단 여기 지역 아니야? 능곡에서 왔단니까 옆에 마주리라고 있어. 전철 거기에 있는 백마지대에서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연세대학교 있잖아. 거기서 인민군 후방사령부가 있어.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외국에선. 그리고 휴전을 해 그래서 한미동맹을 하자. 한미동맹 다 한 거야. 그런데 아니 허리가 끊겨가지고선 이쪽은 대한민국이고 저쪽은 아무것도 아니고,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야. 후방사령부에 있던 인민군이 말이지. 1개 중대가 후방사령부가 뭐예요. 병기가 있어 뭐가 있어 보급하고 말이지 기껏해야 기관총 하나 있어. 전차가 들어오네.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걸 그냥 우리가 30명이 다잡았어. 잡아서 유엔군에 넘겼다고 국군포로 전체적으로 포로로 안 잡힌 놈들이 후방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유엔군이 인천상륙한다고 들어올 때 행주산성을 지킬 적에 질겁해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 인민군에. 그제 반공포로 한 사

람이 있어. 나하고 가까워 태극단에 붙잡혔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웃기지. 그래서 우리 태극단에 붙잡혔다는 말은 안하고 유엔군에 행주산성 지키다가.....

그때 포로 잡으실 때 같이 계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다른 일 했지. 우리 행주지단에서.

회장님은 어디 지단에서? 나는 수색지단.

그런데 태극단이라는 명칭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는 셋이서 모여서 대한민국지하공작대. 이걸 했거든. 그랬는데 나보다 3년 6회 9회 3년 선 배가 있어. 철도국에 다니는 선배데 대동청년단이 철도국에도 있었거든. 철도국의 훈련대장이야. 요 주목대상이지 그 형이랑 같이 만나서 철도국 직원들 인민군인 줄 알아서 역부가 직장동맹에 연행이 된거야. 그랬는데 살아서 도망가서 우리 셋이서 뭐해? 뭐 할 줄을 모르잖아. 비밀리에 가서 단장을 만나서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지하공작대가 있으나마나 했어. 그래서 대한지하공작대가 태극단으로 바뀌어서 총 책임자지. 내가 최고지. 내가 조직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야. 나도 이제 외국손자 있고. 그런데 젊은이들은 나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해. 내려가고 말이지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바보 아닌 바보짓을 한 거지. 우리 친구들 전부 죽은 아이들 조직 안하면 나는 도망가서 살고 나머지는 죽었던 말이야. 나를 원망은 안하겠지만 말이야. 내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 어떤 사람들 단체도 말이지. 돈을 쥐서 해? 그렇지?

그럼 이제 활동을 다하다가 선생님은 태극단이라는 이런 게 유엔군이

지령을 받거나 임무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활동하신 거 아니니까? 그렇지. 자체적으로 했지.

그러다가 수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군하고 유엔군하고 편입되거나 아니면 임무를 따로 받아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수복이 됐으니 학생들이니까 돌아가라? 원래 해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길 해줄게. 우리가 이제 일산, 금촌 그 다음 문산이야 그 다음 장단이고 개성, 이렇게 나갔는데 9·28 수복 전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해서 서울로 들어와서 9·28 가기위해서 낮에는 대한민국이고 밤에는 인민공화국 이렇다 여기는 태극기가 걸려있고 수색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당시에 9·20 며칠 전에 나는 여기 상륙한 걸 알았다고, 우리 친구가 능곡에 있던 내무서원이 허겁지겁 금촌이면 여기가 20km. 금촌에서 북한으로 전화하는 걸 들었어. 친구요원이 금촌에서 근무하는 게 뭐냐면 옛날엔 매점 있잖아. 빵, 카라멜, 사이다 이렇게 하는 놈이 개가 우리 태극단이라고. 아니 그놈이 금촌역에서 장사하는 그놈이 역에 와서 무상출입 아니야? 인민군 북한에 전화하는 거지 다른 데는 전화하는 곳이 없고 유엔군이 능곡으로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다고. 나는 수색으로 왔다고. 걸어서 요때 당시에 요개 백마라고 있어 백마지단에서는 정발산은 여기고 정발산에 연세대학교 후방사령부에서 행주산성을 들어오는 것을 한강에 붙들리면 붙들리고 1개 중대가 다 도망갔다고. 그때 유엔군이 들어왔다고. 대낮에 우리 태극단에 총질을 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태극단놈들이라고. 저녁이 되니까 군인들은 유엔군을 전부 서울로 가는 거고 여기는 대낮에 총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 총을 제대로 못 쏘. 여기 능곡 옆에 삼송동 여기까지 내려와서 저녁에 양민 다 학살하고 갔어. 우리가 여기 전투할 적에 육군대위가 있어. 이승환인가? 내려가진 못하고 우리가 백마지단에 숨겨놨거든. 여기서 애 지시를 받았지. 또 일등중사랑 대위가 있었어. 또 낙

오병을 숨겨놔. 백마지단에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뭐해? 대위가 공격하자마자 오히려 이쪽 동네가 소도 다 끌고가고 민간인들 다 학살하고 그래서 이승환 대위는 여기서 전사했어. 또 손태성 중사는 팔인가 다리가 다쳐서, 미군비행기가 데려가고....

인민군도 태극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나중에 알았지. 여기서 처음 안거야. 일산 내무서 발각 뒤집혀서 태극단이 있다고 태극단이 뭐냐 찾아가지고 교인기관에 집사가 있는데 큰 형이 여기 셋째가 나랑 동갑이니까, 아니 막내야. 막내가 나하고 나보다 10살 더 위겠지. 교회 집산데 총뎌는 걸 봤다고 극비리에 조직을 통해서 요놈이 이 애길 했어. 총이 나오고 태극기가 나오니까 형제 두 명이 학살당했어. 여기서 때려 조지고 오니까 파주, 금촌 때려서 하나 불고 하나 불고 이러니까....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총만 안 쏘도 괜찮은 거야. 이승환 대위가 낙오병인데 태극단에 기관총이 있다고 한 8명이 공격을 했다고. 대낮에 인민군 애들이 놀래서 이게 뭐냐? 그게 아니고 뭐냐고 하니까 태극단이라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 학살하고 도망가고.

선생님은 수복다움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여기서 사고 난 것도 모르고 인민군 주력부대가 들어오고 수색대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빨갱이가 와 여기도 마친가지야. 서울은 수복이 안됐어. 이 때 치안대가 있었어. 어른들이지. 완장을 달고 있어. 나는 태극단 입단해서 학살해서 끌려간 거 다 알고 있었거든. 금촌서 듣고 금촌서는 몰랐었지. 조직원 형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그때 쉬지도 못하고 바로 능곡으로 가서... 그렇게 눈물이나 태극기를 보면.... 그래서 갈려고 하니까 하루 잤거든 능곡에 형수 집이

있어. 하룻밤자고 새벽에 수색을 하는데 육교 있는데 거기서 경찰이 못갑니다. 왜 그러냐 하니 수색에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병대하고 인민군하고 하는 거야. 근데 못갑니다 하고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어. 저녁 6, 7시 그때쯤에 가라고 하더라고 하루 종일 있다가 친구 집에 가니까 치안대 나갔대 그러네. 김서방네 수류탄 갖다 놓은 집에 옛날 경찰서 지서라고 있었거든. 그때 당시 지서지. 야 내가 서울을 못가고 일산에선 태극단이 붙잡혀서 죽고 난리다. 너희들 치안대 하기 위해서 태극단 하나? 내가 최초로 가서 치안대 태극단 수색지단 간판을 걸고 여긴 젊은 애들 전부 빠지거든. 치안대에선 전부 와서 가져가고 나도 육도 많이 먹었어. 처음에는 이때 수색지단 받고 이틀인가 있는데 할 게 없잖아. 우리 태극단 단장이 몰래 왔어. 나보다 먼저 왔어. 먼저 왔는데 철도에서 일했는데 태극단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단장이 놀라서 사무실로 온 거야. 야 그러니까 예 단장님 일산에선 죽고 난리 났는데요. 그러니까 가자고, 기차를 타고 총들 다 가지고 가서 도로위예다가 갖고 가는데 7, 8명밖에 못타. 일산으로 가는 거야 수복하러 가는 거지. 결국 수복이 안됐어요. 옛날에 최국현이라고 집이 있어. 여기서 하루자고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일산경찰서에다가 일산 경찰서 바로 앞에 직할 본부를 만들었다고. 일산경찰서가 이걸 하면 요 밑에 파출소가 있어. 여기다가 태극단을 했거든. 부역자들을 다 잡아놔어. 한 7, 8명이 잡아놨다고. 여기는 진짜 이제부터는 낮에는 대한민국이고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고 수복이 덜 됐지. 여기는 빨랐어. 보훈처에서 그냥 태극단 놈들 말들어보니까 금촌도 붙잡혔다고 필적뛰어서 금촌내무서 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서 전차가 통과를 했어. 그냥 옥중에서 그냥 이 자식들이 그냥 도망갔다고. 그래서 옥중에서 살아나온 애들이 옥중에 죽은 애들도 있고. 우리가 일산에선 딱 들어가니까 다 잡아놨더라고. 우린 뭐했냐? 우린 경비를 서는데 북쪽에 젊은 사람들 있잖아. 우리는 경비서고 그랬다고 우리가 한날 태극단장이 집합! 그러더니 경찰서장이 문산

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해서 이송을 하는데 호송요원이 없다. 그래서 태극단이 호송을 맡기로 했으니까 호송해라. 몇 시에 출발이라고 우리는 빨갱이들을 데려가는 줄 알았어. 그게 금촌굴이라고 옛날에 금광이 있었어. 5명 정도 입구가 수직으로 되어 있었지. 44명을 경찰들 10명 우리 태극단 한 20여명 데리고 가는데 나는 기찻길을 훤히 아는 사람 아니야? 문산가는 길이 빠른 길이 있나, 계곡에다 앉혀놓고 다섯 명씩 앉혀놓고 경찰이 총 쏘서 집어넣고 했다고. 옛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병대가 있지 않았어? 해병대가 쏘 죽였어. 일산도 치안대에서 수색도 잡아놔서. 나하고 수류탄 가져간 황상균 아버지가 황용문인데 회사사장이야. 엘리트야. 근데 그 사람이 수복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숨어만 있었거든 빨갱이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이해야지. 9월에 수색대장을 시켰어 왜 빨갱이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대장을 시켰어. 이렇게 해서 유엔군이 지나가니까 태극기가 있으니 치안대에서 빨갱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야. 16명이나 그중에 한 사람이야. 내가 오기 전이지 내가 수색 오면 안 죽었지. 빨갱이들이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 계곡을 연결해서 봤어. 허리만큼 남쪽에서 북쪽은 안하고. 요새 초등학교가 여기 있는데 조사가 어디 있어. 빨갱이들 지적당하는 거 밖에 없어. 다 죽였어. 인민군이라도 다 죽어. 밤이 되니까 민간인이 앞장서서 일산에서 이렇게 금촌굴로 가서 45명을 죽였다고. 그다음에 7월말 경에 똑똑하잖아 우리가. 국방부 정훈국에 이선근이 있을 적에. 손후회 대위야. 손후회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초등학교 친구인지 어떻게 알아서 지금 복진하는 거야 민간인이고 없잖아. 그럼 태극단선무공작단으로 양성하잖아. 우리 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신천, 장천초등학교에다가 태극단을 철수해서 다 온 거야. 그땐 태극단 아닌 사람들도 무척 많아. 그래서 교육을 받는 중에 불리하니까 이 자식들이 어딜 팔아먹었느냐 HID 창설 되기 전에 육군본부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 1·4후퇴 때문에 이북에 선무공작과전을 못하니까 썩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심

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40명 차출해왔어.

그럼 육군정보국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문지에 다나와. 청년이 왔는데 저런 말씀이 있더라고. 어떻게 여기 왔냐고. 피난 내려왔는데. 어디서 오는데. 함경도라고. 왜 혼자와. 그러니까 학교는 어디 다녔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장교할래? 이런 개새끼들 눈이 번쩍하지. 고생하는데 대한민국 장교시켜주는데 안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다고 했지. 이렇게 잡혀온 놈이 150명쯤 됐어. 근데 그것이 제8정보연락 장교단이라는 것을. 국방부 일찍 오면...

회장님은 군번을 정식으로 받으셨습니까? 나는 장교 군번 받았지. 1002127 기록정보사령부에 기록도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 망하려고 그래. 나는 담배피고 술은 안마시지만 이렇게 해도 젊은이가 좋은 나라 만들어달라는 거야. 대한민국 망하려는 정조야 그런데.

소위임관 하신 겁니까? 군번만 찍고 전쟁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했는데 육군정보국에서 장교단이라는 걸 만들었어. 지금 영천에 있는 전신이 그거야. 내가 잘 알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장교로 다니면서 우린 미 8군에서 1·4후퇴 기미가 보이니 11월 8일 날 1·4후퇴되면 31일 만에 서울도로 뺀 거 아니냐. 서부전선, 중서부, 중부 150명 첩자들 파괴를 시켰어요. 문산으로 가는, 순천으로 가는 패가 있고, 나는 어디로 갔느냐, 12월 22일 날 정보학교가 8군정보연락장교단이 대구로 전부 후퇴를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대구로 갔어. 날보고 그래, 우리가 교육할 적에 이렇게 2기생이 있고 여군 2기생이 있었고 2기, 3기도 교육받았다고, 막 끌고 가서 후퇴할 적엔 여군 2기, 3기 후송받았다는 거야, 딱 밤에 자는데 깜짝 놀랐다가, 따라오라고, 오늘밤에 후퇴한다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우리 친구

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너희 친구들은 모래 전투에 투입된다. 그러니까 저는 안갑니다. 나 때문에 우리 태극단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겠습니까? 육군 중위 출신에 내 대우가 부상을 당했는데 민간인 집이 있는데 학교 선생이 있었어. 서울로 오는데 학교도 그만두고 데리고 온 거야. 육군 중위가 결혼은 하지 않고 임관해서 데리고 있을 순 없잖아. 계급이 중위야. 나는 학생이고 나는 임관도 없지 군번만 있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피려고 가자고. 12월 22일 날 우리 친구들은 자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 모자라서 다시올라가고 대구에 24일 날 도착했어. 대구 극장으로 들어가서 여군들 교육받은 2대대, 3대대 거기서 오락회를 했다고 내가 1등 했어. 우리 둘이해서 병신춤을 해서 그래서 건빵 받았다고. 다음 간 것이 제7훈련소 영천에서 가기 직전 달성초등학교 갔다가 육군 제7훈련소에서 박일순 소장하고 박정희가 대령 때 그 후로 나 HID간다고 말 이야. 곧 나는 사관학교 갈려고 했어. 끝나가는데 술 한잔 먹고 권총으로 나 죽는다고. 그래서 나 해방시켜달라고 섬에 가서 내가 공작선을 탔지. 내가 특수임무 58개월 했나? 난 침투를 안 하고 배 기관장을 했지. 수송부에 운전을 했고, 의무대에 있다가 공작처장이 운전을 배워서 강화도로 가서 섬을 가서 공작선을 가고 엔진 하나 부리니까 잘 가더라고. 인솔자로서 보상금을 받았지. 우리 회원들은 기억이 없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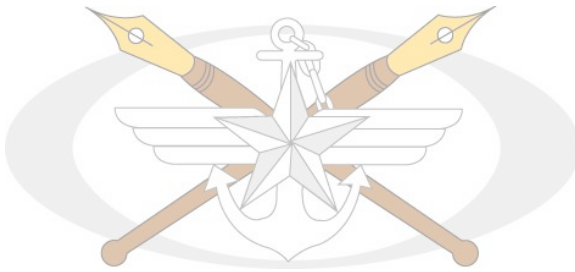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그 다음에 태극단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태극단은 그 다음에 학도의용군 장천에서 깨진 거야. 어디로 갔냐면 특수임무수행 자원해서 학도의용군가고. 내 동생은 학도의용군출신이야. 군대는 해군출신이고 워낙 살기가 힘들어 해군으로 가고. UDT 배타고 정보국에 갔었지. 제2방위군으로 끌려갔지 그때 태극단이 해체됐지.

다시 어떻게 결성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우리가 내가 사

업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양계를 했어. 병아리도 키우고 요즘엔 치킨을 하잖아. 요즘 육계를 해서, 육계 닭이 따로 있잖아. 나는 연수로 해서 시험 쳐서 국제식량농업기구 거기서 시험 쳐서 축산인 2명 뽑는데 내가 합격을 했어. 닭에 영향력이 있어. 사료도 배합사료 그런 거 사다가 방앗간에 가서 그래서 내가 양계를 시작했어. 내가 일본가서 연수를 해서 갈 땐 벡타이하고 가고 올 때는 작업복으로. 일본기계는 다 갖고 왔어. 일본양계는 현재 이렇다 내가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내가 서울 고향이 싫어서 급행열차 타 있었는데 천안을 선택했다고. 땅을 2천 평을 샀어요. 양계장을 했다고. 위병소 사건이 있었어. 인생이 뭐냐 돈 벌어서 천당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또 잘살았고 내 돈 가지고 사무실 하다가 못 견뎌서 내가 태극단동지회를 만들자. 여기 책에 나와 있어 치사한 대한민국이야. 젊은 사람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 89년도 지금 전교조 때문에 난리야 그렇지. 사람들이 말이야. 100년 대계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89년도 8월 22일 여기 89년이면 22년 전이야 전교조만큼은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했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1988년 임대했었던 사무실이야. 내 돈 주고 그때 30만원씩 쫓는데 다른 일들도 할 일이 많고 여기가 마루야 자그마치 85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성명서 발표 및 모든 일을 마루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태극단 부지가 4,700평 대지거든. 무상임대해서 쓴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공원으로 지하1층 지하 100평 2층 100평 건축하게 된 동기는 91년도 고양군 당시 때부터 지어달라고 했어. 4번씩이나 그것뿐이 아니야. 식목행사도 나무 심은 것 고양군에서 하나도 안 봐줬어. 내가 100그루 다 사다가 정화작업하고 한 거지. 현재와선 공법단체가 아니라서 사무실 주기가 상당히 그래.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럼 보훈처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겁니까? 우린 국가유공자야.

죽은 사람들도 왜? 돈 달라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야. 현재 지금 고양시에서는 공법단체가 아니라 안줘도 좋아. 내 이 책이 91년도 2년도 국가적으로 일한 건 말도 못하지. 가까우면 해주고 이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 뭐 독립유공자? 나라유공자 너희들 가정이나 잘 이끌어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까 큰아이가 마흔 몇 살인데 아버지 공부안합니다. 옛날에는 없는 집안에서 했지만 공부 안합니다. 애 경성고등학교 시험 답안지 받으면 제일 먼저 나가. 지금은 후회해.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도리가 있어 뭐가 있어?



[전국학련]

● 최극 구술 개관

- 구술자 : 최극
- 면담자 : 장성진
- 면담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일시 : 2011년 7월 15일
- 면담장소 : 용산 전국학련 사무실

● 구술 내용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전하였는지 배경을 말씀해주세요? 학생운동 조직이 있었는데, 중앙에는 이철승 선생이 있었고, 대전에는 대학이 없어서 대전중학교에 다니던 내가 있었지. 학원 내에서 좌익세력 투철했고, 대전중학교 학도의용군 단장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6·25발발시 우리들은 전쟁 소식을 듣고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학교에서 다시 모였어요. 학교 폐교돼서 빈 학교들을 우리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지켰죠. 당신 간부는 50명 정도 되었어요. 대전사범중학교의 학도의용단장이 배정식이라고, 예비역 육군 소장이예요. 단장으로 있으면서 사범학교를 우리랑 똑같이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나서 6·25가 터지자, 우리가 호국단이 학교를 지키고 있는데, 정부가 대전으로 왔어요. 우리가 국방부 정훈국을 찾아가서 이선근 국장을

찾아가서 돕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빠라, 격문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에서 이철승 선생이 내려왔어요. 대흥여관에서 학련구국대를 만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시국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의향을 말하고, 이철승 선생이 국장에게 얘기했는데. 그때 송석인·배광석 예비역 소장, 그리고 죽은 강희갑·조항구 등 10여 명이 혈서를 썼어요. 태극기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써서 이철승 선생에게 줬어요. 이철승 선생께서 참 전황이 급해서 싸워야 되지 않냐고 이 국장에게 전했더니. 이 국장이 눈물겨운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들은 나가서 싸워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을 인솔해서 대구로 가거라.”하여 불덩어리 같은 정열을 가진 우리가 대구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약 80명 혹은 100여명 되었어요. 120명가량 되겠네. 여기에는 대전중학교하고 사범학교 인원이 포함되어 있었어. 열차로 대구로 이동했어. 이것이 학도의용군 인솔증명서야. 이것은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어. 학도의용군 인솔증명서죠. 인솔자로 제가 되어 있죠. 이철승 회장은 본부 위원장이어서 바로 전주로 가셨고 나중에 대구에서 만났어요. 학련본부 사람은 전주로도 가고 대구로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7월 14일 날짜 인솔증명서죠. 학도의용군 인솔 증명서로 처음이죠. 6·25가 나서 정부가 후퇴하고, 혈서 탄원하고 학도의용군 만든 것이 처음이죠. 개전 이후 19일 만에 처음인거죠. 대구에 갔더니 육군 보병 25연대. 대구 동부초등학교에 있는 25연대 교육대로 보냈어요. 연대장이 김응렬 대령이었어요. 전시편제로 해서 내무반에 들어가서 집총 교육훈련에 들었어요. 포항에서도 대구에서도 전국학련을 비롯해서 자원한 학도병들이 한 4~5백 명이 되요. 그 사람들이 합류해서 약 4주 분대전투 훈련을 받았어요. 하루는 노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친히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노안에 눈물이 가득했죠.

포항에서도, 대구에서도, 대전에서도 갔는데. 각 지부가 있었나요? 포항 지구도 있었고 대구 지구도 있었죠, 대구 지구 지부장은 이상팔이라고, 안강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포항은 최덕이라고 위원장이 있었죠. 나머지는 학도호국단 간부들이었죠.

학련이 해체되면서 학도호국단이 되었던 거죠. 건국 표창장을 주고, 전국학련을 해체하고 학도호국단으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학도호국단 간부로 됐죠. 그런데 이철승 회장은 학련을 했던 회장이었던 거죠. 그분들이 거의 학련 출신들이 학도호국단으로 가서 학련 출신으로 봐야하죠.

포항, 대구 말고 전주, 광주 등에서는 없었나요? 경북 중심으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대전, 포항, 대구 이렇게 모였어요.

내무반에서 다투기도 했어요. 대구 이상팔 위원장과 나하고 둘이서 태극기 국기계양대 밑에서 싸우지 않기로 반성하고 화해하고 했어요. 그때 포항학련은 싸움하지 않았고, 우리하고 충남학련하고 싸워서 태극기 계양대 밑에서 화해했죠. 4주 훈련 중간 중간에 출동명령이 나와요. 전원 집합해서 “지금 낙동강 전선이 위급하다. 여기에서 싸울 놈 30명 집합!” 해서 30명이 나갔어요. 가슴에 학도병 마크를 달았어요. 대구에 있는 여자 학생들이 비둘기하고 학병이라고 수를 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학도병들이 그 마크를 달았어요. 전투복은 전원 없었고. 학생복도 입고. 하지만 학병 마크는 다 달았어요. 낙동강 전선으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상팔 대구위원장이 안강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주 동안에 또 50명을 기계전투에 투입했죠. 마지막에는 한 번 집합하더니, “너희들은 포병으로 간다” 해서 대구 대건중학교로 보냈고. 충남학련, 대전중학교 학련만 갔어요. 갔더니 너희들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신흥진 포병사령관이 대전중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15연대에 있는 대전중학교 학생들을 포병으로 다 끌어간거예요. 포병으로 가서 포병훈련을 4주 받았어요. “너희들

은 미적분을 알지 않냐. 포병은 숫자를 알아야 하고. 포병사령관이 대전 출신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훈련 중에 하루 대구 시내를 나가서 이철승 회장을 만났죠. 대구 여관에 학련구국대가 구성되어 있길래. 현역으로 이철승 회장을 다시 만나게 됐죠. 그 당시에 돈으로 10만원을 주셨어요. 동지들하고 배를 채워라 주셔서 동지들하고 주보, 군대에서 물건 파는 데 가서 사 먹었어요. 육군 제3사단 22연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어요. 대구에서 군용차, 군용버스 등으로 갈아타고 경주에서 1박하고, 경주에서 포항 가는데 죽은 미군 시체를 처음 봤어요. 이게 전쟁이구나 느꼈죠. 포항 22연대에 갔더니 75밀리 3포중대인데. 이게 분해결합이 되어요. 미국에서 공수부대가 사용한 것 같아요. 첫날 가서 배치를 받아서 포탄을 장전하고. 일부는 기관총반으로 포진지 앞에 있고 했죠.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고지를 쫓는데. 아군들이 막 후퇴하더라고요. 또 인민군들이 고지로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시내로 후퇴했어요. 그래서 후퇴하려고 했더니 포항교를 폭파해버렸어요. 아군 군단이(폭파를) 했겠죠. 그래서 포항 시내에서 보병 전투를 했어요. 포를 버리고 칼빈총 가지고 인민군하고 쏘고 달리고 했죠. 지휘자가 없었어요. 3포 중대장 중위가 있었지만 포항 시내에서 헤어져서 지휘계통도 없이 인근 주택에 숨고 했어요. 울타리 넘고 장독대 넘고 했어요. 다리 건너다가 경미한 다리 부상도 당했죠. 그때 한 10여 일 정도 있다가 복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부교를 만들어서 복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대를 찾아서 복진을 했어요.

포항 제3사단 22연대는 언제? 8월 하순쯤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관측반으로 편입되어서 보병하고 제일 앞서서 복진을 했어요. 가는 행군대열은 지금 행군대열로 가고. 인민군은 저항 없이 가고. 밤에는 인민군하고 같이 가기도 했죠. 삼척에서 양민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저기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경찰서인데. 유치장이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에 애국자들이 100여 명이 갇혀있었어요. 지하에 드럼통이 누워있고, 스페너로 열고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오니까 그냥 도망갔죠. 우리가 많은 동포들을 구출했죠.

인민군 사단장이 숨어있다고 해서, 특공대를 모집해서 손을 들고 나갔어요. 포로를 앞세우고 산을 헤매다가 길에서 후퇴하던 인민군들에게 거꾸로 포위되어서 한참 고생을 했어요. 다시 본대로 겨우 와서 강릉으로 가서, 강릉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루 쉬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강릉으로 들어갈 때 양민들이 만세를 부르고 나서 바로 인민군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반격해서 국군이 철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만세를 부른 동포들을 많이 쏘죽였죠. 그래서 우리도 복수하자고 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북진을 해서 원산을 지나 원산형무소에서 수백 명이 죽어 우물에 있기도 했죠. 포로들은 총만 뺏고 집으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길주로 해서 삼수, 갑산쪽으로 갔죠. 합수에서 장진호로 해서 함흥으로 내려왔어요. 성진에서 LST를 타고 동해로 후퇴를 했어요. 2~3일 만에 영덕에 상륙을 해서 다시 북진을 해서 횡성으로 가서 처음 만난 중공군과 또 만났어요. 전투 도중 종합학교에서 사관생도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때 신분은 학도병이에요. 학병 마크도 있었어요.

현역병 편입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편입된 것은 몰랐지만, 훈련 끝나고 3사단 22연대 갔을 때 편입되었던 것 같아요. 우린 그제 학병인줄 알았지, 그런 거 몰랐죠.

군번은 어떻게 되요? 예. 군번은 나온 거 같고요. 계급장은 없으니까, 원산가니까 일등중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특진을 두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3사단에 간 사람들, 학도병들은 거의 일등중사였어요. 왜

나하면 특진을 두 번째서요.

종합고는 언제쯤 갔어요? 51년 3월초에 종합학교로 갔어요. 산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산 동래를 찾아갔어요. 몇 사단 어디에서 왔다고 학도병 출신이라고 하니까 시험도 없이 종합학교 27기로 한 2~3백 명 되었던 것 같아요. 포병, 경리, 공병 후보들이 종합학교에서 2주 훈련 마치고, 포병만 50명 진해로 갔어요. 진해에서 포병 제14기로 51년 4월 28일에 임관했어요. 포병 육군 소위 214118, 장교군번은 알고 있죠.

51년 4월부터는 장교로 지냈네요? 모든 사람들은 학창 복귀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명령을 일선에서 전달을 못 받았어요. 명령을 들은 것은 부산 종합학교에서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전쟁이 계속되니까 장교로 지내려고 했죠. 나는 장남이니까 군인으로 종신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종합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 명령 내용을 듣고 나서 복귀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공비토벌 연설시 후배중의 하나가 복교했더라고요. 저는 장교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선택을 한 거죠. 포병 소위가 되어서 배속이 된 것이 6월에 그때 육본직할 110박격포병대 1개 대대급에 배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해에서 편성이 되었을 거예요. 배속된 곳이 강원도 홍천 미 해병 제1사단에 배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홍천에서 8월말까지 훈련하고, 8월 초에 그때 처음으로 미 해병사단과 함께 펀치볼에서 지원사격을 했죠. 그때부터 지원사격을 했죠.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2인치 박격포 4,300야드 사거리여서 근접해서 사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경은 107밀리. 화학탄이나 발열탄을 쓰기 때문에 케미컬 박격포라고 불렀어요. 박격포가 공선이 없었죠. 포신 26kg. 산악지역에 적합하죠. 해병사단에 부임해서 홍천 펀치볼 전투 등.

그런데 홍천에서 전쟁고아를 만나요. 강가에서 데리고 온 고아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원산에서 후퇴를 했다가 미군부대 쓰레기통에서 밥 주어먹고 있다고 해요. 그 고아가 지금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예요. 경인 방송, 대우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나하고 줄곧 공비토벌 때까지 있었어요. 전투중이어서 고아소년 한두 명은 있었어요. 미군도 거의 다 있었고. 한국 군 포병도 한두 명씩 있었어요. 포대원 40명중에서 무학자가 반이 넘었어요. 소학교 4학년을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편지 써주고 읽어주고. 빨래, 밥 등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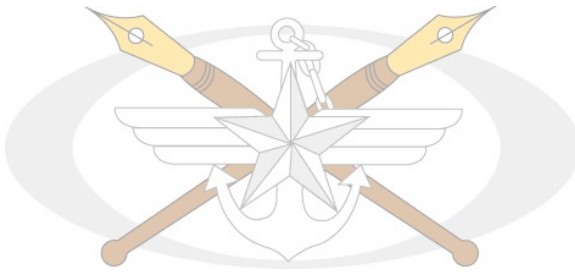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포병 중에 무학자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사병이죠. 사병은 무학자가 반절이죠. 1번 사수, 측지, 사격지휘본부에는 학생들이 들어갔죠. 2번 사수 등은 무학자가 해도 되요.

서울학도포병과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린나이 회장 강성모 회장은 모르는데. 강성모 회장이 전화를 해서 뵈자고 해서 만났는데. 학도병 출신이고 당신 책을 읽었는데 감명 깊었다고 해서 친해졌어요.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췌어요. 나처럼 개전 초기는 아니고 9·28수복 이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포병, 공병, 경리에서도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의용군에서 공병 간 사람, 경리 간 사람도 있겠지. 난 한 번도 휴전 때까지 후방근무를 못했어. 8사단과 공비토벌, 7사단 16대대 관측장교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그리고 나서 155밀리 포병을 숙대에서 최초로 창설했어. 29대대로 창설했지. 그리고 나서 문산 쪽에 제1해병대로 배속되어서 판문점을 넘어서 가장 우수한 부대로 문산 조금 밑에서 주둔해서 판문점을 넘어서 췌지. 그러다가 휴전이 되어서 장단으로 2km 후퇴해서 배치했지. 포병학교 교관도 했고. 포병학교 교장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지. 그리고 나서 제대해서 서대문

집에 있으면서 결혼하고 대학도 진학했어, 동국대 영문학과를 나왔고, 36년 동안 정치생활을 했지. 민주당 위원장으로 활동했어.

전역은 언제? 55년에 전역한 것 같아요. 전역하고 나서 에피소드가, 대학을 다니는데 강당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앉게 되기도 했지. 그리고 한국으로 〈강은 흐르고〉를 내고 다시 일본어로 〈실록 조선전쟁〉으로 책을 냈지. 왜냐하면 한국 출판사는 돈을 안줘요. 또한 대전중학교가 일본학교 였고. 내가 일본어 공부를 해서, 타이핑 연습 겸해서 책을 썼고. 일본 아사히신문에 광고가 나가기도 했어.



[6·25참전 학도병 동지회]

● 정효명 학도병 개관

- 구 술 자 : 정효명
- 면 담 자 : 장성진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7월 8일
- 면담 장소 : 용산역 일대

● 구술 내용

지금부터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셨잖아요. 그런데 학도병동지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학도병이라는 용어와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도 쓰이곤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학도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혈서지원 당시에는 학도병으로 통했으며 학도의용군은 9·28 서울 수복 이후 결성한 조직으로 후방 치안 유지 및 정훈공작 등 군경의 보조 단체로 알고 있으며, 학도병은 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목적으로 참가했었기 때문에 ‘학도의용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참전 학도병 동지회’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이라는 말을 썼나요? 학도병이라는 말을 썼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도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6·25전쟁 발발시 어떻게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야기된 전쟁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이전부터 충돌이 있었기에 어떻게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였는데 3~4일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때부터 학교에서도 학생들끼리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장은 만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불과 2년 전에 여수순천에 반란사건이 있었거든요. 제주도 4·3사건이 있었는데 진압부대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때 가족이 희생되었다든가, 인민재판을 받았다는가 하는 사람들이 큰 경험이었기 때문에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였었죠. 기억이 7월 8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6일이네요. 육군 5사단 15연대 조남철 소령이라고 기억 되는데요. 이분이 여수시민 쉼터대회에 참석하여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젊은 학도들이 나서야 한다”는 연설을 한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상당히 감회를 받고 학생들끼리 그때부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것은 그전부터 창설되어 있던 학도호국단 간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익 계통의 전국학생연맹 그리고 기독교학생회 임원진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25사변 전까지는 기독교학생회에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났을 때 참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7월 8일에 학우들과 함께 학교장실에서 혈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육군 소위 계급장 붙여 가지고 체육담당 선생님이 단기교육을 받고와서 배속장교라고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7월 13일이 되니까 군에서 입대하라는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여수시내(여수중학 50명, 수산중학 15명, 공업중학 10명, 상업중학 5명)에서 지원한 80여 명은 시민들의 환송식이 서초등학교 교정에서 거행되었으며, 열차편으로 순천에 도착하여 순천 시내와 인근 중학교에서 지원한 100여 명과 같이 6개 소대

로 연대 직할 학도중대(중대장: 정태경, 육사 8기)를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대에는 ‘사자’ 계급장을 단 사관후보생과 방위군 소위 그리고 하사관 1명이 배속했고 분대장은 6학년 학생들이 했습니다. 기초훈련은 9일 동안 받았습니다. 훈련은 연대본부 앞과 시내 야산에서 했습니다. 실탄 사격도 못해보고 22일 밤 10시경 비상소집. 학생복에 개인화기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순천역에서 화물열차편으로 남원으로 갔는데, 이 기차가 어떻게 더디게 갔냐면 그 뒷날 오전에 남원역에 도착했어요 당시는 수증기로 가는 기차였는데 기관사들은 인민군들이 겁이나서 역마다 들어가서 시간만 보낸 거예요. 익일 아침 남원역에 도착하여 역 구내에서 소총 M1 칼빈을 지급해 주더군요. 그런 것을 전부 닦고 거기에서 총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때 작전 지휘권이 유엔사에 있었는데 대전이 적에게 점령당하자 방위선에서 제외된 전북 방어에 학도병이 사수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남원에서 열차편으로 오후 출발 5시경 임실에 도착하여 그곳에서는 도보로 관촌에 들어간 거예요. 전주를 100여리 앞두고 하천에 진을 치고 야영을 준비하면서 적정을 확인하고 학도대의 안전을 위해 몇 개 분대를 차출 척후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척후병으로 나갔던 대원이 포로로 인민군을 잡아 왔어요. 그때만 해도 인민군이 농부 복장을 하고 오열분자라고 하는데 2명을 잡아와 총살을 하고 남원으로 철수하는 열차 편으로 순천까지 왔습니다. 이때 소총뿐인 학도대는 병력 장비의 열세로 일단 여수로 철수하여 선편으로 부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희망이 만들어낸 유언비어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구례구까지 올라갔으며, 구례읍 내까지 4km 도보로 갔다가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쓰러져 있는데 23시쯤 비상소집이 걸리네요. 하동 쪽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도보로 밤새워 화개파출소 뒤 야산에 주둔 하였습니다.

7월 25일 07시경 인민군 6사단(사단장 방호산) 선봉대대가 전차를 앞세우고 쌍계사 입구인 화개장터가 있었고 화개천을 사이에 두고 지형적으로

우리는 위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전차포와 박격포를 쏘니까 박격포가 제일 무서웠어요. 학도대에는 보급품도 위생병도 없었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전우들에게 지혈을 위해 수건으로 묶어주는 것 밖에 없었어요. 혈서 지원병이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상급자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알면서도 마치 고지로 올라가니까 호가 있드만요. 여순반란 사건시 빨치산과 경찰관들이 싸운 호예요. 어쨌든 그 호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호로 3시간을 버텼어요. 인민군들은 포를 계속해서 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 보병 부대가 쌍계사를 돌아 학도대 위쪽에서 파발총을 막 걸어요. 그때가 10시가 되었어요, 이때 중대장 후퇴명령에 국도를 중심으로 하동읍으로 해서 사천을 거쳐 진주로 내려가죠. 그래서 가보니깐 학도대가 180명 중 110명이 되었어요. 70여명이 입영 12일 만에 사상 및 실종자가 생겼어요. 진주 축석루에 중대본부를 설정하고 경비 중 지프차를 타고 정래혁 중령이 다녀갔으며 27일 새벽 우리 학도대는 국도 2호선 하동읍을 향하여 경비를 했어요. 그날 미제 29보병 연대 3대대와 한국군 혼합 1개 중대가 하동읍을 탈환하기 위해 출동하였으나, 미군 1개 대대가 괴멸되었으며 직전에 총참모장 채병덕 장군의 전사 얘기를 들었어요. 채 장군은 진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주로 돌아온 학도대는 29일 오후에 축석루를 마지막으로 철수한 부대로 함안 전투와 마산으로 행군시 가야에서 학도대보다 50m~100m 앞서가던 첩병이 구루마 밑에 숨어 있던 적군의 총에 맞았어요. 그리고 응급치료 후 부산으로 후송을 시켰어요. 이들은 부상을 입어 후송된 다음 완치가 되어도 학도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학도대가 해체되었거나 정상적인 편제에 있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야를 경유 행군 도중 처음으로 한국군 부대를 만났어요. 김모 대위를 만나서 학도대와 함께 고지에 올라가서 진중 근무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민군 1개 사단이 전진 배치를 위해 내려오고 있었던거 같아요.

지휘를 김 대위가 했으며 총상을 입고 사병들이 김 대위를 업고 하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8월 1일에 한미 양군은 낙동강 내선으로 전략적인 철수를 단행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때 학도대는 창원군 진동에 배치된 미 25사단과 함께 진지 사수 작전을 했어요. 진동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군의 함포 사격과 미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죽기 살기로 방어선을 사수했습니다. 학도대가 창설시 180여명의 병력으로 화개전투 이후, 진동 진지사수 작전에 참여하기까지 1개월 만에 90명이 되지 못해 하나의 전투 단위 부대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중대장은 번뇌 끝에 전쟁터를 떠나 재충전과 정규 과정의 군사 교육을 이수하므로 전사로 다듬어 내일을 기약 하고자 육군하사관학교 입교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상급부대인 육군 5사단 15연대는 한국군 사단 개편으로 부대명이 사라지고 연대장은 신편 7사단 5연대장으로 경북 영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8월 13일 학도대 해산을 결심한 중대장은 전원 제주도 육군하사관학교 입교를 권유하였으나, 20여 명은 계속 참전을 고집하여 연대장 부대를 찾아 대구 팔공산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소수 인원은 미군 부대에 남아 있다가 한국군에 편입되었어요. 이 무렵 육군 11사단(사단장: 최덕신)이 육군의 증편 계획에 따라 영천에서 제9·13·20연대로 창설되었으나 참모와 기간요원들은 여러 전선에서 괴멸된 부대 장병을 근간으로 신편하였고, 기타 병력은 9월 중순부터 제주도 신병 교육대와 하사관학교 수료자들을 부대별로 진해·부산·포항을 통해서 충원하였으나 전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공급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는 미군 부대에 잔류하다가 유엔군의 상륙작전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수도 서울이 탈환되자 수세에서 공세로 총반격을 개시할 무렵 영천 주둔 이영규 부대를 찾아 가던중 검문을 받고,

서면심사 이후 일행과 함께 육군 11사단 13연대에 편입하였습니다.

제주도, 영천도 아니고 11사단으로 가신건가요? 육군 11사단이 창설되는 것을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 복진시는 학도병 전우들과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영천을 택하였으나 중도에서 좌절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육군하사관학교에 입교한 전우들이 대부분 11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일반 병사하고 같이 생활하신 건가요? 그렇죠. 16세 어린 나이이다보니 지휘관의 당번병으로 일반병사 보다는 편하게 복무하였으며 60여 명의 학도병 출신들이 사단내 요소 선임하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8월 14일경에는 군번을 받은 건가요? 영천 육군 7사단 5연대로 간 20여명은 즉시 현역으로 편입 군번과 계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군 부대에 남아 있던 소수는 군번 받을 새도 없었죠.

이등병 계급을 받은 건가요? 전혀 없어요. 11사단에 갔는데 군번을 못받았습니다. 중대장 당번병으로 3중대 구출작전시 철모를 지급받지 못해 간부후보생으로 차출중인 선임하사 철모(이등중사 표시)를 쓴 것이 계기가 되어 그후부터는 이등중사로 통용했어요.

이후 당번병을 했나요? 처음에는 13연대 1대대 1중대장님의 당번병을 하고 있는데 연대 작전주임이 중대까지 왔다가 어린 나를 보자 입대동기등을 물었으며 중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당일 연대본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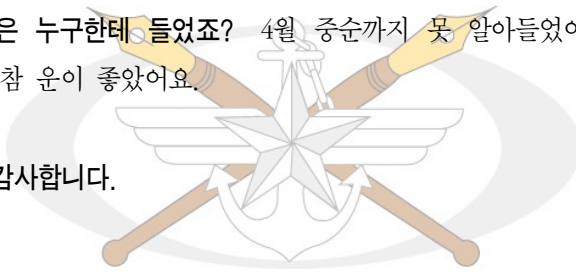
그러면서 계급장은 중사로 지냈나요? 이등중사는 갈매기 세 개인데 중

대장도 계급장 떼라고 안하니까 사단 헌병들도 검문해도 학도병은 검문 안했어요. 그리고 한국군은 보급품 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미군한테 전투복을 얻어 입었지요.

이승만 대통령의 복귀 명령은 들었나요? 51년 3월 담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때 몰랐죠. 11사단이 8사단하고 전후방 교대를 했는데 8사단이 왕창 당해서 병력 보충하러 후방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중군학생 복교령으로 귀향하라는 말이 들리는데 작전 주임은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4월말 자기가 시인하고 여비 몇 푼 주면서 돌아가라고 했죠.

그 소식은 누구한테 들었죠? 4월 중순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난 참 운이 좋았어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한학도의병 동지회]

○ 윤병국 학도병 개관

- 구 술 자 : 윤병국
- 면 담 자 : 장성진
- 면담 주제 : 학도의병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10월 12일
- 면담 장소 : 육사 부근 식당

○ 구술 내용

지금 학도의병동지회 인원은 몇 명이세요? 128명, 7개 지구 서울, 경기, 대구, 경주, 포항, 강릉, 울산지회입니다.(2011년 12월에 울산지회 등록)

실제 포항전투 참전하셨나요? 포항전투하면 범위가 애매함으로 포항여중전투라 부르고 있으며, 1950년 8월 11일 71명의 학도의용군 중대가 11시간의 혈전 끝에 48명이 희생된 전투입니다. 의병이라고 부친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에서 부이사장, 부회장 등으로 참여하여 노량진동 효사정공원의 ‘학도의용헌충비’ 기단 보수공사시 국가보훈처 천4백만원 지원으로 보수공사도 하고 매년 8월 11일에는 전몰자 48위의 추모행사 등을 하여 왔어요. 그런데 독립한 이유가 있어요. 1950년 8월 11일 포항전투. ‘포화 속으로’의 주인공이죠. 회장이 바뀌고 하니까, 추모행사가 아

무 관련이 없는 11월 3일(광주학생의 날)에 개최하여 2008년에 탈퇴하였습니다. 일종의 제사인데, 마음대로 뒤로 미루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꺼낸 격이죠. 그런데 의용군이라는 용어가 복귀군이 점령지에서 강제 징집한 청장년에게 조국해방의용군이라는 칭호를 부쳤던 것이니 학도의용군은 부당한 이름이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겠다. 학도의용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대 경위 입대일자 등이 불분명한 인사가 많아 입대일자는 1950년 9월 15일 이전 전세 불리할 때 지원참전자를 규합하자는 중론이 있어 2010년 1월 1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회의를 결성했어요. 등록을 하려고 하니 마음대로 안 돼요. 금년 6월 10일자로 국방부 등록 제20호로 등록되었어요. 8월 11일날 같이 61주기 제사도 드리고, 추모식이 아닌 추모제를 했죠. 3사단에서 한 장교가 찾아왔어요. 인사참모 최양규 중령이라고 사단장의 조화를 헌정하며 현장에서 사연을 들은 뒤 10월 4일 생환자 5명에게 명예군번 수여와 전역식 열병을 받는 열광을 누렸습니다.

국군의 날 10월 1일에 김석원 장군이 자서전에 쓴 것처럼 이용당한 셈이라고 했다는 거 맞는 말이죠. 어느 새엔가 포항에 세워진 충훈탑도 포항여중 전투 희생자를 위한 탑인데, 그 지역의 충훈탑이 되었어요. 비문도 있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어요.

대한학도의병동지회를 대한동지회로 잘못 썼네요. 학도의용군과 학도의병은 어떻게 다르죠? 지난번에 9월 달에 KBS에서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2011년 유가족을 찾습니다 프로). 학도병하면 학생출신 병사. 의병하면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나라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의사에 따라 싸운 구국민병입니다. 따라서 6·25전쟁에 지원 참전한 학도들은 ‘학도의병’이며, 우리들은 1950년 9월 15일 이전 참전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950년 7월말경 김석원 장군의 격문을 보고 지

원하였고 7월 27일 1진 47명, 8월 4일 2진 40명이 경북 길안에서 합류하였어요. 8월 8일 사단장이 백인엽 대령으로 바뀌고 현역입대를 권유하자 87명중에 16명은 현역으로 편입되고, 71명은 3사단 김석원 장군을 따라 8월 9일 포항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김석원 장군은 학생들도 일본 교과서에서 나온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어. 일본군 대좌였거든. 돌격장군이라서 미군과 안 맞아서 한직으로 밀려난 거여. 하지만, 안강전투에서 그 사람 아니었으면 안강은 뚫렸을 거예요.

7월 26일 참전서 작성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6월 말 서울 경신중학교 6학년 다니다가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나하고 우리 형하고 둘만 갔어요. 어머니하고 동생은 서울에 있고. 아버지는 안계셨고. 할머니는 서산에 계셨고. 서산은 가지 않고 부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 해서 조선방직주식회사에 있던 당숙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용돈도 주고 밥도 주고 했어요. 전시 학생증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군대를 가야하는데 안가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했어요.

대구까지 가야되는데. 대구에 가니까 유격대원 모집이 쓰여 있더라고요. 강택남 중령이 유격대를 모집하더라고요. 총 인원은 7~80명이고 7월 초, 4일 경이었을 거예요. 전투를 두어 번 했어요. 합천군에서 활동했죠.

유격대원들 중 학생도 있었나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형제 외에는 없고,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그럼 유격대 구성원들이 군인이었나요? 삼사십에서 오십대까지 다양했고. 한동안 의기투합이 되어서 활동했고. 총도 써보고 전투를 해봤어요. 강택남 중령이 전투 지휘를 잘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포위당했는데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빠져 나왔어요. 오히려 미군 5명도 같이

테리고 나왔죠.

무슨 전투이죠? 거창 전투라고 하면 그렇고, 지금도 지명을 잘 모르는 거창 부근이에요.

공간사에 나오는 인물인가요? 아닙니다. 안 나오더라고. 강택남 중령을 난 잃어버리지 않거든. 난 학교에 안가고 계속 전투에 참여했어요. 합천에 주둔한 다음날 그 지역 관할인 미 3사단 헌병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대구로 내려왔어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나서 육군본부에 넘겨주더라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당시 유격대에는 서북청년단원들이 많았어. 그리고 내가 가장 나이가 어렸고요.

그리고 27일 날 출발했어요. 8월 4일 날 의성에서 김석원 장군을 길안 초등학교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수도사단 사단본부가 차려지고, 백인엽 대령과 지휘관 교체도 하고, 어쨌든 포항까지 와서 밥다운 밥을 먹었어요. 장국밥에 식사를 참 맛있게 했어요. 최고로 맛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8월 9일 도착해서 10일 날 오전에 외출이 허락되고, 10일 날 오후 들어서 1, 2소대로 나누었고. 1소대는 교문 왼쪽에, 2소대는 교문 오른쪽에. 나는 2소대 3분대 분대장이었어요.

전투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대장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럼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들은 전투경험이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당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 말고 3~4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당시 중대장은 서울 서강대학교 학생이었어. 대학 1학년짜리였어.

대학생이면 군인으로 갈수 있지 않나요? 곧 전쟁은 끝난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학교 간다. 그래서 왔던 거지요. 그날 저녁에 박스에 든 채 있는 M1 소총을 받았어요. 강당에 앉아서 뜯었어요. 그래도 그것은 배웠더라고. 그래서 유격대에서 배운대로 총기 수입을 했어. 탄띠도 지금 탄띠 같은 것이 아니에요. 8발씩 들어서 5개 뭉치가 40발이지요. 요새 250발은 맞지 않아요. 240발이면 맞지. 총알이 내생명인데 240발까지 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기상인지 비상인지 모르겠지만 고함소리에 깨어나 배치장소에 배치되었어요. 먼동이 틀 무렵 번쩍번쩍 총성이 들리더라고요. 전사에는 20여 명이 사살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되요. 그러고 나서 2소대 3분대 강당이 있는 쪽, 산쪽으로 괴뢰군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적들은 해병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겁이 났어요.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측백나무가 있었고, 철조망이 쳐 있었는데. 나도 부상을 당해서 발을 질질 끌고 쫑밭까지 가서 쫑밭 가운데에서 숨어있었어요. 오후 1시쯤인가 되었을까, 거기에서 나와서 연신 바지에 흙을 막 발랐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자고 그랬는데. 사과 과수원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군대는 언제 전역하셨나요? 포항전투 끝나고 나서 13일 날 바다를 건너서. 기막힌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리도 건너고.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포항 성도동으로 갔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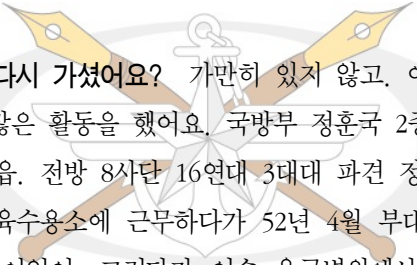
계속 군대에 계셨나요? 병원에서 귀향증 하나 받았어요. 그건은 제대증이 아니지만, 그 귀향증을 잊어버렸어요.

6·25전쟁 이후 군에 들어갔나요? 57년도 8월 15일부로 법률 제444호

에 따라 현역 복무한 것으로 되었는데, 어떤 지휘관이 학교 복귀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학교로 복귀시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제1예비역에 편입된 1,884명)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요.

회원들 명단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행자부에서 경고가 들어왔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보내드리지요.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학도의용군은 대한학도의병동지회 회원이야말로 의용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으로 군번을 받지 않고 싸운 사람이 학도의용군이에요.



이후에 군대에 다시 가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후에도 저는 정훈 대대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국방부 정훈국 2중대원으로 전북 진안, 경남 함양, 정읍, 전방 8사단 16연대 3대대 파견 정훈관, 지리산 공비 토벌시 귀향자 교육수용소에 근무하다가 52년 4월 부대 해산으로 귀향했지요. 시설이 엉망이었어. 그러다가 여수 육군병원에서 의병 제대했어요. 54년도에 갔다가 55년 5월 달까지 9개월간 현역 복무하고.

포항전투 이후는 어찌되었나요?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6명은 연락이 되요. 참전자 71명 중에서 48명이 죽고, 죽었는데 확인된 사람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연락되는 사람은 6명 밖에 없어요.

[기타-개인 참전자]

● 이문규 구술 개관

- 구 술 자 : 이문규
- 면 담 자 : 장성진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7월 5일
- 면담 장소 : 종각역 일대

● 구술 내용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학도의용군 참전 1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참전 1호라고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학도병 (참전 1호)입니다.

학도병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쭉 12년 군대생활을 하고 학도의용군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도의용군회가 있어요. 현재. 학도 동기들을 만나봐서 전부 참전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책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전쟁터로 뛰어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몇 월 며칠에 입대했냐 그러면, 뭐 7월 10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춘천, 전주고등학교 앞에서, 무슨 학교에서, 부

산에서, 영동에서, 청주에서 각 군마다 학생들이 들어갔어요. 50명씩, 30명씩 들어가고, 전부 취합을 해보니까 도대체 6월 달에 들어간 사람은 서울에 용산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학생이 6월에 29일 미아리 전투에 참여한 게 제일 처음 나왔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다 7월 달이야. 전부 7월 달, 8월 달. 60년 동안 나보다 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국방부에다가 우리 한국전쟁사에 학도병이라는 게, 얼마나 급했으면 책도 버리고 총을, 훈련도 안 받고 총 가지고 군인아저씨 옆에서 이 “총 쏘는 법도 알려주세요” 하겠어요. 앞에 불바다가 되어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 밤이니까, 적군 앞에서. 군인 아저씨가 “야 이 새끼야, 총도 안 쏜 놈이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일선까지, 죽으려고 환장했냐” 뒤로 밀고, 실탄 4발 가득 넣고, 맞지? 쏘고, 또 제거서, 또 한방 쏘고, 이렇게 4발을 하라고 가르쳐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발 걸어 당겼더니 어깨를 뒤로 탁 치면서 벌렁 나가떨어졌어요. “이 새끼야, 빨리 올라와” 도로 끌어올려서 계속 쏘니까 벌렁, 벌렁. 몸에도 대고 놓고 쏘니까 나가자빠지는 거야. 두식이 어깨를 무지하게 쳐요, 그래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총구가 헤지도록 밤새도록 쏘았어요. 새벽에 소대장이 올라오더니 “너, 학생이 여기 왜왔어?” “예, 어젯밤에 들어왔습니다.” “야, 이 새끼. 당장 내려가” 라고. 저기 무전기 있지, 저거 둘러보고 야전병원으로 가라고. 야전병원에 가서 올적에는 실탄 신고. 갈 적에는 무전기 신고, 또 올 적에는 실탄 신고, 이래가지고 홍천에서부터 후퇴해가지고, 춘천 삼마치고개서부터 원주 6사단 본부에 들어갔더니. 1시간 후에 원주 6사단 본부 옆에 포가 뽕뽕 떨어지는 거여. 그래서 또 후퇴명령이 나가지고 6사단이 떠나는 거야. 그래서 충주로 갔지. 충주 면에 가니까, 길 독에 붙여가지고 우리 가는 길을 막는 거여. 차에서 내려가지고 총으로 잡았지. 6사단 군인이 원주에서 갈 때 피난 차와 우리 군차를 잡더니. 군 헌병이 먼저 군차부터 보냈지. 그래

예, 알겠습니다. 전투경과는 나중에 다시 말씀 듣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는 학도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도의용군회에 가담하고 계시다고도 합니다. 학도의용군회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참~, 학도의용군이 골치 아픈 문제야.

어떤 의미에서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일본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은 600명이 단결을 해서 나왔잖아요. 사단이 편제되어서 연대가 편제되어서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20여 명인가 죽고 일본으로 못 들어가고 여기 남아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단결해서 들어간 것을 다 알아요. 싸운 전적도 있고. 한 달에 100만원씩 오늘날까지 50년, 60년 동안 주는데, 한국의 학도의용군은 전주패, 대구패, 부산패, 충북패 등 이게 10명 20명, 100명 모여가지고 하고, 제일 이름이 나있고 확실한 것은 3사단의 포항전투에서 제가 바로 그 민간징발차를 이용해서 학도병을 실어다가 내려준 거예요. 식량하고. 내가 운전을 해서. 그래서 내가 사단에 편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투에서 포항여중예 70명인가, 80명인가 전투해 가지고 인민군 15사단 주력 부대를 3사단 주력이 딴 곳에서 막고 있는 동안에 학생 70여 명이 그것을 학교운동장 독에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죽었잖아요. 그때 나는 3사단의 차를 (이용해) 보급 실어주고, 실탄실어주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학도의용군회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모아놓은 단체입니다. 학도의용군회가 국방부 정훈공보부에서 몰려간 100명은 국방부 정훈공보부 학도의용군 이라고 해서 움직이고 있고, 태백은 태백학도의용군이라고 해서 움직이고 있고, 국방부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되겠느냐 해서, 나같이 6사단 19연대 3대대에 배속이 되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단에 그냥 들어가서 배속도 안 되고, 심부름만 한 거지, 폭탄도 나르고. 15, 16, 17살이니까 그렇지 않아. 군인 아저씨가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할지라도 충을 주어서 일선에 보내줬어요.

포항전투하고, 내가 알기로는 김두환이 학도의용군이라고 있어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 학도의용군은 (전투를 안했어요), 나는 하룻밤 5시간 동안만 전투를 하고 전투를 그만두었거든요. 다시는 전투를 안했어요. 일선에 보급만 했지. 그런데 다른 학도의용군 얘기 들어보면 전투를 한 번도 못했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회만 가지고 있지, 국방부에서 안 알아주는 거야. 전투사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학도의용군하면 학생이 신분이 되어야하는데요. 어디 학생이었어요? 제천농업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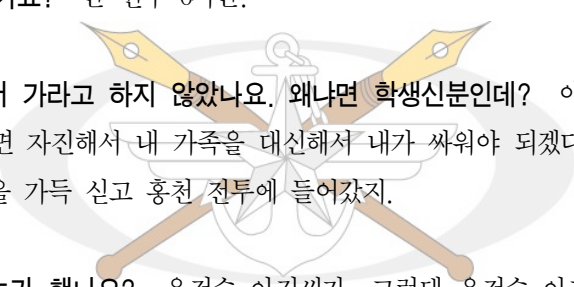
그런데, 제천농업학교에서 영월 쪽으로 오시게 된 건가요. 아버지가 영월광업소 트럭을 하나, 왜정 때 운전했던 것을 가지고 영월에서 지입을 하셨어요. 지입이란 회사 명패를 내걸고, 나머지는 각 운전수의 차로 하는 것을 말하잖아. 운수회사가 하나 있고, 개인차를 빌려와서 그 명의를 빌려 일하고, 우리나라도 전부 지입제잖아. 내가 운수회사하면, 차는 모두 사장의 차가 아니라. 전부 지입된 거요. 택시도 그렇잖아. 전부 다 개인차고 회사차는 별로 없잖아. 우리도 영월광업소에 가서 지입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일을 한 거여. 그러니까 그 차를 보러 간 거여. 아버님과 차를 보려고 갔다가 6·25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발발하니까 운전수하고 같이 나오다가 징발이 된 거예요. 징발이 되니까 차도 가니 나도 간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는 것 보다는 내가 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차를 징발하니까, 따라서 나서신 것인가요? 응, 그렇지. 차가 싸우니까 나도 그냥 싸우려고. 같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재산인데.

형제관계는요, 아버님 계신데 왜 직접 나서신 거죠? 외아들이나 같아

요. 왜냐하면 그때 둘째, 셋째는 행방불명이 되었으니까요. 전쟁나서 바로 헤어졌어요, 내가 또 말이인데, 나이차가 많이 나요. 15년, 10년 이렇게 나이가 차이나요. 그래서 내가 왜정 때 아버지로부터 배웠거든. 나라를 잃은 설움이라는 것을. 나라가 우리 재산을 지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피난 안가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이득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전쟁으로 갔지. 우리 가족을 피난을 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잘 모르지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그 차량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징발이 되었네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된 건가요? 난 원주 6사단.



6사단에서 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냐면 학생신분인데? 아니요. 안가죠. 왜냐하면 자진해서 내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우리차를 타고, 군인을 가득 싣고 홍천 전투에 들어갔지.

운전은 누가 했나요? 운전수 아저씨가. 그런데 운전수 아저씨가 나중에 진천 전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헌병 아저씨가 나에게 권총을 대고 “운전해” 하였고, 나는 “전 잘못하는데” 하니, “못하면 넌 죽어” 해서, 그래서 죽기 싫으니까 옆에서 본 운전 실력을 갖고 1단으로 그냥 그 포화 속을 빠져나온 거야.

6사단 19연대 3대대에서 5시간만 전투하고, 그 다음에는 부상병 운반을 했네요. 운반은 그냥 등에 업어서 했어. 단가가 어디에 있어, 그냥 옆었지. 7월 20일경에 미군들이 올라오더라고.

제천중학교 당시 연세는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 나이는 18살이고, 집에

나이는 17살이고, 그러니까 6개월 빠지는 17살이지. 생일이 10월 23일인데 6월 25일에 들어갔으니까.

학생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학교에 갔더니, 동창은 한 5명이 살아있어요. 학교에 가니 학적부에 전쟁기간동안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학적부는 없는 거군요? 예.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하였는데, 학생들은 전부 다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응, 51년 3월 달에 학생은 다 복귀하라고 하였는데, 나만 운전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운전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머 절대 부족했지. 절대 부족하니까 운전병으로 그냥 남은거야.

그러면 현역으로 복무하신건가요? 아니, 현역으로 안 되지. 그냥 학도 병. 전쟁이 끝나고 8월 1일에 집에 돌려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때 국방부에서 운전병이 절대 부족했어요, 서울 국방부 정훈국장 운전병을 했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등병 생활을 하신건가요? 아니, 그때도 그냥 학도 병. 참, 기가 막히죠. “운전수가 말이 많아. 그냥 해.” 라고 말했어요.

51년도 혹은 53년도에 군번 없이 운전병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국방부에서 이번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국방부 동기 20명이 전부 인후보증을 서고, 그때 당시 54년, 55년, 56년, 57년 같이 근무했다는 것을 쓰고, 군번을 적어서 사진하고 같이 냈더니 국방부홍보원에서 사진 찍고 나왔어요. 20명이 같이 국방부 정훈국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국방부에 서류는 없으나, 인후보증으로 정황으로 보아 국방부에서 5년간 근무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국방부 정훈국 기자단이 모임을 가져요. 군번 없이 53년부터 58년까지 군복무하고, 58년 11월 달에 다시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군번을 받으셨나요? 예. 그때 받았어요. 19445976. 이후 3년간 다시 군복무를 해서 1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62년 4월에 제대했어요. 아이고, 나같이 원 참.. 운전 배웠다는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선생님과 같은 경우는 없었나요. 학생의 신분으로 운전병으로 지냈거나 아님 다른 운전아저씨들은요? 없었어요. 그때 운전을 배운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오죽하면 운전수 아니면 안 된다고 했겠어요. 그때는 운전수가 그렇게, 하얀 장갑 딱 끼고, 최고급의 직원이었죠. 그때는 말도 못하죠, 그렇게 운전수가 귀하고, 조수로 들어가서 10년 있어야만 운전대를 잡아요, 어디 지금같이 학원에 가서 2~3일에 운전 배워. 없어요. 운전수가 없어요.

운전수가 없는데 왜 10년 동안 선생님을 운전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바로바로 운전수를 양성 못했을까요? 차가 없었어요. 아주 비싼 차이고, 운전이 일본에서 배운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조수로 들어가도 운전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옆에 앉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배웠어요.

운전수가 없어서 8년 동안 민간인을 징발해서 근무했고. 그리고 다시 3년 동안 군복무했지, 그리고 내가 끌고 다니던 차를 60년 동안 후세에다 안보교육과 애국교육을 시키겠다고 지금까지 발동이 걸려 애들을 태우니까, 전쟁기념관에 쫓겨버리지 머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약했는데. 기분이

안나요. 나같이 집에 가서 옛날에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지키던 차다. 타 봐라. 이게 교육이 되요. 철모를 뒤집어서 밥을 해먹었거든요. 철모비빔밥을 해먹이는 거예요. 철모에 밥을 해 먹이는 거예요. 학도병이 철모를 벗어서 밥 먹은 거다. 애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씨가 철모비빔밥의 철모와 같이 사진을 찍어요, 이게 역사의 기념이라고. 저는 차를 경기도청에 일 년에 4일 전시를 해요. 많은 군민들 애들이 와보고. 바글바글해요. 이를 보면 보람을 느껴요. 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떤 참전용사보다도 실물을 보고 애국교육을 하고 있구나. 아주 떼떽하죠. 아주 자부심이 좋아요.

그러면 모두 무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요. 집도 없어요. 국가에서 타는 것 30만원, 보훈처에서 주는 것 12만원. 국가에서는 내가 생보자(생활보호대상자)이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생보자로 30만원. 보훈처에서는 12만원을 주는데. 30만원에서 12만을 까고(제외하고) 줘요. 왜 까느냐니까, 가난해서 주는 것은 30만원은 30만원이고, 보훈처에서 12만원은 왜 빼고 주느냐고 복지부장관에게 얘기했더니, 법이 그렇데요, 국회에 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우리가 국회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요, 싸움이나 하지. 눈물이 다 나네. 일체 돈 얘기해요, 점심만 먹이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쌀이 없어서 철모만 썼다 벗었다 해요, 밥을 못해주면 또 애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니까. 왜 대한민국은 나에게 도와주질 않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국가라는 것을 지켜야 가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나에게 국방부나 국가는 나를 몰라라 하는 거야. 정몽준 의원에게 편지를 했더니 개인으로 안보교육한 것은 안 알아준다 이거야. 그리고 보훈처 장관 박승춘 장관에게 편지를 했더니 개인이 학도의용군도 개인이고, 민간인인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절 해줄 수 없

다고 하는 거야. 내가 가난해서 한 달에 쌀 닛 말, 돈 10만원만 타게 해주면, 애들 밥을 먹을 수 있소, 하니까 안 되네. 개인이기 때문에 안 되네. “이보소, 개인이 뭉쳐서 나라가 되는 거지. 어떻게 나라가 따로 있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국가관이 있고 나라고 있고 하는 거지, 국가라는 단체가 따로 있냐” 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개인은 안 되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보훈처장관하니 나라가 큰 일 났소” 했다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수리비를 몇 십만 원 못 갚아서 사기꾼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말을 못해요. 나중에 어떤 학교에서 그 소식을 듣고 30만원을 보내왔더라고 학교 학생들 밥 먹여 줘서 수고하셨다고 30만원을 받아서 수리비로 낼 수 있어요. 이번에 국방부에 다시 도와 달라고 편지를 했어요. “법이 없어서 1년에 20만 원 정도 보조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참전하셨고. 이후 활동까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경험에 남는 전투가 있으신가요? 상주전투에서 그렇습니다. 문경, 함창, 상주, 도리원, 다부동 등을 많이 다녔거든요. 신령, 영천 특히. 실탄을 갖다놓고 부상병을 찾으러 다니는데. 집이 허물어졌는데. 새벽인데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어린애가 엄마 젖꼭지를 입에 물고, 엄마 머리카락을 쥐 발 같은 손으로 쉿쉿 감아서 앵-앵-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부상병 실고. 아이를 안고 한손으로 야전병원으로 가서 그 아이를 야전병원에 맡겼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후에는 소식은 몰라요. 6·25전쟁 때 가장 슬펐던 일. 인간의 목숨이 그렇게 길어요.

그때 야전병원은 어디였었나요? 모르지, 천막을 치고 있었으니까, 무조건 내려주고 적십자만 있으면 내려주는 거야. 안동 근방이었어.

선생님의 역할은? 부상병과 실탄을 운반하는 것이지.

실탄은 어디에서 운반하죠, 병원 부근에 있었나요? 탄약고에서 운반하지. 막 헌병이 올라타서 이동해, 그러면 헌병이 하나 같이 탔지.

헌병하고도 따로 연락이 안 되나요?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오늘 작전이 끝나면 자꾸 교대가 되니까.

소속은 6사단, 3사단, 7사단, 8사단이 되었다 했어. 왜냐하면 우리 징발차는 헌병 아저씨가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데로 되는 거여. 왜냐하면 헌병이 가자하면 가자고 하는 데로 가. 처음에는 6사단 19연대 3대대로 갔는데. 조금 있으면 부대가 없어지고, 또 다른 부대가 없어지고.

그러면 소속이 불분명하셨다는 거네요? 예, 소속이 없어요. 4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2월까지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지.

북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전병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미군이 올라오니까 일선은 우리 민간차는 빼고, 지금까지 전부 보급을 쌀, 군화, 옷, 실탄을 실어 날랐지. 군수기지에서 제1보급소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시기는 10월 달 이후인가요? 1·4후퇴 이후 51년 3월부터 그렇게 했지.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일선에 있었지, 그런 다음 미군하고 교대가 있었어.

그렇다면 51년 3월 이후에는 소속이 있으셨겠네요? 그것도 소속이 없

어요. 수송대가 보급창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쌀 실었다주고, 보급창고에 내려다주고, 다른 부대로 가고, 또 다른 부대로 가고 사방 돌아다녔어요. 계속 헌병인 인솔자가 갈렸어(바꿨어),

그럼 그 차가 50년도 징발했던 그 차였던 거예요? 그렇지.

50년 6월에 징발했던 차하고 3대대 전선으로 간 선생님과 분리되지 않으셨나요? 징발차는 운전수가 있고, 나는 밤새도록 싸웠고, 소대장이 부상병 운반해라고 해서 내려갔지. 그런데 그 차가 우리 집 운전수 차야. 그 차에다 부상병을 실은 거야.

그럼 그 운전수 아저씨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7월 백마령 전투. 7월 영천 백마령 전투에서 돌아가셨어. 7월 2, 3일인가, 5, 6일인가.

정리하면 7월초 순에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그 때부터 그 차로 운전을 하셨던 거네요. 그럼 운전수 아저씨는 선생님의 아버지 직원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운전수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셨지.

운전수 아저씨는 군인으로 들어가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민간인이니까. 50대이니까. 그때 다 운전수들이 50대야.

51년 3월부터 종전까지도 소속이 불분명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지, 군대에서 아무데나 가서 일만하면 돼.

밥은? 미군 혹은 아군차가 지나가면 길가에서 그 차를 세워서 밥을 받았단 먹었어요.

기름은요? 기름은 길가에 드럼통을 중간 중간에 놓고, 덮었나요. 그러면 호수로나다가 입으로 쪽 빨아서 기름을 넣고 닫아 놓고 가죠. 다음에 또 하고. 그러고는 인민군이 내려오면 드럼통을 돌려서 불을 붙이는 거지 그러고 도망가요. 그러면 탱크가 오다가 그 불 때문에 휘발유통이 박살이 나 뒤집어지니까 탱크가 오는 것이 저지가 되요. 그동안에 도망가는 거예요.

운전한 총 거리로 따지면 얼마나 달렸나요. 영월에서 횡천, 횡천에서 춘천, 춘천에서 원주로 왔다가, 충주로, 수안보로, 문경으로, 점촌으로, 보령, 신령으로, 다시 예천으로 해서, 상주로 해서, 영주로 해서, 안동으로 해서, 다시 의성으로, 다부동으로, 영천으로 해서 포항전투를 하고, 포항에서 영천으로 충주로 수안보, 원주, 홍천, 춘천으로 해서, 화천으로 해서, 양구로 해서, 원산까지 갔다가 중간 화천, 양구에서 다시 1·4후퇴를 만나서 다시 겨울에 연풍으로 해서 문경까지 도망 왔어. 아마 내가 끌고 다닌 차가 어떤 사람들도 자기 소속부대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싸우고 거기에서 끝나지 전 대한민국 국토를 누빈 사람은 역사에 없어. 난 그것을 자부해. 어떤 군인이나 학도의용군보다도 4마퀴로 굴러다녔다. 고지전에서 군인아저씨들 못지않다. 그 군인아저씨들이 훈장을 탔지만, 나도 그 군인 아저씨 못지않다. 왜냐면 그 훈장을 타게끔 수류탄, 포탄, 밥, 옷 등 보급을 생명을 걸고 했다는 것에 얼마나 내가 자부심을 느껴. 그 군인아저씨를 후방에서 묵묵하게 도운 것이 나다. 전쟁에서 기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어떤 때보면 군인아저씨들 멍하고 있어. 차 세워놓고 실탄 가져가면, 노무자 아저씨가 없어서 총알 들고 가져다주면, 군인아저씨가 “왜 이제야 가져왔느냐”고 할 때 가져다 줄 적에 기분이 말도 못합니다.

징발차를 했던 다른 운전수 아저씨나 운전병을 만나지는 않았나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헌병이 빨리 가자고 하니까 인사 할 수도 없어요. 나보

다 다 나이가 많은 것은 봤지.

복장은 학생복이었나요, 군복이었나요? 처음에는 학생복을 입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군인 아저씨들이 군복을 주었지.

그러면 7월 달부터 군복을 입었나요?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국방부 한국전쟁사에서 영월광업소 차량 5대가 징발된 것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이거다. 역사책에 나왔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국방부 수송부에서 운전한 운전차하고 나하고 사진이 있어. 54년도에 찍은 사진이 있어. 국방부 5년은 20여명이 살아있으니까 인후보증이 되지.

영월광업소에서 처음에 나갔던 것과 53년도 이후는 증명되지만, 전쟁 기간 중에는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징발차야. 지금 국방부에는 역사에 징발차에 대한 부분이 없어. 내가 서류를 10년 전에 내서 “징발한 사실이 어떤 책에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백선엽 회고록에 징발차 얘기가 나오고, 이치업 장군 회고록에 500대를 징발했다고 나오잖아. 그 회고록밖에 볼 게 없어.

500대나 징발했으면, 선생님과 같은 경우가 500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 첫째, 운전수가 50대가 되니까 피를 부리고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중간에 자꾸 고장을 내. 그래서 싣고 가다가 다 차를 내버리고 도망가. 차에 징발차 내버린 것이 수두룩해요. 오늘 100대를 들이면 5대를 버리고 도망가. 50대니까. 차만 징발했지 사람은 징발 안했으니까 도망가도 잡을

수가 없어.

같이 운전수도 징발은 했지만, 운전수는 사람이니까 도망가지. 인간이니까 급하니까 고장을 내버려, 나같이 학생이니까 왜정부터 정직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원칙만 알았지 그냥 끌고 다녔던 거여. 물 갈아 넣고, 휘발유 입으로 해서 넣고. 우리는 죽으라고 했는데 딱 운전자 아저씨는 안 해.

그럼 학생운전병이셨던 거네요? 다른 사람들이 운전노무자였다면, 선생님은 특이하게도 학생이었는데 운전병이었던 거네요. 응,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거야. 응 이진 세계전쟁사에 없는 거여. 이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 떠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세계에 떠야하니까. 학도의용군동지회나 506수송단에 다 얘기 해봐도 나 같은 사람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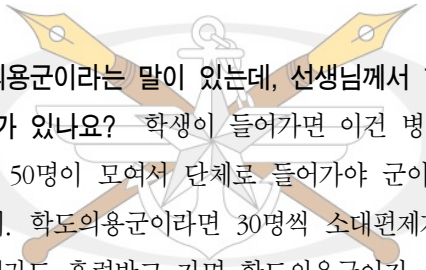
학도의용군동지회 성격은 어떻게 되죠? 연락처 좀 알 수 있나요? 사무총장을 하는 왕선구 사무총장. 나중에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20년간 사무총장해서 다 알아. 서울본부 학도의용군동지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한 50명밖에 없어.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진짜 학도의용군은 인정을 안 해. 소년병과 똑같아. 소년병도 한 30년 싸워. 내가 소년병동지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해왔지 그런데 내가 싸우고 나왔어. 왜 나왔느냐? 소년이라면 우리나라는 그냥 소년병을 군대에 모집하는 법이 없어요. 너희들이 15~18살인데 전쟁은 나고 피난갈 수 없고 그러니까 군 모집소에 갔다 이거요.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난 18입니다. 그러면 되요. 16이면 집에 가라고 하니까, 나이를 속인 거예요. 어리면 돌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군번 받고 계급장 부치고. 그러니까 현역이지. 상사 제대해가지고 국가에 해달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가짜다 이거야. 소년이 군번을 받지 말고 군대를 갔어야지. 소년병이 따로 있던지. 그런데 계급 받

고 월급 받았지 않냐 이거야. 단 800원이라도. 그러니까 현역이지 왜 소년병이나 이거야.

선생님께서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 그럼. 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 내가 진짜 소년병이면 소년병이지.

선생님께서 학도병과 소년병을 어떻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학도병은 학교에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소년병은 학교에 안다니는데 자발적으로 군대에 들어가는데 자발적으로 군대에 못 들어가잖아. 우리나라에는 소년병은 없지. 왜냐면 국가에서 누가 소년병을 받아줘.



학도병과 학도의용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학도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학생이 들어가면 이건 병이지. 군이 되려면 적어도 100명이나 50명이 모여서 단체로 들어가야 군이 되지. 각자가 들어가면 학도병이지. 학도의용군이라면 30명씩 소대편제가 되잖아. 훈련을 받았잖아. 한 시간이라도 훈련받고 가면 학도의용군이지. 그런데 혼자서 가면 어떻게 학도의용군이야 학도병이지.

중요한건 학생의 신분이고,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동지회에서는 자발적이 아닌 강제로 들어간 경우는 없었나요? 얘기해보면 다 자원입대했대. 그때는 자원입대할 수밖에 없잖아. 전시니까 먹을 데가 없잖아. 가면은 그냥 전투는 안 시키지. 국가가 훈련시켜서 보내지. 국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지. 나는 차로 몰려 들어가려고 하니까 몰려 들어갔지. 나도 개인으로 못 들어가 일선에 어떻게 학생이 혼자서 전선에 들어가. 소대에서 매일 인원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소대로 들어가. 난 특이한 경우지. 밤중에 징발되는 차에 같이 올라타고 밤중에 도착해서 군인아저씨한테 충

쏘는 법 배웠으니까 난 특수한 경우지. 오죽하면 소대장이 발견해가지고 부상병 옮기라고 내가 학도병이면 총 들고 같이 싸워야 하는데. 분대편성이 안되잖아. 규칙이 다 있지, 그렇지 않아. 군대 조직에는 규칙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야. 밤중에 들어가니까, 25일 밤에. 그러니까 소대장이 깜짝 놀라버렸지. 소대장은 배운 사람이지.

소대장이 누구인지? 몇 소대인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지. 몇 소대인지도 몰라.

장소는요? 홍천읍에서 춘천 삼마치 고개 있는 산이야. 삼마치 고개 근방이야 홍천전투지. 홍천시내가 불바다가 됐고, 부상병을 한 30명을 태우고 내려오는데 전깃줄이 다 길을 막아서. 공병대 아저씨가 줄을 자르고 눌러가지고 지나갔어. 홍천시내가 아주 그냥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26일 날 아침에 내려오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냥 원주로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한국전쟁이 아니고 세계전쟁에서도 나같이 17살 나이에 자기차를 가지고 징발되어서 가지고 운전을 배우고, 적 앞에서 총도 쏜 한 경우는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군대조직상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무리 전투가 일어났어도 군대에는 체계가 있잖아. 다 연락망이 되고 다 그지? 나같이 홍길동처럼 뛰어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특수한 경우지. 학도의용군 처음에 모였을 때에는 한 500명 됐어요. 그중에 운전한 사람은 없어. 그때는 다 운전 못해요. 그건 머 하늘의 별따기죠.

학도의용군총회를 했었나요? 한 30년 전인가.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30~40년 전에는 얼마나 학도의용군 켜냐 하면은, 김석원 장군 알죠? 성남 고등학교 교장도 했죠. 왜정 때 별 하나짜리거든. 그 양반이 3사단장으로 있었잖아. 그런데 그 양반이 나와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우리 총회

에 나오면 몇 백만 원씩 기부를 했어. 그리고 김석원 장군이 흑석동에 있는 산 있잖아. 사서 거기에 기념탑을 세웠잖아. 학도의용군기념비가 서 있잖아. 그게 다 사비로 세운 거예요. 학도의용군이 됐지요.

왜 김석원 장군이 학도의용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요? 6·25 돌격작전 때 학도의용군을 많이 썼거든. 왜 학도의용군을 돌격작전에 썼냐 하면은 학생들은 패가 없잖아. 시키는 대로 하잖아. 17~18살이 머 알아. 지금 테러 모양으로 그냥 폭탄 들고 들어가는 거지. 나이 많으면 안 되지. 처자식 생각나지. 나도 그냥 무조건 부모님들, 나라라는 것은 잘 모르지. 정의로만 배웠지만 잘 모르지 어리니까. 우리 가족을 피난시키지 않아야 하니까 내가 가서 싸운다 이거여.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운 거여. 지금도 내가 애들이 오면 그래요. 네가 국가가 위태로울 때 너 하나 나가서 싸우면, 가족은 편하지 않냐 이거야. 그게 바로 애국교육이야.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국방부에서 정말 다 그만두고, 제 차를 대대손손 보존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얼마씩은, 법이 있다는데 법을 만들어서라도 체험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어 주었으면 해. 전국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의무적으로 하루는 와서 징발차를 보고 애국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하면 좋겠어요.

● 윤원덕 구술 개관

- 구 술 자 : 윤원덕
- 면 담 자 : 성연춘
- 면담 주제 : 학도의용군 참전과정
- 면담 일시 : 2011년 7월 29일
- 면담 장소 : 경주역사

● 구술 내용

어차피 구술하실 거니깐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때는 전부 순수하게 학생들 경주공업학교, 경주 문화중학교, 경주 중학교 세 군대에서 450명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교육을 받고 일부는 첩보부대에 남고 일부는 1사단 수색중대로 갔어요. 나는 첩보부대에 남아서 계속 첩보활동을 했어요. 군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스물 중순에 서울을 가니까 학도병 오라고 해서 집합해서 학교를 돌아가라고 통일이 다되니까 내려가니까 또 중공군이 왔다고 그래 그래서 난리를 쳤어요. 중학교 4학년 때 했다가 내가 다시 학교를 갈려고 하니까 고등학교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해서 허락 말고 다시 또 군대로 갔어. 현역으로 그래가지고 복무하다가 다쳐서 옛날에 학도병 첩보부대에 있었다고 경력에 써놓으니까 한창 장교들 인사이동 할 적에 아꼈했어요. 지금 육군 본부에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의무병 하기 위해서 나한테 도장 맡아서 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현역들은 거기에 관여가 없다는 거야 내가 직접 했다고 하니까 참 서운하더라고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일은 했는데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그러니까 섭섭하더라 하는데 그렇게 포병으로 하니까 고맙다. 앞으로 젊은 학도병들이 이런 걸 보고 느끼

고 애국할수록 있도록 안 되겠느냐 고맙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셔서 수고를 하게 돼서....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국에 대해서 아주 전쟁 중인데 지금 휴전 중 아닙니까?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학도호국단에서 군사훈련했다고 애국심이 생기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니까 반갑게 생각해.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1950년 7월 11일 날 학교에서 비상중이 쳤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집합을 했는데 3학년생이 나오는데. 우리 공업학교는 최고 학년 5학년생까지 밖에 없어요. 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괴뢰군들이 내려와서 지금 한창 내려오는데 학도병에 지원할 사람 손 들으라고

그때 경주공업중학교였습니까? 경주공업중학교

몇 학년이었습니까? 4학년 나는 그때 당시 학도호국단 간부로 있었다고. 소대장으로 내가 손을 번쩍 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요. 손을 들고 보니까 몇 사람 손을 안 들었어. 그 다음에 소대원들이 손을 드는 거야. 우리 공업중학교에서 150명, 경주중학교에서 150명, 문화중학교에서 150명 이래서 경주역전에 12일 날 집합을 했어요.

부모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동의서 같은 걸 썼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 없고 나는 뭐라고 했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한테 내가 대구 시험을 가는데 그렇게 알라고 했

어요. 그 정도만 했다고. 12일 날 그때 전부 집합을 해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갔어요. 인솔자가 인솔하는 데로 따라가니까 학무국장한테 신고를 했다고 육군본부로 가라는 거야. 그때 육군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남산초등학교 대구 가니까 소령 한분이 나와요.

전부 다 농업중학교로 가라고 하니까 우리 책임자가 왜 가냐고 말하니 심사할게 있다고 그러는 거야. 갔어요. 경주중학생은 강당으로 들어가고 공업학교랑 문화중학교는 대구역으로 가라. 가면 군인 두 사람이 당신들 인솔해서 갈 것이다. 역으로 가서 분수대 앞에서 집결하니까 그런데 안와. 하룻밤 거기서 잤는데 그 많은 400 몇 명중에 똑똑한 놈들은 다 가버리고 그래도 내가 하겠다는 300 몇 명쯤 남았어요. 그런데 사병 둘이 와요. 옛날엔 하사라고 하던데, 인솔해서 차를 타고 김천을 통해 안동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차가 서는 거야. 지금 앞에 괴뢰군들이 와있다고 하니까 차를 백시키는 거야.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배가고파서. 밥을 거의 하루 계속 못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상주에 가니까 깜깜해서 비는 오니까 인솔자가 앞서 람들 허리띠를 잡으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상주초등학교 강당이야. 소령 한분이 나오더니 편성을 하는데 소령이 편성한 뒤에 하루 밤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철수해야 되잖아, 의성으로 갔어. 거기서 또 소대편성하고 거기서 성적좋은 사람들은 그대로 남고 성적미달인 사람은 수색중대로 보냈어요. 거기 남은 사람이 20명이에요. 그게 제2군단 첩보부대 그때 우리 중대장이 최명재 중위, 이양반이 지금 중장으로 지금 서울에서 살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전화하니까 건강한 거 같아요. 상당히 인자한 장교라고 하더라고 신사야. 이사람. 군위가서 또 철수하고 하양, 영천, 신녕, 안동, 의성으로 서울로 입성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학생들 전부 본부로 오라는 거야. 우리는 북진해서 통일 다 되가니까 학업에 열중하라는 거야.

첩보부대대에 들어갔을 때 군복이나 총도 받으셨습니까? 칼빈에 군복

노란 거 계급도 없이 그거 입고했는데.

군번도 안 받고... 부대에서 활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차가 어디 있다, 병력이 어디 있다 탐지하는 거.

그걸 이제 다시 와서 메모하고 보고하고... 네, 이걸 할 때 하양에 갔을 때 경주군 건천리 면장을 아는 사람 손들라고 그래서 또 내가 드니까 혼자 트럭에 실려서 바로 영천으로 못 들어오니깐, 경산으로 돌아서 우리가 건천에 갔어. 고향에 면장을 이름은 들었지만 가보진 않았어.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한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명장이라는 데 갈려고 하면 말을 해달라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하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정찰비행기에서 정찰하니까 적인 줄 알았는데, 적이 아니고 전투병들 부상자들이 많아. 내가 왜 여기 있냐 하니 갈 데는 없어서 못 간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니깐 첩보부대에 있는 누구라고 하니 알았나봐. 지금 백 몇 명이 있는데 지금 전투정찰이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복진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차를 타고 가봐야 몇 리도 못 가는데 그래서 올라가면서 적이 있다고 하고 오합지졸이지. 첩보를 할 수가 없어. 뒤에 적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활동을 해요. 이천에 수색을 나가는데 뭐가 하얀 게 있어 가보니까 사람을 철사로 묶어 아래는 와이어선으로 해서 총을 쏘면 다 죽이는 거야. 납치해서 끌고 가서 죽이는 모양이야. 보고 서울에 들어가선 첩보활동 안하고 학생들 오라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걸 뭐 증명서도 없고 그러가지고 부대에서 차내 준 걸 타고 대구 역전에 헌병이 있어요. 인가를 해준 거야 헌병들이 알았다고 우리를 태워주는 거야. 다른 건 없어요.

2군단첩보부대 본부는 어디 있었습니까? 2군단은 계속 따라다녔지. 사

령부에 활동할 때 어느 지점에 가서 지시를 하는 거야. 만약 팔공산 어디 어디 가라. 그러면 팔공산 가면 아군은 총을 쏘고 난린데 잘 모르거든. 수색하러니까 아군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다음 다부동 전투 때는 실제로 갔어요. 뭔지 잘 모르겠고 필기구도 없고 돌아와서 대장한테 보고하는 거야 와글와글 하다고 적으면 되는데 어리고 겁이 나고. 그러니 벌벌 떨리지.

혼자 가셨습니까? 보통 혼자가요. 어느 지점까지 가서 제대장이 지시를 하는 거야. 적 후방에 들어가는데 근데 적이 먼저 와버렸는데. 영천에 가니까 첩보할 때는 대장이랑 같이 갔어요. 옛날엔 논밭이고 그랬거든. 대장이 철망에 맞았어요. 넘어지고 다시 가자고 살살 들어가니까 적이 없어. 근데 한 놈이 남의 사과밭에 사과 같은 거 가져가는 거야. 잡으니까 16살 학생이야. 그걸 어떻게 하겠어. 데려가 봤자 아무것도 없어. 벌벌 떨고 같이 데려가서 하양 농산물창고 같은 게 그 안에 포로를 넣었거든. 내가 제일 팔로군 실제 팔로군이 나와서 보면 형편없어요. 머리도 빠져서. 영천에 팔로군이 갔어.

팔로군 출신 북한군 아닙니까? 맞아요. 난 실제 봤고.

2군단은 대구에 있었고, 첩보부대도 대구에... 2군단은 하양에 전엔 첩보부대는 군위도 있었고 우리 사령부가 옮길 때마다 가는 거야. 직할대니까

그러면 이제 6지대에서 활동했는데 주로 활동한곳이 다부동이고 영천 얘기도 했고 기억나시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신령, 의성, 안동, 영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맨 처음 상주에서 편성하고 의성 가서 군위로 이동했어. 칼빈도 받고 군복도. 철수를 해서 하양으로 갔어. 거기서 명령을 받으면 첩보부대에서 나가는데 영천, 신령, 의성, 군위에서 철수해서 팔공산에 첩보활동, 칠곡, 다부동, 그다음엔 하양으로 와서 영천, 건천 나와서 복진하면서 영천, 군위, 의성, 안동, 영주, 풍기, 단양, 제천, 홍천, 원주 다시 홍천에 가서 다시 나와서 이천, 서울로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 쪽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런걸...? 병력 상태, 장비.

며칠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1일단위로? 상황을 봐서 내가 철수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면 옆드려 있고, 어떤 집에 가서 나오고 우리 체대장님은 같이 맞아주고 그랬는데 대장님하곤 정찰은 영천, 하양에서 영천갈 때 시내로 갈 때 대장님이랑 그 외엔 혼자서...

혼자서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혼자서 무장 안 된 상태로 가면 다시 복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셨을 텐데 그땐 보상이라든가 옷을 잘 입는 다든가. 밥을 잘 먹든지 이런 걸 바라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지. 내가 생각할 땐 다른 사람들 육군 일등병이 어찌니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향해서 하지. 일병이 뭘 알겠어. 작전지휘라든지 그런 걸. 나도 마찬가지로 17살이 학도병이 뭘 알겠어? 상사가 시키는 대로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나와서 본걸 이야기하고

같이 간 친구 분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한명도 없어요. 같이 간 친구들이 다정했거든. 내가 아파 있을 때 쫓아올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죽은 건지 학교에 복귀한건 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

그럼 경주공업중학교에서 이제 육진에서 활동한건 나밖에 없지.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었습니까? 한사람 있어요. 임병익이라고 같이 있었는데 왔는데 다 와가지고 돌아 왔을 사람 중에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연령이 다 차서 군대 간 거 같아. 최영수라는 분은 나보다 1년 선 밴데 같이 있었어요. 학생들 고향에 가라고 할 때 가더라.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시 가도 군대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서 여기 있겠다고. 나중에 육군통신학교서 만났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깐, 나도 부대에서 나왔다. 나오니까 영장이 왔다고,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생했지만 나이가 차니까 영장 받아서 간 거야.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쉽하다는 거야. 학교에도 기록도 없고 썩썩해요. 썩썩하지만 다시 군대에 들어가서 장교하면서 공작활동하다 다치다보니까 제대해서 나왔잖아. 나는 그래도 상의보상금 받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아마 다 돌아갔을 거야.

그때 학도의용군 중에 포획되거나 포위돼서... 그런 거 없어요. 전사한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전사한 사람들은 일등병, 병장 총 맞아 죽고 이렇게 했지. 우리 학생들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 그 양반들이 와서 다시 군대로 갔을 거야.

부모님들은 그럼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하양에 주둔하고 있을 때 하양병원원장이 우리 외삼촌이야. 그때 2군단에서 의무병과에서 우리 외삼촌 병원을 점령해서 환자를 돌보고 했나봐. 내가 외삼촌 찾았어. 그리고 “외삼촌 학도병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디 어린놈이 학도병을 갔냐고 우리 어머니한테 삼촌이 연락했나봐. 영천에 있는데 면회를 왔어요. 적이 있는데도 어머니가 왔어요. 최영수 어머니랑 둘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끔찍한 거야.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도대체 간이 얼마나 커서 인민군들 있는데 하니, 어머니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전부 피난 가서 우리 고향 건천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6·25 겪은 사람은 지금 경주엔 내 친구는 없는 거 같아. 차 같으면 나는 벌써 폐차처분 돼야 되는데. 잘 살고 있는 거 같아.

장교로 근무하셨습니까? 네

경력이 인정돼서 병사로 가지 않고? 그때 예비사단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하루는 장교가 발령을 아주 많이 가요. 나는 천봉대로 발령이 나서 내가 어릴 때 근무한 곳인데 사실 훈련도 참 심하게 받았어요. 심하게 받은 이야기해봐야 나한테 손해지 이득 될 건 없어.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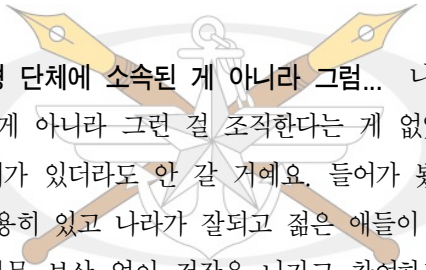
내가 교육하고 나랑 같이 받은 사람이 이북 가서 못 온 놈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겠어요? 이야기해선 안 돼요. 요즘은 그래도 애들이 다 매달 돈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연금도 받고 쪼들리는 생활은 안 해요.

계속 건천에서 사신 거 아닙니까? 태어나신 후로 건천에서 본적이 여기예요.

복귀를 하시고 졸업을 하신 겁니까? 졸업을 하고 영장을 보니까 빨간 줄이 두 줄 인거야. 육군 간부후보생 입대통지서라고 나와요. 군 3보충대로 가서 제2훈련소 가서 받고, 2훈련소에 와서 훈련 받고 있는데 지프차가 오는데 모두 경례를 하고 야단이라서 교관들도 그러고 사병들도 이 양반

하고 얼굴이 마주쳤어. 소령인데 바로 이양반이야. 자네가 여기 웬일이냐고 간부후보생 영장 받고 왔다고 지프차타고 가요 그러니 가니까 작전상황실 가서 차를 한잔 대접하면서 자네는 훌륭한 장교 될 거라고 나를 태워서 소속 연대중대에 오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가 학도병 갔을 때 우리 대장이라고 막 사람이 미남이라고 참 부러워하더라고. 최명재 중장 제대해서. 내가 느낀 게 장교 대위로서 10호봉이야 10호가 없었어. 8호까지 밖에 없었어. 내가 말하는 건데 병원에 입원해서 있어서 대위를 10년을 달았어.

학도병을 조사했는데, 학도병 단체가 많습니다. 나는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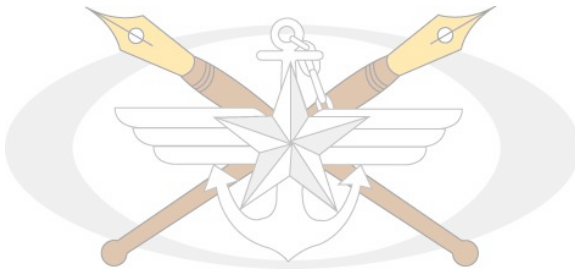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선생님은 학도병 단체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소속된 게 아니라 그런 걸 조직한다는 게 없었어요. 가입한 게 없어요. 만약 단체가 있더라도 안 갈 거예요. 들어가 봤자 좋은 말은 없어. 그냥 나는 조용히 있고 나라가 잘되고 젊은 애들이 애국심 있고 다른 기대는 없어요. 아무 보상 없이 전장을 나가고 참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해줘서 고맙고.

말씀해 주신 게 자료가 됩니다. 학도병 분들이 여러 종류의 학교나 단체가 있어서 종합하는 과정이거든요. 보면은 거기 계시다가 군번을 바꿔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들어갈 때도 들어갈 때부터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제일 처음이라 7월 14일 날 서울에 지시받고 있는 그 날짜 입대날짜 받고 갔어요. 그때는 군번도 없었어요. 1사단 수색중대로 갔을 사람을 어디 만났냐면 적군 수색하러 와가지고 아화로 와서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적진 수색하러 왔다고. 거기는 군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때 군번 받은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군인 대접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도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 차니까 또 군대 가고 이렇지 싶어.

그럼 그분들 중에 또 다시 군번 받아서 두 번 군대를 간 겁니까? 아니 군번 안 받은 사람이 제대해 나와서 있다가 학교 졸업해서 나이가 차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야. 영장이 나와서.



● 백영기 구술 개관

- 구 술 자 : 백영기
- 면 담 자 : 강성문, 김기훈, 이내주, 한설
- 면담 주제 : 백영기 장군의 학도의용군 참전경험에 관한 인터뷰
- 면담 일시 : 1993년 6월 8일 오후 2시 30분
- 면담 장소 : 육사박물관 귀빈접견실

● 구술 내용

내가 입대를 해서 내가 겪었던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고,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분석할 것이냐는 내가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단지 내가 경험했던 일들,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일자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겠어요. 대충 어느 때다하는 정도 외에는 기억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내가 경험했던 것 이외에는 난 몰라요. 그때 사범학교 6년제 때 갔는데, 지금 고3과 마찬가지로. 나이도 19살이지. 학도호국단 훈련을 받고 했지마는 그 군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 군대조직이 어떻게 돼있는지, 심지어 계급을 잘 몰라 가지고, 원산에서는 그 당시 사단장이 이종찬 장군이었는데, 사단장이 옆에 지나가는데도 몰랐어요. 우리가 경례를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별을 달고 지나가는 차를 본 일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뭘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뭐. 우리가 꾸중을 많이 들었지. 사단장이 지나가는데 특히 학도병들이 경례를 안했다고 말이지, 교육을 안 받았으니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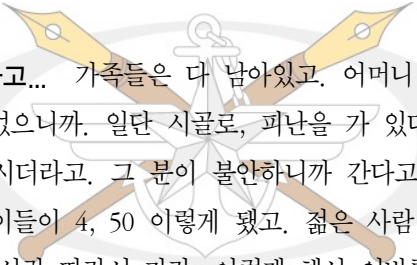
남상선 씨가 그때 3사단에 속한 학도의용군을 지휘했던 처지에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속해있던 소속은 3사단 학도의용군이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을 중앙일보사에서 한번 개인 인터뷰를 해가지고 신문에 연재했다가, 그때 육대 교관할 때 중령 때니까 72년도인가 3년인가 그래요. 민족의 증언 해가지고 1, 2, 3, 4권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일부 군번 없는 병사라고 해서 학도의용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또 학도병이란 책이 있어요. 요건 남상선 씨 하고 김만규라고 지금 목사예요. 이 사람이 같이 저술한 <6·25와 학도병>이란 책이 있어요. 요것은 주로 3사단 학도의용군에 대한 얘기를 주로 여기 썼어요. 요것 두 개가 3사단 학도의용군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이지만 기록이 있어요. 그 후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표창장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리고 당시 가지고 있던 신분증은(6·25와 학도의용군 이라는 책을 뒤지면서)요기 사진은 나와요. 신분증양식이 나오는데 이 책을 편집한다고 나보고 원고를 보내달라고, 내가 당시 육대에 있을 땐데, 원고를 써서 보내고 신분증도 같이 보냈는데 그 후 잃어버렸어요. 거기서는 나한테 돌려보냈다고 하고 난 안 받았으니까, 이젠 못 찾는 거지 뭐. (상기의 책을 보면서) 요게 우리 학도의용군단, 사단장이 발행한 신분증, 내 것이 있었는데 여기다 쫓더니 내 것은 안 실리고, 이 사람은 선임하사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께 실리고 내 것은 잃어버렸어요.

이걸 쓰신 김만규 씨가 지금 문산에 사시나요. 문산! 아닐걸, 대구사람이야. 남상선 씨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대구에 가서 입대하게 된 것이 1950년 8월 중순경일 거예요. 8월 15일을 지난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대구까지 피난가기도 어려웠지요. 대부분 중도에서 다 못가고, 재수 없는 사람들은 의용군으로 붙들려가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수복된 다음 나오고

했지. 대구까지 간 사람도, 난 고향이 청주인데, 난 다행히 매형 되는 분이 경찰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나도 걸어서 가다가, 만나서 트럭에 타가지고 얹혀서 대구까지 갔지. 그렇지 않으면, 대구 못 갔을 거예요.

혼자 가셨군요. 가족분하고 같이 못가시고. 혼자 갔지, 우리 가족은 하나도 못가고.

혼자 가실 때, 피난을 위해 혼자 가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혼자 가신 겁니까? 피난을 위해서 갔지.



가족들은 어떡하고... 가족들은 다 남아있고. 어머니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시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시골로, 피난을 가 있다가, 그 중에도 경찰가족이 한분 계시더라고. 그 분이 불안하니까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집안에서 다들 나이들이 4, 50 이렇게 됐고. 젊은 사람 학생은 나 하나니까 너는 가라. 저 사람 따라서 가라. 이렇게 해서 여비를 얼마를 받았는지 우리 큰 형님이 계신데 여비를 받아가지고 백 하나 둘러메고 따라 나섰죠. 보은까지는 걸어갔어요. 보은 조금 지나서 청산인가, 어디서 경찰 가족을 수송하는 트럭을 만난 것 같아. 만나가지고 나하고 같이 갔던 그 사람도 경찰 가족이고, 나도 알고 보니까 매형이 경찰하고 하니까 이리이러하게 구실, 명분을 세워서 같이 얹혀서 트럭타고 내려갔지.

다른 친구분들은. 없어요. 벌써 그때는 6월이니까 방학하기 전이니까 학교 다 다녔었는데 갑자기 서울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다 흩어졌어. 학교에서 다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소식을 모르지. 고향에 며칠 있다가 6월에서부터 8월이니까 기간이 있잖아 한

두 달 정도, 그 동안에 다 흩어졌다가 개별적으로 갈 사람은 가고, 처진 사람도 있고, 재수 없는 사람은 붙들려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대구까지 가서 대구에서 학도의용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 누님을 만났어요. 지금 그 위치가 전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제재소니까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널찍하더라고요. 거기 제재소에 사무실이 있고 숙직하는 집이 하나 있고 그 안쪽으로 목화 씨, 그러니까 목화 타는 공장이에요. 면, 목화를 타고서는 그 씨를 가마니에 쌓아놓은 거기서 우리가 잠을 잤으니까, 그런 공장이에요. 하여튼 그런 데에 내렸어요. 아마 한 몇 가족이 거기, 아마 여기저기 분산시킨 것 같아. 경찰 가족을 데려오긴 왔지만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공간이 있는 곳에 여기저기 분산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가보니까 그런 데예요. 뭐 막연하지. 이러면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내무장관이 조병옥 장관이에요. 그 양반이 특별방송을 하는 걸 라디오로 듣고, 또 지금 생각하니까 낙동강 전투가 한참 치열했던 것 같아요. 다부동전투나, 심해가지고 박격포 탄이 대구시내에 어딘지는 모르지마는 대구시내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대구시민들이 동요하니까 내무장관이 절대 사수한다, 후퇴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요. 목화씨 싸놓은 그런 공장에 앉아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 자고 나면,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릴 것 아니우. 옛저녁에 저쪽 집에도 경찰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 다 데려갔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만 먹고 무위도식이지, 뭐 하는 일 도 없고 밖에 나가면 붙들려 간다니까 나가지고 못하고 이런데 순진한 생각이지만 한참 젊은 학생이 이렇게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학생이 이렇게 있어서 되겠는가 말이지. 그래 우리가 그때 학도호국단 1차 교육을 받았었다고. 그래 6학년 때 학도호국단 대대장 학생을 보

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있어서는 생각이 조금 앞섰겠지. 그래서 아. 이걸 안 되겠다. 이렇게 있을게 아니라 이거 뭔가 가서 해야 되겠다 말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전까지는 이거 또 밤에 누가 와서 붙들어 가는 게 아닌가 하구 이렇다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여름이니까 교복이 아래 위 흰 거고 반소매고 한테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우리 누님한테 군대 간다. 아무데로 간다. 아무 데라도 들어 갈 데가 있을 거 아니냐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여비 조금 남았던 것 누님한테 다 털어주고, 거길 나왔어요. 나왔는데 동서남북을 모르지 뭐.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지. 그래도 마음 편하고 당당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어깨를 피고 활보를 하면서 군대모집포스터 같은 게 어디 없는가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붓글씨를 썼더라고 ‘학도들이여 모여라! 제3사단 학도의용군’. 그리고 장소는 ‘동아빌딩 2층’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아. 잘됐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물어서 간 거예요. 동아빌딩이 어디요? 어디요? 물어서 가니까 그 당시 한 4층 빌딩인거 같아요. 아래층은 가게고, 2층에서 면접을 하구. 근데 면접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어. 하튼 가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많이 모여 있었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줄서가지고 차례가 되어 면접하구,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나? 학교는 어딜 다녔느냐? 뭘 했느냐? 학도호국단 직책이 뭐야? 이런 걸 묻더라고. 다 답변하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니까 그날 저녁에 열차를 탔어요. 그게 어느 역인지도 모르겠어. 열차를 타고 열차 안에서 주먹밥을 하나씩 받은 것 같아. 주먹밥을 하나씩 받아서 그것을 먹으면서 열차에 탔는데,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난 몇 명이 갔는지도 모르지 뭐. 거기 묻혀서 가는 거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던가? 새벽인가? 내린 게 포항이에요. 포항에 내렸는데 우리가 내릴 그 당시에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포항에 한번 두 번, 세 번인가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것이 한번 지난 다음인지 두 번 지

난 다음인지 그건 모르지마는 하여튼 제일교회라고 있었어요. 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내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교회만 하나 남고 나머지는 완전히 잿더미, 그런 건 못 봤을 거예요. 한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여기저기서 불타고 길가에는 당시가 8월 중순 쯤 되니까, 또 그해가 굉장히 더웠어요. 개 같은 개 죽어서 있는데 썩는 냄새가 당채 말도 못하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가 그런 걸 당하니까 막 토할 거 같고,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냄새는 나고, 그러다가 해안가로 들어가서 해안가에 있는, 지금은 집이 다 비었지만 옛날에는 가정집이었겠지. 거기서 우리가 분산되어 수용됐어요. 해안가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바다에 뗏는데, 아마 폭풍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 아무튼 안구가 쑥 빠졌어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바닷물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안구가, 시신경인지 실 같은 게 매달려 가지고, 그런 시체가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게 바다잔물에 부두라는 게 원래 바다 비린내가 나는데다가 사람 송장이 썩고 하니까 그 냄새라는 게 말도 못해.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생선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그 비린내 같은 걸 잘 몰라요. 생선 비린내에 다가 송장 썩는 냄새가 나니까 한 3일은 밥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구역질 나가지고 말이야. 거기 가 있으니까 남상선 씨가 왔어요. 그 때 우리가 알기로는 사단장 전속부관이었다고 그래요. 소위지. 남소위. 전속부관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왔다니까, 니가 가서 지휘하라 그래서 왔다 그래서, 그때 학도의용군 중대장이라 그랬어요. 남상선 중대장. 그 양반이 와가지구 편성을 했지. 소대 분대로, 사실 남상선 소위가 와서 중대장하구 편성할 때는 내가 1소장이예요. 거기 유명옥이라고 1소대장이라고 돼있는 사람이 2소대장이예요. 바꿨어요. 보면은 또 그 전에 포항전투 당시에 그 편성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유명옥이가 1소대장이예요. 그러니까 아마 남소위가 남상선씨가 착각을 한 것 같아.

그러면 학도의용군이 단독적으로 전투를 한 게 포항여중에서 복귀군하고 했던, 47~8명이 전사한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거기 전투에 참전했던 학도의용군은 아까 대구에서 포항으로 기차로 실어온 다음에 분사 배치된 학도의용군... 전에 한번 다 읽어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후에 단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원래 김석원 장군이 1사단장이었어요. 1사단장이었다가 3사단장으로 바뀌었던 말이야. 그래서 그 양반이 성남고등학교 설립자 아닌가. 그리고 또 남상선 씨도 또 성남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도사단장 할 때에 따라가 있던 것 같아. 거기 보면 포항전투 당시에 중대장 김용섭 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춘천 강원대학 교수였어요. 지금도 있는지 몰라. 2, 3년 전에 같이 만나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랬어요. 그 양반 얘기도 여기에 일부 나오는데 그 양반 만나면 포항전투에 관한 얘기는 자세하게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중대장으로 지휘를 했고 실제로 턱이 날아갔어요. 파편에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하난데 그 사람이 너무 부상이 심해서 죽을 걸로 알고 아예 포로로 끌고 가질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남았고. 몇 사람은 유명옥 같은 사람은 포로로 갔다가 탈출해서 다시 돌아왔고 그런 거예요. 우린 그 다음이었지요. 그 사람들이 일부가 대구로 모병 나왔을지도 몰라. 나는 그 사람 만나지는 못했지. 유명옥이니 그런 사람을 포항에 가서 만났지. 대구에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 것은 포항전투 다음 얘기가. 김용섭이란 분이 사대 학생이었는데 중대장을 하구, 유명옥이가 1소대장을 하구,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구 수도사단에 가 있다가 사단장이 3사단으로 온단 말 듣고 그분 따라서 포항으로 와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현역 군인도 후퇴하고 그렇게 질서가 없는데 학생이 왔는데 누가 일정하게 지휘할 지휘계통도 없는 거구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뜰하게 보살폈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사단사령부를 찾아갔는데 그때 사단사령부는 계획에 의래

서 철수를 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체계가 잡혔거나 건재상의 부대일 것 같으면, 학생일 것 같으면, 뭔가 거기에다 임무를 줬을 거 아니에요. 사수 하라든가, 같이 철수한다든가 뭐. 먼저가라든가 뭐 있을 텐데 학생들이니까 그 계통이 있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 애길 안 한 것 같아요. 사단사령부로 다 빠져 나가고 학생들만 남은 거야. 학생들만, 근데 반대로 인민군은 거기가 사단 사령분데, 경계는 하고 있는 군인들은 있거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 일부가 남아있는 줄 알고 공격한 거야. 공격했는데 학생들이 겁이 없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기관총이나 총 같은 게 계속해서 벌겍게 열을 받아서 꼬부라질 정도로 사격을 했단니까. 있는 데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40명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뭘 알아. 분대전투를 알아요. 뭘 알아. 그 것이 여중애긴데 우린 들은 애기지. 그 후에 유명욱이니, 김용섭 그 양반은 부상당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다 나온 다음에 한번 우리 부대에 들러서 얼굴을 한 번 본 일이 있어요. 그 후는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학교 마치고 강원 대학 교수한다고 해서 2, 3년 전에 한번 만나서 식사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남상선 소위가 파견된 다음에 학도의용군들에게 체계적인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아까 그 양반이 와서 소대편성을 하구, 그렇게 하고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M1소총 분해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포항 해변에 가서 각개전투를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격훈련을 하도록 돼있는데, 사격훈련을 단계적으로 PRI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고 대충대충하고 그 다음 제식동작도 학교에서 대 배웠었으니까 다 할 줄 안다 말이야. 그러니까 실탄사격을 하는데 그냥 해변에서 쏜 게 아니라 바로 산으로 가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실탄사격을 하러 전방에 부대가 배치 돼있는 산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애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

방의 뒤에는 학생중대가 사격훈련을 한다구 해서 그냥 다 협조가 돼있는 상황에서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거기 끼어들어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건데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남소위 그 양반이 인솔해가지구 갔어요. 가서 능선에 배치가 돼있는데 우리가 먼저 사격을 받았다고. 받아서 실제로 거기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첫 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실탄사격이 된 거지요. 저기에서부터 우리가 사격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실탄을 기왕 사격연습을 하려고 가져 간 거니까. 누가 쏘라마라 안 해도 다들 쏘더라고. 사격통제라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인제 사격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있는 데로 다 쏘는 거야. 남소위 그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발길로 차구 그래도 안 돼. 그래 사격통제라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한번 총 쏘기 시작하니까 안 돼. 전부 쏘지 가만있지 않는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도 잘 안 들릴 뿐더러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런 경험을 했지.

일수로 따지면 훈련 받은 게 한 10일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돼요. 일주일부터 10일 정도 된 거 같아. 웬 만큼 결합서부터 분대전술까지 배웠어. 분대전술까지 배우고 사격하러 나갔어. 분대전술까지 배우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직책을 메겼어요. 그때 84점인가 85점인가 내가 성적을 잘 받았어요. 비교적 말이야. 그래서 내가 1소대장이 됐다고. 그리고 당시 중대본부 행정요원은 대학교 다니던 대학생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병기계, 교육계, 서무계 이런 행정요원으로 그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고, 고등학교학생들이 주로 소대에 있었고.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건 내가 1소대장이고 유명옥이 2소대장이구 그 다음 진행에서 온 1개 소대가 있었어요. 거기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모병을 해왔나요? 그때 모병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돼요. 의용군모병을 했어요. 그래서 진해에서 1개 소대가 왔어요. 소대장이 조철호라고 진해고등학교 1회 졸업생인데 그 사람이 내가 진해, 70년대에 육대 교장을 할 때 가보니까 동창회장을 하고 있더라고. 조철호라고. 이래 3개 소대였어요. 3개 소대, 중대본부 이렇게.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니까 안강. 기계전투인거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기로 포항서 다시 철수했지요. 철수해서 저쪽 도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사단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사단사령부 경비를 담당했어요. 학도 의용군중대에서 사단사령부 경비를 담당했어요. 낮엔 재우고 밤엔 보초서구 또 간부들은 순찰 다니고.

그러면 실제로 학도의용군이 적과 대치해서 전투에 참여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그거는 내가 속해있던 3사단 학도의용군 얘기고 당시 학도병, 내기 학병,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으로 군대에 간 사람은 대체로 학병이라 그랬어요. 학병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는 사람 끌어다가 현지 입대를 시키는 마당인데 학교에서 기초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썩먹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진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끌려간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신분으로 현역부대에 현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11기, 12기, 13기, 14기까지 여기 들어왔어요. 학생신분으로 부대가서 근무하다가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거기서 육사모집을 보고 지원해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11기, 12기, 13기까지만 해도 한 1/3정도는 현역 사병출신이에요. 그 사람들도 크게 분류하면 학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3사단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아주 학생만으로 현역이 아니고 학생만으로 단독적으로 부대를 구성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또 여기 조금 나오지마는 후방에서 소위 이름은 여러 가지 붙이지만 학도 뭐 학도의용군, 학도 무슨 무슨 뭐 선무공작대 여러 가지 해서 그 서울을 비롯해서 각 지방에 이런 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좋게 얘기하면 학생의 신분으로 뭔가 봉사한다. 뭐 이런 명분을 세운 거고, 나쁘게 얘기 하면 병역기피야.

선무공작대라는지 뭐... 후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름은 걸어놓고 군복 비슷한 걸입고 완장차고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전방에 안 갔어. 지프차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 대고서 구호나 외쳐대고 그랬던 거지.

그것과 연관해서 저희가 가장 애로를 겪는 게... 그것은 구별해야 될 거예요. 그건 아니예요. 여기 저 잠깐 꺼보세요.(발언자의 요청으로 off-the-record로 하여 녹취 불능. 단, 위와 관련한 이야기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발언하였음)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했다 이런 뜻에서 학도의용군이라든가 하는 가치가 있지 뒤에서 있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학생들 전방에서 의용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뒤에 선무공작대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감정상 기분이 안 좋았ా든지... 근데 전방에 부대 따라 다니던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그때만 해도 신문도 없지, 라디오나 TV는 물론 없지. 라디오도 한번 듣지 못했어요. 대구에서 조병옥장관 얘기 듣고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하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지.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좋은 얘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그 양주룡, 물리과에 있던 그 사람이 함흥, 함경도 아니요? 우리 3사단 학도의용군이, 3사단이 동해안을 따라 쪽 북진을 하다가 3사단이 38선 넘는 것이 10월 1일이요. 그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된 거예요. 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그날. 그래 원산까지는 3사단이 선두로 가서 거기서 수도사단하고 교대를 했어요. 교대를 해서 쪽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홍남철수가 있지요. 그때 철수를 했

는데 물론 배타고 온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보다 몇 배되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었다고. 또 형편이 닿는 사람들은 어선을 세내거나 징발해서 요행히 타구서 내려오고 했는데 양주룡 씨가 나보고 한번 그래요. 내가 학도의용군 출신이라고 하니까 너 같은 놈은 날벼락이다. 다짜고짜 그래요. 왜 그러냐. 얘기나 하구서 그래야지 덮어놓고 그러면 내가 무슨 애긴지 모르지 않느냐. 애길 해보라 그러니까 무슨 애길 하느냐 하면 자기도 그때 홍남철수를 할 때, 10만이 내려왔어요. LST가 해서 가지고 그건 김백일 1군단장이 강력히 주장해가지구 철수했어요. 그건 안하면 한국군은 여기서 철수 안하겠다, 이렇게 버티니까 당시 10군단장 아몬드 소장이 결국 애길 들어서 LST에다 전부 민간인을 태웠어요. 그 화물선에다 전부 민간인을 태웠으니까 그 고생이란 것은 말도 못하지.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부산에다 풀어놨다 말이야. 그게 홍남철수란 말이야.

그 선무공작대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갔는지 기억하시는데... 아 난 잘 모르겠어요. 난 거기에 간여도 안했고, 얘기 들은 게 지금같이 양주룡이한테 그런 단편적인 애길 듣고 하니, 야 이놈들이 후방에 있으면서 나쁜 짓을 했구나 하는 이 생각뿐이지, 어떤 사람들,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으니 모르지만 짐작하건데 소위 좀 뭐라 할까, 권력층에 손이 닿거나 돈 좀 있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자제했지. 짐작컨대.

혹시 아시는 분들 없습니까? 누구, 그중에서, 그중에선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밑에 데리고 있던 학생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모집했던 사람들. 가보니까 중학생도 있었어요. 원래 그때 고등학교 이

상을 모집한 걸로 알구 있는데, 써 붙인 건 아니지만, 구두시험으로 너무 어리면 돌려보내고 했는데 중학생도 몇 사람 있었고, 여기 보면 김만규란 사람이 제일 어린 걸로 나오죠? 중학생으로 나오고 또 전사자 중에는 윤학?(발언자의 발언무제로 녹취불능)이라고 청주중학교 다니던 사람인데 16인가 17인가 그래요. 우리 고향 가까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현충비 제막할 때 그 아버지가 와서 많이 울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 고등학교,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생도 일부 있었는데 많질 않았어요. 대학생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대본주 행정으로 주로 그런 임무를 주었고, 그 당시 학생들도 소대 편성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주로 6·25 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도호국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다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학도의용군에 참전했던 학생마다 참전동기가 다른데 저희들이 흔히 알기에는 구국의 충정, 그걸로 참전했다는데 사실은 각양각색이었겠지요? 각양각색이에요. 나 개인은 아까 그런 사정에서 가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때 대구까지 피난 나와 있었는데 피난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학생들만 모여서 간다니까, 그리고 군대하면 위압감을 느끼고 무지막지하게 느끼다가 학생들만 모여 간다구 하니까 또 그런데 희망을 느끼고 온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진해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예요. 진해, 밀양. 밀양에서도 1개 소대가 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학도의용군이라는 데 매력을 느껴서 온 학생들이 많지. 여학생이 셋이 있었는데 묵호 거기서, 우린 안 데려가려고 그랬지요. 난 그때 그런 권한이 없었지만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 셋

데려다 뭘 해. 그런데 본인들이 한사코 그래서 왔어요. 그 후에 남덕자란 사람은 미국에 이민 갔고 유상희란 사람은 부산 살아요. 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학도의용군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깐 동해안으로 쪽, 주 임부가 사단사령부 경비, 그렇게 해서 쪽 올라가서 길주까지 갔어요. 길주까지 가 가지고 사단사령부가 전방연대는 해산진 26연대, 초산, 이렇게 해서 압록강가까지 가고, 3사단 사령부는 경성이라고 있죠? 함경북도, 거기서 이동하려고 준비를 다 하구, 지금 차 타려고 하는 데 대기 지시가 내려 대기하구 있다가 못 갔어요. 나중에 안거지만 내가. 육대 교관을 하면서 그 전사를 보니까 중공군이 들어온 거야. 중공군 12개 사단이 들어 와가지고 미 해병사단하고 그 쪽을 포위한 것이야. 포위해서 지금 철수하는 마당이니깐 사단사령부 전방으로 추진할 수 가 없지. 그렇다고 나중에 길주로 와서 길주에서 배로 다 철수를 한 것이 홍남철수작전이고 후에 전혀 소식을 몰라요. 사단사령부나 이런데서 알려준 소식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언뜻 들으니까 문교부장관이 학생들은 전부 돌아가라고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홍남철수해서 부산에서 다시 중부전선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홍천, 횡성 이런데서 있었어요. 인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야! 학생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나중에 남상선 씨가 사단사령부 작전장교로 전출갔어요. 우리가 가서 물었어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거냐? 그러니까 맞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 본인 희망을 물었어요. 사단사령부에서는 지금 전부 현역으로 지방에 있는 후방의 장병들을 전부 현역으로 편입해서 징병해서 오는 마당인데 지금까지 훈련받고 이러다가 지금 돌아가서 뭐 할 거냐 말이야. 여기서 그대로 현역으로 있으란 말이야. 현역으로 전환해 있으라. 그래서 학교 학년에 따라서 계급을 주겠다. 그땐 계급도 달랐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병장, 하사, 중사 이렇게 줄 테니까 있으라. 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더라고. 상당수는 이렇게 해

서 현역에 남고 그래서 대학교 다니던 사람 중사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하사받고 이런 식으로 남은 사람 있었고 또 일부는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돌아온 사람, 우리 같은 경우는 돌아온 케이스지. 또 여기 설명이 잠깐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전쟁이 곧 종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복귀령이 막 내려진 그러한 상황 때에... 그런 생각은 전쟁이 끝날 것인가? 종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건 전혀 몰랐고...

학생의 복귀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그 전쟁이 상당히 호전되고 곧 종전이 가까워지니까 상황이 호전되니까 이루어진 조치가 아닌가... 글썄 여러 가지도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 안 했고, 학생들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공부할 기회를 줄려고 정부에서 그러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우리가 홍남철수 할 때에 이걸 좀 무관한 얘기지만, 내가 느낀 거는 소위 전장심리라는 게, 무슨 얘기를 아무도 안 해. 하여튼 중공군에게 포위가 됐단다 하는 얘기가 그런 소문이 꼭 돌더라고. 꼭 도니까 소위 사기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전까지만 해도 사기 충전해서 복진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전투부대 보병은 말이지요. 포항에서부터 원산까지 행군한 거야. 지금 생각해봐. 포항에서부터 걸어서 걸어서 원산까지 간 거야. 그러니 그것이 신이 나니까 되더라고. 신이 나니까 하루에 몇 십 킬로씩 걷는 거야. 그레 가지고 3사단이 전군에서 제일 먼저 38선 돌파한 것 아니야. 그냥 막 7번 도로가 동해안 맨 우측 도로 하나, 그냥 원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포위가 됐다가 하니까 인상이, 싱싱한 배추 소금물에 담갔다 빼면 딱 죽잖아. 딱 그렇더라고 그런 느낌이야.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또 양심적으로 아주 괴로운 거는 우리는 사단사령부에 있으니까
홍남보다 조금 더 북쪽에 길주에서 홍남까지 오는 동안에 차를 타고 우리
는 했어요. 거기 있던 우리 국군에 협조했던 우익인사들은 전부 보따리 보
따리에 어린애를 업고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 뒤로하고 우린 빠져나오려
고 하니까 참 괴롭더라고. 저 사람들이 우리 복진할 때 우리 믿고서 태극
기 흔들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남겨놓고 우리가 먼저 빠지려
니까, 눈이 풀풀 내리는데 빠져나오려니까 아주 괴롭더라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10만이 빠져나와도 참 많이 나온거지만 또 그 10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두에 그냥 남았다고. 그냥 남은 채로 부두 폭파시켰잖아. 그
영화 못 봤지? 기록영화. 거기에 말이야, 육대에도 없어요. 육대에 가면
알 수는 있어요. 육대 전술학부에 가면 육대에 무슨 과정이 있나하면 야전
군 과목이 있어요. 또 소규모 야전군이란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해
군에서 기록영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서 빌려다 돌렸는데
홍남철수작전에 대한 기록이 생생하게 나와요. 당시에 우리 피난민들이 그
냥 아우성치구 어린애들이 부모 잃어버리고 다 울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재봉틀 하나 이구서 그냥 막 눈보라 치는데 그거 하나
이구 오는 장면이라든가, 나중에 부두 폭파시키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온다
고. 그 전술학부에 가서 소규모 야전군을 담당한 교관한테 하면 해군에서
홍남철수작전에 대한 기록영화를 빌려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비참
해요.

그러면 포항에서 원산까지 올라가시는 동안 학도의용군이 주로 담당하
것은... 사단사령부 경비.

그러면 지급된 무기는 M1... 처음엔 M1 받아가지고, 저 구리스 묻은
거 우리가 휘발유로 다 닦아가면서 해가지구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반납

했어요. 반납하구 인민군한테 노획한 아카보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정원 외란 말이야. 사단의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면 먹을 쌀이고 옷이 다 나올 수 없는 대상이란 말이야. 어수룩할 때니까 사단장 명령 하나로 그냥 다 하는 거지만. 나중에 가니까 정리가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 200명 학도의용군에 대한 소총도 문제가 될 거 아냐? 그래서 그런지 다 걷어 가고 우린 그 대신 노획한 아카보총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후에 복진할 때는 그 총가지구 갔다고.

학교에 돌아간 이후에는 어떻게... 그 후에는 학도의용군이란 명분으로 해서, 없어졌으니까, 우리 3사단 같은 경우에 활동이 없었지요. 그것보다, 각 연대로 현역을 지망했던 사람들은 각 연대로 배치됐다고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연대돼서 그냥 사병들하고 같이 행동했겠지. 그 후로 소식은 모르고.

그러면 그때 복귀하셨던 분들은 복귀해서 공부하다가 58년에 지난번 말씀하신 그 사람들 제대조치 해주고... 그렇지. 그렇게 다들 병력을 필한 걸로 확인을 받았지. 나는 바로 사관학교로 들어왔으니까 이거고 저거고 필요가 없었지.

그러면 거기서 51년 3월 16일인가 통천에서 해산됐으니까 거기서 현역 입대를 하셔서 계시다가... 아니, 난 바로 학교로 갔어.

58년도 전역 조치됐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짜 많겠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학도의용군에 대해 편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학도의용군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범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투에 참전했던 이런 사람들만 포함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선무공작 같은 후방에서 하면서, 또 학도기간대라고 해서 치안단 뭐 하구 경찰에 소속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끊어야 할 것인가? 기록에 보면 전투에 직접 참가한 사람은 2만에서 3만 사이로 돼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22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갯이 엄청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게 사실 출발점이고 어느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썄. 난 이쪽 관계는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파악을 해보고, 광의로 학생의 신분으로 6·25에 참전했던 사람은 이리이러한 부류로 해서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이러한 부류는 이렇게 까지 했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 맞았어요. 그때 학생으로 나왔던 사람은 다 학병이라 그랬어요.

학병이라고 했습니까, 학도병이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일정한 용어가...

일제시대 때 학병이라고 대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용어에 규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병이라고도 하구 학도병이라고도 하구,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도의용군이라고 했던 말이야. 우리 3사단은 정확하게 학도의용군이라 그랬어요. 그래 여기 신분증도 보면 학도의용군증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에 여기, 학도의용군 이렇게 돼 있잖아, 보병 제3사단 대한 학도의용군 이렇게 돼있어요. 그때도 자기 멋대로 불렀지 뭐. 그리고 후에 여

기 보면 이 양반 남상선 씨가, 여기도 그렇구나! 3사단 학도의용군 부대장.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때 중대장이었지 무슨 부대장이야. 이렇게 과장되게 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써낸 원고가 하나도 여기 안 실렸어요. 나중에 여기 보니까 나도 이때 교관하면서 바쁜데 말이지 상당히 머리를 짜서 옛날 생각을 해가면서 원고를 상당히 해서 신분증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내 원고가 하나도 안 실렸더라고. 보니까 요것도 조금 그런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양반이 국회에도 한두 번 출마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의식한 거야. 그리고 뒤에 보면 학도의용군 부대장 이렇게 돼있어요. 부대장 말이야. 학도의용군 그때 직책이 중대장이었지. 아 그리고 1개 중대밖에 안되는데 무슨 부대야. 부대가. 당시 이 사람이 소위였었고. 우리는 내가 아는 사실대로 더군다나 이거 하나의 NON-FICTION이 돼야 하는 거 아니우. 물론 책이니까 약간 각색은 되지만 사실을 기록을 해야지 거기다 자꾸 윤색을 해서 께맏춰 버리면 가치가 없는 것 아냐. 난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아는 한에서 사실대로 적었어요. 사실대로만. 근데 하나도 안 실렸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포항에 들어가고부터 이북에 가가지구 내가 관둘 때까지의 내가 아는 기록. 그 당시 얘기는 전반부, 그 전반부 후반부 그랬어요. 나한테 원고 청탁을 할 때는 소위 포항전투, 여중 앞에서의 전투는 이 기록은 누가하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부터 북진해서 내려올 때까지는 내가 좀 해 달라 이렇게 청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썼지. 열심히 썼는데, 원고도 다 쥐버렸으니, 지금 뭘 썼는지 모르지만, 신분증하고 다 쫓으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실렸더라고. 그래 여기 보면 각색이 돼있어요. 조금 미화되고 각색이 돼 있다고 상당히.

의용군들 간에 상호관계는 중대장은 장교니까, 나머지 소대장하고 분대

장하고 그 밑에 분대원들 하고 관계는 어떻게... 그건 엄격했어요. 딴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3사단 학도의용군, 여기서는 벌써 그때 학도호국단이란 조직이 6·25전에 돼 가지고 제식훈련, 집총훈련, 각개훈련, 상당한 훈련은 되어 있었던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중학교 그런 훈련을 다 받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행동에 조금도 불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물론 남상선 씨가 ---녹음불량---을 냈겠지. 그냥 임명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하면 좀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험을 봐서 성적을 공개를 하고 그 중에서 임명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는 연령차도 있잖아요. 우리는 장유유서를 많이 따지잖아. 당시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군소리할 게 없는 거고. 또 이쪽 소대 편성에는 대학생들은 넣지 않고 대학생들은 다 빼고 그러니까 소대 중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제일 어른일거 아냐. 나이가 제일 많았고, 또 분대장도 그런 걸 생각해서 분대장으로 임명하고 통솔하고 야간에 보초 나가고 이렇게 교대하고 임무수행 하는 데에는 일반, 지금 생각하니까 부대하고 조금도 손색없이 엄격한 군율 하에서 이루어졌어요.

호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소대장님 했지. 소대장님 선임하사님.

동지 뭐 이렇게는... 그렇게는 안했어요. 분대장, 소대장, 분대원이 분대장보곤 분대장님 하고 소대장님 하고 했다고.

분대원 상호간에 어떻게... 그냥 막 부른 것 같은데. 어이! 누구! 이름을 막 부른 것 같은데. 계급은 없으니까.

그 안에서는 동지란 말을 썼다고 나오던데. 우리는 그런....

아니요. 그 안에서는요. 소대장 그게 아니고... 아아! 김동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현역병사들 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었습니까? 거의 접촉이 없었지요. 거의. 우리 더군다나 단일부대로 사단 경비만 주로 맡아서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접촉할 기회가 없었어요.

지휘부에서는 다른 신경 같은 거 좀 써주고 그랬습니까? 신경 쓴다는 것이 밥 먹고 옷 입고, 자고 그러면 기본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부식비도 나오고 했던 모양인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지 뭐.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 잘 곳 제공해주고 그리고서 임무를 부여하니까 그 이상 뭐 내외라 뭐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것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김석원 장군에 대해선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었는지. 원래 3사단도 보면, 김석원 장군 때 거기서 간걸로 되어있고, 우리도. 난 다행히 광고를 본 것이, 그걸 봤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갔지마는 그때 포항시청이 지금 생각하니까 포항시청이 사단사령부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차에서 내려서 사단사령부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수염을 이렇게 기른 양반이 철모를 썼든가? 철모를 이렇게 쓰고, 철모가 아니라 헬멧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헬멧 쓰고, 수염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본도를 차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지. 아마 부관이나 누가 했겠지. 저 사람들이 대구에서 새로 온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현관으로 들어갈려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어가는 걸 딱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는 그 양반 만날 일이 없고 그 후에 이종찬 장군이 후임 사단장으로 왔어요. 그 양반이 복진할 때 죽 있었지 그래서 아까 원산에서 행진하다 휴식하고 있는데

지프차가 오다 앞에 빨간 걸 달았는데 우리가 뭐 봤어! 알아야지. 그런 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얘기들은 적도 없고 말이야. 다들 가니까 그냥 쉬고 있었지.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인지 모르지. 쫓아오더니 말이야 “너들 사단장이 지나가는데 경례도 안하고 너들 뭐하는 뭐하는 놈들이야!” 라고 야단을 치는데 우리가 사단장인지 알았어야지. 그 양반이 이종찬 장군이었어요. 이종찬 장군.

그때 학도의용군에 있으면서 집에 연락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집에서는 그럼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지. 나도 집에 돌아오니깐 다들 실종됐는지 알았지. 피난나와서 군대간다 하고 소식이 없으니깐 죽었는지 알고 있었지.

당시 누님은 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고 뭐라고 했냐고?

가지 말라든지 뭐... 그렇진 않았어요.

다 가야 되는 걸로. 어쩔 수 없이... 원체 내가 결심을 딱 하고 하니까 말릴 수도 없고, 또 거기 있어봐야 대책이 없고, 하여튼 조심하라고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혹시 만 학도의용군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 포로로 됐다가 탈출해서 나와서 우리하고 합류했다가 며칠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얘기가 그 사람이 아마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보고 그래, 미 1군단에 가면 거기다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는 대우가 좋다 말이지. 너 거기 한번 가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농담 비슷하게 슬쩍 한번 던지더라고.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얼마 지나다보니 그 사람이 없어졌더라고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거기로 간 거 같아.

UN군들이... 미 1군단인가 아몬드 장군이 지휘했는데 동해안 쪽이 1군단이죠? 1군단이 있어요. 미 1군단에 가면 거기도 학생들이 있는데 대우가 좋다더라 이런 뭐 거기도 학생들이 있었겠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원산인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아.

다른 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 잔비소탕작전에 참가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도 들어 오셔가지고 서로 학도의용군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없습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앙대학 들어가기 전에 상도동 왼쪽에 십용사비 하고 학도의용군비가 있어요. 김석원 장군이 주가 돼서 기념탑을 세웠는데, 그것이 우리가 3학년 때 같아요. 서울 막 올라오던 그해 여름에 제막식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 그때 생도신분으로 제막식에 참가를 했어요. 유명옥이 하고 둘이 나가서 제막을 했다고. 제막을 할 때에 이종찬 장군이 총장! 아니 총장 아니고 하여튼 이종찬 장군이 오셨고, 김석원 장군이 참가를 하셨고 또 신익희 씨가 그때 국회의장인가 했어요. 그 양반이 오셨고 뭐 이렇게 해가지구 그 당시 포항여중 앞에서 전사한 유가족들 다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다 온건 아니고 몇 사람 왔고 아까 그 양반들 당시 3사단에 관계했던 그런 양반들 참가하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거기서 표창장을 하나 주더라고. 학도의용군 참전에 대한 공로표창을. 그걸 잘 말아서 육사 졸업장하고 한데 넣어 둔 것 같은

데 찾아보니까 영 못 찾겠어. 그게 어디 갔는지. 이때 여기다 쫓는지 말이야. 하여튼 영 못 찾겠어요.

남상선 씨 하고 관계는 어떻게... 남상선 씨는 중대장 소대장 하구서...

그럼. 보고 다 하고 회의 때마다 참석 다 하구 그렇게 하다가 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나도 여기 훈육관으로 왔어요. 중위 때 왔는데 그 양반이 대대장으로 오데. 여기 1대대장으로. 그래 내가 그 밑에 있지 않았어요? 그 밑에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 몇 기요. 18기지. 기초 군사훈련 하다가 갈매리, 갈매리 한 바퀴 도는 건데 4킬로요. 행군하는데 물론 더웠긴 했지만 앞에서 17긴가? 백동림. 15기 백동림 모르지요? 백동림 이 사람이 교육대 대대장을 했는데 선두에 서가지구 너무 빨리 걸었어. 우리가 그때 앰블런스를 끌고서 뒤에 따라가는데 우리 생각에도 뒤에서 막 뛰더라고. 아- 행군속도가 빠르데, 처음 행군하는 날인데 날은 덥고, 빠르데 빠르데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땀땀까지고 선두가 올쫓 돼가지고 일루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서가지구 있으니까 지나가는 트럭들이 저기 군인들이 쓰러져서 난리가 났다고 빨리 가보라고 이러더라. 그래 가보니까 막 거품을 토하고 여러 사람 쓰러졌어요. 쪽 실어 날라서 지금 서해체육관인가? 그 자리가 술밭 자리였어요. 거기다 막 눕혀놔지. 의무대는 저쪽 특별부대가, 지원부대가 그쪽에 있었는데 군의관이 나와서 뭐 열심히 거품을 걷어내고 해도 대부분 거기서 해결됐는데 몇 사람이 병원에 갔잖아. 둘이 죽었어요. 거 오병재, 오병재 처남이지? 고창익인가 고 무슨 생도하고, 구 무슨, 여기 어디 비가 있을걸! 그래 그 교육대장이 남상선 씨란 말이야, 그 책임지고서 육군본부로 쫓겨났잖아. 그런 일이 있어요.

남상선 씨 그 당시에 처음 중대장을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믿고 그랬겠습니까. 지휘관들이... 저 여기 생도대에 근무할 때?

아니요. 저 학도병 당시에? 글썄 뭐 그 양반이 날 어떻게...

학도의용군들이 처음 훈련을 시키고 그랬으니까... 아- 남상선 씨를? 아 -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장교라고 봤지. 우리 현역 군인들한테 교육받은 건 6·25 전에 학도호국단 간부훈련이 있었어요. 안호상 씨가 문교부장관 하면서 처음 조직을 해가지구 학교에서 하나 아니면 둘씩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서울, 경기도, 경상도, 그 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도별로 훈련을 겨울 방학 동안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시켰어요. 우리가 1기 5차야. 5차가 도별로 5번쨰데, 그때 현역군인들이 나와서 교육을 했어요. 제식훈련이지 제식훈련, 집총훈련, 내무생활지도. 조교도 현역군인들이 와서 조교노릇을 하고 그때 문교차관이 학도호국단 훈련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한번은 국방장관이 나와서 특별강연을 했어요. 그 전속된 소령이 나와 가지고 그 양반이 강연하는 동안에 열중쉬어를 하고 있는데 눈 하나 까딱 안고 서 있더라고. 야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병권 씨야. 박병권 씨가 그때 소령이었는데 장관 아마 부관이나 보좌관 했던 모양이지? 장관 수행해 나와 가지고 앞에서 강연하는데 옆에 서가지구 열중쉬어하고 딱 서있는데 눈 하나 까딱 안하더라고.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현역군인한테 받은 경험이 있어 가지고 남상선 씨가 교육하는 걸 보니까 아주 똑똑하더라고. M1소총 분해 결합서부터 각개전투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그 당시 하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했지만 그 다음에 분대전투, 분대공격, 분대방어, 이걸 다 가르치더라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사격하는데 전방에 나갔다고.

6·25 끝나고 나서 그 언저리에 병력을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흑시... 내가 아는 건 대구에 가 있을 때 하루 저녁 자고나면 옆집에서 누가 끌려갔다 옆집에서 누가 끌려갔다 이런 얘기.

그럼 아무나 차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징병인데, 강제징병이지.

그때는 학생, 일반인... 구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젊은 사람이면 다. 우리 생각에는 그 당시 낙동강 이남으로 좁혀져 가지고 가용한 데가 경상 남북도 요 정도 아니겠어? 그래 병력은 모자라고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더군다나 계엄령 하니까 그냥 위예다 지시했겠지. 도별로 말이야 경상북도 경상남도 언제까지 몇 천 명, 하튼 대라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일일이 호적 대조해서 넌 와라 며칠까지 와라 뭐 이런 여유가 없으니까 밤에 순경하고 헌병하고 입회하에 젊은 사람들 차 대기시켜놓고 집집마다 두드려가지고 젊은 사람 있으면 나와라 해가지고 차에다 실고서 그냥 갔겠지.

또 그 당시는 그렇게 해도 양해를 했어요. 국민들이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누군가 나가 싸워야 할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 선량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빠져나가려고 잔피를 쓰는 사람들은 있었겠지. 그러나 우리는 학생이고 그런 걸 알아 볼 여유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걸 모르지.

당시 부산 이런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군에 안가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학생들이... 모르겠어요...문교장관 그 이후에 학생들은 보류를 해줬을 거예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학생이 할 때 대학생들... 대학생들 다 면제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란 말이 있잖아.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소라도 팔아서 학비대서 학교 보내야 군대 안 보낸다 이거야.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위한 부모의 노력으로 우린 우골탑이란 말을 들었는데 여기는 생명과도 같은... 아니. 그런 일면도 있지. 전적으로 그런

아니고, 지금 많은 사립대학들이 그렇게 해서 학교를 확장하고 그런 것 아니요. 그때 주간, 야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경희대학 같은 것도 순 그렇게 해서 학교 지은 것 아니에요.

장군께서는 학도의용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참전하신 분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평가 분석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할 수는 없고..., 역시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국가를 위해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소위 국토방위라 할까 국가보위를 위해서는 나나 할 것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 명제와 더불어 또 실제로 그렇게 한 하나의 산 교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극히 일부였었고 크게 한 일 없어요.

그러한 정신적 이념이 그 전에 존재했던 학도호국단에서 물려졌던 그런 것하고 과연 얼마만큼 연결성이 있을 것이냐? 과연 그 정신을 계승해서 거기까지가 과연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당히 별개의 문제인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게 상당한 연관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호상 씨가 저런 학도호국단 조직을 해서, 일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저런 기초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정신적으로 무장이 됐고 또 정신적으로 무장이 됐다는 것은 국가, 민족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행동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줬단 말이야. 그런 단체행동을 말이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린 소대 분대편성을 했지만, 부대행동, 부대지휘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부대행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주 규율이 엄격하고 아주 동작은 민첩하고 또 환경들이 딴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만, 전혀 사고도 없어요.

그랬던 것은 그런 훈련과 그런 정신적 바탕에 연결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 학도호국단 기초훈련을 받고 학교에서 학도호국단 간부로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했거든. 다 잡아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밤낮 창고에 숨어서 지내다니 이게 뭐냐 이거지. 이걸 도대체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안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 사실은 수원 농대 학생이 둘이 있었어요. 나하고 셋이. 짧은 사람이 있었는데 농대 학생 둘은 내가 상의를 했지. 갑시다! 우리, 형들 갑시다. 이게 뭐냐고. 창고 안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가라말이야. 자기네들은 달리 갈 데가 있다. 요 한사람은 갈 데가 있다. 요 한사람은 경찰하고 약간 관계가 있어요. 난 경찰로 가겠다 이러더라고. 이 사람은 청주사범 나보다 1년 선배데, 지금 청주교대 학장하구 있어요. 난 듣고 있고. 생각이 다르니까 가라고. 이 사람은 그 후에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경찰로 가고 난 시험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모은 자료에 의하면 3사단 학도의용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김용섭 씨 등이 쓴 것도 있고 신문에 나온 것도 조금 있는데, 지금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학도기간대, 경찰과 연계되어 후방에서 잔비를 소탕한다든가, 적 후방에 들어가서 유격전을 벌였다든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정훈, 선무공작, 지프차타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자료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접촉할지도 모르겠고 기록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시는 거라든가 또는 최근에라도 들으신 게 있으신지. 난 그런 걸 경험한 일이 없어요. 들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알아봐요. 11기나 12기, 13기, 14기까지도 있을 거예요. 교수부 교관 중에서도 여기 있을 거 아니예요. 수소문해가지고 학병 그리

니까 6·25 전투에 참가했던 현역으로 있다 사관학교에 들어 온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한 분야에 있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양동작전을 영덕 거기에 하지 않았어요? 거기 참전했던 누구도 있더라고. 우리 동창 중에. 근데 지금 기억이 안나. 학도병이니까 넌 어디 갔었냐? 나는 그때 배타고 거기 올라갔다가 죽다 살았다 말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전부 다 합쳐서 학병이라 했던 말이지요. 의용군하게 되면 조금... 주로 3사단이 조직적으로 있는 거고, 아마 선무공작했던 그것도 얘기하는 것 같아. 한번 나중에 여기 한번 보쇼.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이름이 비슷해요. 학도 뭐 학도호국의용대가 그래요.

정훈국에서 만든 것은 대한학도의용군입니다. 아무튼 비슷한 이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계속 복진해 가실 때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전투복.

계급장은 없고, 그냥... 계급장은 없지, 근데 언제 한번 우리가 혼이 났나하면, 1·4후퇴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 대오가 흩어졌어요. 그래서 낙오도 되고, 하도 행군을 하니까. 그때 우린 차도 못타고 영월서부터 쪽 행군하는데 그 사단에서 낙오자 수집소를 만들어 놓고, 그땐 나중에 낙오가 돼버리면, 지금이니까 도로가 사통팔달인데, 6·25 그당시만 해도 길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한길로 철수한다든가

들어서면 몇 개 사단이 그냥 다 몰리는 거야. 처음에 하루 이들 정도는 건재(?)가 유지가 되는데 삼일 사일 이렇게 되면 낙오자가 처지고 저 뒤에는 뭐 뒤죽박죽이 돼서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다 우리 학병들도 헛갈려 버렸어요. 나중에 낙오자 수집소 거기로 전부 집결시키려는데, 우린 계급장이 없으니까 넌 뭐냐 이거야. 밤에, 우리 학도병입니다! 학도의용군입니다! 학도의용군이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야. 그 사람은 당연한 얘기지. 계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작대기로 막 두드려 맞고 말이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건 현역이 아닌 상태에서 당한 봉변이지.

남상선 씨 기록에 의하면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월급을 조금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월급은 받은 기억이 전혀 없고. 모르겠어. 남상선 씨가 받아서 혼자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월급 받은 기억은 전혀 없고 홍남에서 철수해가지구 다시 중부전선에 투입됐을 때부터는 부식비가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북에서도 전혀 그걸 몰랐어요. 부식을 그냥 공급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남에 오니까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막도 모자라 천막도 못치고 하니까 민가에다 분산 수용시켰단 말이야. 빈집에다 말이야. 빈집도 있지만 사람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러면 거기서 한 끼 두 끼, 군인이니까 밥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열흘 20일씩 밥을 몇 십 명씩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식비를 줘서 그 집에다 돈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다가 주든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부식비가 나왔어요. 홍천 있을 때부터 부식비가 나와서 내가 소대 부식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 준 기억이 나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적당하게 했는지, 모자라게... 그 당시는 그 돈이 학생들이니까 돈이

뭐가 필요해. 담배를 피우나 쓸데가 없는 거 아니우. 그래서 단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많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소대단위로 받았어요. 소대장이 받아가지고 분산해서 선임하사를 통해서 분대장한테 나눠준 기억이 나는데.

중간에 있다가 집에 가겠다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그건 지금으로서는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고생이란 게 말도 못 하지. 우리가 홍남에서 철수해가지고 3일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부산에 딱 내리니까 부인들이 그때 애국반이라 그러던가 부인들이 죽 나와서 부인들이 주먹밥을 소금물에 적어서 주먹밥을 주는데 배고파서 금방 먹을 것 같은데 하나도 못 먹겠더라고. 딱 막혀요.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주먹밥을 딱 먹으니까 넘어가지가 않아. 막혀가지고. 거기서 부터 1·4후퇴니까 한 겨울 아니우. 거기서 트럭 지금은 위에 커버도 있고 앓을 자리도 있는데 그 당시는 니산 트럭이 왔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저쪽 옆에 이거하고 이것밖에 없어. 이후에 영화 10도, 20도 되는데 차타고 소백산맥을 넘어가는데 발이 어떻게 시리든지. 방한화가 있어 뭐가 있어. 결국 게으른 놈은 동상 걸렸다고 동상에 걸려 발이 붓고 이러니까 그때 약이 있어 뭐가 있어. 그때 우린 한약방을 하는 영감집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내내 그걸 치료를 해주더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집에 가겠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어느 정도 거창한 애국이 아니라, 이런 때는 할 수 없다 말이야.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투철했어요. 이게 고생스럽다 도망가야 되겠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은 본 것 같질 않아요.

그중에 사단사령부 경비임무 서다가 교전이 있었다든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평이하게 경비 임무를... 그때만 해도 전시니까.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는데 사단사령부까지 침투해 들어올 정도가 되면 이건 큰일이지. 휴전 이후에는 가끔 사단사령부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건 가능한 얘긴데 실제로 딱 막고 있는데 거기에 사단사령부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면 이건 큰일이지. 하튼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이북까지 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사단사령부를 경계하면서 적과 접촉하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남상선 씨가 사단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엔 누가 지휘를 했습니까? 종합학교 14기라 그랬어요. 종합학교 14기 나온 사람이 있어요. 대리로.

계급은 뭘니까? 소위. 막 졸업하고 임관되자마자 우리한테 왔어요. 이름은 기억을 못해.

얼마나 같이... 불과 얼마 안 있었어요. 한 한 달 정도!

그때 바로 현역으로 갈 사람은 가고. 종합학교 14기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 사람이 3개 소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금방 오고, 자기 수하에 아무도 없고 하니까 처음에 상당히 경계를 하더라고. 아주 엄하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거든. 결국은 소대장을 장악하고 우리가 너 그러면 이리이러한 것은 우리한테 맡기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누그러지고 우리를 많이 믿었지. 그러니까 한 마디로 조금 편해졌지. 처음에는 아주 막 쥐어짜더라고. 종합 14기라고 들었어요. 막 임관해서 올라온 소위가 왔었어요.

3사단에 일반 연대에 학생신분으로 직접 참전한 사람들은 혹시 뭐 그런 말은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이 사람들 말고? 그 당시는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연대는 저 전방에 있고 사

단 사령부는 조금 뒤에 있고 우리는 여기서만 있어.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왕래한다는 것 전령. 문서전령들. 전령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뭐.....

그런데 어떻게 특이하게 3사단 학도의용군만 독립적인 부대로, 하기가 김석원 장군이... 그 양반이 학교학생들을 많이 이해해 주니까.

보호해 준거지. 그럼 보호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전방으로 다 들어가! 그럼 그럼 들어갔지 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휘도 곤란하다, 거기까지 관심 쏟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 정원 외다 말아야. 그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이 T·O에 없는 인원이니까 다 곤란한 얘기거든. 그래 사단장 김석원 장군 때문에 그런 거야.

[체 험 담]

#1. 6 · 25와 나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부의장 **홍 수 용**

민족상잔의 비극 6·25

조국은 부른다. 백만 학도여
총질기 할 때는 바로 이때다……. 중략

피로서 맺혀진 학도의용군. 군가 소리가 요란하게 교정에 울려 퍼지고
있었던 1950년 8월. 전선은 밀리고 밀려 내 고향 대구북방 왜관에서 지원
군의 도착을 기다리며 최후의 전선을 지키고 있었다.

절대 우세한 병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한 침략군은 소련이 지원한 전차
를 앞세워 남하를 계속하고 있었다. 대구의 함락 또한 춘각에 위기에 처했
다. 후퇴를 거듭하면서 밀려온 전 병력은 이 곳 낙동강 전선을 최후 방어
선으로 하여 결사항쟁을 다짐하고 있었다. 밤마다 인민군의 박격포 공격은
계속되었고 포탄이 시내 한복판에 떨어지고 있었다. 전쟁의 참화가 우리
고장까지 밀려 와 조국의 운명은 백척간두의 위급한 상태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평화로웠던 조국강산은

북괴군에 의하여 철저히 유린되었다.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여 온 우리 국군은 용전분투하여 적군을 무찌르고 있다는 라디오 방송만 요란하였지 전선은 힘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대구를 사수하라는 명령으로 시민들을 안심하려는 선무공작도 아랑곳없이 피난을 가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할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전 국토의 대부분이 점령된 상태였다 조그만 한 대구시는 물밀 듯 밀려오는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긴급히 모집한 군인들을 전선으로 보내고 있었다. 전선으로 떠나는 군인들을 환송하는 행렬에 끼어 잠시 조국의 장래를 생각해 보았다 오열들의 준동으로 살포된 뼈라의 내용처럼 해방전쟁일까?

난을 피해 내려온 피난민들은 점령지에 인민군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선량한 시민들까지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붙여 무차별 살육을 자행한다고 하였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한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을 때까지 난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하면서 처참한 광경을 소개하여 시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였다.

당시 전시대책위원회 (각 정당 사회단체가 모여 전쟁의 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 학생부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나는 몇 사람의 선배들로부터 매일매일 전해오는 전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한 상황을 듣고 있었다.

전선에는 군인들이 수적으로 열세하여 병력의 보충을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에 이르는 등 거의 절망적으로까지 비쳐왔다.

각 학교에서는 국방부 정훈국 직속 학도의용군에서 고향 학생들의 종군을 중용하고 있었고 몇몇 선배들은 조만간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길지 않은 전쟁을 예측하고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비교적 밝은 국제정세를 확신하고는 종군의 의지로 혈서를 쓰는 등 조국의 국난극복을 외치면서 교복을 입은 채 전선으로 향하는 기개를 보여 후배들을 고무하기도 하였다.

학도의용군으로 종군

8월 24일 3사단 직속 학도의용대에서 당시 보병 제3사단장이었던 김석원 장군 휘하에서 학도의용군 1개 중대를 모집하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원하라는 권유가 있었다.

나는 당시 능인중학교 4학년생인 박태호, 김택동 등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원 입대하였다. 3사단장 김석원 장군은 서울 성남중학교 교장으로 교육계에 봉사하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고급 장교로 있었던 경력으로 참전하고 있어 어린 우리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었다.

우리들 일행은 군인극장에 집결하여 인솔자를 따라 열차로 대구역을 출발, 그날 밤중에 포항소재 보병 제3사단 사령부에 배속 되어 시내 어느 교회에서 합숙, 새우잠으로 최초의 병영생활을 시작하였다.

우리들을 대구에서 이곳까지 인솔한 사람은 당시 배제중학교 학생으로 서울에서 김석원 장군 휘하로 달려온 3사단 직할 학도의용군 1기생으로 종군 중이었다.

이들 1기생은 8월 10일 경북 안동을 경유하여 그 익일 즉 8월 11일 포항소재 보병 제3사단 사령부로 김석원 장군 휘하에 들어와 부대편성도 하지 못한 채 인민군의 대규모 침공에 부닥쳐 포항사수 전투에 참전한 72명의 학생들로서 이 작전 수행 중 고 김춘식 외 48명이 전사하였고 나머지는 부상을 당하였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한 생존 학생 중의 한사람이 다시 우리들의 합류로 부대를 재편성하여 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다음날 우리 키 보다 긴 M1 소총을 지급받아 구리스가 잔뜩 묻은 총기 분해 교육으로 최전선의 하루를 시작하였다. 그날부터 실탄을 지급받아 야간에는 인근야산과 사단사령부 경비 임무에 투입되었다. 주간에는 총기 취급 훈련, 야간에는 실전에 투입된 긴장된 병영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9월 초 어느 날 실탄사격 훈련을 위한 명령이 하달되었다. 출동한 우리들은 4개 소대로 정규군 1개 중대 병력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본인이 소속된 1, 2소대는 현역장교 노모 소위의 지휘로 포항 북방 안강 근교 효자동 뒷산 전선에 투입되었다. 잔여 3, 4소대는 남상선 소위의 지휘로 효자동 채 못 미치는 후방에 배치되어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얼마 후 우리들이 배치되어있는 고지 전면의 산 능선으로부터 적의 포격 공세가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전면의 산 능선을 향하여 목표물을 보지 않은 채 사격하면서 응전하였다. 그로부터 만 2일 동안의 격전을 계속하였고 식사는커녕 일체의 보급마저 끊어진 채 최후의 저항선을 지켰다. 경험 없는 어린 학생들로 구성된 우리부대는 현역 소위였던 중대장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철혈의 밤을 오직 전방의 능선 인민군의 진지를 향하여 사격을 계속하였다.

실로 무모한 전투였던 것 같았다. 이 전투에서 많은 전상자를 내었으나 대오는 지켰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식사 공급도 없이 굶으며 지급받은 실탄마저 떨어졌으나 누구의 지시도 없이 쓰러진 전우의 총기와 실탄을 나누어 갖고 응전을 계속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선이 허물어 졌고 얼마나 지났을까 이 격전에 함께 지켜온 사단 공병대의 무전기를 타고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공병대 병사의 외치는 소리는 학도병 전원 철수하라는 한 마디였다 이 긴급 전달을 끝으로 학도병들은 무참하게 무너진 전선에서 철수, 무작정 후퇴하였다.

그 익일 동이 틀 무렵 겨우 후방에 배치 되어있던 3, 4소대와 합류하게 되었다. 전선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느 곳으로부터 인민군이 기습해 올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대원들과 합류한 것으로 위안을 받으며 대오를 정비하여 적의 기습에 대비 4주경계로 오산 비행장까지 후퇴하였고 이곳에서 부대 정비와 휴식을 취한 후 포항 시가지 탈환 준비에 임하였다.

당시 전황은 제공권을 확보한 UN군의 덕택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북진의 실마리가 풀렸던 것이다. 동시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수도 서울이 수복 된 무렵인 것으로 추측되나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이 전투에 함께 출전한 친우 박태오 군이 전사한 것을 목격하였으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철수하여 그 한을 안고 평생을 살아오고 있다.

그곳에서 재정비한 우리들은 남상선 소위의 지휘로 수복된 포항에서 북진대열을 정비하는 한편 전기 효자동 전투에서 산화한 학우들의 시체를 수습하여 포항여고 교정에 가매장한 고 김춘식 외 48주의 가무덤에 함께 합장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의 친우 박태오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한 한을 안고 있다.

노도와 같이 진격 38선을 돌파하고

자유수호 전선으로 달려온 우방 UN군의 지원으로 전황은 호전되어 북진대열에 선 학도의용대원은 포항에 정박중이던 어선 2척을 징발하여 해상으로 북진하였다. 묵호항에 상륙하다 인민군 패잔병의 기습으로 전사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도 속출하여 해상 북진을 중단하고 그 소탕을 위한 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패잔병을 체포하였다.

이 작전에서는 실로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하였다 소탕작전을 완료하여 생포한 포로들을 수용소로 보내기 위하여 심문하던 중 체포된 포로 중에 같은 학교의 선배를 체포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이 사람은 미처 서울을 탈출하지 못하여 숨어 있다가 동리 인민위원회에 붙잡혀 강제로 인민군의용군에 입대하게 되었다한다.

이들은 가진 학대와 감시를 받으면서 전 전선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한다. 전황의 급변으로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산악으로 이동하려다 우리 부대를 발견하고 기습하였다한다. 패잔병을 지휘한 고급장교와 소위 정치보위부의 인민군은 우리들의 소탕작전 중 사살되었다. 생포한 포로들을 군당국에 인계하고 북진을 계속하였다.

단숨에 38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계속하면서 펼친 선무공작은 이북의 학생들을 남하시켜 군에 지원하도록 주선하였으며, 안면시에 입성하여 북한주민의 민심수습을 위하여 군악대를 앞세워 시가행진도 하였다. 이제 이 전쟁의 끝을 보는 듯 충천된 사기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북진대열은 계속되었고 우리부대는 최전방 전투로부터 사단사령부, 미군사고문단 본부, 경비행장 등의 경비임무로 최전선의 격렬한 전투와는 달

리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억된다.

원산에 입성하여 원산역 광장을 가득 메운 포로들을 보면서 곧 통일의 그날이 올 것으로 굳게 믿게 되었다. 사단예하 각 연대 중 원산 입성을 먼저 하는 부대원은 전 부대원 일제급 특진이 부여 되었고 우리들은 현역 병이 아니었으므로 일정금의 상금이 하달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사단의 북진 행로인 동부전선은 38선에서 원산입성까지는 비교적 인민군의 저항 없이 무난한 북진을 계속한 것으로 기억된다.

성진, 함흥, 홍남을 거쳐 길주에 주둔 중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공산 압제로부터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조국의 미래를 장담하기도 하였다. 당시 우리들은 멀지않은 날, 그리운 고향으로 귀향하여 나머지 학업을 계속하게 될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적도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인민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산전까지 북진한 우리사단 23연대가 해산진에서 압록강의 맑은 물을 앞에 두고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긴박한 전황보고가 계속 되어 왔다. 지금까지 패주만 거듭하던 인민군이라고 믿기 어려운 강력한 저항이었다 한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이 시작된 것이다. 사기충천 하여 승승장구 하던 전방 부대는 즉각 응전하고 많은 전과를 내었으나 물밀 듯이 밀려오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당할 수 없었다한다. 통일의 그날을 눈앞에 두고 당한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계절이 바뀌는가 싶더니 북녘의 강추위가 몰려와 연일 폭설이 계속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작전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진행로로부터 많은 부상병들의 후송이 이어지고 격전을 벌이면서 퇴각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혜산진 방향으로 진격한 부대와 동해안으로 진격하던 부대가 홍남과 성진으로 퇴각이 이어졌다. 각 전선은 많은 전사상자를 내고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홍남 철수 작전

당시 우리들은 주 임무인 사단사령부와 길주역에 산적한 보급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단사령부가 홍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우리부대도 함께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길주역에는 각종 군수품이 산적한 채 하역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급품은 전선에 급히 보내야 하는 방한복 등 월동장비였던 것인데 중공군의 불법 참전으로 전황이 불리하자 이틈을 타서 수송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북한 동포)가 도망하여 방대한 군수물자가 적군의 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폭과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철도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던 박인표(2009년 작고) 대원이 고장 난 운전대의 수리에 성공하여 열차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홍남 부대와 성진항까지 수송하여 많은 군수 물자를 보호한 공훈을 세웠다.

홍남 부대에서 피난을 갈망하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과 함께 미 수송선에 승선하여 일로 부산항까지 긴 항해를 끝으로 부산에 상륙한 후 부대를 재정비하여 중부전선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우리들은 사단사령부의 진로를 따라 다시 포항을 경유 경주를 거쳐 중부전선으로 진격하여 강원도 홍천에서 다시 중공군의 저항을 받았다.

이른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1·4후퇴였다. 전선에서의 두 번째의 퇴각이었다. 경북 춘양까지 후퇴를 계속하였다. 홍천에서 이곳 춘양까지 495리의 긴 거리를 7일간 주야로 행군을 강행하면서 수

차례의 적의 기습으로 많은 병력이 희생되었음을 말 할 수 없다. 춘양에 도착한 병력은 집결하는 대로 다시 전방부대로 보충 투입되었으며 이곳에서 학도의용군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현역병으로 편입되어 전선으로 내몰렸으며 학도의용군은 해체되어 버렸다.

현역병으로 종군

이 무렵 학도의용대원들을 현역병으로 편입시키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대통령의 복교령이 선포되어 학도의용대원은 곧 귀향하게 될 것이라 하여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전황은 중공군과 계속적인 격전을 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전상자의 속출로 전방 각 부대는 병력 보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나마 전투 경험이 있는 학도의용군의 경우에는 더더욱 바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먼 훗날 제대이후 학도의용군에 관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는 당시 우리들에게는 이미 360**** (3사단 고유군번) 부여 되어있었던 것이었다. 그 병적기록부에는 전원이 황당하게도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격전을 겪고 있는 전시 행정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승복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거기에도 우리들 학도의용대원의 현역병 편입 기준으로는 당시 대학교 재학생에게는 육군 2등중사로 4학년 이상자에게는 육군하사로 그 이하는 육군일등병으로 특진되었다. 또 다른 군번 038**** 학도병의 군번이라 하였다.

개전 초 국난극복의 구국일념으로 자유수호 전선에 뛰어든 어린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과 격전 중 산화한 수많은 학도의용군의 영령들을 기리는

흔적도 없이 이렇게 끝이 났다.

조국을 위한 길에 현역병이면 어떻고 학도의용군이면 어떠하리. 그러나 이들의 애국정신은 민족혼의 상징으로 길이 계승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들이 세운 공훈이나 업적이 허무하게 묻혀 버렸다. 우리들은 명령이라는 것 이외의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다. 반년여의 생사고락을 함께하여온 정다운 학우들과의 석별의 정도 나누지 못한 채 전방 각부대로 내몰아졌다. 이들 대부분은 대구, 진해, 청주 등지에서 지원 입대한 학생들이었다. 본인이 극도로 지친 몸으로 집결지에 도착한 것은 이미 부대원들이 23연대로 배속 조치가 취해진 후였다. 우리들 학도의용대는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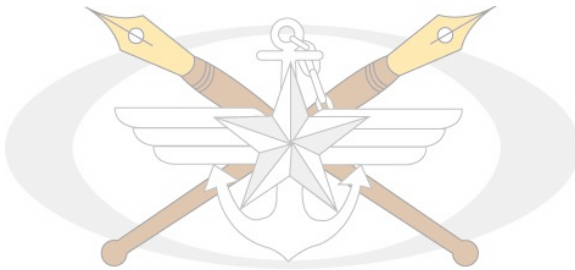
중대본부에서 남상선 중대장의 당번병이었던 김태성 대원만이 쓸쓸히 맞이하여 주었다. 사단사령부에 파견되어 복무하고 있던 몇몇 대원을 제외한 모든 대원은 전선 각부대로 전속되었다. 본인은 이어서 부대를 찾아 온 대원들과 함께 사단 특별대대에 배속되어 육군하사로의 계급으로 현역병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되었다. 우리들 학도의용군은 개전 이래 각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사상자가 났다. 그러나 산화한 이들 전사자의 물음도 마땅히 마련하지 못한 채 다음 작전에 투입되었기에 그들 영현들이 조국 산하 어느 곳에 잠들고 있는지조차 찾을 길 없다.

오늘날의 막강한 국군의 기간이 되어

이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게 예우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숭고한 구국정신은 민족혼의 상징으로 길이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역사적인 사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또한 부상으로 후송된 동료들이나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신명을 다 바쳐 조국을 수호한 생존 학도의용군의 불멸의 공훈 또한 마땅히 인정되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선양과 예우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사업의 시행은 국가

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들의 애석한 종말을 꼭 알리고 종군 중 참전한 사실을 발굴하여 전사에 길이 남게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 발굴 작업 또한 국가의 몫이라 생각한다. 이 같은 한을 간직한 채 각 전선의 부대로 편입되었든 학도의용군들은 당시 15만여 병력에서 오늘날의 막강한 대군으로 육성된 근간이 되어 각 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역사에 길이 남아 계승되어야 할 이 정신에 대한 평가를 기대하지도 않은 채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제대한 우리들이다.



#2. 전쟁피난민 후송작전

8240부대 동키11연대(웅진학도 유격대) **목영설**(睦榮高)

1952년 1월 5일. 오전10시 백령도 사령부에 피난민 후송용 LST 10척 긴급 지원요청 했으나 거절당함. 그러나 극동사령부에 요청은 해 놓겠다는 여운을 남겼음.

1952. 1. 6. 재차 백령도 사령부를 호출.

1월 1일 용호도 피습, 1월 3일 순위도 피습, 1월 5일 어화도 피습, 연이은 피습으로 사기를 잃은 전 병력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전투구역 창린도로 총집결할 때 웅진반도 앞에 산재되어 있는 각 도서의 피난민도 함께 우리 대원을 따라 철수해 왔습니다. 그 수는 용호도 에서 1,000명, 순위도 에서 500명(1월 1일 용호도가 피습 당했다는 소식을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해군이 정보를 접수, 1월2일 순위도로 몰려온 피난민을 구출할 목적으로 LST 1척이 급파되었으나 접안이 불가능해 우리부대의 범선 2척으로 LST 경호목적으로 온 3XX 함정에 운송하면 그 함정이 LST로 환승하는 식으로 작업하고 있던 중 적이 위협사격을 가해옴으로 써 1,000명 정도만 승선하고 연평도 방향으로 이동해감으로 미처 승선하지 못한 잔여수이며 그 다음날 적은 순위도를 공격 점령했음). 그리고 어화도에 400명 계 1,900명의 피난민이 우리대원이 철수하는 대로 쫓아옴으로써 창린도에 있는 피난민 3,000명과 합쳐 4,900명이 되었으며 옆에 있는 기린도 에도 1,000명이 있어 피난민 후송대상 인원은 약 5,900명이 3개 도서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50%가 우리대원의 가족이었습니다.

1952. 1. 6. 오전 10시경.

목. “여기는 동키 일레븐, 여기는 동키 일레븐, 고 통역관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 “고 통역입니다. 어제 오후에 사령관님께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께서는 지금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송할 군수물자 수송용 배도 없는데 갑자기 LST 10척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한 피난민 문제는 한국정부에 요청해 보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시면서도 이곳 사령관도 되던 안 되던 동경 사령부에 요청은 해놓고 있습니다. 기다려봅시다. 이상.”

목. “지금 한국정부에 요청해서 조치될 때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적의 추세로 보아 7일에는 창린도를 공격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개 도서에 산재되어 있는 피난민 수송 대상 인원은 약 5,900명입니다. 그중 50%가 우리대원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유격대를 조직한 목적의 하나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적이 만약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이 피난민들이 우리작전의 장애물이 되어 전투도 할 수 없어 가족과 함께 모두 자살하고 말겠습니다. 이상 끝.”

1952. 1. 7. 오전 6시30분.

적이 오늘은 공격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어젯밤 10시부터 초비상령을 하달 긴장하고 있는데 적은 상륙하지 않은 채 날이 밝았다. 뜻밖에도 아침 일찍부터 사령부에서 무전이 왔다. 목 대장을 찾는다는 것이다.

목. “목 대장입니다. 이상.”

고. “여기는 고 통역입니다. 적의 추세로 보아 오늘은 공격해 올 것 같았는데 적의동태는 어떻습니까?”

목. “적은 아직 공격해 오지 않았고 아무런 동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고. “알았습니다. 적의 징후가 이상하면 즉각 보고해 주십시오.”

목. “물론입니다. LST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

고. “그것 때문에 적의 동태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적이 상륙해 왔다면 LST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 끝!! 참, 이상한 통화였다.

1952.1.8. 아침이다. 또 한밤이 무사히 지나갔다. 적은 오늘도 공격해 오지 않았다. 오전 10시 사령부에서 목 대장을 바꾸라는 통신이 왔다하여 부랴부랴 통신대로 달려갔다.

목. “목 대장입니다.”

고. ‘나, 고 통역입니다. 적이 상륙해 왔습니까?’

목. “아직 공격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 “잘 되었습니다. 하늘이 목 대장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 LST 5척이 그곳 창린도로 입항합니다. 집안 체류시간은 3시간뿐입니다. 피난민들에게 빨리 전달하여 선창가에 나와 대기하도록 해주시오. 이상 끝.”

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통역 만세 만세 사령관님 고맙습니다. 이상 끝.”

빨리 달려가 부대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니 주변에 있던 간부나 대원들의 함성이 만세로 하늘을 찌른다. 나는 일어서서 “대원들은 자기 가족에게 가족은 이웃에게 전하여 빨리 승선준비를 하고 선창가에 먼저 나온 사람부터 승선시킨다고 전하라. 가라, 어서 가서 전하라”고 외쳤다. 12시가 되니 벌써 피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들은 비압도 쪽을 응시하고 있다. 오후 2시경 누군가가 외친다. “저기 보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척이나 온다. 함대가 온다”고 외치니 그들은 기쁨보다 눈물이 앞선다. 두 살된 딸을 남편에게 안겨주면 딸을 안고 울다가 다시 아내에게 넘겨주면 아내는 남편을 껴안고 우는 장면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내 가족은 여기에 한명도 없으나 그래도 눈물이 난다.

오후 2시 30분경 창린도에 5척의 LST가 입항했다. 그중 한 척이 접안하고 남대문만한 문이 열린다. 몰려드는 피난민을 향해 외쳤다. “내가 먼저 함장을 만나보고 온 후에 승선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요” 하고 함장실을 찾아 올라가는데 승무원들은 모두 동양인 이었으며 나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거는 자가 없다. 미군은 한사람도 없었다. 함장실 앞에 가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며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고 문안으로 들어서는데 함장이 두 명의 승무원에게 지시하는 그 말이 일본말 이었다. 승무원은 나가고 나는 들어가면서 “당신은 일본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 “네!”라고 영어로 대답한다. 오! 하나님!! 일본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돕다니 이상한 감정이 든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그러면 “일본말로 이야기 합시다.” “선생께서는 일본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조금은……. 중학교 2학년까지 일본어로 공부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 전쟁터의 바로 38선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많은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들은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본사람이 한국전쟁터인 이곳 38선 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 배는 맥아더 사령부로부터 1월5일 밤 11시경 긴급 징발명령을 받고 6일 새벽 2시 ××항을 출항 오늘 여기까지 달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 항해중 적이 이 섬에 상륙했다면 맥아더 사령부에서 통보해 줄 것이니 그때는 그냥 되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후 6시가 되면 무조건 이 항구를 떠나가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척은 저기에 보이는 저 섬으로 가서 승선해주시고” “그곳은 기린도 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척은 우리 옆으로 보이는 순위도로 가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흰수건을 흔드는 우리대원이 있으니 그 사람이 유도하는 대로 응해주시오. 3척은 이곳 창린도에서 승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려가

승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둘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3척은 군산, 2척은 목포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뛰어 내려가면서 승선하라고 수신호를 하자 홍수처럼 밀려들어온다. 창고가 만원이 되면 갑판위로 승선시키고 뒤로 물러서면 다른 배와 교대하고 똑같이 모두 갑판 위까지 승선하였다. 순위도에 있는 우리대원의 가족 보고에 의하면 순위도를 점령하고 어화도까지 점령한 적은 5일 밤 모두다 육지로 철수하여 적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아마 창린도 공격을 위해 전원 육지로 철수, 그 곳에서 공격을 위한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공격을 7일도 안 해오고 8일인 오늘은 열심히 재정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피난민 후송작전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늘이 피난민을 돕는 것이다.

오후 4시 30분에 ‘기린도 승선완료’라는 보고가 왔고, 순위도에서도 오후 5시가 되어 ‘승선완료’ 보고가 왔다. 창린도에서는 약 3시간의 승선작업으로 오후 5시 50분에 완료하고 배가 뒤로 미끄러져 나가며 떠나간다는 신호로 고동을 울리며 자기네들의 대형을 만들고 배압도 방향으로 떠나간다. 우리 대원들 중 자기 가족과 함께 떠나간 자는 한명도 없다.

하늘을 향해 감사를 드렸다. 자 다들 수고했다. 우리는 부대로 가자. 대원들은 조용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같이 걸어가면서 말했다. 이제 너희들 가족은 적의 총탄에 맞아 죽을 일은 없지 않느냐 적의 총칼에 찔려 죽을 일도 이제 없지 않느냐. “참 그러네요” 하며 한대원이 웃는다. “그런데 대장님! 저 배를 탄 우리 가족들은 어디로 가나요?” “오!! 참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세 척은 군산으로 두 척은 목포로 간다. 그러면 창린도에서 승선한자는 모두 군산으로 갈 것이고, 기린도 및 순위도에서 승선한 자는 목포로 갈 것이다.” “그럼 창린도에서 승선한 사람들은 잘 되었네

요” 하며 이제야 조금 사기가 오르는 것 같다.

다시 부대로 돌아오면서 섬 전경을 내려다보니 섬이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하고 허전하기까지 하였다. 자 어서 저녁식사하고 야간 근무하러 나가야지!! 근무 중 1월 8일의 밤12시는 지나고 1월 9일이 되었다. 새벽 4시가 되자 4Km 간격이 떨어져 있는 갈항리에서 발사하는 포탄이 쏟아졌고 소강과 창린도 거리는 7Km의 거리인데 적의 해안직사포 포탄이 쏟아진다.

양쪽에서 포사격을 하는 것이다. 포사격이 중지되자 따발총소리와 소총소리가 들려오면서 적은 상륙해왔다.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간의 전투 끝에 우리는 패하고 말았다.

4면이 바다인데 어디로 후퇴할 곳도 없다. 그런데 창린도 최서단에 보리섬(봉곡도)이라는 바위섬이 하나 있다. 간조가 되면 도보로 왕래하고 만조가 되면 바위만 남는 섬이다. 나는 수신호로 “저게 보이는 조그만 바위섬으로 후퇴하라”고 지시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내 옆을 따라오는 대원들에게 말했다. 어제 피난민을 후송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피난민들은 사방에서 쏘는 유탄에 맞아 다 죽었을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몸에서 전율이 흐르며 오싹해진다. 피난민들은 참 운이 좋았다.

보리섬 앞에 도착하니 바닷물은 만조에서 간조 시간이 되어 썰물 중에 있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적군 때문에 완전 간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다. “적이 뒤따라온다. 모두 해엄쳐 건너가라” 어느새 바닷물은 피바다로 변했다.

건너가보니 조그만 자연굴이 하나있었다. “젖은 옷을 다 벗고 서로 몸을 비벼라. 젖은 대로 잠들면 다 얼어 죽는다” 이것은 의사이신 아버지로부터 내가 소학교 다닐 때 겨울에 마을사람이 바닷물에 빠져 죽었을 때 집에 돌아오시어 나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 생각나 그리 지시한 것이다. 기온은 영하 10도 쯤이나 물에 젖은 체감온도는 약 영하15도의 감이다. 구조선이 오지 않아 그 바위섬에서 밤을 새웠다. 날이 밝자 섬을 순찰해보

니 경계보초로 내보낸 초병들은 옷을 입은 채 보초 경계하다 잠이 들어 그대로 그 바위틈새에서 얼어 죽고만 대원이 2명이나 되었다. 그날은 1952. 1. 10.이었다. 대원들을 불러 동사한 2구의 사체를 물에 단지 않는 양지로 옮겨 왔으나 야전삽 하나 없이 맨손으로 바닥을 파려하나 자칫돌이 모두 다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어느 대원 하나가 젖어서 벗었던 바지하나를 던져 덮어준다 다른 대원들도 젖은 내복 젖은 팬츠 등을 던져 덮어준다. 우리는 엄숙하고 조용했다 벌써 아침 11시가 되었다.

어느 대원 하나가 조용한 소리로 말한다. “대장님! 저기 기린도 방향에서 발동선하나가 범선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나는 나지막한 소리로 “그래” 하고 말았다. 대원 모두가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누구하나 구조선이 온다고 환성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 구조선이 가까이 왔다. 우리 부대의 동아환이 아니었다. “조용히들 하고 있어라”. “저것은 우리 동아환이 아니라 해군 함정이 아니냐.” 풍랑이 심해 접안이 안 되어 인양해운 범선을 이용 접안시켰다. 배에서 뛰어내리는 자는 배 섬에서 적탄에 맞아 추락한 영국 조종사 2명을 구조해 내고 배섬이 피습 당할 때는 물론 우리 학도 유격대원으로서 동부지역에서 활약한 조그만 학생 그야말로 학생냄새가 나는 화랑공작대장 김두수였다. 고맙다 악수하고 “이것은 무슨 배야! 우리 동아환은 침몰 당했어?” “그런 이야기는 기린도 가서 하고 어서 승선부터해요.” “승선하라!” 구조하러온 큰 화물선이 만원되면 끌고 온 5척의 범선으로 분승하고 기린도로 향해갔다. 그러자 소강 방면에서 적의 해안 포사격이 가해 왔다. 김두수 대장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선장실에 올라가 무언가 열심히 선장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기린도에 도착하니 이제야 몸이 떨린다. 선창가에 마중 나온 자는 모두가 우리부대 대원뿐 이었다. 부대장도 안보이고 참모장 이하 어느 참모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느 대원이 나를 부축하고 민가로 안내해 주었다. 그곳에서 3일간 쉬고 1대대 대원과 함께 백령도로 이동하여 25일간

휴양하고 다시 1952년 2월 8일 명령에 따라 창린도에 재상륙하였다. 휴전 협정이 한창일 때 “NLL” 문제로 최고도의 난문제가 되자, 김일성은 서해 도서를 빨리 해방시키라는 특명을 하달하였다. 이 명을 받은 적 23여단 제4대대는 특공대 300명을 편성 1952년 7월 15일 창린도를 기습 공격해 왔다. 우리는 작전 계획에 의해 살짝 그 섬을 적에게 내주었다. 섬이 비어 있으니 안심하고 너의 병력을 많이 이끌고 오도록 하라는 양동작전계획이었다.

적이 공격해왔으면 적은 2일간쯤 있다가 다시 육지로 철수해 가는 습성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적이 철수해 가기 전 그 다음날인 7월 16일에 우리가 살짝 철수했던 어화도를 출발 재상륙하였다.

이미 서해안 영국기함 아부쓰가 와 배치되어 있었고,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받기 위해 나를 보조해주던 미군상사 데니가 재상륙할 때 교두보에서 적 기관총에 맞아 중상을 입어 후송되었다.

영국 함재기 일개 편대는 상공만 빙빙 돌고 있다. 미군상사가 내버리고 간 송수화기에서는 이때쯤 한국말도 섞여 나오는 소리가 들려 내가 그것을 듣고 “제가 송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라고 하자 서툰 한국어로 적과 아군 식별불가라고 한다. 나는 일초가 바쁜 이때 상의를 벗으면 흰 러닝 T셔츠 색이 나타나는데 적 조준사격의 표적이 되겠고……. 하지만 좋다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몇 초 내에 판단하고. 상공을 빙빙 돌고만 있는 함재기 4대를 쳐다보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답변을 했다. 전 대원에게 “은폐하고 상의를 벗어라!”라고 소리치고 나부터 상의를 벗고 영어로 “알겠다. 그러면 아군은 상의를 벗겠다. 그러면 당신은 하얀 색이 보일 것이다 그 하얀색이 아군이다 이상.” 하니 답변이 온다. “알겠다. 하얀색이 보인다.”라고 하며 우리들의 상공에 와서 회전한다. 손을 흔들었더니 상하로 날개를 흔들었다. “그 하얀색 앞부터 10m 간격을 두고 전면을 사격해 달라”라고 하니 또 “알겠다. 알겠다”라는 답변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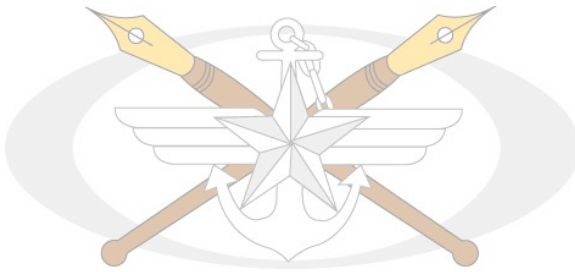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마자 적에게 공중사격을 가하고 중앙의 86고지에 소이탄을 발사, 불을 붙이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진격하면서 300명의 적을 완전 소탕하여 재탈환에 성공하였다. 탈환 직후 영국 기함에서 “지상군 사령관 면담요망”이라는 무전이 왔다. 간부 1명을 대동하고 보내준 엔진 보트를 타고 내려진 밧줄 사다리를 타고 갑판위로 올라가니 병사 한명이 차렷 자세로 피리를 불고 있다. 모자도 뺄어지게 쓰고 반바지에 축구선수들이 신는 스타킹을 신고 있다. 지금 같으면 그것이 영국해군의 의장대라는 것을 알고 그 의장대 옆에 세운 영국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고 들어갔겠으나 그런 군사예법을 배운 적도 없고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때로 미 해군은 본적이 있으나 영국 해군은 본적이 없다. 무식한 우리는 그냥 통과하니까 한 병사가 나와 우리를 안내한다. 어느 문 앞에 가니 흰 대머리에 키가 큰 한 분이 서 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어린애 같아서 가난한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 소년들이 군 작업복을 얻어 입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거나 지상군 사령관을 면담 요구했는데 줄병이 온줄 알고 우리를 향해 “당신들은 군인이요?” 라고 묻는다. 그는 서해안의 기함 아류쓰의 함장이었다.

“아니요,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생입니다.” “학생?” “네! 학생 게릴라 입니다.” “게릴라? 학생게릴라라” “알겠다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하며 우리를 방안으로 안내하였다. 의자를 내주며 앉으라고 권한다. “질문을 몇 가지하겠다.” “네, 하십시오.” “적은 어떠한 장비를 갖고 이 섬에 상륙했느냐?” 하기에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하여 그림을 그린다. 선두의 배에는 붙었다 떼었다 하는 모터엔진을 설치한 조그마한 배이다, 그 배가 5개의 큰 고무보트를 견인하는데 한 개의 고무보트에 10명의 병사가 승선할 수 있고 5개의 보트는 밧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무보트라는 게 무슨 말이나.” 나는 웃으면서 아니 영국 사람이 고무도 모르나? “Gum!!” 했더니 입을 찹찹하면서 씹는 Gum, G. U. M 한다. 아이고, 답답해 이 배엔 통역관도 없나 중얼거리면서……. 아니요. 먹는 껌이 아니라

보트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라고 했더니 함장이 벌떡 이러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바 보트”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때야 나도 고무를 라바라고 한다는 생각이 나서 “네, 라바 보트입니다.” “그것 하나 나에게 줄 수 없느냐?”

그들은 상륙부대를 목적지까지 상륙시켜 주고 곧 뒤돌아 자기네 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도 없다. 그들은 전투 임무가 아니고 수송 임무이기 때문에 이 섬에는 한 명도 상륙하지 않았다. 전투 보병만 상륙했다. 그럼 아까 전투기 파이롯트 하고 대화한 것도 당신이냐 우리는 여기서 미군이 중상을 입고 후송되어 한국인 하고 파이롯트가 통화한 내용을 다 듣고 있었다. 나는 한국 해병대 지휘관이겠지 했는데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싸웠다니 놀랍기만 하다.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 학생들의 애국심에 대해 영국학생들은 배워야한다고 말하겠다. 뭐 식사를 대접하고 싶는데 무엇을 먹겠느냐고 묻는다. 옆에 앉은 내 친구에게 무엇을 먹겠냐고 묻는데 무엇을 먹을래? 한주 그는 영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이름은 하나도 몰라 해방되고 미군이 왔을 때 어린애들이 떠들던 생각이 떠올랐는지 꼬 또 라고 말을 하니 그 말을 듣고 초코렛? 하고 반문한다. 나는 그대로 “예쓰”. 라고 하니 한 박스 갖다 주어 “탱큐” 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또 그 스코틀랜드의 피리를 분다. 그대로 그 앞을 통과 하고 밧줄사다리를 잡고 내려와 엔진보트를 타고 창린도로 돌아왔다. 함장은 갑판에 나와 계속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우리들은 이 전투를 유격전의 대첩이라고 부른다. 1월 8일의 피난민 후송이나 1월 9일의 피습으로 보리섬에서의 고투, 28일 만에 또 다시 그 부대를 그 위치로 재상륙시킨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때의 복수를 하도록 사령부에서 계획한 것이다. 다만, 후세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전투 평가를 오늘과 같은 전술을 기준으로 평가 하지 말고 그 시대의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평가해 보라는 것이다. 일개 중학생이 외국의 해·공군과 합동작

전을 했다는 것, 웅진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 그것을 웅진의 학생들이 휴전 시까지 현존 당국(인민공화국)의 현지에서 싸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피난민 후송작전에서부터 인민군 1개 대대 완전 섬멸까지의 작전은 각각 독립된 작전이 아니라 연결된 작전인 것입니다.



#3. 6·25와 웅진학도유격대

김 두 수(金斗壽)

1. 학도 유격대 활동 경위

나는 1950년 6월25일 새벽 북괴군의 포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살던 곳은 38선 남쪽으로 10km 거리에 있는 웅진읍 남쪽 농촌마을이었고, 웅진중학교 6학년 재학 중이었다. 웅진군은 38선이 생기면서 섬과 같이 되어 군(郡)을 벗어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주민들은 북괴군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마음 조이며 살아왔다. 그 날도 포성이 몇 겹지 하였는데 포성은 계속되어 가까워 오더니 10시 무렵에는 읍내에서 난민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이어 읍내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피난행렬은 남쪽항구 사곳(지명)을 향해 우·마차까지 동원하여 밀려가고 있었다.

당황한 부모님은 우리 3남매(나와 누님, 동생)에게 쌀자루를 주면서 5세 된 조카를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 놀다오라고 등을 밀었고 우리는 얼떨결에 자루를 메고 피난행렬에 어울린 것이 장장 4개월의 피란생활로 이어졌다.

우리는 인천에서 인민군 탱크를 처음 보았고, 주 전선을 피해 남하한다는 것이 군산을 거쳐 정읍에 이르렀을 때 산에서 내려온 지방 빨치산을 만나게 되어 계속 남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마침 농번기였고 김제평야에는 노동력이 아쉬울 때라 농가에 기식을 하며 논농사를 도와주면서 1개월여가 지날 무렵 먼 행정을 장악하고 있던 빨치산들이 우리를 수상하게 여기고 감시하면서 신원을 캐묻는 등 상황이 불안해지자 친인척이 있는 서울에 숨어 피란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부

모님 곁으로 가는 경우 전 가족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서였다.

나는 해주에서 태어나 해주사범학교 1학년에 재학 중 8·15해방을 맞이했으나 부친이 사업가이고 지주라고 하여 공산당의 박해로 2개월 뒤 월남하여 서울에 살다가 1949년 4월 큰택에서 관리해온 농지와 집이 있는 웅진에 와 살고 있는 월남자 가족이고, 큰택의 형님은 경찰관이고, 큰 아버지는 지주에 구(區)장일을 보고 있었으니 두 집이 모두 그들의 제거대상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9·28수복 후 10월 중순에 집에 돌아갔을 때, 큰택은 손주까지 포함해 남자 3대가 모두 그들의 손에 의해 살해되어 대가 끊겼고 부친은 친지의 도움으로 숨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하였다. 우리가족의 재회의 기쁨은 순간이었다.

북괴가 웅진에서 철수하면서 군내 군·경 및 그 가족 그리고 공무원, 반동분자 학생, 청장년 일부 등 약 3,000명을 냉정리 비행장 격납고와 학교 교실 2개 크기의 웅덩이 그리고 폐광인 웅진광산과 구곡광산 갱도에서 밧줄과 전선으로 수족과 몸을 묶고 수류탄, 총검으로 학살 또는 생매장을 자행하여 그야말로 군 전체가 이수라장이 되었다. 근거리 거주자는 물론 20~30km 떨어진 지방의 피랍자 가족들까지 도보로 비행장으로, 광산으로 또는 사체를 투기한 우물을 찾아 나섰고 훼손된 시체를 확인해야 하고, 우마차로 시신을 운반하였으니 지옥과도 같았다. 그 소동이 그치기도 전에 1·4후퇴를 맞게 되니 온 군민이 혼비백산하여 도사로 피란하게 되었다. 나는 지난 4개월간의 피란 행각이 죽음의 길이었음을 되새기며 뉘우치고 국가가 위란에 처한 지금 젊은 우리가 적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것이라고 깊이 깨닫고 피란 가는 가족들과 헤어져 3세 연하의 동생과 함께 웅진학도의용대에 가담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도서 주민이 17,813명인데 피란민이 62,082명이었고, 그 중 학생이 700명이었다. 학생들은 웅진주둔 17연대(연대장 백인엽)에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던 학도호국단 간부와 공산치하에서 결사 항쟁을 하였던 「일지회」 회원이 주동이 되어 학도의용대를 결성할 때 나는 17연대 입영교육을 받은 학도호국단 간부로서 또 서울에서 3년간 동성중 학교에 재학하면서 서북학생회와 전국학생연맹에서 좌익과 격렬하게 싸워 온 경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적극 가담하였으며, 1951년 3월 8일 백령도 표작전기지 사령부에 간부 14명이 갈 때 그 일원으로 참여하여 당시 학생 출신인 연락장교 홍승면, 조병찬의 협력과 지원으로 사령관 버그 소령을 상면하게 되었다.

우리 의용대는 동 기지사령부 소속 동키-11 학도유격대로 편입되어 바로 폭발물 취급교육, 무전통신교육 등 유격전에 필요한 단기교육을 이수하고 소총과 식량 그리고 무전기(AN/GRC-9)와 통신사, 민용 발동선(어선) 1척 등을 지원받고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나는 1951년 3월 부대본부 직속 화랑공작대(부대명은 본인이 늘 젊은이의 표상으로 생각해 오던 화랑으로 작명함)를 조직, 편성하고, 부대장(副隊長)의 직책을 갖고 웅진지역에서 가장 적지 깊이 위치한 배섬(舟島)을 공작기지로 결심하고 본부에 건의하여 배치 받아 적 후방에서 적 생포, 시설물 폭파, 각종 전투정보 수집 그리고 피란민 수용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

배섬의 위치를 살펴보면 옹호도에서 바다로 15km 거리에 있으며 해로 양안이 적지로 폭은 1~2km에 불과하고 배섬 앞에서는 수로가 부채꼴 모양으로 동쪽으로 강령만 북쪽은 장둔리, 서북쪽은 웅진읍으로 진입하는 3개의 수로가 전개되며 모두 그 깊이가 약 6km에 이르며 섬의 크기는 동서로 폭이 약 120m, 남북으로 길이가 250m 가량의 동산으로 된 섬으로서 동, 남쪽은 급경사,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가옥 2동과 선착장이 있었다.

적지와 가장 가까운 곳은 서쪽 송현리(송강)로 불과 400m이고 동북쪽 대안은 1.5km 거리에 간조 시에는 도보로 육지를 내왕할 수가 있어서 피란민의 유입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장기체류자가 많았음은 물론 우리는 활개를 치고 원하는 곳에 언제라도 침투할 수 있는 곳이었다.

2. 영국군 비행기 조종사 구출

1951년 5월 1일 10시경 섬 동쪽 초소로부터 해주방향에서 오던 유엔군 전투기가 강령만 안쪽 해안에 추락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초소에 올라가 보니 강령만 북쪽 해안에 전투기 1대가 추락해 있고 그 상공에는 전투기 3대가 선회하고 있었다.

나는 적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대처방안을 세워야 하였다. 유격대 지휘관은 돌발사태에 직면했을 때 현장에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판단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였다.

이 사태는 우리가 늘 해오던 것과는 정 반대의 상황이었다. 우리는 평소에는 적이 감지할 수 없도록 적에게 접근하여 기습공격하고 쏜살같이 현장에서 사라져야 했는데, 이번에는 백주에 시종 적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출작전을 해야만 하였다. 우리가 할 일은 적으로부터 조종사를 탈취해오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에게 탈출 수단을 제공해주어 그들의 탈출을 돕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출동인원은 적을수록 좋고 우리가 이용하는 선박도 적을수록 좋다. 작전 상황에서는 우리 소총의 사거리는 적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적의 중화기와 화포의 사정거리 내에 있으면서도 몸을 숨길 곳이 없는 바다 위에서 구출작전을 해야 한다. 만일 사격전이 벌어진다면 백전백패일 것이 명백하였다. 따라서 출동인원이 많을 경우 적에게 큰 조준표적을 제공해주는 것이 되어 공격의욕을 유발할 수도 있고 큰 배는 추락한 비행기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태는 항공기에 심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적의 허를 찔러 적이 설마설마 하는 사이에 작전을 끝마쳐야 한다고 판단했고 급히 대원 막사가 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구조하러 갈 것이니 “그곳 해로(갯골)에 밝고 노 젓기에 자신 있는 대원 2명은 선창으로 나오라, 나는 배를 준비하겠다.” 라고 하였다. 나는 당시 대원들의 작전 참여는 그 지역 출신대원의 자원 형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전실로 가 상부에 보고하고 항공지원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하고는 선창으로 가서 피란민들이 타고 온 많은 선박 가운데 수심이 낮은 곳까지 침투가 가능한 5인승 가량의 소형 무동력 돛배를 징발하자 선주가 스스로 협조하겠다고 자청해 4명이 섬을 출발하게 되었다.

배섬에서 추락한 전투기의 위치까지는 간조시여서 갯골을 따라 가야 하므로 5~6km 가량의 거리에 있었다.

때마침 08시경부터 밀물이 시작되어 배는 조류와 돛에 바람을 싣고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가 있었으며, 3대의 비행기는 우리 배를 접근 엄호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이러한 모습을 육안으로 보고 있는 우군과 적군은 물론 무선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있는 우리 사령부는 물론 각층의 지휘부가 모두 숨을 죽이고 우리를 주시하였다. 괴뢰군은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출동 가능한 병력을 추락 지점에 보냈을 것이고 우리가 늦는 경우 조종사는 포로가 되거나 사살될 것이 명백하였다.

우리는 몸을 낮추고 바람이 약해지면 노를 교대로 저었다. 그때마다 정막을 깨는 노 젓는 소리가 크게 느껴져 평소 야간작전에서 하던 대로 노의 마찰부분에 물을 부으며 2km 가량 전진했을 때 우측 적지(전촌 148고지)에서 기관총사격을 가해왔다. 그러자 우리를 엄호하던 비행기가 맹렬한 기총사격으로 적지를 공격하였고 적진은 조용해졌다. 우리 배가 강령만 깊숙이 진입하자 우측 부락 방향에서 다시 적이 사격을 가해왔다. 그러자 항

공기 3대가 우리를 엄호하며 적지 양안의 의심스러운 곳에 기총사격을 가해 우리가 안심하고 추락비행기와 접촉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추락한 비행기는 들물로 물에 하체가 반 이상 잠겨졌고 조종사는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또 한명의 조종사는 날개위에 앉아 우리를 반기지도 않고 배로 옮겨 타라고 했으나 반응이 없어 내가 날개로 올라타면서 “도와주러 왔다. 배로 이동하라”고 서툰 영어와 몸짓을 하였는데 순간 그들이 우리 모습을 이상하게 보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들은 10대 청소년으로서 학생복과 모자 그리고 사복을 섞어 입었고 무장은 적으로부터 노획한 아식소총이었으므로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가서자 그들은 소지품을 모두 내 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적의가 없다는 뜻 같았다. 나는 “우리는 학생이다. 유엔 빨치산 대원이다.”라고 하면서 살펴보니 조종석에 앉아 움직이지 않던 비행사는 우측상박부에 총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선주에게 그가 갖고 있던 태극기를 가져오게 하여 지혈을 한 후 태극기로 삼각대를 만들어 어깨에 걸쳐 편안하게 응급조치를 해주자 조종사가 무전기로 어디론가 통화를 한 후 모두 배로 옮겨 탔다.

돌아오는 길은 조류를 역행하게 되었으나 다행히 만조에 가까워져 물살이 거세지 않아 노를 저으며 올 수가 있었다. 배섬을 떠난 지 3시간가량이 지났을까 배섬 선착장 앞 안전해역에 돌아왔을 때 수상비행기가 도착하고 사다리가 배에 내려져 비행사들이 옮겨 탄 후 비행기가 떠오르자 우리를 엄호하던 전투기들은 날개를 흔들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서쪽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선창에 운집한 피란민과 대원들의 환영을 받았다(웅진학도유격부대전우회, 학도유격부대 전사, 1992, 178면 이하 ‘영국군조종사 구출’ ;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4권 한국전쟁실록, 359면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편, 한국 전쟁 시 학도의용군, 222면, 15행 이하).

3. 배섬 피습과 공작대장, 무전사 등 구조

그후 화랑공작대는 계속 배섬에 주둔하면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배섬이 첩보기지로서 주목을 받게 되자, 각 군의 요원들과 미 공군 첩보대원까지 파견되어 피란민들과 어울려 많은 땅굴을 파고 장기체류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밥과 막걸리 집까지 생겨나 마치 과시를 이룬 것 같았고 그들은 400m 거리에 있는 적지 송강반도에서 식수를 조달하였다.

1951년 7월 17일경 배섬 동북쪽 고잔동에 적 1개 보병 중대가 집결하였고 우측 전촌동 일대에는 포병이 이동하여 배섬을 마주보는 돌출부 주위(148고지)에 진지를 구축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배섬 피습을 예측할 수가 있어서 즉시 항공지원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항공지원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배섬에는 방어용 무기는 하나도 없었고 공작대원들이 휴대한 소총과 수류탄 그리고 각종 폭발물뿐이었으므로 배섬에서의 일시 철수 등 각종 대책을 논의하던 중 7월 24일 10시경 수백 발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우리는 전날 밤 적의 전의를 저지할 목적으로 대원 대부분이 적지에 출동하여 교란공작을 하고 조류관계로 06시경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놀라 깨어나 나가보니 적의 포화는 선착장의 배 대부분을 파괴했고 막사도 목표를 했던 것이나,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그날은 09시 40분경 만조여서 적이 육로로 공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평소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탄약과 수류탄 등을 섬 동쪽 침입로 방향의 개인호와 교통호에 전량 모두 분배하고 우리는 적이 소화기의 유효 사거리 내에 접근하면 일제사격을 가하기로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12시가 지나 갯벌이 노출되기 시작하자 고잔동 뿌리에서 1개 소대 규모의 적군이 공격해왔고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1km 가량의 거리를 두고 1개 중대규모의 주 병력이 공격해왔다. 적이 배섬 500~600m

거리까지 접근해왔을 때 적의 포병화력이 다시 맹렬히 불을 뿜었고 정확하게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호를 강타하였다. 우리의 호는 산의 지형상 직선이었고 100m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적의 전총동 포대는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볼 수 있었으므로 적의 사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머리도 들지 못하고 흠에 묻히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적이 100m 전방까지 접근했을 때 우리는 일제히 모든 화력을 있는 대로 쏟아부었다. 적들은 몸을 숨길 곳이 없는 바다 뺨과 모래위에서 타격을 받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대열이 흐트러지면서 멈추는 듯했으나 뒤에서 나팔을 불고 팽과리를 치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공격해왔다.

나는 흠먼지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칼빈소총으로 사격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총의 반동도 느껴지지 않고 총성도 듣지 않았다. 옆에서 나를 돕던 연락병이 갖고 있던 M1소총을 바꾸어 갖고 탄피의 탄환을 모두 쏘고 나니 총 윗덮개에서는 과열로 연기가 나고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속이 후련해졌다. 나는 이때 우측 고막이 Y자로 파열되어 이후 이명과 난청에 시달려야 하였다. 연락병도 보이지 않았고, 옆에 있던 대원은 소총 약실에 탄피가 늘어붙어 노리쇠를 발로 차보려고 일어서다 적탄에 맞아 쓰러졌다.

적 병력 일부가 상륙을 시작하자 적의 지원사격이 모두 멎고 정막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자결용으로 각기 몇 발의 실탄을 남겨놓았을 뿐이다. 수류탄도 모두 투척하였다. 적은 급경사인 전면 돌파를 피하고 북쪽해안을 따라 우회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적이 해변을 우회하면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혹 부상자가 있을까 싶어 막사와 탄약고를 둘러보았으나 텅 비어 있었다. 무전실을 향해 뛰었다.

배설에서 움직이는 인간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 견고하게 지어진 무전실 유개호 외부에 설치되었던 안테나는 모두 파괴되었다. 참호 문을 여니 대장과 무전사가 있었고 대장은 마이크를 잡고 암호도 사용하

지 않고 “야 이 새끼야 비행기 보내” 라고 사령부에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안테나가 모두 파괴되어 송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미 적군이 섬에 상륙하였다. 무전기와 암호대장을 갖고 선창으로 나오라 배를 대기시킨다.” 라고 하고 선창으로 뛰었다. 선창에 가 보니 바다에 있던 배는 부대 소속 배를 비롯해 대부분 파괴되고 간조시여서 육지에 올려놓았던 된마 등 소형선박이 여러 척 있었다. 피란민들은 선창을 중심으로 마치 벌집같이 굴을 파고 기백명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이어지는 집중포화로 모두가 굴속에 숨었으니 섬 반대편의 전황을 알 리가 없고 적이 북쪽 해안을 따라 진격하고 있고 대항병력이 없으므로 곧 선창에 다다를 것이 명백했으나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4~5인승으로서 날렵해 보이는 된마를 총 개머리판으로 두드리면서 “배주인 나오라”, “선원 나오라”고 고함을 쳤으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바다에 있는 선박이 모두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난민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겠다고 나설 리가 없다. 내가 하는 수 없이 “인민군이 상륙했다”, “인민군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자 토굴 속에 있던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뛰어나와 배로 몰려들었다. 나는 원했던 배 선주에게 “대장과 무전사가 무전기를 갖고 올 것이니 도와 달라” 고 간청을 하고 같이 배를 밀어 바다에 띄웠다. 잠시 후 무전기를 메고 뛰어나오는 대장과 무전사가 보였으나 아수라장이 된 난민 속으로 끼어들었다. 대장 일행이 무전실을 떠난 후 20~30m 거리 뒤에서 인민군이 북쪽능선을 넘어오면서 무전실과 막사는 폭파되었으며 적이 선창을 향해 기관단총(파발총)을 난사하자 대원과 타기관원, 피란민 등은 적지이지만 적군이 주둔하지는 않았던 배섬 서편 해안의 송강을 향해 해엄을 치거나 앞을 다투어 배에 타다가 무참히 사살되었다. 당시 선창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사상자의 피가 개펄 검은 흙과 섞여서 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했다.

대장 일행이 나를 찾을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나도 그들이 보이지 않

았다. 많은 배가 바다로 나오자 다시 포격이 시작되었고 배들은 서쪽으로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송강을 향하였다. 나는 무전기는 포기하고 배로 탈출할 것을 결심하고 선원들에게 용호도로 가보자고 하였다. 우리 배는 많은 소형 배와 어울려 선창을 떠난 뒤 서편으로 가다가 용호도 방향으로 가기 위해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적의 포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되자 포대에서 우리를 향해 기관포사격을 가해왔다. 나와 선원 한명은 즉시 바다로 뛰어 내려 배를 뒤에서 밀며 해엄을 치고 선원 한 명은 배 바닥에 반듯이 누어 양손으로 노를 잡고 공중에서 흔들며 저으며 갔다. 우리가 위장을 위해 개발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둘이 배가 물살 가르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었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다시 배에 올라타고는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비행기 엔진 소리가 났다. 가슴 설레며 주위를 살피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포대 방향의 하늘이 환해지는 듯 하면서 구름사이로 며칠을 기다려 온 전투기 2대가 급강하 하는 것이 아닌가. 선원이 만세를 불렀다. 나도 급히 일어선데 용호도 방향에서 낮은 구름을 피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또 다른 전투기 2대가 왔고 우리 배위를 지나 4대가 편대를 이루면서 적의 포진지를 정확히 폭격했다. 2개월 전 내가 조종사를 구조했던 것과 같은 함재기였다.

눈앞의 포진지는 포와 적군이 모두 공중으로 떠올랐다. 선원들은 흥분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밀물로 배가 전진할 수 없게 될 무렵 다시 용호도 방면에서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한국해군 함정(3△△호)이 수로 중앙으로 우리를 향해왔다. 그 곳 바다는 양안이 적지이고 폭이 1~2km이며 대해까지는 용호도를 거쳐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써 군함이 항해한 적이 없는 곳이다. 꿈이 아닌가 하면서 함정에 오르니 갑판에서는 우리 부대장과 참모장 그리고 해군장병이 환영해 주었고 친절하게 담요로 몸을 감싸주었다.

화랑공작대원은 나 혼자 살아남은 것일까 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나는 즉시 송강으로 헤엄쳐갔을 대원을 구조해 줄 것을 간청했고, 군함은 항공지원을 받으며 적지인 송강으로 가 그곳에 도착해 있던 공작대장, 무전사를 포함해 5명의 대원을 구조할 수가 있었다. 피란민과 피퇴군이 뒤섞여진 배섬은 공격할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선창 앞 바다에 잠수해서 무전기, 암호대장과 많은 무기를 인양하였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대원 9명 전사, 4명 피랍 기타 행방불명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전과는 적 사살 20여 명, 근접항공지원으로 적 포진지를 전파하였는데 정확한 전과는 파악할 수 없었다.(웅진학도유격부대전우회, 학도유격부대 전사, 1992, 188면 이하 ‘배섬 피습’)

4. 보리섬(봉곳도) 철수작전과 기린도 방어

1952년 1월 1일 01시 40분경 중공군 지원사령부 예하 대대병력이 용호도에 상륙하였고, 도서 방어능력이 없는(소총만으로 무장한) 본부는 순위도로 철수하였다가 3일 다시 적의 공격을 받고, 그곳에 주둔하던 동부대대와 함께 어화도로 철수하였으나 당일 어화도도 적의 격심한 포격(120mm 해안포)을 받게 되자 5일 야간에 전 대원이 서부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창린도로 철수하였다. 그때 창린도에 집결한 대원은 전체 대원 약 700명 중 500명으로서 가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있었다.

1952년 1월 9일 04시경 창린도에 적의 포격이 시작되었고 인민군 특공대 300명으로 구성된 1개 대대가 섬 동북쪽 일대에 상륙하여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으나 소총만으로 무장(일제 99식, 소제 아식총 등이 대부분)한 우리는 적의 정규군 화력에 제압되면서도 13시간의 격전 끝에 섬 서편에 있는 보리섬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때마침 간조로 암석과 모래로 이루어지고 양편은 깊은 바다로서 폭 6~7m 정도 되는 길이 생겨 물속을 도보로 건널 수 있었다.

목영설 대장의 지휘로 부대가 보리섬으로 철수를 하여 선두가 보리섬에 이를 무렵, 적의 주력부대가 도착하여 기관총을 거치하고 사격을 개시하였고 순간 많은 전우들이 쓰러지며 물에 떠내려갔다. 보리섬은 길이 약 700m 폭 150m에 높이 47m 고지가 있고 천연동굴이 몇 개 있어서 많은 부상병과 대원, 피란민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섬에는 식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하 10도의 기온에 물에 빠진 옷을 입은 부상병이 많았으니 실혈과 동사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등 처참한 상황이 되고 있었다.

화랑공작대는 1951년 7월 24일 배섬을 적에게 피습당하고 무도에 주둔 중 1952년 1월 1일 이후 기린도로 철수하여 본부와 합류하기 위해 대기 중 1월 9일 16시경 부대장을 비롯한 본부 요원들이 동아환(약 50톤급 목조 어선)으로 기린도로 철수해 옴으로써 창린도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나는 보리섬에 있는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기린도 파견대장 이치영을 찾았으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부대본부는 백령도 사령부에 해군의 지원을 간청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보리섬의 위치상 소강 방면에 위치한 적의 동굴 속에 있는 해안포(120mm 직사포)와 1.5km 거리에 있는 창린도의 적의 박격포 등 많은 화망 구성이 되어 있었으므로 군함도 보리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대본부 전용선박인 동아환에 가보니 선장과 기관장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이용할 수도 없었다.

우리 부대의 작전기지는 섬이기 때문에 군수물자 수송은 물론 병력이동 수단으로서도 선박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사령부에서 공식으로 선박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구입해 소유하고 있던 발동선 동아환이 주축이 되어 기민하게 기동력을 최대한 발휘하느냐가 부대의 사활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대는 작전참모 직속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런데 동아환은 그 효용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보리섬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피란민 구호양곡을 싣고 온 민간인 소유선박 FS 충주호를 눈여겨보았고 그 선박

을 강제로 징발하여 보리섬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400명 내외로 추산되는 전우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에 시달리고, 많은 부상병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1월 10일 아침 부대장에게 “보리섬의 대원을 구할 길은 구호양곡을 싣고 동쪽 해변에 정박중인 화물선 충주호를 납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본부 소속 통신대장 은준관(후에 목사가 되었다)에게 통신지원을 요청하였다. 은 대장은 자신도 나와 같이 행동하겠다고 나섰고 용감한 화랑공작대원 10여 명이 나의 의견에 동조하여 동아환은 포기하고(동아환이 협조하여 주는 경우 충주호와 보리섬을 범선이 왕래할 때 기관선이 예인을 하면 구조작업이 쉽고 몇 배 빠를 수 있었다), 소형 범선 5척을 가지고 충주호로 가서 무장대원들을 요소에 배치하여 일단 충주호를 장악하였다.

충주호는 피란민 구호양곡을 싣고 온 민간인 소유 700톤급 화물선이었다. 나는 당직사관의 안내로 선장실에 들어가 선장을 면담하고 보리섬 상황을 설명하면서 구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선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자기는 민간인으로서 전투행위에 참가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항로변경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당연한 말이었다. 그러나 보리섬의 대원이 전멸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와의 대화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대원들은 격분하여 고함을 지르며 공포사격을 하게 되었고 내가 항해사를 데리고 조타실로 가자 선장도 뒤따라 왔고 나는 항해사에게 닻을 올리고 보리섬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다. 우리는 충주호와 운명을 같이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충주호는 적의 직사포와 박격포의 사정권 내에서 대원들의 구출작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충주호가 보리섬을 향해 운항을 시작하자 선장은 체념한 듯 일단 본사에 사정을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도 표기지사령부에 기린도에 정박 중

인 충주호를 징발하여 보리섬으로 가고 있으니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당시 통역장교는 위급한 상황에서 잘 한 일이라고 격려하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그후 충주호는 UN 극동함대 서해봉쇄전대에서 정식으로 긴급징발조치를 하였으며 얼마 후 선장은 본사로부터 부대원의 요구사항대로 운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다.

충주호는 소형 범선 5척을 안전하게 예인해야 했으므로 서행할 수밖에 없었고 12시경 보리섬 북측해안에 겨우 도착하였다. 충주호와 적지 사이에서는 영국 함정 4척이 충주호를 호위하고 있었다(UN 극동함대 서해봉쇄전대의 지시로 충주호가 운항 중에 기히 합류가 되었다).

충주호가 보리섬 앞 수심이 깊은 곳을 살피며 섬에 접근하여 예인해 온 범선을 보리섬으로 보내고 있을 때 소강 방면의 적 해안포 진지에서 직사포가 우리 선단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해왔다. 포탄 50~60발이 함정과 충주호 주위에 떨어져 물기둥을 일으키며 작렬하였고 함정들은 적지에서 충주호가 보이지 않게 충주호 북쪽으로 연막을 치고 곧 이어 함포사격을 가하면서 두 척은 보리섬 남쪽으로 이동하고 두 척은 계속 지그재그로 이동하면서 충주호가 적에 노출되지 않게 연막을 치면서 적지로 함포사격을 가했다.

적의 포사격은 중단되고 범선들의 구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부상자, 피란민 그리고 대원 순으로 승선하였는데 보리섬의 생존자 272명 전원이 승선 완료한 것은 16시경이었다. 충주호는 17시경 기린도에 도착하였다.

창린도 피습으로 유격대는 전사자 약 40명, 피랍자 약 30명, 중경상자 약 30명의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적에게 생포되었다가 탈출한 대원(오병준)의 증언에 의하면 대원들이 바다를 건너 보리섬으로 탈출할 때 적의 기관총사격을 받아 쓰러지는 광경은 마치 “잘 드는 낫으로 풀숲을 칠 때 풀잎이 쓰러지듯이 유격대원들이 쓰러졌다”고 하였다(위 학도유격부대전사,

271면, 창린도 피습과 보리섬 전투). 보리섬에 있던 대원들은 대항능력이 전무(소총실탄 마저 우리가 늘 하듯 자살용 몇 발씩뿐이었다)한 상태에서 적이 보리섬에 침공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공포와 추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창린도와 보리섬에서 작전지휘를 했던 1대대장 목영설의 증언에 의하면 “1월 10일 11시가 지나고 발동선이 범선을 이끌고 오고 있었으나 대원들은 분노에 가득 차 환영하는 자가 없었고 구조하러 온 사람은 본부 요원이 아니라 무도에 있을 김두수와 화랑공작대원이었으며, 선박도 우리 동아환이 아니라 화물선 충주호였다. 대원 272명이 구조되어 기린도 선창에 도착했을 때 마중나온 자는 대원들뿐이었다. 부대장도 안보이고 참모장 이하 참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만일 기린도에 충주호가 정박해 있지 않았었다면 웅진학도유격대는 1월 10일 전투에서 부대가 전멸하였다고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참으로 충주호의 공이 컸다.

대원들을 구출하여 기린도로 왔지만 당시 적의 공세추세로 보아 기린도의 함락은 시간문제인 것 같았다. 사지에서 극적인 탈출로 인해 극도로 사기가 저하된 부대원에게 기린도 방어임무를 부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사령부에서는 부대원들의 휴식과 정비를 위해 전 부대를 백령도로 철수할 것을 명하였고, 1월 12일 L.S.T 1대를 보내왔다.

그러나 부대본부에서는 부대의 마지막 보루인 기린도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고, 잔류 병력은 기존의 기린도 주둔부대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렇지만 기린도 주둔 맹호부대는 이치영대장이 행방불명이고, 대원들의 사기는 공황상태에 빠져 부대가 와해되고 말았다.

나는 화랑공작대원에게 우리 부대가 기린도에 남아 기린도와 운명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하였는데 모두가 동의하여 화랑공작대원 23명과 통신대원 2명 등 25명이 잔류하고 1월 12일 전 부대원이 백령도로 철수하였다. 나는 잔류대원들과 함께 L.S.T가 출항하기 직전에 선창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은 전부 남기고 가도록 하고 그들과 작별하였다.

웅진반도의 많은 섬들이 차례로 적에게 점령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린도 주민들도 모두 섬을 버리고 피란을 떠나서 기린도는 유령의 섬처럼 되었다. 기린도를 25명이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섬 남단 끝 부분에 참호를 파고 숙영을 하기로 하고 당일로 섬 해안을 한 바퀴 돌면서 선착장에 있던 소형 선박들을 비롯한 모든 선박들을 폭발물로 파괴하였다. 만일 적의 첩보원이 섬에 있다고 하더라도 탈출하여 섬의 상황이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만일의 경우 최후까지 싸우다가 옥쇄한다는 처절한 각오를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린도의 지형은 북측은 산이고 산 남쪽에 40~50호의 부락이 있고 그 남쪽은 해안까지 2~3km 거리로서 폭이 좁아지면서 평지에 전답이 많아 주민들은 어업보다는 농업이 주업이었으며 부촌으로서 많은 가축이 있었다. 섬의 지형으로 보아 섬 남단의 견고한 참호를 이용하여 넓은 평야를 사이에 두고 적을 조기발견한다면 공·해군의 지원을 받아 적을 쉽게 제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당시 UN군이 해·공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싸워 이길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섬 전체를 순찰하였고 야간에는 해군 함정 1척이 와서 대형 조명탄을 발사하여 섬을 낮과 같이 밝혀주었다. 우리는 밤이면 해변에 나가 파손된 많은 선박 잔해로 모닥불을 높이 밝혀 적에게 아군의 병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양동작전으로 병력을 과시하면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고 때로는 야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해군장병들을 초청하여 소고기로 만찬을 즐기기도 하였다. 우리는 본대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곡물은 없이 가축 고기만을 먹으며 기지부대인 1대대(서부대대) 병력이 올 때까지 1개월간 기린도를 지켜냈다.(웅진학도유격부대전우회, 학도

유격부대 전사, 1992, 286면 이하, “창린도 피습과 보리섬의 고투”, “기린도에서의 휴식과 백령도로의 철수” ; 육군본부 군사연수실 편, 한국 전쟁 시 학도의용군, 235면 이하)

5. 군 경력

- 소속 : 8240부대 동키 11 용진학도 유격대 김두수(金斗壽)
- 1951. 3 ~ 1952. 2. 7. 부대 본부 직속 화랑공작대 부(副)대장(주둔지 : 배섬(舟島), 무도)
- 1952. 2. 7 ~ 1952. 9. 23. 부대 본부 연락관(주둔지 : 어화도)
- 1952. 9. 23 ~ 1954. 2. 28. 부대 작전참모 보좌관(주둔지 : 어화도)

6. 뒷 말

우리 D-11 학도부대는 6·25 전쟁기간 중 총 전사자 272명, 부상자 124명의 사상자를 냈다. 나는 부대 작전관으로서 휴전을 맞이하였다. 우리부대 전원이 현지 입관하는 등 육군에 편입되던 1954년 3월 나는 6·25로부터 늘 행동을 같이하며 체격이 커 부대 중화기중대 대원으로 그리고 무전사로서 무수히 사선을 넘은 동생 인수와 함께 귀향하였다. 그 후 나는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고, 동생은 1959년 공군 사관학교 제7기 졸업식에서 수석 졸업을 하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후 나는 부산 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진주지청에서 공안담당 검사로 일하던 1963년 말경 산청경찰서에서 교전 끝에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생포된 지리산지구 마지막 공비 정순덕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정순덕은 지리산지구 유격대장 이영희, 덕유산지구 유격부대장 노영호 등의 부하로 활약하던 자로서 6·25 직후 우리형제가 피란처 김제벌에 있다가 신태인에 연행되어 빨치산들로부터 신원을 밝히려는 엄한 문초를 받다

가 동생 인수가 항의하며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총살형장까지 끌려가다가 부락 어른들이 “농촌에 손이 모자라 우리가 가지 못하게 붙들었던 것이다.”라고 탄원을 하여 풀려나는 등 사선을 넘나드는 고초를 겪었던 바로 그 유격대원들과 같은 부대에서 일을 했던 자로 밝혀졌으며, 내가 1964년 1월 18일 정순덕을 공소제기 하였으니 우리나라에서 자생 유격부대원으로서 전쟁기간 중 적 후방에서 적과 싸운 경험이 있는 유일한 검사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되었다는 것은 우연이었다고만 말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D-11 유격부대원들은 전쟁하는 기간 중 늘 우리의 싸움터에서 우리보다 더 용감하게 우리를 도와 생사를 같이 넘나들며 사상자를 냈던 미국 공수단 소속 고문관들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도 매년 5월 20일 때로는 6월 6일에는 동작동 현충원에 있는 유격부대 전적위령비 앞에 한·미 특전사 사령관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전우들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게양하고 각국의 국가를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고 먼저 간 전우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4. 나의 6·25와 웅진학도유격대

-웅진학도유격대 김현철(金賢澈)-

* 화랑공작대의 신강령 철교 폭파작전 부분은 김두수(金斗壽)와 협조하여 작성함.

1. 학도 유격대 활동 경위

1·4후퇴시 웅진반도 8개 도서에는 각급 학교생들이 피난 나와 있었다. 웅진지역은 6·25 전에 38선 접경지역으로 수시로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특수한 관계로 38선 경비를 담당하는 17연대에서 각급 학교 호국단 간부에 기초 군사훈련을 교육한 바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학생들이 군사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각 도서에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모여 학도의용대를 조직하였다.

그후 이 학도의용대가 1951년 3월 미 8군 작전처 윌리엄 에이블 기지의 유격부대로 편입되었다. 부대명은 동키(Donkey) 11유격부대다. 그 후 무기와 각종 보급을 받았다. 우리는 유격전에 대한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이미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바 있어서 유격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부대 편성과정에서 나는 특수공작대의 대장으로 명을 받고 대원은 30명으로 조직하였다.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성능이 우수한 수동으로 발전하는 무전기(AN/GKC-9)를 보급받았다. 무전사는 사령부에서 지원하였다. 대원들은 우리 작전지역과 연고가 있는 관계로 유격전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없었다.

인민군이나 내부서원의 사살 또는 공격 등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민군의 경비가 점점 강화되어 우리의 유격전을 전개함에 어려움이 있어 적의 보급차량과 집결장소 등 항공기의 공격

대상 정보를 매일 10여건 수집하여 보고하였다. 사령부에서는 공격대상으로 판단되면 함재기(서해상에 있는 항공모함의 비행기)를 즉시 출격시켜 공격하였다.

1951년 5월 말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막바지여서 후방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던 시기였다. 항공 후방차단의 일환으로 UN군은 서해안 미군의 함재기들로 하여금 웅진읍 동쪽 4.5km에 위치한 해주와 웅진반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인 신강령 철교를 폭파하기 위해 근 10일간에 걸쳐 폭격을 감행하였다. 군수물자 수송의 중요한 보급로이므로 적은 이 철교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일층 강화하였다.

주위에 대공포를 설치하여 항공기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재기들은 저공비행으로 접근이 곤란하였다. 고공에서 로켓탄으로 공격하는 것도 실패로 끝났으며 폭탄도 투하하였으나 명중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항공기 공격이 실패하자, UN군사령부는 기지사령부에 협조를 의뢰하여 왔다. 사령부에서는 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공작대에 철교 폭파 명령을 하달하였다. 우리는 우선 그곳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 지역을 잘 아는 대원 3명을 선발하여 침투하게 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철교 근방과 근산에 고사기관포가 설치되어 주야 근무를 하고 철교는 남단과 북단에 야간에만 경비병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달이 밝아 어렵다고 하였다. 그믐날까지는 아직 10여일이 있어야 했다.

기지사령부에서는 계속하여 폭파 독촉 무전이 왔고 나는 죄를 진 듯 몸둘바를 몰랐다. 사령부의 통역장교(신문협회장을 역임한 홍승면)에게 지금 상황으로는 폭파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상황이 급박하여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2. 화랑공작대의 신강령 철교(YC165018) 폭파작전

나는 화랑공작대 대장으로서 부관(부대장) 김두수와 상의하였는데 그 결

과 화랑공작대에서 신강령 철교폭파작전을 결행하기로 결정하고 김두수가 직접 폭파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나섰다.

가. 김두수(金斗壽)의 경험담

1951년 6월 1일 김두수(이하 나로 표기함)는 대원 2명과 함께 교각 2개를 완파하는데 충분한 양의 폭약 2상자(한 상자에는 12파운드의 TNT 8개가 들어 있었고, 캠퍼스천 휴대주머니에 멜빵이 달려 있음)를 휴대하고 간편한 무장으로 간조(21:55분)를 이용하여 도보로 침투하여 대원이 안내하는 민가에 은신하였다.

다음날 대원들이 농부로 위장하여 2일간 철교에 접근하여 경비상황을 살펴보았으나 철교 진입로 초병의 보초교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던 중 공작대원 침투기밀이 누설된 듯 6월 3일 17시경 신강령 일대의 부락에 괴뢰군 약 1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투입되어 공작대 토벌작전을 시작하였다.

공작대원들은 지역출신 대원의 안내로 이웃 부락으로 도피하였는데, 당시 그 부락에는 콜레라 전염병이 만연되어 있어 수개 동의 가옥에 출입금지 새끼줄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수도 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안내되어 2층 천정(일제시 양곡을 숨겨두기 위해 만들었던)에 숨어 적의 토벌을 모면하였다.

당시 우리는 초병을 제거하고 우리가 기지로 귀환하기 편한 간조시간을 이용하여 작전을 강행할 수도 있었으나 오랜기간 우리 공작에 헌신적으로 협조해온 주민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초병이 보초교대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울 때를 이용해야만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폭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저하는 사이에 정보가 누설된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철수하기로 하였다.

유격대와 현지 주민은 ‘고기와 물’로 비유하고 있다. 현지 주민의 협조 없는 유격전은 불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그들을 도와야만 했으며,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철저히 지켜 주민과의 유대를 돈독히 쌓아 왔던 것이다.

나는 토벌이 시작된 다음 날 해가 질 무렵 철수하게 되었다. 철수로는 장둔리 강 하구를 거쳐 바다로 나왔다. 밤에는 안개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배섬 기지에 이르는 철수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날이 새도록 바다 벌을 헤매고 다녔다. 날이 밝자 산밑 바닷가에 있는 큰 바위 틈에 은신처를 정하고 지형을 살피기 위해 해안으로 올라가보니 그곳은 배섬에서 동북쪽 2.5km 적지인 고잔동(YB 166967) 마을 앞 괴뢰군 초소가 있는 곳이었다. 마침 초소 안에는 괴뢰군이 없었으나 온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바로 전에 초소를 떠났음이 분명하였다.

6월 4일 05시 30분경 바다는 만조(05:45)가 되어 배섬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보였으나 갈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초소 밑 바위틈에 숨어 있다가 모두 잠이 들었는데, 물오리떼가 놀라 달아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잠시 후 바위 위에 있는 괴뢰군 초소에서 괴뢰군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 발견되면 폭약 전부를 동시에 폭파시켜 초소에 있는 괴뢰군과 함께 자폭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었다.

초조한 시간이 흘러 10시경 바닷물이 썩 나가 뻘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고잔동 마을에서 아낙네들이 바닷물이 썩 내려간 곳으로 바지락을 캐러 나왔다가 대원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 하였다. 우리는 부녀자들이 오는 대로 바위 밑으로 숨게 하여 우리의 소재가 폭로되지 않도록 하였다.

12시경 초소의 괴뢰군들이 초소를 이탈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배섬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마침 간조(11:50)가 되어서 배섬까지 도보로 갈 수 있

는 상황이었다. 배섬과 육지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배섬에서 우리에게 집중사격을 가해왔다. 배섬에서 사격을 가하자 이번에는 적지 초소에서도 사격을 가하여 왔다. 적들은 우리를 배섬으로 귀순해가는 괴뢰군으로 오인하여 사격을 하였고, 배섬에는 당시 육군 정보기관원(4863부대) 10여 명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사복과 괴뢰군 복장을 하고 무장을 한 채 배섬으로 오는 공작대원들을 괴뢰군으로 오인하여 집중사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화랑공작대원들에 의해 아군임이 확인되어 전원 무사히 귀대할 수 있었다.

나는 작전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침투와 철수를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간조시 도보로 이행하였으며, 3박 4일간 수회의 현장답사와 정보수집을 통해 현장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대장의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였다. 김현철 대장은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날 나와 대원들이 수집한 정보와 경험을 기초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김현철(金賢澈)의 경험담

김두수와 대원들이 귀대한 후에 사령부의 폭파지시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김현철(이하 나로 기재함)은 직접 침투하고자 결심하였다. 대원 중 투지가 뛰어나고 민첩한 몸을 가진 4명을 선발하였고 폭발물로는 M3 TNT, C3 및 도화선, 휴즈라이터, 수류탄 등을 각기 나누어 휴대하였다.

6월 10일 그믐이라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다. 전마선을 노를 저어 육지 해안선에 도달하였다. 유능한 대원의 뒤를 따라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짜리로 된 마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의 공터인 마당이 초등학교 교실의 3분의 2 정도이고, 시골집이라 안채는 일자형이었다. 사전에 연락이 되었는지 웃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긴장을 하고 있으니 이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면서 안심하라고 하였다.

그간 신경을 많이 써 피로가 겹쳐 나도 모르게 잠시 잠이 들었다. 아침

밥이라고 하여 눈을 뜨니 밥상이 있는데 긴장되어 먹을 수가 없었고 냉수를 마시는데 물도 넘어가지 않았다. 방에는 나와 대원 둘 뿐이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났다. 지형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내무서원과 인민군 3명이 집주인과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큰일이었다. 순간 독안에 든 쥐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마음먹고 폭발물에 긴급 도화선을 연결하여 죽어도 네놈들과 같이 죽겠다고 결심하고 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후 밖으로 나가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저녁이 돌아왔다. 주인아주머니는 나와 대원들이 겪었던 긴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두를 만들어 한 그릇 가지고 와서 많이 드시라고 하였다. 죽어도 먹고 죽자고 생각하고, 허기진 배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었다.

날이 어두워져 전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곳은 우리 정보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철교를 폭파하는 경우 적은 이 마을에 국방군의 연락원이 있다고 하여 주민을 못살게 들볶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비밀 아지트도 와해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이 마을에서 어떠한 작전도 하지 않고 바로 해주 방향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전하라고 말을 하고는 밤 11시경 대원들과 빠져 나와서 철교 있는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얼마 후 철교 부근에 도착을 하니 철교 입구에 인민군이 왔다 갔다 하며 경비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나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인민군은 부락쪽으로 천천히 걸여갔다. 사방을 보아도 교대 오는 인민군은 보이지 않았다.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철교로 진입을 하니 대원들도 뒤따라 왔다. 세 번째 교각에 도달하여 폭약을 달라고 하였는데 마음속으로는 폭약을 실험한 적이 없는데 긴장이 되었다. 교각과 철도레일 사이가 약 30cm 정도의 공간이었다. 가지고 간 폭약 전부를 설치하고 도화

선도 모두 연결하고 교각 밑으로 내려갔다. 일반 도화선을 설치하고 전체 폭발물을 긴급 도화선으로 연결하였다.

대원들에게 곧 폭발할 것이고 그 위력이 엄청나 이곳에서 속히 이탈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니 그리 알고 은파산 방향(해주와 웅진반도의 유일한 교통로)으로 가되, 적의 경비가 엄하니 서두르지 말고 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도화선의 점화라이터를 당겼다. 우리가 현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전에 천지가 무너지는 폭발음이 났고 하늘은 인광으로 낮과 같이 밝았다. 그 자리에 엎드렸다가 뒤를 보니 교각 조각이 마치 불꽃놀이 때와 같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우리들은 무사히 은파산에 왔다. 은파산은 갈나무가 무성하여 사방이 보이지 않았다. 나무 높이가 성인의 키 정도이고 잎이 호박잎 정도였다. 아침이 밝아 오자 예상한 대로 인민군은 철교 근교의 부락과 우리가 있는 은파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시작하였다. 나무가 무성하여 인민군이 어디로 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적에게 발견될 위험성이 많고 또 몰살당할 우려가 있으니 서로 1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만일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류탄을 던지라고 하였다.

우리는 발견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 어두운 밤이 되자 한 대원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밀아지트에 잠입하여 정보원에게 “우리가 다음날 귀대 예정이니 1시에 지정한 지점으로 전마선을 보내라”고 하고 “약 한 시간 정도 대기하였다가 우리가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돌아가고 다음 날 다시 오라”고 말했다고 보고하였다. 돌아오면서 주먹밥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목적을 완수하고 무사히 기지로 돌아왔다.

나는 바로 사령부에 폭파를 알리는 무전을 타전하고 우리 부대 본부로 갔다. 부대장하고 부대 동아환(디젤 발동선)을 타고 백령도에 있는 표기지사령부를 방문하였다. 사령관은 나를 반갑게 맞으며 폭파된 철교를 함재기

가 촬영한 사진(신문 전지의 4분지 1 크기)을 보여주었다. 교각 5개가 교각에서 떨어져 나갔고 폭약을 설치한 교각은 완전히 형체가 없어졌다고 한다. 폭약을 얼마나 설치하였는가를 설명하니 그 많은 양을 설치하여 폭파하고도 무사하다니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님버원의 의미였다.

참고문헌 : 웅진학도유격부대 전우회, 학도유격부대 전사, 명성출판사, 2002,
160~167면 참조(제2장 제1절 4. 신강령 철교폭파 부분)

3. 뒷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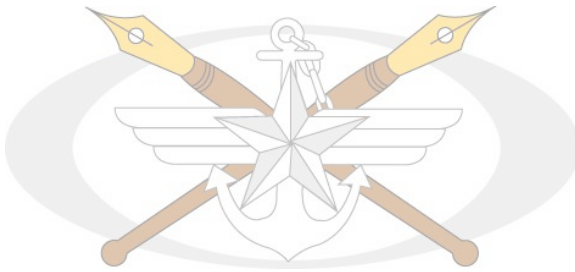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우리 특수공작대의 명칭은 화랑공작대로 주둔한 지역이 유격전을 수행하기 아주 좋은 지역으로 수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우리가 주둔한 기지(섬의 길이가 3~400m, 폭이 100m로 집이 2채가 있었음)에 대낮에 적의 1개 중대 병력이 기습공격을 해와 3분의 2의 전사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다. 나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 직전에 있었으나 용호도 근해에서 경비중인 한국 해군 소해정에 의해 구출되었다.

그후 부대본부 정보참모 보좌관으로 복무하고 휴전이 되어 부대는 대청도로 이동 주둔하였고(병력 1,005명), 1954년 2월 23일에 주한 국제연합 유격군사령관 명의의 제대증서를 받았다. 우리 전 유격군은 UN군사령관과 한국정부와의 협약에 의거하여 1954년 1월 24일 한국군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편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병역법 신분령 제62조(학도의용군 복무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동일자 입대, 동일자 제대)의 규정에 따라 1959년 3월 31일자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퇴역증서를 받았다. 우리 부대는 유격전을 전개하며 전사자가 발생함에 따라 부대가와 추도가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51년 말에 제정하여 애창하였다.

우리 부대는 6·25전쟁에 유일하게 학생만으로 조직되어 참전한 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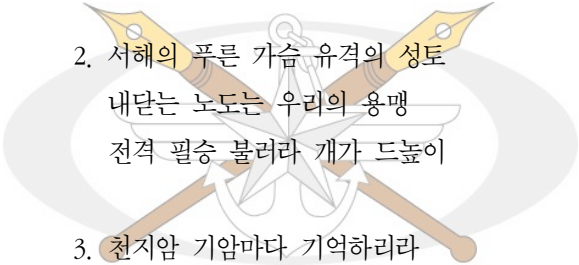
유격부대로 혁혁한 전과를 거둔 한편, 272명의 전사자와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전사자는 현재 대전국립묘지에 위패(시신 없음)를 봉안하였다. 우리는 1996년 6월 1일자로 정부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받았고, 2008년 9월 29일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았다.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6·25 전시실에는 우리 공작대가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 부대가 】

1. 진리와 진리로 이루어 세울
새 세대 창조하는 찬란한 희망
슬기로운 학도의 맹세였건만
(후렴)
나의 겨레 짓밟은 무리가 있어
천추의 원수 찾아 피흘려 싸우나니
아 정의의 기 학도유격부대

- 
2. 서해의 푸른 가슴 유격의 성토
내닫는 노도는 우리의 용맹
전격 필승 불러라 개가 드높이

3. 천지암 기암마다 기억하리라
비호의 뒤흔들은 원한의 음성
송이마다 다시 펴 무궁화되리

【 추도가 】

들어라 교정의 생령아 신도의 혼백아
적탄에 쓰러지며 너의 가슴 피 솟으며
고귀한 너의 청춘 꽃과 같이 지었으니
장하도다 우리학도 D-11 유격부대

#5. 인천 학도의용대와 나

인천 학도의용대 임 영 환

우리는 어려웠던 시절에 학업을 중단하고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참전하였다. 정부는 나라가 안정되면 학생들의 면학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60년이 지났어도 그에 대한 책임있는 대답은 없다. 왜 우리 학도병들이 국가를 위해 피를 흘려야 했는가! 아! 슬프다. 학도병들이여! 나는 후학들에게 학도병들의 애환과 그 당시 있었던 사실들을 남기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1. 학도의용대 조직

우리 학생들은 6·25전쟁 발생 전, 중학교에서 예비역 배석 장교들에 의해 목총을 가지고 주중에 몇 시간씩 학년 별로 중대를 편성해 군사 훈련을 받고 있던 중 남북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인천지역 학년 출신 학생들은 다 같이 모여 호국을 다짐하고, 한데 뭉쳐 학생들의 조직체를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당시 고대 2년생인 이계송 동지를 의용 대장으로 선출하여 지역별로 지대를 구성하고 시내 관공서를 경비하며 치안유지를 담당(6월 28일 군경이 인천을 철수하였을 때)하였다. 또한 피난민들의 안내활동과 군입대자 안내에 협조하면서 학도의용대 조직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7월 4일 북한군이 인천을 점령하자 우리는 개별적으로 피난길에 오르기도 하고, 일부는 지하에 잠적하였다. 그후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천이 수복되면서 여러 방면으로 흩어졌던 동지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현인고 출신 이계송 동지의 지시 및

조직으로 각 지대(북구, 동구, 서구, 부평, 남동, 계양, 주안 해성) 책임자를 선임하여 각 지대 산하 지역 시민들의 안전 방법 활동을 하며 북한군 치하에 있을 때 협조자들을 색출하여 경찰에 인계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중공군이 개입하자 북으로 전진하던 우리 군대와 유엔군이 부득이 철수작전에 들어갔다. 따라서 북쪽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르자 우리는 피난민에 대한 안내 및 지역활동에 임하였다.

1950년 12월 18일, 우리는 국방부 정훈국의 연락을 받고 인천 축현초등학교에 모여 출정식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에 3,000여 명의 학생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인천시민이 28만 명임을 감안하면 한 집에 한 명 또는 두 명이 출정하게 된 것이다. 석파위를 지나 신천리(뱀내장터), 수암을 지나 수원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앞이 안보일 정도로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이 눈은 밤샘으로 걸어서 수원에 도착했을 때 그쳤다. 외가가 수원이었던 나는 하루 이틀 정도 수원에 머무르며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급하게 서둘러 선두그룹을 쫓아갔다. 수원역에 나가보니 모든 피난 열차(화물차)가 남쪽 방향으로 몰려 지체되고 있어서 하루 한 차밖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도착 즉시 먼저 떠나는 차에 매달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2월 22일 경 대구에 도착하여 앞서 간 동지들과 연대장을 만나 그간 경과를 들었다. 우리는 대구에 있던 육군본부에서 학생증과 인천학도의용대원이라는 증명을 교환받고,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대구를 떠났다. 도보로 밀양과 삼랑진을 거쳐 절반은 창원, 마산, 통영 방위군훈련소로, 나머지는 부산으로 가서 모두 배편으로 마산으로 집결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산행 화물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겨울철의 추운 바다 바람과 함께 파도가 너울거려 배가 파도를 넘을 때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러 마산에 도착한 우리는 신마산에 모여 일부는 하숙을 하고, 일부는 방위군 숙소에서 머

물렀는데 해병대에서 함정을 끌고 와 한 차례에 200명씩 신고 진해로 떠났다. 이때 떠난 이들이 해병대 6기생이고, 삼량진, 창원 쪽으로 가던 일부는 해병대 5기생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통영 방위군부대에 입대하였던 동지들과 따로 마산에 떨어져 있던 우리는 마산시청의 배려로 일반 가정에서 각각 분산 수용되어 육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 후 다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로 마산항에 정박중인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2. 훈련소 입소

전차를 타고 부산진초등학교 안에 있는 제2육군훈련소에 입소하였는데 훈련소장은 육군대령 최창언이었다. 우리는 이미 마산에서 여비가 떨어져 군복을 벗어 시장에 나가 팔아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으므로 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첫 주는 제식훈련, 다음 주는 총을 쏘는 자세 및 전투훈련을 받았는데, 여전히 군복도 없이 군모로는 미군들 뜨개질 모자가 지급되었다. 주말이 되어서야 중공군 방한복과 밀양직 군복, 일제군화가 지급되었다. 2주일간 이불로는 모포가 한 개씩 지급되었지만 깔고 잘 요가 없어 마대 속에 벼짚을 넣어 듬성듬성 꿰맨 자루를 학교 마룻바닥에 깔고 잤는데, 벼짚 먼지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식사 역시 밥그릇이 모자라 프라이팬 뚜껑, 물 컵 등으로 먹는 등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고 방위군으로 배치될 것으로 알았지만 일주일 후 우리 소년 학도병에게 군번을 주면서 현역으로 입대하게 하였다. 모든 것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후반 일주일엔 전술 전투훈련을 받던 중 토요일에 범일동 부근 산속에서 사격훈련이 있었는데 1인 M1 소총탄 8발을 사격하였다. 그리고 훈련소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출동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는 또다시 부산진역 서광으로 인

솔되어 가보니 전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승차와 동시에 일부는 서대신초등학교의 통신유선교육대로, 일부는 동대신초등학교의 무선교육대로 분리되어 제2교육을 받았다. 다시 4주 후 교외 교육이 시작되어 야전에서는 24인용 천막을 치고 노천에서 지냈는데, 어느 토요일 외출을 허락받고 1박 2일 외박을 나갔다. 당시 인천의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인 김영배가 부산에 피난을 나와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동료인 최준갑, 이용준과 하루 밤 신세 지게 되었다. 아침에 영배 어머니께서 객지에 나와 고생한다며 재치국을 사다 주셨다. 처음 먹어보는 것이라 맛이 있었다.

훈련을 받던 중 진눈깨비가 날리는 추운 어느 날 밤, 전 교육생의 비상소집이 있었다. 새벽 1시 경 속옷차림으로 연병장에 집합하니 포복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모래바닥을 기는 바람에 배에 상처가 생겨 피가 맺힌 교육생들이 많았다. 군에서 군인정신을 투입하기 위해 처음 받는 훈련이었는데, 우리 교육반 구대장이 서울공고 출신인 김정균 하사라 특별히 기압을 덜 받았다.

1951년 4월 28일 우리는 무선교육 후 3기생으로 전방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육군훈련소의 수료자들은 이등병이었지만 우리는 일등병 또는 하사 계급으로 다시 열차를 타고 전방을 향해 떠났다. 먼저 대구 제2보충대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나는 수도사단으로 배치되어 5월 10일까지 대기중이었다. 그동안 각 중대별로 체육활동을 하는데 한번은 기간요원들의 제의로 육군병원에서 퇴원해 대기중인 병사들과 우리 인천학도병들과 기마전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젊고 팔팔한 입장인데 병사들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보다 연령도 높아 대적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3. 통신병으로 전방에 투입

5월 10일 드디어 우리를 인솔하기 위해 수도사단 통신부에서 트럭 2대

가 왔다. 북한에서 내려온 10명과 인천 출신 45명 전원이 대구 보충대를 떠나 울진을 거쳐 동해안 바다를 끼고 북으로 북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흙물인 서해 바다와는 달리 새파랗고 맑은 동해바다는 너무 고왔다. 바다는 파란 물결과 하얀 파도로 일렁였지만 전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무거웠다. 어둑해져서 도착한 강원도 양양에서 석식을 끝내고 다시 트럭에 모든 장비를 싣고 이동을 하였는데 어느 곳으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뜬소문으로 철의 삼각지(양구, 김화, 철원)에서 중공군과 인민군이 합세해 아군을 전멸시키고 남하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사령부에서 주특기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자는 각 연대로 배치되었다. 나는 최준갑 군과 둘이 26연대로 배속되었다. 당시 연대 통신대는 대관령 밑 어느 개울 옆 초가집이었는데, 우리가 현지에 도착하니 통신대장인 대위가 “귀관들, 지금 몇 살인가?” 하고 물었다. 아마 하도 나이가 어려 보여 기가 막혔던 모양이었다. 2~3일 후 최준갑 군은 다시 55연대 창설부대로 전출되고 나는 홀로 연대CP(후방 보급지휘소, OP-전방지휘소)에 머무르며 삼척으로 이동하였는데, 길가 무연탄의 까만 먼지가 바람이 불면 날아와 얼굴이 검정색으로 물들었다. 그후 나는 다시 강릉 방향으로 이동하여 간성을 지나 산골짜기의 연대본부 무선통신소에서 서울 출신 이종열 하사를 만났다. 그도 학도병출신이라 서로 마음이 통하였다. 통신소 옆 산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잘려 있었는데 이상히 여겨 땅을 파보니 김칫독이 묻혀 있었다. 2~3일 후 김칫독은 없어졌지만, 그때 먹었던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후 6월 18일, 2대대로 전출되어 CP에 가서 1박 후 이등중사의 안내로 19일 아침 전방을 향해 출발하여 산골짜기를 거쳐 능선을 따라 올라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산의 이름이 향로봉이라 하였다. 파란 하늘에는 솜털 같은 구름이 흘러가는데 높고 높은 하늘 아래 또 높은 산이 있음을 새삼

스럽게 느꼈다. 저녁 무렵 향로봉 우측 능선 정상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는 곳에 대대 OP가 있었는데 전면에는 외금강이 흐르고 있었다.

4. 포화 속에서

그리고 그날 저녁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나는 처음 겪는 전투라 겁부터 났지만 동료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다음날 아침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먹구름 위에 우리가 있었다. 밑에서 구름이 흘러가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름답게 보이는데, 구름 위의 산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마귀가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함을 느꼈다. 새벽에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는데, 멀리 성냥개비 반 정도의 배에서는 불이 번쩍 나고 한참 후에 함포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러다 우리 대대는 외금강 앞 능선 쪽으로 약 2km 정도 전방으로 이동했는데, 전일 작전에서 교전했던 참상이 눈에 들어왔다. 적들은 포와 기관총 및 지뢰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해 시체가 까맣게 타 있거나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널려 있었고, 아군의 시체도 있었다. 그 높은 곳에서 시체를 운반할 수가 없어 그곳에 흠으로 묻어 주었다. 그곳을 지나 다시 전방으로 나갔는데 나는 거기서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 낮이면 일기가 뜨겁고 밤이면 추위 시체가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던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같이 있던 통신대장님 대신에 본대에 와서 육군 대위인 대대장님께 신고를 했는데 보통 신고는 자대만 하게 되어 있어서 의문이 일었다. 대대장님은 내가 인천출신이라 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았다고 하며 이유를 말해 주었다. 그전 함경도 혜산진에 진격하였을 때 부상당한 인천 출신 의용군을 포로로 잡아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나이가 어렸다고 한다. 더구나 높은 산악지역인데다 병력부족 때문에 대대장 연락병으로 운용하고, 적의 부상자 이송관계로 장병이 빠져나갈 수가 없으므로 포로를 사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포로는 그런 사

항을 알게 되자 오해하고 수류탄 자살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천 출신은 독하다고 느껴 사전 사고예방 차원에서 직접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게 하였다고 들었다.

얼마 후 전방 약 2km 지점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10여 명의 수색대가 기습을 감행하였다. 총소리가 콩 볶듯 들린 얼마 후 인민군 취사병이 잡혀 왔는데 도주하다 바위에서 떨어져 무릎이 깨져 걷지를 못하였다. 그는 군인이 아니고 문관이라고 했는데 그에게 정보를 수집한 후 대대장은 수색대 선임하사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다시 향로봉 정상 을 넘어 좌측 능선을 따라 이동하였는데, 산이 높아 구름 속에서 전진하느라 앞이 보이지 않았다. 발아래로는 수백 구의 시체를 밟고 걸었다. 왜 누구를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산골짜기에 와서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지 한심스러웠다. 옛날 같으면 호랑이굴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고 깊은 산속이었다.

작전을 위해 이동하였지만 많은 비로 작전이 변경되어 다시 향로봉으로 철수했는데, 나는 사단 교육대로 차출되어 약 2주간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우리 동기생이 많았다. 교육기간 중 923.5고지를 공격하는 작전이 있었는데 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고도의 작전이 필요하였다. 우리 2대대의 작전은 좌우로 1대대와 3대대가 엄호하며 펼쳤는데 고지를 점령하고 돌아온 동료들의 말을 들으니 적이 퇴각하면서 기관총사수 부사수를 토치가 기둥에 묶어놓고 고참병들은 도망가고 졸병들만 남겨 끝까지 사수하라는 명을 내린 것으로 보였단다. 그곳 점령에 포탄을 얼마나 퍼부었는지 923고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이 돌았다.

교육을 수료하고 복귀하는데 부대가 진부령 정상 향로봉 방향 약 100m 지점에 와 있었다. 대기 중 다시 8월 23일 경 야간에 이동하던 중 전화선 가설을 위해 전선에 나갔던 통신장교와 가설병들에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당하였다. 깜깜한 밤에 이동하며 작업을 하였는데,

전선의 지뢰매설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서 가던 대구 출신 이주영 이등중사가 지뢰를 밟자 연쇄폭발로 뒤따라가던 병사들이 부상당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전사자를 귀환시키라는 명을 받고 현지에 가보니 전사자의 시체가 여기저기 잘려나가고 파리가 엄청 달라붙어 보기가 안쓰러웠다. 시신을 수습하는데 금방이라도 매설된 지뢰가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때 KSC(당시 노무사단에 파견된 인부) 노무자에게 들고오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여 영등포 출신 이등중사와 같이 들어가 둘이서 간신히 들고나왔다. 지뢰가 눈에 보이게 모심듯이 묻어놓아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곳에서 KSC에게 시신 이송을 부탁하고 고지에서 내려오는데 근방에 건봉사라는 절이 보여 이곳이 강원도 고성 근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날 전방에 나가 우리 사단 특공대의 SMG 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중무장한 병사들의 모습에서 적의 침투 시 격퇴할 수 있는 패기를 엿보았다. 전면으로 금강산이 보이고 앞에는 강이 흘렀는데 우측으로는 낙타 같은 산이 보였다. 월비산이란다. 그곳에 우리사단 기갑연대 3대대가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전 적의 2개 군단과 싸워 백병전까지 치르며 적의 무기 20여 트럭분의 장비를 노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강한 군대인가!

적은 야간에 침투, 새벽에는 철수를 반복하는데 가끔 철수하지 않고 국방군을 부르는 인민군이 있다. 정보과에서 조사해보니 6·25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북의 교육을 받고 인민군으로 재투입되어 아군과 적군으로 변장을 하고 자수하며 내려오는 병사가 종종 있었다. 어느 날 정보과 수색대 병사가 전선에 수색을 같이 가자고 하여 산 능선으로 내려가는데 북한군이 죽어 시체가 부패되어 있었고, 우리 전방 좌측으로 가니 밤나무 곶에 밤이 익어가고 있었다. 날씨는 따가웠는데 벌써 가을이었다.

이곳에 머물다 다시 명령을 받고 간성천 남쪽으로 약 1km 지점에 정착

하여 보충병을 받으며 훈련하던 중 우리 26연대장이 이동화 대령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부대를 재편성해 사격 및 공격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우리가 정착한 곳은 밤나무 밑이었는데 아침, 저녁 일조일석 점호 시 떨어진 밤을 줍기 바빴다. 신병들을 보충 받고, 훈련에 매진하던 중 다시 이동명령을 받고 양양, 속초 근방의 인구라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5. 공비 토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다. 또 다시 병력을 보충받고 있을 무렵, 이동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날 날씨는 잊지 않고 있다. 9월 27일 저녁 목적지를 모르고 이동하였다. 속초항에서 승선을 마치고, 20시에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 출발하였다. 얼마 가지 않아 배가 파도에 밀려 좌우로 출렁거렸고 병사들이 뱃멀미를 하기 시작해 갑판 여기저기가 토사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방에 널린 오물을 본 선원이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마 일본 배인 모양이었다. 그 선원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갑판 호수를 바닷물로 깨끗이 청소를 하였다. 9월 28일 나는 태백산의 눈을 처음 봤다. 그리고 저녁 무렵 부산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파도가 심하게 너울지니 선창내의 병사들은 힘이 들어 지쳐있었다. 멀리 부산항으로 불빛이 보였다.

배는 부산항을 바라보며 남해 쪽으로 돌면서 서쪽으로 계속 가더니 9월 29일 여수항으로 입항하였다. 닻을 내리고 부두에 접안하여 하선을 하는데 부두에는 철로길이 놓여 있었다.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인원과 장비점검을 완료하고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 3시 경이 되었다. 그때 화물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화물열차를 타고 한밤에 도착한 곳은 순천 역이었다. 다시 트럭을 타고 순천농업중학교에 도착하니 운동장에 24인용 미군 천막 2, 3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닥에는 벼짚이 깔려 있었다. 여기서 1박을 하고 아침식사 후 또 이동하는데 그곳 출신 병사가 여기가

예전 여수·순천 반란 사건 당시 숨진 사람들이 널려 있던 곳이란단다. 예전 뉴스나 영화에서 잠깐 본 기억이 스쳐갔다. 그후 우리 부대는 광양을 거쳐 섬진강 나루에 도착해서 근방을 둘러보니 다리가 폭격으로 무너져 있었다. 우리는 다시 작은 배를 이용해 하동으로 도강하였다.

섬진강 강가에서 일주일간 휴식을 한다고 하여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하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하동경찰서 악양 지서, 학예지서가 공비들에게 포위되어 위험한 상태이며 하동지구 각 마을의 소 72마리가 탈취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방에서부터 고생을 해가며 이곳까지 왔는데 휴식시간조차 없이 출동명령을 받아 지리산 방향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악양 입구부터 공비와 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동안 공비들은 우리 맹호부대가 하동에 온 것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바다를 통해 철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보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수색대를 악양지서에 보내니 공비는 도망가고 없었다. 그 이유는 전투경찰은 생명을 중요시해서 군인과는 달리 적극적인 전투를 벌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악양면에 들어가니 집집마다 뼈라(선전물)가 붉은 글씨로 써서 붙어 있었다.

그날 저녁 야간 전투에 임하고 있을 때 다시 이동명령이 떨어졌다. 이때부터 지리산 공비토벌이 시작됐다.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응사하며 추격하니 공비들도 놀라웠을 것이다. 전투경찰과의 전투에서는 공비들이 자신 만만했는데 군이 투입되면서 도망다니고, 우리가 수색을 하며 압박하니 갈 곳이 없어 포로로 잡히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악양지서와 학예지서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양쪽 지서 전투경찰이 약 350명 정도 구출하고 쌍계사 방면으로 진군하였다. 쌍계사로 진입해 절 외각에 본부를 설치하였다. 이곳에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인 닥나무가 많았다. 경내에서 아침 점심을 먹고 야간 정찰에 들어갔는데 밤이 되니 날씨가 추웠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니 몸이 노곤해지며 잠이 솔솔 왔다. 아궁

이에 불을 때고 있던 스님이 안쓰러웠는지 걸치는 옷을 주셨다. 새벽녘에 일어나 아침 식사 후 다시 이동명령이 떨어졌다. 여기서 멀지 않은 신흥리 골짜기의 시골마을은 밤낮 가리지 않고 공비가 출몰하여 민간인을 전부 소개시킨 곳이다. 다시 전진을 못하고 수색을 시작하였다. 공비토벌은 사망이 적 진지이기 때문에 항상 공격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야영을 하는데 어둑어둑할 무렵 수색 나간 병사가 어느 집 헛간에서 곱감을 들고 와 여러 동지들과 나누워 먹었다. 이때 암호 담당병사인 영덕출신 박종열 하사가 너무 많이 먹어 배탈이 나는 바람에 급히 의무대 선임하사에게 응급조치를 요청하니 미웁한 놈이라고 꾸짖으며 약과 주사를 놓아주어 나았던 일도 있었다. 이때 하동에서 공비에 탈취된 우(牛)공들의 귀환 소식을 들었다.

다시 얼마 후 이동명령이 떨어져 산골짜기로 이동 중에 인기척 때문에 쫓겨 때가 엄청 많이 날아올랐다. 처음 보는 광경에 일제히 사격을 하자 쫓겨간데없고 대대장께서 질책을 하셨다. 전투하는 군인이 적에게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켰다며 호통을 치는 바람에 혼이 났다.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중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화전민을 만났다. 감자와 옥수수로 연명하고 있어 군용 쌀을 일부 나누어 주었다. 계속 눈이 내리는 능선을 따라 사주방어태세로 경계를 하며 야밤에는 수색을 해야 하니 빨리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웠다. 날씨는 기억에 없다.(나는 통신병이므로 비밀 유지에 해당되는 일지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날짜만 기록하고 있다.) 능선을 따라 계속 전진을 반복하며 정상에 오를 때까지 척후병에게 보고가 없었다. 공비들은 어느 곳에 은신하고 있을까?

우리는 지리산 정상을 바라보며 1515고지를 넘어 마천 방향으로 내려갔다. 운봉으로 가니 군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오후 5시 경 광양 백운산 입구에 도착해 관물을 정리하는데 유별나게 우리 통신대 물건만 없어졌다. 우선 저녁거리가 문제가 되었는데 인근 민가의 주인이 사정을 알고 오늘,

내일 식사는 자신들의 양식으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까지도 그 일을 못 잊는다. 다음날 아침 부대는 백운산 방향으로 진입하여 올라가다가 중간 지점에 대대본부를 설치하였다. 한편 작전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에는 공비 사살 보고를 하면 증거자료로 머리를 잘라오라고 해서 가마니에 넣어 보관해서 상급부대로 운반하였다. 그때도 장난이 심한 병사가 야간에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연락병들을 놀려주려고 가마니에 고구마가 있으니 꺼내다 구워먹자고 하여 연락병들이 밤에 기겁하고 놀랐던 일도 있었다. 백운산 상봉에는 나무보다 갈대숲이 너무 많이 자라서 사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곳에서 2, 3일 작전 중 수색대 요원들과 섬진강변을 수색하며 고개를 넘어오는데 고개 너머 일반가정 장독대에 큰항아리가 있었다. 어느 대원이 약 200m 거리에서 저 독을 맞춰보자고 칼빈총을 발사하는 순간 독에 숨어 있던 공비가 그 자리에서 사살된 일도 있었다. 공비들은 사방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은신하고 있었다. 적들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었다.

부대는 다시 광양 쪽으로 이동 중에 장비를 재점검하고 보급품을 지원받아 운봉을 거쳐 마천으로 투입되었다. 우리는 미명에 마천면에서 흘러내리는 개울 밑을 지나면서 지리산 정상을 바라보려 했지만 너무 높아 잘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경찰대를 지원받아 이동하는데 야간에 이동 중 경찰관 한 명이 총을 쏘다. 정보관이 총을 쏜 순경을 불러 확인하니 오발한 것이었다. 대대병력이 이동중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적이 있었다면 우리는 전멸되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바로 철수하여 마천면 서편 나무다리를 걸어 산기슭으로 약 두 시간 정도 행군하니 부락이 있었다. 그곳에 OP를 설치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땔감으로 삼대 마른 것을 이용하니 연기가 없었다.(땔감으로 나무를 때면 연기가 많이 난다) 저녁식사 후 보병중대는 지리산 능선을 따라 배치되어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밤 10시쯤 무전으로 공비일당이 포착되었음을 알려왔다. 대대장은 비상을 통지하며

전 병력을 1515고지로 이동시켰고, 야간행군으로 새벽 1시경 이동을 완료하자 연대와 사단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사단 전 병력을 야간에 집중 배치하고 새벽에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포착된 공비의 총 지휘관은 이현상이었다. 우리 중화기가 어둠을 뚫고 불을 뿜기 시작하여 박격포까지 동원되어 3, 4시간동안 피아간에 교전이 있었다. 대대장이 기관총으로 윤곽이 보이는 적을 쏘는데도 거리가 멀어 적중되지 않았다. 이날 전 대원이 수색 및 잔당 소탕작전에 투입되어 포로들을 잡아왔다. 그 중에는 1949년 여수·순천 반란사건 당시 입산하여 숨어 지내던 공비가 군단장 칭호를 받으며 지휘하고 있다가 잡혀오기도 했고, 허름하고 나이 많은 촌로도 잡혀왔는데 대퇴부에 포탄 파편에 의한 부상을 당해 뼈가 보일 정도이므로 위생병이 압박붕대로 감아주었다. 이들은 영하 20도 정도의 날씨에 며칠을 굶으며 도주하고 있었다. 대대장이 저녁을 먹이라고 지시해 눈을 녹여 단무지 통조림과 같이 주니 정신없이 먹었다. 공비들은 발이 전부 동상에 걸려 잘 걷지도 못하였다. 그 군단장에게 왜 자수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산에 숨어 다니며 잘 먹고 있다가 죽는 것이 자수하여 매 맞아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다고 하였다. 지리산 정상 쪽으로 세석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공비들의 군관학교이었다. 건너편이 지리산 정상인 1915고지인데 바람이 몹시 불었다. 공비들 중에는 산속에서 결혼을 하여 임신중인 자가 여러 명 있었다. 얼굴은 세면을 못하여 까맣고 손등도 씻지 못해 말을 못할 정도로 더러웠다. 역시 우리도 능선을 따라 피아골을 지나 구례로 진입해 대기중이던 화물열차에 몸을 실었다. 밤에 출발하여 새벽녘에 전주 역에 도착해 인원점검 후 전주농업학교 뒷산을 넘어 완주군 고산면으로 진입하였다. 이날이 1951년 12월 28일, 내가 하사로 진급한 날이다. 다시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데 일반 민가에 접근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 열병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산을 내려가 동쪽 개울 쪽을 바라보며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자리 잡고 보병이 산개 방어에 들어갔다.

이곳은 본래부터 낫감이 유명한 곳인데 미처 따지 못한 감이 주렁주렁 달려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보병들이 감을 따러 산기슭으로 올라갔는데, 흙 묻은 신발자국을 보고 미행해서 공비를 잡아왔다. 전 병력이 수색에 나가 포로를 잡아오기 시작해서 늦은 저녁에는 2명의 여자가 잡혀왔는데 집은 인현동이며 인천여중에 다니는 학생들이었다. 수첩에 기록해놓고 언제든 집에 가면 알려주리라 생각했는데 전선을 다니다보니 눈비에 맞아 수첩이 젖어 뭉개졌다.

이곳에서 명령이 떨어져 진안을 지나 장수로 넘어가는데 팔봉산(팔공산)이 참 깊었다. 산 계곡을 내려가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임실방향으로 10km 정도 이동해 다시 마을에서 임시주둔하고 있는데 통신 가설병이 순경 한 사람을 끌고 왔다. 우리 전화선을 자기네 경찰선으로 연결해 우리 전화선을 단절시킨 것이다. 그 이유는 수시로 공비가 출몰하여 바쁘다보니 전투경찰들이 고장 난 전화선을 수리하는 것보다 양방향으로 끊고 연결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었다. 전화로 연락해 경찰통신계장을 불러 각서를 받고 잘못을 사과받은 후 보내주었다. 그리고 모래재 못미처 청운면 지서 앞 양조장집에 대대 OP를 설치하였다. 그곳 일꾼들이 묵고 있던 곳으로 부락 밖으로는 중화기를 설치하고 지휘소에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작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임실북방저수지 근방에 공비가 출몰한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러던 중 연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임실경찰서장 말이 자기네 경찰이 잡은 공비를 군인이 탈취해 갔다는 것이다. 분명 우리 병사가 잡아왔다고 한다면 경찰과 우리가 잡은 병사 또는 포로와 대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방의 공비 출몰지역으로 작전사항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경찰서로 들어가 확인 결과 경찰이 잡았다는 포로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서장이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죄하고 끝을 맺었다. 또한 경찰서장이 사과의 뜻으로 음식점에서 대대장이하 참모들과 중대장, 작전에 임했던 병사들도 함께 포식을 하게 해주었다.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다

음날 모래재에서 서쪽 산골짜기로 가다가 연대장께서 L-19를 타고 대대장에게 작전을 무선으로 지시하였다. 비행기로 보면 아래가 잘 보인다. 언덕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7~8km 밖으로 공비가 도망가고 있고 위에서는 잡으라고 하는데 거리가 있어 잡을 수가 없어서 작전을 끝냈다.

그 시절 공비들은 배낭에 여비를 가지고 다녔다. 대한민국 은행에서 발행한 백 원 지폐와 북한군이 내려와 인쇄한 백 원 지폐는 번호가 다르다. 그 지폐를 골라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연필과 노트를 구입해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우리는 전날 먹었던 술값을 공비들이 가지고 다녔던 지폐에서 골라낸 화폐로 지불하고 남원 동남방향 모운산 근방에 진을 치고 작전에 들어갔다. 야간에 전화선이 자주 절단되어 스파크가 생기자 대대장이 야간에 전화선 보선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각 중대에 무선으로만 작전을 전달하였다. 산에는 갈대가 많아 수색하기가 어려워 야간에는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었는데 산돼지와 사슴 한 마리씩을 포획하였다며 가져왔다. 원래 작전 중에 잡힌 동물은 병사들에게 피해가 온다며 먹지 않는데 우리는 그 산돼지 고기를 먹었다. 나는 처음 먹어봤는데 기름이 없어 맛이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공비들이 포위망을 뚫고 도피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질러 우리 병사 두 명을 죽이고 탈출하였다. 그래서 작전 중에는 절대로 동물을 사살하지 못하도록 대대장 특명으로 지시가 내려졌다.

다시 부대는 남원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병사들은 몹시 지쳐있었다. 쉬지도 못하고 덕유산 근방으로 이동중에 1연대 1대대장이 보병이 들어가기 전 진입하다가 기습공격을 받아 지프차에 있던 참모와 통신병 등 운전자까지 변을 당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아마도 그곳이 무주군 근처였던 것 같다. 야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행군하기 어려웠는데 저녁도 못 먹고 있던 중에 노루가 한 마리 잡혀왔다. 대검으로 잘라서 구워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 그 당시 눈이 6~70cm 정도 내려 작전을 펼칠 수가 없었다. 이날부터 긴급작전이 벌어져 하루 밤사이 차량으로 3~4회 이동하다보니

어느 때는 전주에 머리를 박기도 하였다. 철모가 없었으면 이마가 깨졌을 것이다.

이동을 거듭하다보니 어느덧 함양에 들어와 있었다. 여기서 경찰토벌대와 같이 전투를 하게 되었다. 우리 대대는 산능선 뒤에, 경찰은 전면에 배치하고 기갑연대와 1연대가 토끼몰이 식으로 내려오며 우리가 그물망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때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능선 앞에 있던 경찰과 우리가 교대하여 공비와 전투를 벌여 완전 소탕하였다. 그리고 다시 휴식도 없이 운봉을 거쳐 구례역으로 이동해 화물차를 탔다.

6. 다시 전방으로

이날은 1952년 3월 19일로 우리는 화물차를 타고 밤새 달려 다음날 13시 경 춘천 야전 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병사들은 6개월간 머리도 못 깎고 목욕도 못 하고 밀양직 광목으로 만든 군복 위에 중공군식 방한복을 입고 산으로 산으로 돌아다녔었다. 누가봐도 거지 중에 상거지였다. 혹시 가족들이 볼까봐 야간에 화물차를 이용해 문을 닫고 밖을 보지 못하게 엄명을 내리고 이동하고 있었다. 화천을 지나 사방거리 좌측으로 가면 사창리 방향이고 우측으로 가면 양구 방향이었다. 우리는 직진하여 계속 달려 북한강변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다리가 없어서 공병들이 로프를 연결하여 출렁다리를 놓았다. 거리는 약 200m지만 간신히 건넜다. 강 뒤편쪽으로 계속 전진하여 목적지에 도착해 전 부대인 3사단 22연대와 우리 수도사단 26연대가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 대대장은 수색대를 전방 독립고지예, 7중대를 전면 배치하여 매일 저녁 적진지에 타격을 주어 아군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방어토록 하였다.

#6. 해병대 돌격 그리고 김일성 고지

인천학도의용대 최 장 석

#1. 중동부 전선을 뒤흔든 “해병대 돌격 앞으로”

당시 계급 이등해병 (해병6기), 당시직책 5중대 2소대 소총수

이 내용은 참전수기 ‘한국전쟁과 해병대’라는 제목으로 2003년도에 해병대사령부에서 공모한 참전수기에 당선된 최장석 씨의 6·25 참전수기 당선작이다.

1951년 9월 2일

우리 2대대 5중대 LD(공격 개시선)에서 초조하지만 결연한 자세로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이 필사적으로 쏘아 대는 총알이 “쌩쌩” 하는 마찰음을 내며 우리 머리 위로 저주스럽게 날아간다.

공격개시선이라고 해서 100m 출발선과 같이 줄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틀 전에 시작된 김일성 고지와 그 고지 주변 탈환작전에서 우리 해병들이 이미 점령한 고지의 8부 능선쯤에서 공격명령을 기다리며 대기 하던 곳이다.

양구 북방 중동부전선의 9월초 날씨는 맑았다. 사실 우리 1연대가 도솔산 전투 후 홍천에서 재정비를 마치고 8월 하순에 전방으로 다시 이동할 때 대원들은 폭우와 안개비로 무척 어려움을 겪었다. 오죽하면 “해병대가 이동할 때는 반듯이 비가 온다”라는 푸념까지 생겼을까!.

홍천을 출발한 2일간의 행군 끝에 편치불이라는 해안분지 근방의 한 고지(900여 m)에서 그 곳을 지키던 미 해병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그리고 공격 당일 새벽 4시 반 경 우리는 명에 따라 진지를 출발하였다. 차가운 하늘에 걸린 달이 우리의 발걸음을 묵묵히 밝혀주었다.

말단 졸병인 우리들 대부분은 어디로 무엇 때문에 이동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날이 밝아 군 앰블런스가 부상자들을 싣고 부지런히 후방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서야 우리는 이제 전쟁터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전날 “1대대가 전투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났다”라는 소문도 나돌았다. 순간 우리 신참들은 당황하며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는데 눈치 빠른 고참들은 그들이 경험한 전투담을 자랑스레 들려주며 우리를 격려하고 안심시켜주었다.

약 6시간의 행군 끝에 우리는 공격대기 지점에 도착하였다. 그때가 오전 11시경. 앞산에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지축을 뒤흔드는 듯 요란하였다. 우리는 전투식량으로 허기를 때우고 총과 대검을 닦고 수류탄을 챙겼다. 그 전투식량은 미군 측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한 것인데, 우리는 지뢰의 위험을 무릅쓰고 길옆에 떨어진 낙하산으로 다가가서 통조림, 과자, 담배, 껌 등을 갖고 왔다.

한 시간쯤 후인 12시경에 우리는 적의 관측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전날 우리 해병들이 이미 점령한 산모퉁이를 돌아 공격개시선(LD)에 도착하였다. 현장에는 김병호 대대장, 김광식 부대대장을 비롯한 관계 지휘관들이 나와서 우리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피아의 교전으로 인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900m가 넘는 고지였지만 산에는 나무가 별로 없었다. 포격 때문이었다.

오후 2시경, 드디어 공격명령이 내려졌다. 우리의 임무는 적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전방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우리 5중대 전원이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경기관총)와 중기(중기관총)의 엄호사격 아래 소대별로 몇 명씩 횡대로 뛰어 나가는 것이다. 작전계획에 따라 3소대가 우일선, 1소대는 좌일선, 그리고 우리 2소대는 중앙 공격을 맡았다.

마침내 내 차례가 왔다.

이미 포격으로 민둥민둥해진 산 능선을 비호같이 한 눈에 띄는 것은 포화로 거무스레하게 타다 남은 나무와 포탄으로 인해 마치 달 표면의 분화구 같이 움푹 파진 곳이 많다는 것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좀 깊이 파진 곳으로 뛰어 들어가 잽싸게 엎드려 주변을 조심스레 살폈다. 이미 이곳저곳에서는 “아이쿠” 하는 비명소리가 총성과 어울려 들려왔다. 부상을 당한 것인데 벌써 적탄에 맞아 전사한 전우도 보였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우리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알이 비오듯 땅에 푹푹 꽂히는 가운데 나는 또 다시 뛰어 내리다가 이번에는 쓰러진 나무 뒤에 바싹 엎드렸다.

적의 기관총과 따발총 소리는 더욱 요란하고 우리측의 인명피해는 늘어만 갔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참상이다. 나는 공격개시선에서 입에 껌을 계속 씹어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긴장과 초조함으로 인한 의식없는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

죽음의 질주는 계속되었다. 몇 m를 또 뛰어 내렸을까, 나는 누가 과 놓은 지 모를 입사호(入仕壕)를 발견하고 몸을 날려 뛰어들었다. 그곳에는 우리 선임하사관(유제현 일등병조)과 3소대장(장석원 소위)이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그 입사호 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큰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며 숨을 가쁘게 내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포화에 놀라 이곳으로 뛰어 들었음이 분명한데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이 하찮은 동물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보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우리는 개구리의 행운을 빌면서 다시 뛰쳐나갔다.

우리는 곧 산밑 계곡에 다다를 수 있었다. LD를 떠난 지 20분만이었는데, 그 곳은 마치 지옥 속의 오아시스와 같았다. 우선 그 계곡지대는 그 동안 포격을 별로 맞지 않아서 나무가 많았다. 차고 맑은 물도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며 세수를 하고 담배도 피웠다. 살아 남

은 자들만의 특권이라고나 할까.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는 육박전에 대비해 착검을 하였다. 무겁지만 M1소총과 앞가슴에 매달린 수류탄도 다시 한번 점검하였다. 준비는 끝났다.

그때 누군가가 “자. 공격이다 가자” 하고 외쳤다. 그 동안 운 좋게 살아서 그 계곡에 모여든 우리 해병들은 소대 구분 없이 뒤섞여서 일렬횡대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공격과 때를 맞추어 적진에 대한 우군의 포사격이 멈추었을 때 적들은 기관총, 수류탄, 소총 등으로 우리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최후 발악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바위 등 잘려진 나무 기타 차폐물 뒤에 몸을 숨기며 적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으며 공격해 올라갔다. 그때 우리는 BAR 신식 무기의 덕을 단단히 보았다.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한발 한발 간격을 좁혀가자. 열세에 몰린 적병들은 진지를 버리고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놈들은 (지휘관 급인 듯) 최후 발악적으로 진지에서 튀어 나와 나무 뒤에 숨어서 권총으로 우리에게 대항하였다.

권총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소지한 화기용 실탄의 재고에 바닥이 난 듯싶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렬횡대로 진격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자들은 좌측이나 우측에 있던 우리 대원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사살되었다.

결국 적은 도주하고 우리는 마침내 고지의 정상에 서게 되었다. 산 아래를 보니까 누르스름한 군복의 적군이 무리지어 도주하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선 채로 또는 무릎 쏘 자세로 무차별 공격을 가하였다. 지금 같은 동족 또는 살인이라는 도덕적 번뇌 때문에 고민했겠지만 그 당시는 오직 먹느냐 먹히느냐의 극단적 논리만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때 나도 선임하사관을 따라 무릎 쏘 자세로 사격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선임하사관이 일어나더니 내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것이었다. 나는 영문을 모르고 바라보니까 이번에는 내 머리를 쥐어박으며 하는 말이

“이 새끼야 고막 터질 뻔했잖아”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쏜 총의 총구가 선임하사관 컷가에 있었던 것이었으며 이러한 일로 나는 선임하사관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았었다.

그런 중에도 적을 물리친 우리는 막 점령한 적의 진지를 수색하던 중에 시체들 틈에 끼어 있던 나이 어린 인민군 병사 한명을 발견하였다. 두 손을 비비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던 인민군 병사는 멀리 있던 선배 해병의 총격을 받았다.

그것은 방금 적들과 전투하면서 가까운 전우를 잃은 선배 해병의 울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전쟁터의 한 단면이었으며,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며 죽은 척 하고 있던 어떤 인민군 병사는 발각되자 배 밑에 깔고 있던 권총으로 자결하는 광경도 있었다.

그리고 적의 벙커 검색은 조금도 후환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벙커 양 출입구에서 사격 자세를 취 한 후 “손들고 나와” 하고 소리를 지른 후 아무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수류탄을 투척하여 후환을 없애기도 하였다. 한번은 우리들이 벙커를 수색하기 위해 접근하자 그 안에서 수류탄이 우리에게 날아왔다. 우리가 민첩하게 대처해서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일이 일어날 뻔하였다. 우리는 즉각 그 벙커에 수류탄을 집어넣었으며 그 벙커는 굉음과 함께 입구로 흩먼지가 뿜쳐 나왔다.

그런 후 우리는 공격했던 반대쪽(적진 방향) 8부 능선을 따라 각자 입체호를 파서 적의 반격에 대비하였다. 그때가 오후 늦은 시간으로 하루종일 전투로 연속적인 긴장 속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 배는 고프고 목도 말라 허기진 배를 건빵으로 달래는 중이었지만 이미 바닥난 실탄과 수류탄을 운반 해 주는 KSC 노무자 아저씨들이 오지를 않아 지휘관들은 물론 우리들은 애간장을 녹이고 있었다.

당시 험준한 산세(山勢)의 처절한 전투상황 하에서 즉각적인 보급은 물론 이곳 최일선까지 헬기가 뜬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

이었다. 나도 야전삽으로 입체호를 폈다. 당시 내가 있던 위치는 산 정상에서 200m쯤 아래쪽에 있었다. 무심한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생지옥 같은 고지에는 어두움이 찾아왔다. 우리 소대장과 선임하사관은 연신 순찰을 돌며 경계태세를 점검하였다. 적진에서는 아무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선체로 경계를 하는데도 잠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다. 잠과의 전쟁도 실전만큼이나 어려웠다. 이토록 평생 견디기 어렵던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전방 적진에서 불길한 징후가 나타났다. 그것은 팽과리와 피리 소리였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중공군과 인민군은 야간공격에 앞서 심리적 효과를 노려 팽과리를 치고 피리를 불었다. 몇 분 후 산 정상 쪽을 방어하던 우리 해병들이 일제사격을 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적이 던진 수류탄이 밝아오는 하늘을 배경으로 우리측에 떨어지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밤새 재정비를 끝낸 적군이 고지의 정상 방향으로 반격을 해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탄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의 우리의 방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겨우 갖고 있는 60mm 박격포로의 대항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상을 지키던 우리 대원들이 뒤로 밀리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우리 모두는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저 아래쪽에서 한 무리의 무장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샌드위치가 된 것이었다. 이때 나는 이제 나는 20년의 짧은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하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욕망이 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낫익은 얼룩무늬 복장에다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단 우리 해병대 6중대 대원들이었다. 그것은 이른 아침을 기해 우리 5중대가 빼앗은 고지를 지나 그 앞 고지 공격에 나선 것인데 구세주를

만난들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있으랴! 우리는 6중대 대원들이 가진 실탄과 수류탄을 나누어 갖고 “해병대 돌격 앞으로”를 산이 떠나갈 듯 외치며 다시 고지를 향해 돌진해갔다.

우리의 드높은 기세에 눌린 적들은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6중대는 공격 목표고지를 점령하고 우리 5중대는 다시 각자가 있었던 입체호로 돌아가 다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이렇게 6중대가 최전방을 맡게 되어 우리 5중대는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따스한 양지 바른 곳에서 나의 M1소총과 선임하사관의 칼빈 M2를 기름으로 닦고 있을 때였다. 주변의 어느 적 고지에서 쏜 직격탄 한발이 내가 있는 진지에 날아 왔다. 순간 나는 날썰게 땅에 엎드렸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적의 직격탄이 떨어진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우리 대원 서너 명이 형체를 알수 없게 죽어 있었다.

이런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일어난 순간 내게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였다. 그것은 내가 손질하여 놓았던 선임하사관의 M2 칼빈총이 간데 온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급한 나머지 조금 아까 적탄에 의해 쓰러져 있는 병사들 쪽에 가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M2를 어깨에 멘 채로 쓰러져 있어 자세히 보니까 그는 인천 출신 장교(소위)였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의 오른팔을 쳐들고 총을 빼 들고는 내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닦던 M2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참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으며 그때 일은 내 평생에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렇게 M2를 임시로 대체해 놓고 편안한 자세로 긴장을 풀으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발 종아리 쪽이 간질거려 들여다보니까 전투복이 조금 찢어져 있었으며 찢어진 전투복 주변이 피로 얼룩져 붉게 물들어 있는 것

이었다. 그래서 바짓가랑이를 올려보니까 그 자리에 적이 쏜 포탄 파편이 박혔는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얼른 위생병을 찾아 치료를 받고 후송할까 하고 생각도 하였지만 그 당시 전투는 워낙 치열했고 또한 희생자도 너무 많아 부족한 병력 때문에 상부에서 그만한 부상으로 무슨 후송이나? 하고 오히려 기합을 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전선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런 후 나는 대대본부에 업무연락 차 간 일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는 아군과 적군의 시체가 즐비하게 뒹굴고 있었으며 어떤 시신들은 부패해서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로 구더기들이 들끓어 KSC노무자 아저씨들이 시신 정리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다.

대대본부에 일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동료의 등에 업혀 하산하고 있는 한 미 고문단 소속의 해병대 병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부상을 당해 고통이 심한데도 우리나라 “아리랑” 노랫가락을 서투나마 구성지게 부르고 있었다. 아마 부상은 당했어도 곧 고향을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었으며 나는 우리 전우들의 시체를 보면서 저 미군은 그래도 행운아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전투하면서 1951년도도 다 저물어 가는 한겨울을 나는 중동부전선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가며 고지에서 지내다가 다음해에 연대본부로 발령이 나 S-3(작전과)의 조성준(구명 : 조용운) 대위 밑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모진 전방생활과 상존하는 생명의 위협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된 행운을 얻은 것이다.(조 장군은 현재 LA거주)

70줄에 선 지금 50여 년 전의 일을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인생을 담으로 살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친구 한동희를 비롯한 먼저 저 세상으로 간 전우들에게 미안한 감도 든다. 한동희는 나와 인천중학교(당시-6년제)에서 단짝으로 같이 해병 6기로 입대했다가 김일성고지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 우리는 신병훈련소에서 그리고 일선 고지에서 만날 때

마다 어서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복을 다시 입자고 다짐하며 서로 위로했었다.

우리 학교동창들은 지금도 매년 그가 죽은 9월 달에 동작동 국립묘지 해병묘역으로 그를 찾아가 술잔을 올리고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한동회를 비롯한 6·25참전 희생자들에 대한 존재는 사실상 망각의 세상에 멀어져가고 있지만 그들과 같이 조국의 산하를 지킨 우리 노병들에게는 그 날의 충성과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히 들리고 있다.

#2. 김일성 고지에서 잃은 단짝

* 이 내용은 김일성 고지에서 잃은 단짝이라는 제목으로 월간 「서해문화」에 기고 한 최장식 씨의 수기(手記)를 게재한 것임.

사람은 어려서 짝궁이라는 친구를 갖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짝궁은 단짝이라는 한 단계 높아진 관계로 발전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벗이 된다. 나에게도 그런 벗이 몇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천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만난 단짝이 둘 있었다. 그들은 한동희와 이찬영인데, 한동희는 수학을 잘 했고 나와 이찬영은 국어를 중심으로 한 문학 쪽에 재능과 취미가 있었다.

그래서 셋이 한데 모여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좋은 점수를 얻고는 하였다. 그런데 한동희는 6·25당시 전사했고 이찬영은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오늘 월간 「서해문화」가 그동안 줄기차게 벌여오고 있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 어린 학도들의 활약상 발굴에 감명을 받아 한동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써보고자 한다. 한동희는 1951년 1월 24일에 나와 해병대 6기생으로 입대해서 그해 9월에 속칭 김일성고지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해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우리 해병1연대는 도솔산 24개 고지를 탈환하는 험악한 공을 세우고 홍천으로 철수해서 전열을 정비하였다. 이때 나와 동희도

잠시 동안의 후방근무(진해) 후 1연대로 전출되어 조국수호의 최전방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내를 건너 산을 오르내리기를 몇 번.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 집결지인 월산령에 다다랐다. 그때쯤 비는 멎은 상태였다. 당시 월산령은 중동부전선의 만대리 분지 북방에 있는 고지 중 일부인데, 이 고지들을 우리가 점령해서 금강산으로 가는 요로를 개척하자는 것이 우리 해병대의 전략이었다는 것으로 들었다.

9월 1일인가 2일 드디어 우리 2대대에게 공격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엇그제까지 책과 연필 밖에 모르던 17세 전후의 우리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는 적에게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희생자가 날 것이다. 당시 우리들은 생애 애착을 갖고는 있었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으며 그래도 무적 해병의 자부심만큼은 어느 누구도 잃지 않고 높은 사기로 전투에 임하였다.

드디어 전투는 시작되었다. 사방에서는 포탄이 터지는 굉음과 콩 볶는 듯한 소총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공격개시 명령이 떨어지면 이 능선을 넘어 앞에 있는 산(나는 이 산이 924고지, 즉 속칭 김일성 고지로 기억하고 있다)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체구에 안 어울리는 무겁고 긴 M1소총을 들고 언덕을 단숨에 넘으니 앞 고지에서 쏘아대는 인민군의 총탄에 완전 노출되고 말았다. 그 순간 옆에서는 “아구” 하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였다. 동료 해병들이 적탄에 맞은 것이다. 그 당시 강원도 전투지역에는 나무가 많지 않았다. 그것은 우군과 적군의 포격으로 나무들이 부러지거나 다 타버려 적의 눈에 쉽게 띄게 되어 있었다.

내 옆에도 적의 총알이 사정없이 와 쏘쳤다. 나는 진해 해병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은폐와 차폐를 계속하며 전진하다가 산 중턱쯤에 누가 파 놓은 것인지 모르는 참호 하나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그리로 뛰어들었다. 그런

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 구석에 놀란 개구리 한 마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개구리와 잠시 같이 있다가 다시 참호에서 뛰쳐나와 동료 해병들과 같이 산 아래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그곳에 흐르는 물을 한 모금 급히 마시고 일렬횡대를 지은 후 “해병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8부 능선 벙커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진을 향해 돌진해 올라갔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은 김일성 고지 뿐 아니라 그후 계속해서 1026고지(속칭 모택동 고지)와 그 주변의 고지들을 점령하는 또 하나의 전과를 올렸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지휘관들은 미국에서 주는 훈장까지 받는 영광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허탈하였다. 그것은 이 전투에서 내 단짝 친구인 한동희를 잃은 것이다. 그의 전사 소식은 나중에야 들어 알게 되었지만 김일성 고지 전투 후 나는 후방에 잠깐 무슨 업무 연락차 가는 길 양편에는 아군과 적군 시체가 즐비했었는데 초가을의 신선한 강원도 산골짜기의 날씨였지만 부패한 시체 썩는 냄새로 코를 막고 지나오면서 이 중에 한동희도 끼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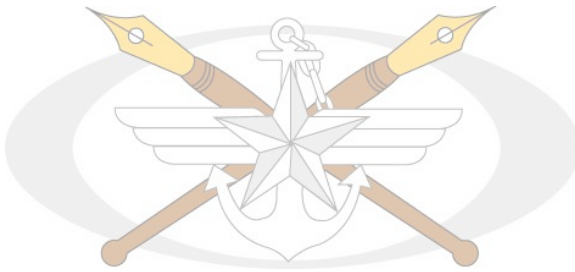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이때 나는 저 속에 있는 한동희가 지나가는 나를 보면서 “너는 재수가 좋아 살아났으니 집에 가거든 우리 부모님께 위로의 말을 전해다오”라는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

당시 한동희 부모님께서서는 동인천역 앞에서 양복점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한번 찾아갔을 때 한동희 부모님께서서는 전사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는데도 자식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셨으며,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후 아버님은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지만 나를 비롯한 중학교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으시는 어머니를 못 찾아뵙고 있다.

6·25 당시 한동희와 같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동지들. 그들이 간지 별

써 반세기가 다가오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70전후의 노인이 되었다. 앞으로 많은 동지들이 질병과 기타 이유 등으로 세상을 뜰 텐데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보면 한동회를 비롯한 전사자들은 우리보다 불과 몇 분 먼저 저 세상으로 간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은 죽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는 해학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절박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루를 열심히 살면 밤잠이 달고, 평생을 성실히 지내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는 명언이 생각난다.



[주요 학도의용군 참전단체 현황]

● 현재 학도의용군 단체 관련 자료

구분	단 체	내 용
1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1. 단체 개관 #2. 전쟁기간 중 활동 #3. 전쟁 이후 활동 #4. 회원 명단
2	대한학도의병 동지회	#1. 단체 개관 #2. 전쟁기간 중 활동 #3. 전쟁 이후 활동 #4. 회원 명단
3	서울학도포병대 동지회	#1. 단체 개관 #2. 전쟁기간 중 활동 #3. 전쟁 이후 활동 #4. 회원 명단
4	6.25참전학도병 동지회	#1. 단체 개관 #2. 전쟁기간 중 활동 #3. 전쟁 이후 활동 #4. 회원 명단
5	인천학도의용대	#1. 단체 개관 #2. 전쟁기간 중 활동 #3. 전쟁 이후 활동 #4. 회원 명단
6	기 타	#1. 전국학련 연혁 #2. 군산 학도의용군 추모회 #3. 태백중학교 학도병 명단 #4. 정훈국 학도의용군 명단 #5. 춘천 학도의용군 명단 #6. 경찰 학도의용군 명단 #7. 제3사단 학도의용군 명단 #8. 제1사단 학도의용군 명단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1. 단체 개관

○ 결성시기 : 1955. 8. 11.

○ 목 적

- 봉사과 희생의 상징인 의용정신을 발휘하여 구폐(舊廢) 쇄신(刷新)한다.
- 조국건국의 선구적 개척자가 된다.
- 지성청년의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단결의 핵심이 된다.
- 민주발전을 위협하는 공산침공을 분쇄하고 국위를 선양한다.

○ 사 업

- 반공사상재무장의 촉진(범국민반공운동의 전개)
- 청년학도의 민족정기함양(학생운동의 지도)
- 사회개혁을 위한 연구발표(계몽운동의 전개)
- 근검한 생활풍조의 조성(신생활운동의 전개)
- 전몰학도병의 기념사업
- 학도의용병현충비 충무탑 기념탑 전적비 및 묘지의 보존

○ 구 성

- 6·25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병적없이 자진 참전한 자로 조직됨.
- 정회원 약 2만, 준회원 약 1만 명을 포괄하고 있으며 8할이 대학교육을 받은 자임.
- 총본부 하에 직할 및 1개 시와 8개 도지부를 두고 예하 각 분회를 통할(統轄)함.

○ 조직(1966. 12. 31 현재)

도별	정회원	준회원	계
총본부직할	4,225	2,512	6,737
부산시지부	711	460	1,171
경기도지부	1,931	824	2,755
강원도지부	2,811	1,713	4,524
충남도지부	825	491	1,316
충북도지부	1,227	981	2,208
전남도지부	2,842	1,192	4,034
전북도지부	875	582	1,457
경남도지부	1,042	512	1,554
경북도지부	3,973	2,228	6,201
계	20,466	11,495	31,961

* 비교 : 정회원 : 6·25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전투에 참가한 자
 준회원 : 대학출신으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

#2. 전쟁기간 중 활동

6·25전쟁 당시 공산괴뢰군의 불법남침으로 조국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자 나이 어린 학도들은 붓을 총으로 바꾸어 쥐고 교복을 입은 채 학도의용군으로 용약 반공구국전선에 자진 참가하였다.

그들은 대부분이 중학교 학생으로(6년제) 16세부터 20세 전후였으며 군번도 없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군의 병력이 15만에 미급(未及)할 때 약 5만명으로 추산되는 학도들이 버려진 총을 주워가면서도 비정규군으로 정규부대에 배치되어 참전하였는데, 낙동강지구를 위시한 포항, 영덕, 다부동, 안강, 영천, 기계, 창녕 및 서북지구전투 등 최후의 교두보에서 접전하였다.

9·28수복과 때를 같이하여 반격하는 북진부대에 일부는 참가하고 일부는 호남지방 및 태백산지구의 공비소탕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또한 약 7,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학도들이 나라의 꽃으로 산화하였으니, 이는 민족정기의 발로로서 만대에 계승될 것이요. 영원히 청사에 빛날 것이다.

1951년 4월 학도의용군의 복교령이 내려졌으나 일부의 학도들은 현역병으로 편입되어 오늘날의 막강한 국군의 기간을 이루었고 일부는 귀향 복교하였다.

현역병으로 편입된 학도들도 휴전 후 점차 제대하여 학업을 계속한 바, 어리광을 부려야할 꽃송이들이 위기에 처한 국운을 바로 잡는데 동참한 것이다. 이는 대한의 자랑스러운 영구불멸할 민족의 기상이었다.

#3. 전쟁 이후 활동

- 1955. 8. 11
학도의용병현충비(영등포구 흑석동) 제막을 계기로 생환학도병이 재결속하여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등록을 필(畢)하다.
- 1955. 11. 26
서울특별시 및 8개도본부 결성 완료하다.
- 1957. 6. 20
학도병의 격전지였던 포항에 전국학도들의 성금으로 전물 학도병의 충혼탑을 건립하다.
- 1957. 8. 15
병역법 제62조 공포(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출정한 자의 예비역 편입에 대한 입법조치)
- 1958. 6. 7
병역법 제62조 시행령 공포되다. 육군본부의 3차에 걸친 조사를 통하여 약 1,800명이 예비역 편입되다.(1961년 12월 병역법 개정으로 제62조 삭제)
- 1962. 6. 6
전라남도내출신 500여 전물학도병을 기념코자 학생 및 뜻있는 인사의 성금으로 전주 덕진동 가련산공원에 순국학도현충비를 건립하다.
- 전국 전물학도의용군 추념식
서울 국립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묘역, 서울 흑석동 학도의용군 현충비, 전주 덕진 가련산공원 내 순국학도의용군 충혼탑

#4. 회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주소)
1	강대용			서울 종로구 구기동
2	경서호			경기 구리시 아천동
3	고상열			서울 금천구 독산1동
4	고영배			제주시 용담2동 359-34
5	구본탁			대구시 동구 신암3동
6	권영대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	권영창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8	김군선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9	김동순			서울 마포구 도화동
10	김상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1	김영기			강원도 강릉시 교2동
12	김영택			서울 관악구 행운동
13	김완기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4	김유환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5	김인태			서울 구로구 오류1동
16	김정규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17	김종각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8	김종원			경기도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33
19	김종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광양동
20	김진만			강릉시 교2동
21	김창균			전북 김제시 백상면
22	김창중			충북 청원군 내수읍
23	김태경			서울 서초구 신원동
24	김화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25	김희원			경기 가평군 가평읍
26	남상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27	노윤희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28	맹옥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9	민경창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30	박광원			인천시 남구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주소)
31	박성규			서울 은평구
32	박성환			안양시 상록수 일동
33	박양호			서울 강북구 수유1동
34	박영환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35	박은병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36	박종은			시흥시 정왕동
37	박태규			서울 도봉구 창5동
38	박헌빈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39	배홍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40	변봉모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41	변중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42	손영준			서울 마포구 상암동
43	손주형			경기 화성시 봉담읍
44	신용희			서울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5	신우석			파주시 파주읍
46	엄시용			서울 관악구 신림3동
47	예종덕			서울 강동구 강일동
48	오상근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49	오태환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50	오혜영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51	위윤수			서울 도봉구 쌍문2동
52	유용근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53	유재식			서울 강동구 강일동
54	육종덕			인천시 계양구 계산3동
55	윤중한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56	윤훈영			서울 노원구 월계2동
57	이계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8	이기문			인천시 동구 송림동
59	이기형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60	이남훈			서울 용산구 이촌동
61	이문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2	이범희			경기 양주군 장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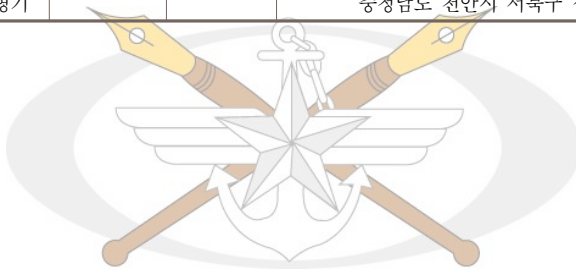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주소)
63	이석동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64	이양수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5	이영근			하남시 천현동
66	이영재			의정부시 고산동
67	이용연			강원 태백시 구문소동
68	이원세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69	이유승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70	이인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	이인호			강원 인제군 인제읍
72	이재권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3	이종달			경북 경주시 안강읍
74	이종섭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75	이종형			경남 밀양시 가곡동
76	이찬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	이창환			경북 영양군 영양읍
78	이학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79	이흥무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0	임종철			전남 광주시 동구 윤림동
81	임태환			대구시 북구 칠성동
82	장완도			서울 도봉구 창4동
83	정연성			서울 동작구 흑석동
84	정일섭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	정창균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86	조성운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7	지희봉			서울 강서구 화곡동
88	최계환			서울 마포구 성산동
89	최기영			포항시 북구 용흥동
90	최봉소			포항시 북구 우현동
91	최성택			안양시 동안구 갑산동
92	최의연			경기 양주시 덕정동
93	최재선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94	최창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주소)
95	최현우			포항시 북구 용흥동
96	하경호			경기 가평군 가평읍
97	한계동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98	홍성린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9	홍수용			서울 성북구 삼선4가동
100	홍순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101	황길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2	황종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103	황철수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4	황환민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05	신재준			군산시 미룡동
106	경기석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107	강대훈			

○ 기타 회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주소)
1	왕선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	정세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3	송기성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4	전귀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5	곽정훈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6	문길수			군산시 신평동
7	황근욱			동두천시 생연동
8	이혜경			경기 양주군 장흥면
9	오세봉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10	김재명			경기 여주군 대신면
11	김근택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12	김종진			서울 마포구 상수동
13	김지호			서울 서초 반포4동
14	주정만			인천 남구 도화1동
15	윤병국			고양 덕양구 토당동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주소)
16	박주성			성남 분당 야탑동
17	오세숙			오산 오산동
18	홍성연			부천시 삼동
19	김중배			순천시 매곡동
20	이종상			서울 마포구 현석동
21	김명순			경기 광주 퇴촌
22	정형성			
23	이강희			
24	김주일			경기 양주 고암동
26	우순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7	박한구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
28	강형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대한학도의병 동지회]

#1. 단체 개관

○ 창립목적

6·25 국난시 병역의 의무도 나라의 부름도 없었으나 자진하여 전장에 뛰어든 구국의병의 신분으로 충진 보국하였다. 그러나 60년이 흐른 오늘날의 현실은 국가나 사회는 우리를 예우하지도 기억하지도 아니하여 이제는 스스로 명예를 찾고자 동지회를 결성하였다.

○ 창립일 : 2010 . 10. 18.

○ 조 직

회원자격 : 정회원 = 1950. 09. 15. 이전 참전 학도
준회원 = 1950. 09. 15. 이후 참전 학도
(소집, 연행참전자 제외)

○ 기 구 : (1) 명예선양 및 기념사업 추진위

(2) 전사편찬위

(3) 현충시설 보존위

○ 지 회 : 서울, 경기, 대구, 울산, 경주, 포항, 강릉, 7개지회

○ 총 칙

본회는 대학학도의병 동지회라 칭한다.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역 회(시, 도별) 지구 회(전선 별), 별칭 회(부대 별)로 자유로이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전쟁기간 중 활동

우리는 6·25의 국난을 맞아 풍전등화의 조국을 구하러 자원 참전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현대의 의병이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그간의 나라실상은 우리를 구국용사로 기억하지도 예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라가 위태할 때 애국의 정도가 무엇인지 옳게 가르치거나 행동하러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잘난 민주화와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상에 매몰되어 참담했던 6·25의 실상마저도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좌시할 수만은 없으므로 우리 학도의병들이 다시 굳게 뭉쳐 나라의 정체를 부정하는 무리에게 분연(奮然)히 맞서 싸우며 끝나지 않은 전쟁에 승리하여야 한다.

#3. 전쟁 이후 활동

- 참전전우 찾기
- 학도의병 전사자(346개교 1,973명) 인적사항 확인 및 유족 찾기
- 학도의병 참전수기 모집발간
- 학도의병 명예선양 및 기념사업 추진
- 학도의병 예우에 관한 특별법 추진

#4. 회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연락처, 보훈번호)
1	주정만		국민대학교	011-9651-600, 13-14010448
2	윤병국		서울경신중학교	010-5577-0184, 21-212289
3	박종은		청주상업중학교	010-8004-2491, 21-191919
4	장진명		단국대학교	016-479-6143, 13-10061473
5	정수득		대구영신중6	010-9371-8745, 21-309911
6	구분탁		안동농림중학교	011-822-6724, 21-300294
7	김일현		대구상업중학교	011-536-6473, 12-30017124
8	정관권		영남중학교	010-5188-1681, 12-30012299
9	윤중환		안동농림중학교	019-460-0724, 12-20012163
10	최한석		신녕중학교	054-794-5977, 11-3003698
11	박계식		영남중학교	010-7280-2331, 13-30012641
12	이태술		신녕중학교	017-544-2271, 11-40023790
13	박인태		동국대학교	010-2680-1257, 21-307832
14	문찬영		대구계성중학교	031-876-7690, 11-15015338
15	구자원		칠곡중학교	010-4504-2908, 21-307784
16	김말문		영남중학교	010-9611-3883, 11-30017091
17	임일재		안동농업중학교	011-9963-3619, 31-303161
18	구연영		서울공업중학교	011-9594-2070, 11-3038464
19	백종흠		대구의대	053-924-8100, 13-30012809
20	황찬호		안계중학교	016-505-6157, 31-302676
21	임동섭		경북중학교	016-818-9091, 31-302837
22	구자역		대구상업중학교	010-3828-8560, 11-30020089
23	신동달		낙산고등공민학교	11-30017152
24	이영창		강릉상업중학교	010-8363-7298, 11-17012839
25	정만교		강릉농업중학교	010-2644-7619, 11-17012938
26	이태갑		강릉상업중학교	033-648-4229, 11-17012712
27	황종찬		경주문화중학교	017-737-3482, 21-173400
28	조규정		강릉상업중학교	033-641-2962, 31-230827
29	최오영		강릉제일중학교	011-370-6244, 11-17011902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연락처, 보험번호)
30	정영표		다사중학교	010-4538-1153, 21-302930
31	전병기		경희대학교	011-9362-3332, 12-30018973
32	이병길		서울공업중학교	31-301409
33	박철규		영남대학교	010-5564-3388, 33-302305
34	김태봉		대구대건중학교	053-622-7440, 31-303861
35	김영식		대구공업중학교	019-526-5591, 31-304493
36	최몽준		신녕중학교	010-7395-1933, 21-17501
37	황하청		안동중학교	016-735-2647, 12-31011556
38	김용진		경희대학교	010-4435-9307, 21-163967
39	정수원		영남중학6	010-4005-3917, 11-12015518
40	송영철		강릉사범	033-648-7132, 11-17017050
41	박학수		영남중학교	11-33011186
42	박진홍		경북의대	053-257-2135, 31-300061
43	이기문		서울중앙농대	016-707-0001, 14-14011501
44	윤훈영		영남대학교	017-710-0778, 31-180118
45	조진현		강릉사범학교	010-5898-8008, 11-12022946
46	이기일		해주농업중학교	010-3336-7539, 32-02834
47	허대선		성진의학전문	017-236-3310, 21-161303
48	서정구		대구대건중학교	010-9287-1197, 31-304219
49	류진수		영주농업중학교	010-8852-4079, 12-31011551
50	장성덕		영주농업중학교	010-3639-4031, 31-011552
51	박양호		동양중학교	011-265-0759, 21-170381
52	장사경		영주농업중학교	054-634-4917, 11-31011553
53	박재호		경북의과대	011-539-4388, 12-32010759
54	장재숙		안동중학교	011-524-5102, 12-30011790
55	이태수		대구농인중학교	019-508-7001, 12-30049645
56	천운학		경북중학교	010-2260-5322, 12-31011554
57	이재호		대구공업중학교	053-424-3138, 31-300840
58	신승갑		주천중학교	070-8267-3636, 11-11917701
59	이준식		강릉상업중학교	010-4398-2627, 31-162972
60	조경구		경희대학교	010-3580-9788, 31-162315
61	이두찬		주문진수산중학교	011-446-4127, 31-200948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연락처, 보험번호)
62	김영렬		강릉상업학교	011-261-3422, 11-11011356
63	이종달		포항수산학교	017-532-3356, 13-33011805
64	이월출		경주문화중학교	010-3732-8733, 11-12011214
65	전재석		영남대학교	053-962-4963, 31-303292
66	김명철		춘천중학교	053-351-1174, 31-302242
67	김수진		포항동지중학교	054-202-6300, 13-33025030
68	어정일		대구공업중학교	010-4133-0307, 11-30023327
69	김수원		대구능인중학교	053-802-2067, 31-302554
70	정도봉		대구중학교	011-9390-3254, 31-301550
71	동승영		북청중학교	053-427-5735, 23-303315
72	류세인		영남대학교	010-2802-0912, 11-030022031
73	김형열		대구계성중학교	017-508-7357, 11-11011356
74	최봉소		대구상업중학교	017-524-2725, 33-400003
75	박성출		포항중학교	011-9858-7541, 11-33011090
76	이춘술		포항수산중학교	011-532-9808, 21-331554
77	정두만		경주문화중학교	010-7160-7105, 31-330081
78	금승호		경주문화중학교	054-242-7667, 11-33010068
79	김문목		포항동지상업고교	010-5625-6001, 33-012307
80	진기하		포항초급수산	011-511-6650, 13-33024870
81	박이만		포항동지중학교	010-9383-3195, 13-33024687
82	박중곤		경주문화중학교	054-751-2714, 21-011535
83	서용수		경주문화중학교	010-5091-5089, 21-330495
84	김석규		경주문화중학교	054-745-5446, 21-049404
85	김태득		경주문화중학교	054-322-0147, 21-3307759
86	김상규		서울중학교	011-330-6161, 11-14038243
87	김춘근		대구공업중학교	053-752-2114, 11-30035657
88	권정열		포항동지중학교	010-5779-2929, 13-33024979
89	박정만		포항수산중학교	010-8780-1426, 17-33204708
90	이정희		울산농업중학교	051-722-7055, 11-40039405
91	박해주		경주문화중학교	054-772-4964, 11-33012625
92	백영석		부산기계공업	051-721-3750, 11-40-019188
93	김귀영		강릉상업중학교	010-4260-3397, 31-174837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연락처, 보호번호)
94	윤영길		안동농림중학교	010-9086-6376, 11-10028817
95	오달준		청도모계중학교	016-503-4103, 21-031986
96	박정환		경주문화중학교	054-772-2915, 11-33011149
97	권오식		강릉농업학교	011-9869-5101, 11-12026719
98	김정옥		대구대건중학교	02-373-2522, 33-168078
99	김학선		강릉농업학교	016-746-8854, 11-17013141
100	정광시		강릉상업학교	010-7544-7858, 11-15012323
101	정상근		서울공대	011-287-6770
102	전선일		주문진수산중학교	010-8181-4143, 11-11015769
103	이종달		봉화내성중학교	010-5833-3633, 11-30023404
104	박석재		일본대진중학교	016-208-1274, 11-11017959
105	주재원		영남중학교	011-701-2697, 1130011459
106	김명래			010-7243-9870, 13-13059025
107	박문수		강릉상업중학교	019-271-6651, 11-17013920
108	유영종		주문진수산중학교	033-662-2637, 11-17015851
109	김수건		포항동지중학교	054-262-6300, 13-33025030
110	배상봉		용문재건학교	010-4495-3357, 11-15027862
111	윤천혁		대구사범본과	010-7703-3890, 31-303524
112	최두영		대구중학교	13-0017230
113	이장우		대구농림중학교	053-424-2094, 31-302027
114	황의곤		무주중학교	010-8321-0236, 13-14046658
115	박용환		강릉상업학교	033-643-3937, 11-17070874
116	남기선		건국대학교	019-477-7146, 11-17015038
117	현상욱		대구중학교	010-5531-3474, 11-30041619
118	여통천		통영수산중학교	031-964-4113, 11-15014699
119	김태복		주문진수산중학교	011-232-4358, 11-17014080
120	정갑시		주문진수산중학교	011-9918-4633, 11-17013622
121	박성우		항공병학교	010-3271-1032, 23-166170
122	김상준		울산농업2	010-5478-6000
123	박차봉		울산농업4	010-5488-4953
124	지치원		울산농업4	010-8269-2753
125	김두현		울산농업4	010-2688-6824
126	이채관		울산농업4	010-5553-7395

[서울학도포병대 동지회]

#1. 단체 개관

○ 설립 목적

6·25전쟁 기간 중 서울학도병 343명이 참전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고 보존하여 후세 청소년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애국정신을 선양(宣揚)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하는데 있음.

○ 설립 일자

1957년 7월 서울용산고등학교에 김종만 김석찬 백근해 등 20명(현역 예비역)이 모여 가칭 “서울학도포병동지회” 단체설립 - 비법인, 임의단체
※ 초대회장 전종락(경기고등학교)



#2. 전쟁기간 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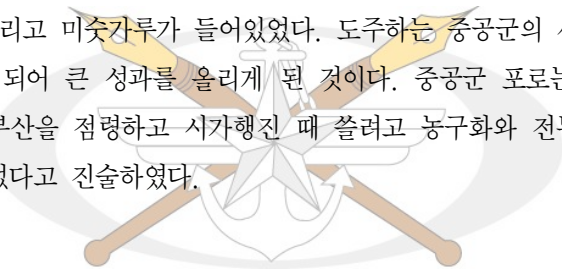
- 서울학도포병 중공군고사포 퇴로차단 전공을 올린다.

1951년 6월 20일경 서울학도포병이 주축이 된 18포병대대는 경기도 가평군 북측방 명지산계곡, 일명 도마재 고개 아래로 이동하여 포진지를 구축하고, 대성산으로 진격하는 육군 제2사단 17연대에 화력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 수색중대로부터 대성산 남측 계곡에 중공군 고사포부대가 있는데, 도주할 도로를 차단 봉쇄해야 한다는 보고가 접수되었다. 이때 제17연대에 중공군 고사포진지에 대한 공격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인접 제31연대의 전선이 뒤에 쳐져있기 때문에, 17연대 전선이 돌출되어 있어 위험이 따랐다. 그리하여 17연대의 진출이 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군고사포부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병의 화력공격으로 퇴로를 차단하라는 작전명령이 18포병대대에 내려졌다. 이때 18포병대대는 연 3일간 중공군고사포진지 앞 뒤 도로를 목표로 하여 주야간 포탄을 쏟아 부었다, 중공군고사포부대는 보급지원도 끊기고 도주할 도로도 꼼짝없이 묶여 있다가 제17연대 공격부대에 점령되었다. 소련제 40밀리고사포 16문과 지스 트럭 20여대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그때 중공군 고사포는 지스 트럭에 매달린 채 있었고 차량상태도 양호하여 아군 운전병들이 모두 끌고 나왔다. 이 작전에서 18포병 서울학도포병들이 우수하고 정예포병부대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 이동신 학도병 중공군 포로를 잡다.

18포병대대 A포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이동신 학도병(용산고)은 1951년 6월 20일경 대성산에 숨어있는 중공군 진지를 향해 진격하는 제17연

대의 보병중대 전방 포병추진관측소에서 근무하다가 임무 교대하고 포진지로 돌아오는 도중에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민가에 숨어 있던 중공군 병사와 마주쳤다. 이동신 학도병은 도망가는 중공군 병사를 추격하다가 1대1로 마주치자 이동신 학도병은 “손들어” 소리지르며 칼빈 소총 총구를 중공군 가슴팍에 들이댔다. 중공군 병사는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이동신은 중공군 병사의 총기를 회수하고 꿰어 엎드리게 한 후 손을 묶어 앞세워 가까이 있는 제17보병연대 본부로 끌고 갔다. 17연대 본부에서 이동신 학도병이 중공군 포로를 끌고오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중공군 포로는 17연대 관계장교에게 인계되었다. 중공군 포로가 휴대하고 있던 전대 안에는 상해제 농구화 한 켤레와 전투복 한 벌 그리고 미숫가루가 들어있었다. 도주하는 중공군의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어 큰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다. 중공군 포로는 8월 15일 이전에 부산을 점령하고 시가행진 때 끌려고 농구화와 전투복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전쟁 이후 활동

○ 주요활동

- ▶ 1975. 10. 20. 6·25참전 25주년 기념행사로 참전부대
(2사단 18포병대대) 방문
- 1박2일 행사로 35명 참석, 당시 흑백 TV 5대 등 위문품 전달 -



- ▶ 1984. 6. 25. 참전 34주년 기념행사로 KBS 6·25특집 방영
- 서울학도병 참전상환 18포병대대 현지방문 편집
- ▶ 1984. 12. 7. 18포병대대 창설 36주년기념행사 참석,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부대창설 기념행사에 참석
- 위문품으로 취사 난방기구, 세탁기, 음향기기, 운동기구 등
- 강성모회장 특별 위문금



- 부대창설기념방문행사, 서울학도병, 대한민국포병전우회 임원, 지역 기관장 등 참석



- ▶ 18포병 강릉지구 6·25전적지 추념행사 참석 지원
- 2005년 이후 매년 참석, 서울~강릉 간 버스 차량지원, 위로금 행사비 보조



〈강릉지구 18포병 전적비 앞 추념식 행사 후〉

▶ 서울학도병 6·25참전 기념비 건립

2005. 10. 20. 6·25참전 55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용산고등학교
호국동산에 기념비(오석 높이 180센티, 가로 200센티)를 세움
- 찬조금 2,500만원, 국가보훈처 보조금 1,000만원



▶ 매년 10월 20일 전후하여 참전 기념행사 개최

- 서울 시내 전우회관 등 연회장소를 정하여 회원위로 행사 등





〈휴전 후 첫모임을 기념한 서울학도병(웅산고등학교 정문) - 1957년 7월〉



〈6·25참전 25주년 기념, 제18포병대대 방문 - 1975년 10월 20일〉



〈제18포병대대 창설 36주년 위문방문 - 1984년 12월 7일〉



〈강성모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기념 모임(신라호텔)〉



〈서울학도병 6·25참전 기념비 건립(2005년 10월 20일) - 참전 55주년〉



〈6·25전쟁 참전 60주년 기념행사(용산고등학교) - 2010년 10월 20일〉



〈6·25참전 57주년 기념행사 - 2007년 10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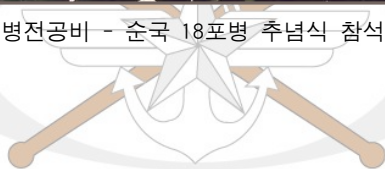
〈참전 60주년 기념사진 - 백선엽장군과 함께〉



〈제18포병대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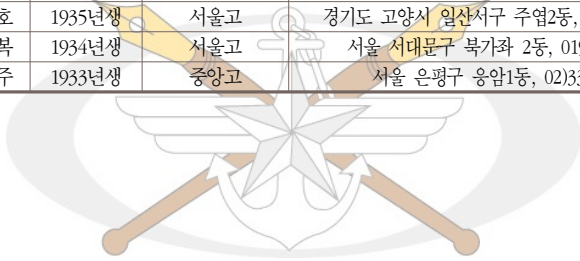
〈강릉지구 포병전공비 - 순국 18포병 추념식 참석(2010. 6. 27)〉



#4-1. 회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주소, 연락처)
1	강성모	1933년생	국립체신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010-5260-1655
2	곽영식	1932년생	수도전기공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010-2936-7041
3	곽준수	1934년생	용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02)563-1576
4	김근배	1930년생	한성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011-348-2823
5	김남중	1932년생	한영고	Holland PA, 18966, U S A
6	김무경	1932년생	용산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011-241-3919
7	김석찬	1934년생	대광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010-5250-2349
8	김응오	1934년생	용산고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41, 010-4697-1184
9	김종만	1930년생	국립교통고	경기도 광명시 철산4동, 02)2612-0571
10	김태희	1936년생	경기공고	서울 서초구 방배2동, 010-6260-9913
11	민경천	1934년생	용산고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011-9740-1447
12	민영옥	1933년생	한양공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13	류인호	1934년생	대광고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011-9533-1147
14	박경선	1934년생	용산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010-6660-7589
15	박병무	1933년생	덕수상고	서울 강서구 화곡5동, 02)2601-8935
16	박성근	1934년생	배재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017-320-3803
17	박영화	1929년생	성동공고	서울 중구 신당6동, 02)2235-3993
18	백형선	1931년생	대광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019-416-5671
19	서재식	1935년생	양정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019-656-5237
20	성낙진	1931년생	서울공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 02)447-3521
21	손득규	1932년생	서울공고	서울 송파구 송파동, 011-219-5287
22	손화규	1935년생	용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 031)904-3939
23	신태윤	1934년생	경동고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033)745-0369
24	안국승	1936년생	중동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010-8641-9485
25	양세환	1934년생	용산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011-9011-2354
26	양진환	1931년생	덕수상고	서울 서초구 반포 1동, 017-224-1797
27	어수성	1931년생	덕수상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010-8316-8867
28	엄인섭	1934년생	용산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031)295-8358
29	우제찬	1934년생	경기공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1동, 02)362-1935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주소, 연락처)
30	윤용철	1932년생	배재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016-227-9360
31	이동신	1935년생	용산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10-5306-6993
32	이상설	1933년생	한양공고	서울 중구 신당6동, 011-9939-5483
33	이순문	1931년생	덕수상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010-4703-0265
34	이재명	1933년생	대광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010-5667-0238
35	이주성	1932년생	성동공고	서울 광진구 광장동, 011-266-7745
36	이흥성	1933년생	덕수상고	서울 은평구 불광3동, 011-302-7747
38	정무석	1932년생	한양공고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동, 02)2688-5490
39	조강수	1934년생	용산고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011-9165-5054
40	진도철	1933년생	경기공고	미국 알래스카주
41	진동권	1932년생	덕수상고	서울 서초구 반포1동, 02)537-4249
42	최경택	1931년생	고려대	서울 마포구 창천동, 02)336-0221
43	최광권	1933년생	한양공고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031)761-9839
44	함경호	1935년생	서울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011-761-0054
45	현재복	1934년생	서울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2동, 019-663-4882
46	황창주	1933년생	중앙고	서울 은평구 응암1동, 02)335-7785



#4-2. 참전자 명부

참 전 자 : 341명 전사·실종 : 112명

명예제대 : 16명 장교임관 : 68명 만기제대 : 145명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임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180	박봉운(朴鳳雲)			전사(51.10.08)
0357181	김능일(金能日)			
0357182	이수열(李壽烈)			실종(51.02.12)
0357183	김보국(金寶國)	경기공업고	임 관	
0357184	권경병(權京柄)			실종(50.11.26)
0357185	최기식(崔基植)			
0357186	김창성(金昌星)			
0357187	김재영(金在永)		임 관	
0357188	이경하(李京夏)			실종(50.11.22)
0357189	이태수(李泰洙)			
0357190	강창교(姜彰敎)	경기상업고		전사(51.02.12)
0357191	최석원(崔錫源)	경기상업고		
0357192	이은규(李殷揆)	경기상업고		
0357193	김근배(金根培)	한성고	임 관	
0357194	곽준수(郭俊洙)	용산고		
0357195	소병일(邵炳一)			
0357196	우광락(禹光洛)	용산고		
0357197	전병욱(田炳旭)			
0357198	양관옥(梁寬玉)	덕수상업고	임 관	
0357199	김수철(金壽喆)			
0357200	김영목(金永睦)		명예제대	
0357201	백형선(白亨善)	대광고		
0357202	차원일(車元一)	대광고	임 관	
0357203	배길호(裴吉浩)	서울고		
0357204	서호원(서호원)	경기상업고	임 관	
0357205	오테봉(吳太奉)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입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206	백근해(白根海)	배재고	임 관	
0357207	임수영(林壽榮)			
0357208	정종욱(鄭宗旭)	한양공고	임 관	
0357209	강석형(姜碩馨)	배재고		전사(52.05.02)
0357210	진동권(陳東權)	덕수상업고		
0357211	안윤진(安潤鎭)	덕수상업고		전사(50.11.26)
0357212	장남숙(張楠淑)	연세대		
0357213	하창용(河昌容)	배재고	임 관	
0357214	윤영삼(尹泳森)			
0357215	홍성운(洪性運)		명예제대	
0357216	우제찬(禹濟瓚)	경기공업고		
0357217	구연수(具然壽)	경신고	명예제대	
0357218	김용운(金龍雲)	서울공업고		
0357219	전영수(全永秀)	한양공업고		전사(50.11.26)
0357220	고기화(高基化)	한양공업고		
0357221	홍순제(洪淳濟)	경신고		
0357222	박순현(朴舜炫)	경신고		
0357223	최봉천(崔奉天)			
0357224	김종석(金鐘錫)		명예제대	
0357225	김상목(金相睦)	배재고	임 관	
0357226	조병승(趙炳昇)	용산고		
0357227	이흥성(李興成)	덕수상업고	임 관	
0357228	안정선(安貞善)	한양공업고		
0357229	정재성(丁在聲)	한양공업고		
0357230	안명득(安明得)	덕수상업고	임 관	
0357231	박성근(朴聖根)	배재고		
0357232	홍석영(洪錫永)	한양공업고	임 관	
0357233	윤수혁(尹壽赫)	한양공업고		전사(51.02.11)
0357234	최광권(崔光權)	한양공업고	임 관	
0357235	이석주(李錫柱)	한양공업고		
0357236	이한표(李漢杓)			실종(50.11.26)
0357237	오보경(吳寶敬)		임 관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임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238	박영수(朴永洙)			전사(50.11.26)
0357239	류하상(柳夏相)			실종(50.11.26)
0357240	민영옥(閔永玉)	덕수상업고	임 관	
0357241	이건조(李建照)			전사(50.11.26)
0357242	김광진(金光鎭)			
0357243	김영수(金榮洙)	용산고		전사(50.11.26)
0357244	강성모(姜聖模)	국립체신고		
0357245	김명관(金明寬)			실종(50.11.26)
0357246	우창규(禹昌奎)	용산고		
0357247	고영만(高永萬)	용산고		
0357248	김운용(金雲容)	용산고	임 관	
0357249	이종우(李鍾雨)	한양공업고		
0357250	이철규(李喆奎)	덕수상업고	임 관	
0357251	김길선(金吉善)	덕수상업고		실종(51.01.25)
0357252	이창원(李昌源)	덕수상업고		
0357253	양준태(梁俊泰)	덕수상업고		
0357254	송동호(宋東鎬)	덕수상업고		
0357255	이선헤(李仙海)	덕수상업고		실종(50.11.26)
0357256	황승열(黃承烈)			
0357257	이순문(李淳文)	덕수상업고	임 관	
0357258	전호영(田鎬榮)	덕수상업고		
0357259	김문환(金文煥)	덕수상업고		전사(50.11.26)
0357260	정수남(鄭壽男)	덕수상업고		실종(51.02.11)
0357261	안국승(安國承)	중동고	임 관	
0357262	이상설(李尙尙)	한양공업고	임 관	
0357263	김남중(金男鐘)	한영고	임 관	
0357264	김규창(金圭昌)	덕수상업고		실종(50.11.26)
0357265	김종근(金鍾根)	덕수상업고		
0357266	곽영식(郭永植)	수도전기공업고	임 관	
0357267	윤조영(尹祚永)	덕수상업고		
0357268	조정선(趙漬善)	덕수상업고		전사(51.02.11)
0357269	임후상(林厚相)	선린상업고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임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270	이규복(李圭福)		임 관	
0357271	박홍순(朴興淳)			
0357272	양진환(梁鎭煥)	덕수상업고		
0357273	김현신(金顯信)	수도전기공업고		
0357274	성용호(成鎔鎬)			
0357275	어수성(魚秀成)	덕수상업고	임 관	
0357276	윤기봉(尹起鳳)			
0357277	김학윤(金學潤)			전사(50.11.26)
0357278	최석환(崔錫煥)			
0357279	배광희(裵光熙)			전사(50.11.26)
0357280	원용선(元龍善)			
0357281	임창빈(任昌彬)	덕수상업고	명예제대	
0357282	이창주(李昌周)		명예제대	
0357283	신봉섭(申鳳燮)		임 관	
0357284	민병규(閔丙圭)		명예제대	
0357285	홍성호(洪性浩)			전사(51.02.13)
0357286	김세환(金世煥)			
0357287	김금용(金今龍)			전사(51.02.13)
0357288	김동협(金東協)			실종(51.01.11)
0357289	원종만(元鍾萬)	성동공업고		
0357290	곽도수(郭道秀)	덕수상업고	임 관	
0357291	김자동(金紫東)			실종(50.11.26)
0357292	이현빈(李顯彬)			전사(51.02.11)
0357293	최관길(崔官吉)			
0357294	손영남(孫英男)			전사(51.01.11)
0357295	임한철(林漢喆)			실종(50.11.22)
0357296	김익윤(金益潤)			실종(51.01.11)
0357297	안창석(安昌錫)			실종(51.01.11)
0357298	양동수(梁東洙)			실종(51.01.12)
0357299	민현기(閔賢基)			실종(52.06.04)
0357300	윤종식(尹鐘植)			실종(51.01.11)
0357301	윤용철(尹龍徹)	배제고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임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302	박상규(朴相圭)	용산고		실종(50.12.14)
0357303	성낙경(成洛敬)			실종(50.11.22)
0357304	김정배(金鄭培)			
0357305	한명수(韓明洙)			전사(51.01.11)
0357306	지용태(池龍泰)	용산고		실종(51.03.13)
0357307	윤갑준(尹甲俊)	용산고	명예제대	
0357308	최대기(崔大基)	서울고	임 관	
0357309	함인수(咸仁秀)	서울고		
0357310	박종호(朴鍾浩)	서울고	명예제대	
0357311	정경호(鄭慶浩)	용산고		
0357312	이태관(李太寬)	용산고		실종(50.11.22)
0357313	엄인섭(嚴寅燮)	용산고		
0357314	정석규(鄭錫圭)			실종(51.02.12)
0357315	현재복(玄載福)	서울고		
0357316	민경천(閔庚泉)	용산고		
0357317	이규성(李圭成)			실종(51.02.12)
0357318	이상흥(李相興)			
0357319	정춘진(鄭椿鎭)	용산고		전사(53.02.21)
0357320	오강세(吳剛世)	용산고		
0357321	이정진(李正進)			
0357322	김동익(金東翼)	대광고		전사(51.02.12)
0357323	최시식(崔時植)			
0357324	윤 자(尹 紫)			실종(50.12.14)
0357325	반국조(潘國祖)			실종(51.02.12)
0357326	최 호(崔 昊)		임 관	
0357327	이태균(李泰均)	용산고		전사(51.02.12)
0357328	김시택(金時澤)			전사(51.02.20)
0357329	유병철(劉炳哲)			전사(51.01.12)
0357330	김근배(金根培)	용산고		실종(51.02.12)
0357331	유대찬(俞大贊)			
0357332	이병성(李秉成)	용산고		실종(51.02.12)
0357333	김상열(金相烈)		임 관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임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334	이현재(李賢宰)	용산고		
0357335	양세환(梁世煥)	용산고		
0357336	이주성(李周星)	성동공업고	임 관	
0357337	김기선(金基善)		임 관	
0357338	이태극(李泰極)			
0357339	정세진(丁世鎭)		임 관	
0357340	차태오(車泰五)			
0357341	송종구(宋鍾求)			
0357342	최후열(崔厚烈)			실종(51.02.12)
0357343	이용규(李容圭)		명예제대	
0357344	임수길(林秀吉)			
0357345	안창열(安昌烈)			
0357346	임상빈(任相彬)	용산고	임 관	
0357347	이춘길(李春吉)			
0357348	김동기(金東基)			
0357349	문이관(文利官)			전사(51.03.13)
0357350	조상오(趙相五)	성동공업고		
0357351	한장환(韓章煥)			전사(51.02.11)
0357352	이석운(李錫運)			
0357353	최승남(崔承南)			
0357354	김진연(金振淵)			
0357355	이연우(李連雨)			
0357356	이성원(李聖源)			
0357357	이하우(李河雨)			실종(51.02.12)
0357358	김익호(金益湖)	경기고		전사(50.11.26)
0357359	김진호(金鎭護)			전사(50.11.26)
0357360	어해선(魚海善)	덕수상업고		
0357361	손화규(孫華圭)	용산고		
0357362	장태영(張泰榮)	용산고		
0357363	류인호(柳仁昊)	대광고	임 관	
0357364	김기성(金基成)	성남고		
0357365	윤 정(尹 正)		임 관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임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366	김현춘(金顯春)	용산고	임 관	
0357367	엄명석(嚴明石)			
0357368	박인식(朴璘植)			
0357369	안종배(安鍾培)		임 관	
0357370	김용훈(金容勳)			
0357371	임종필(林鍾必)	용산고	임 관	
0357372	최창선(崔彰善)	용산고		
0357373	안용주(安龍柱)	경기공업고		
0357374	엄종성(嚴鍾聲)	선린상업고	임 관	
0357375	김신희(金信鎬)	용산고		
0357376	김중호(金重昊)	서울고		전사(50.11.26)
0357377	조수권(趙守權)	용산고		전사(50.11.26)
0357378	이영식(李榮植)	용산고		전사(50.11.26)
0357379	현영욱(玄永旭)			
0357380	김광수(金光洙)			
0357381	경진수(慶鎭洙)	용산고		
0357382	이남희(李南熙)			전사(50.11.26)
0357383	김학수(金學壽)			전사(50.11.26)
0357384	임병규(林炳圭)			전사(50.11.26)
0357385	박영화(朴榮華)	성동공업고	명예제대	
0357386	유성근(兪成根)		명예제대	
0357387	김봉용(金鳳龍)			실종(50.11.26)
0357388	황성춘(黃成春)			
0357389	송효성(宋孝成)			
0357390	최인호(崔寅虎)			
0357391	안필규(安弼圭)			전사(50.11.26)
0357392	방한승(方漢昇)			
0357393	박재호(朴在浩)			전사(50.11.26)
0357394	신종성(申鍾聲)			
0357395	이종교(李鍾校)			
0357396	이준협(李準俠)			
0357397	이해수(李海洙)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임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398	전기도(田基道)	용산고		실종(50.11.26)
0357399	전헌수(田憲秀)			실종(50.11.26)
0357400	이원재(李元宰)			실종(50.11.26)
0357401	조영만(趙永晩)	경동고	임 관	
0357402	정자근(鄭紫根)			전사(50.11.26)
0357403	최호혜(崔昊惠)			
0357404	전종락(全鍾洛)	경기고		
0357405	조태환(趙泰桓)	경동고	임 관	
0357406	송달호(宋達鎬)	용산고		전사(50.11.26)
0357407	신태윤(申泰允)	경동고	임 관	
0357408	조병숙(趙炳肅)	경동고		전사(50.11.26)
0357409	조강수(趙剛秀)	용산고		
0357410	오기환(吳吉煥)	경동고		전사(50.11.26)
0357411	조한오(趙漢五)	경동고		전사(50.11.26)
0357412	한택수(韓澤洙)	용산고		전사(50.11.26)
0357413	김기명(金箕明)	송문고	임 관	
0357414	경재천(慶在天)	저울고		전사(50.11.26)
0357415	김영철(金永喆)			실종(50.11.26)
0357416	김종만(金鍾萬)	교통고	임 관	
0357417	김창균(金昌均)	성동공업고		
0357418	고명환(高明煥)			실종(50.11.26)
0357419	이남희(李南喜)			
0357420	박병무(朴炳茂)	덕수상업고		
0357421	임연태(林淵泰)	서울공업고	임 관	
0357422	김호환(金昊煥)			실종(50.11.26)
0357423	홍재기(洪在基)			전사(50.11.26)
0357424	조은식(趙殷植)	선린상업고	임 관	
0357425	김락재(金洛載)	서울공업고		
0357426	방천옥(方天玉)	서울공업고		
0357427	한태송(韓泰松)			전사(50.11.26)
0357428	최경택(崔京澤)	고려대		
0357429	천동자(千東紫)			실종(50.11.26)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임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430	김동율(金東律)			실종(50,11,26)
0357431	박용석(朴龍石)			실종(50,11,26)
0357432	조장환(曹章煥)			
0357433	박노찬(朴魯贊)		명예제대	
0357434	김덕수(金德守)	용산고		실종(50,11,26)
0357435	김관호(金官鎬)	용산고		실종(50,11,26)
0357436	김응오(金應五)	용산고	임 관	
0357437	이공준(李孔駿)	서울고		실종(50,11,26)
0357438	김우진(金禹鎭)	용산고		
0357439	이우용(李雨用)	용산고		전사(50,11,26)
0357440	함경호(咸景浩)	서울고		
0357441	박일남(朴一男)	용산고		
0357442	윤기병(尹基炳)	용산고		전사(50,11,26)
0357443	윤선일(尹善一)	서울공업고	명예제대	
0357444	정무석(鄭武錫)	한양공업고	임 관	
0357445	정봉훈(鄭奉勳)			
0357446	김학춘(金學春)			전사(50,11,26)
0357447	이종수(李宗洙)		명예제대	
0357448	조덕환(趙德煥)	용산고		실종(50,11,26)
0357449	이 영(李 煥)	서울공업고	임 관	
0357450	손득규(孫得奎)	서울공업고		
0357451	김홍규(金洪奎)			
0357452	강기섭(姜起燮)			전사(50,11,26)
0357453	성낙진(成樂振)	서울공업고	임 관	
0357454	김규원(金圭源)			전사(50,11,26)
0357455	최덕용(崔惠鏞)	서울공업고		
0357456	김종성(金鍾成)	서울공업고	임 관	
0357457	박성철(朴成哲)			전사(50,11,26)
0357458	황용구(黃龍九)			
0357459	최서교(崔序敎)	선린상업고		
0357460	진도철(陳到哲)	경기공업고		
0357461	박경선(朴慶善)	용산고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임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462	최과정(崔科正)			실종(50, 11, 26)
0357463	박영석(朴榮錫)	성동공업고		
0357464	주성연(朱聖演)	용산고	임 관	
0357465	주강호(朱康鎬)	용산고	임 관	
0357466	이정석(李廷錫)			전사(50, 11, 26)
0357467	김태희(金泰喜)	경기공업고		
0357468	이승구(李勝九)			
0357469	김무경(金武卿)	용산고	임 관	
0357470	우학명(禹鶴命)	서울공업고	명예제대	
0357471	옥시윤(玉時潤)			
0357472	강경진(康敬鎭)			전사(50, 11, 26)
0357473	김준곤(金俊坤)	경동고	임 관	
0357474	방한경(方漢卿)		임 관	
0357475	방한남(方漢南)			실종(50, 11, 26)
0357476	손무연(孫武淵)		임 관	
0357477	김경재(金璟載)	국립체신고		
0357478	최창하(崔昌河)	대광고	임 관	
0357479	유한수(柳韓壽)		임 관	
0357480	최순영(崔淳英)			전사(50, 11, 26)
0357481	김성재(金星在)		임 관	
0357482	홍영모(洪永模)	용산고		
0357483	이재명(李在明)	대광고		
0357484	진충하(陳忠夏)	선린상업고	임 관	
0357485	이정구(李貞九)	용산고		실종(50, 11, 26)
0357486	서재식(徐在植)	양정고		
0357487	박태복(朴泰福)	용산고		전사(50, 11, 26)
0357488	최인환(崔仁煥)	용산고	임 관	
0357489	박승화(朴勝和)	용산고	임 관	
0357490	이대권(李大權)	용산고		
0357491	이동신(李東新)	용산고	임 관	
0357492	임태식(林泰植)	한영고		전사(50, 11, 26)
0357493	김경준(金慶俊)			

군번	성명(漢字)	학교별	임관·명예제대	전사·실종
0357494	이관휘(李官徽)	한성고		전사(50, 11, 26)
0357495	양흥선(梁興善)			전사(50, 11, 26)
0357496	김석찬(金錫燦)	대광고	임 관	
0357497	안상규(安相奎)			전사(50, 11, 26)
0357498	최찬영(崔贊永)			실종(50, 11, 26)
0357499	박용선(朴容善)			실종(50, 11, 26)
0357500	김동준(金東俊)	성동공업고	임 관	
0357501	김태승(金兌承)	용산고		
0357502	황창주(黃昌周)	중앙고		
0357503	권동성(權東星)			실종(50, 11, 26)
0357504	문도원(文到苑)			실종(50, 11, 26)
0357505	문경선(文敬善)			전사(50, 11, 26)
0357506	정경호(鄭京浩)			
0357507	황윤상(黃潤相)			실종(50, 11, 26)
0357508	편학구(片鶴九)			
0357509	이시윤(李時潤)			
0357510	최재옥(崔在玉)			
0357511	김석인(金錫麟)			
0357512	유한기(劉漢基)			
0357513	이상학(李尙學)			
0357514	김익환(金益煥)			
0357515	하경선(河景善)			
0357516	장중근(張仲根)			
0357517	정국헌(鄭國憲)			
0357518	이석두(李錫斗)			
0357519	설규용(薛圭鎔)	서울고	임 관	
0357520	오정주(吳貞柱)			
	김남학(金南鶴)	서울고		전사(50, 11, 26)

[6·25참전학도병 동지회]

#1. 단체 개관

- 1990년 7월 생존 학도병 출신들은 친목 애국 명예를 지표로 사회단체를 결성
- 학도병참전기념비건립
- 전적지에 학도병위령비(충혼탑) 건립
- 1994년을 원년으로 본회주관 추모제거행
- 낫선 산골서 해멜 전우들의 고향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유해발굴에 최선을 다함.
- 발기인 명부(12명)
 - 여수중학 : 김승현, 한선담, 김영치, 문명석, 정효명, 조동훈
 - 순천매산 : 허만위, 김선중
 - 여수수산 : 강삼규, 박순배, 우명주
 - 여수상업 : 심보라

#2. 전쟁기간 중 활동

저희 동지들은 전쟁발발 18일만인 1950년 7월 13일 여수·순천 그리고 인근 6년제 중학생 180여명이 당시 순천 주둔 육군5사단 15연대(연대장:

중령 이영규)에 지원입대하여 직할중대(중대장: 중위 정태경)를 편성, 기초 훈련 중 대전이 점령당하자 UN군의 방위선에서 제외된 전북 방어에 22일 22시에 투입된 전국최초 순수학도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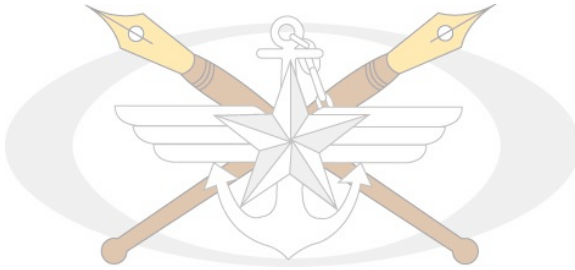
소총뿐인 학도대는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임실군 관촌에서 적군에 밀려 경남 도계인 하동군 화개에서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6사단 선봉대와 맞섰으나 화력에 밀려 학도병 70여 명이 입영 12일만에 사상 및 실종되었습니다.

진주로 퇴각한 학도대는 29일 오후 진주를 마지막 철수한 부대로 함안. 가야 전투에 참전했으며 최후 교두보인 낙동강 방어 시는 창원군 진동에 배치되어 미 25사단과 진지 사수작전 펴다가 학도대 병력이 90명 이하로 감소되자 부대를 해산하고 하사관학교에 입교하였으며 20여 명은 신편된 7사단 5연대를 따라 팔공산 전투에 참전하는 등 현역에 편입된 사병은 1~7년을, 장교임관자는 10~30년을 복무하고 예편하였습니다.

#3. 전쟁 이후 활동

- 1990. 1. 13. 발기인 모임
- 1990. 7. 13. 전국에 흩어진(기존 순천지방 학도병회 포함)동지들을 규합 친목, 애국, 명예를 지표로 “6·25참전 학도병동지회”로 개편
- 1991. 3. 30. 하동군에서는 국도와 전적지간 도로 및 계단을 시멘트 포장
- 1993. 6. 25. 본회 건의로 전남도비 5,000만원, 시비 500만원, 본회 500만원으로 여수 진남체육공원 내에 “6·25참전 학도병기념비” 건립

- 1994. 7. 11. 본회, 전라남도에 사회단체 신고필
- 1994년을 원년으로 본회 주관으로 매년 7월 25일 전적지에서 추모제 거행
- 1997. 3. 30. 하동군에서 군비 3,000만원으로 충혼탑 1기, 가묘 1기, 국도에서 충혼탑간 180m 도로 및 계단을 재포장함.
- 1997. 7. 25. 전적지 입구 노천, 추모식장에 위령비 건립(기금은 회원들 모금)
- 2007. 4. 24. 본회 건의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전국 최초 학도병 유해 10구 발굴, 대전현충원에 안장



#4. 회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계급, 주소)
1	강동희			
2	강봉민			
3	강삼규			
4	강학권			
5	고병현			예)중사, 전남 순천시
6	곽정태			
7	곽창국			
8	구성재			
9	김 번			
10	김공열			
11	김관수			
12	김기정			
13	김병상			
14	김병수			경기 남양주시
15	김병채			
16	김선종			
17	김성기			
18	김성태			예)대위, 전남 순천시
19	김순현			예)대위, 전남 여주시
20	김승현			
21	김영철			
22	김영환			
23	김용학			
24	김우식			
25	김윤주			
26	김인식			
27	김인표			
28	김인호			
29	김장수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계급, 주소)
30	김재열			
31	김종근			
32	김종만			
33	김종식			
34	김종환			예)하사, 전남 완도군
35	김주환			전남 목포
36	김중배			예)하사, 전남 순천
37	김중한			
38	김진한			
39	김차석			
40	김창영			예)대위, 전남 순천
41	김철은			
42	김한종			
43	김회종			
44	남영우			
45	노금용			
46	라영수			예)중령, 서울 강동구
47	류근성			
48	류삼용			
49	명노형			예)하사, 전남 고흥군
50	문명석			
51	문영희			예)하사, 경기 안산시
52	문인호			
53	박노현			
54	박명서			
55	박봉래			예)하사, 부산 동래구
56	박성현			
57	박순배			예)병장, 전남 여주시
58	박영문			
59	박영준			
60	박영진			
61	박영하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계급, 주소)
62	박인수			
63	박인홍			
64	박재실			
65	박종근			
66	박종호			전남 순천시
67	박춘규			
68	박행수			
69	박형순			
70	방지근			
71	백문기			
72	백형용			
73	서금석			
74	서기선			
75	서병혁			
76	서순석			
77	서재열			
78	서정술			
79	서정식			
80	서포수			
81	선병기			
82	성은관			전남 순천시
83	손갑기			
84	송여수			예)대위, 경기도 수원시
85	송원종			
86	송태희			
87	송형선			
88	신남호			
89	신봉식			
90	신성수			
91	신재풍			
92	신준호			예)중사, 서울 금천구
93	신창순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계급, 주소)
94	심보라			예)병장, 전남 순천시
95	안창식			
96	오덕주			
97	오중인			
98	우명주			예)일병, 전남 여주시
99	유국종			
100	유길종			
101	윤후근			
102	이광수			
103	이기영			
104	이길래			
105	이낙을			
106	이동수			
107	이성수			예)대령, 서울 관악구
108	이순주			예)하사, 전남 여주시
109	이정홍			
110	이종만			
111	이준희			
112	이진실			
113	이태병			
114	이해선			예)중령, 광주시 남구
115	이형선			
116	임광준			
117	임국영			
118	임근호			
119	임동준			
120	임상영			
121	임장윤			
122	임재규			
123	임재택			
124	임점식			
125	임정학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계급, 주소)
126	임종진			
127	임종철			예)상사, 광주시 동구
128	임준택			
129	임채영			예)중사, 전남 순천시
130	임희주			
131	장균의			
132	장덕수			
133	장봉선			
134	정남수			
135	정덕모			
136	정동섭			
137	정병택			서울시 양천구
138	정태문			
139	정태식			
140	정효명			예)이병, 서울 종로구
141	정휴조			
142	조동훈			경기도 부천시
143	주영갑			
144	주해량			예)상병, 전남 여수시
145	최만길			
146	최석용			
147	최영환			
148	최정환			
149	최홍균			
150	하재경			예)하사, 부산 동래구
151	한경수			
152	한국태			
153	한병수			
154	한선담			예)하사, 서울 관악구
155	한영구			
156	한용진			
157	허 정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계급, 주소)
158	허만위			
159	홍종만			
160	홍종순			
161	황갑선			
162	황갑열			
163	황봉현			
164	황의국			
165	황장현			
166	황치항			
167	황학선			
168	황호겸			
169	구성계			예)상사, 광주시 광산구
170	김영평			전남 여수시
171	진교언			예)이병, 전남 여수시
172	최병철			예)하사, 전남 여수시
173	황치양			예)하사, 전남 여수시

[인천학도의용대]

#1. 단체 개관

우리들은 전역 후 인천학도의용대 봉사정신을 살려 육군과 해병대 군별로 조직활동을 하였으나, 1998년 군별 없이 통합 인천학도의용대 6·25 참전회로 발기조직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갖고 2001년 우리들의 1차 숙원사업인 학도의용대의 호국과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조국수호를 위해 전사한 200여 명의 공훈을 후대와 후학들에게 남기기 위한 인천학도의용대호국기념탑을 인천시의 영달로 건립, 인천 자유공원(맥아더 동상뒤편) 양지바른 곳에 건립하여 국가보훈처지정물로 정하고 매년 10월 18일 각계 내빈과 유족 및 전 회원을 모시고 2011년 제13회 추모제를 갖은바 있으나 현재까지 비영리단체입니다.

우리 6·25참전 학도의용군은 학도의용군의 법적단체 설립을 위하여 제 16대 안경률 의원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17, 18대까지 이르렀으나 국가보훈처의 미온적인 처사와 아울러 예기치 않은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의 반대로 18대에서도 기각 폐기되었음을 심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도의용군은 1955년부터 국방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전국 14개 권역에서 각기 조직활동을 이어왔으며 2009년 전국 학도의용군을 대한학도의용군전우회(가칭)로 통합함으로써 더욱 힘차게 도약하여 명예로운 삶을 갖고자 하며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2. 전쟁기간 중 활동

1950년 6월 24일까지는 사회적으로 약간의 혼란은 있었으나 우리 학생들은 평화롭게 학구열에 불타 공부에 열중하였으며, 당시의 중학교(구 6년제)는 학도호국대가 편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련시간이 있어 배석 장교가 제식훈련을 학교마다 가르치던 시대였다.

평화롭던 남한에 6월 25일 김일성 괴뢰집단의 남침으로 인천지역은 1950년 7월 4일 경 인민군의 점령 하에 갇은 악형과 상급학생들을 인민해방의용군으로 징발하여 전선으로 투입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은 지하에 잠적 또는 가족들과 함께 피난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며 암흑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던 차에 유엔군의 도움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인천학도의용대는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 휘하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인천소재 중학교(구 학제 6년) 14~19세, 어린 재학생(3~5년) 3,000여 명으로 학도의용대를 조직, 공백상태인 내 고향의 치안과 반공활동을 실시하였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됨에 따라 인천학도의용대는 1950년 12월 18일 인천축현초교 운동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길을 택해 국가의 안위가 풍전 등화와 같은 패망의 위기에 처한 내 나라 구국과 자유수호를 위한 희생정신으로 남하하였다. 이어 선발대원 700여 명은 마산에서 해병대로, 1,300여 명은 부산에서 육군으로 자원입대하여 부산진 소재 육군 제2훈련소에서 단기훈련 2주 과정을 마친 후 전방 사단에 분산배치되어 최일선을 전전하며 어린 학생이 아닌 현역병으로 험격한 공훈을 세웠으나 200여 명의 전사자와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마산에서 해병 5~6기생으로 입대한 인천학도의용대 역시 전방의 보병 및 포병으로 배치, 치열한 전선의 전사가 되어 구국전선에서 싸웠다.

우리 학도병은 어리석게도 휴전이 되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계속 군에 잔류하여 4~6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함으로써 소중한 학창시절의 학구열을 박탈, 희생양이 되었으며 저학년의 몸으로 사회의 밑바닥에서 힘겨운 산업역군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온 일생일대의 통한의 희생자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린 재학생의 몸으로 구국을 위해 전쟁 속으로 뛰어든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귀영화나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학교에서 배운 화랑도정신의 조국수호와 구국일념으로 자신들의 살신 충정이라 자부하고 험난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학도의용군은 국제법상 징집을 금하고 있는 어린 소년들이며 1950년 당시 각급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징집 영장 없이 참전한 특수한 명분의 집단으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와는 참전의 동기와 희생공헌 면에서 엄격히 구분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라나는 후학들과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의 고귀한 순국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과제이며 국가위난 발생시 어린 재학생들도 전쟁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선배 학도병들의 국가관과 나라사랑정신을 이어 받아 조국안위와 자유수호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한 법적단체를 설립하여 후학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학도병들의 명예회복이며 숙원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전체 학도병들의 살아 숨쉬는 마지막 희망이며 지금까지 인내하며 참았던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명예회복의 답례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투쟁으로 성취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가 수년 전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단체설립과정 중 기존 보훈단체 등이 자신들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단순 이기심의 이유만으로 반대, 많은 시간낭비 및 애로와 고초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일학도의용군은 이미 50년 전인 1962년부터 법적단체로 승인되어 교육, 취업, 의료 등의 각종 예우와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재일거류동포로서 병역의무와 무관한 학도(19~40세 미만)들이 공산괴뢰군의 침공으로 전쟁에 휩싸인 모국의 위기에서 소수지만 참전으로 공훈을 세웠음은 인정, 그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보답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내의 학도의용군 역시 어린 재학생으로 병역의무와는 무관하게 학업을 포기하고 자의든 타의든 생사를 초월한 전쟁터에 투입되어 많은 학우이자 전우들이 포화 속에서 산화되었고, 다행히 목숨을 건져 귀향하였다 해도 자신들의 재학시절의 원대한 꿈은 송두리째 국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로 헌신하였음에도 상기 재일학도의용군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보훈정책 및 입법기관의 당쟁과 미온적인 표심과 수치에 좌우됨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6·25참전 학도의용군의 영웅적 희생은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대한민국만의 값진 유산입니다. 물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19대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전선에서 나라를 위해 함께 피흘리며 싸운 선배님들이 어린 학도의용병들의 실체를 인정해주시고 반대가 아닌 격려와 지원 및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단체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귀한 희생이 6·25전에 참전한 어떤 보훈단체보다 공훈과 국가안보관이 지대함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당당하게 국가의 공헌을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4. 회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입대~제대)
1	김계덕	34.12.04	선행중4	51.06.04~56.11.16
2	고종순	33.05.31	인천중4	51.01.10~54.12.25
3	김관호	33.01.01	인천공업중5	50.12.24~54.08.20
4	김봉환	33.04.01	인천상업중4	51.01.14~57.06.05
5	김동윤	31.09.26	동산중5	50.12.25~54.01.28
6	김대성	34.03.11	인천해성중3	51.01.10~54.05.10
7	김학석	34.01.27	인천해성중4	51.06.20~54.05.01
8	김철현	33.05.05	인천동산중5	53.07.21~56.10.
9	박갑원	31.07.19	대신중5	51.01.21~61.12.22
10	박건재	35.01.18	인천해성중4	51.01.10~55.01.20
11	박봉환	32.03.19	서울대한법학전2	50.12.20~56.07.20
12	박승학	33.06.16	인천해성중4	51.01.24~56.09.24
13	박원양	32.07.09	인천공업중4	51.01.10~56.06.30
14	김좌정	28.11.11	인천신진중3	51.01.24~60.12.
15	신창성	31.12.19	인천공업중4	51.01.10~55.08.02
16	박의근	35.10.08	인천영화중3	51.01.24~55.10.20
17	백계현	32.09.18	인천동산중5	51.01.24~54.09.20
18	백홍규	34.06.18	인천공업중3	51.01.10~55.05.09
19	서기선	33.09.19	인천동산중3	51.01.16~56.06.30
20	서영길	33.03.15	인천공업중4	51.01.16~54.04.23
21	서호근	33.03.15	인천상업중5	51.01.10~55.01.10
22	송승윤	32.02.05	인천공업중6	51.01.10~56.05.30
23	양창희	32.08.27	서울양정중5	51.01.24~55.12.21
24	연장희	33.07.06	인천영화중4	51.01.13~56.06.30
25	오홍인	33.09.22	인천상업중3	51.01.17~52.10.15
26	예필운	31.04.11	인천중5	51.01.20~55.01.25
27	유기덕	32.06.16	인천영화중3	51.01.10~56.06.30
28	유세원	33.08.05	서울용산중5	51.01.24~56.10.21
29	유재덕	32.11.17	인천동산중4	51.01.21~55.02.15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입대~제대)
30	윤기덕	35.01.10	인천상업중4	51.01.10~54.04.26
31	윤영복	33.01.18	인천기계공5	51.01.24~56.09.26
32	윤일병	34.05.23	동인천중3	51.01.20~
33	윤중기	32.04.15	인천공업중5	51.01.21~52.07.05
34	윤홍진	30.10.12	인천공업중6	51.01.24~73.03.31
35	이경화	35.12.29	서울배재중5	51.01.24~58.10.24
36	이민영	31.02.14	서울공립공업중5	50.12.20~54.08.20
37	이병길	34.10.30	서울공업중2	51.01.10~56.06.30
38	이성휘	33.02.02	인천영화중4	51.01.15~54.08.20
39	이세영	35.11.21	인천상업중3	51.01.16~55.05.09
40	이재덕	36.12.10	인천상업중2	51.01.23~57.08.30
41	이재윤	32.03.02	인천중학5	51.01.10~55.02.25
42	이제연	35.07.10	서울동양공업중3	51.01.10~56.06.30
43	이종근	33.03.19	인천상업중5	51.01.16~51.04.10
44	이종창	31.10.23	인천공업중5	51.01.10~56.06.30
45	이중우	32.10.04	인천중2	51.01.15~55.03.25
46	이환	35.01.15	인천해성중4	51.05.15~57.04.10
47	인희형	33.08.10	인천상업중5	51.01.22~65.06.30
48	이진학	31.09.28	인천동산중5	51.01.06~55.12.17
49	문완성	34.05.08	인천상업중3	51.01.24~56.08.20
50	문영우	33.06.26	인천공업중5	51.01.10~53.12.01
51	박규철	33.07.25	인천상업중5	52.02.18~70.09.30
52	송택규	34.05.08	인천해성중3	51.01.20~56.06.30
53	임영환	34.08.09	인천영화중3	51.01.10~55.01.10
54	장덕진	34.02.13	인천상업중4	51.01.24~56.09.23
55	장성택	31.09.10	인천공업중4	51.01.15~62.02.28
56	장운중	33.03.25	인천영화중4	51.01.24~
57	임봉학	33.08.05	서울동양공업5	51.01.10~51.06.21
58	정구성	33.04.20	인천상업중5	51.04.20~53.09.02
59	조병갑	33.06.25	인천공업중4	51.01.11~57.01.05
60	조두행	32.10.01	인천상업중4	51.01.04~52.02.16
61	차용기	31.08.05	인천영화중3	51.01.15~55.09.04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입대~제대)
62	채홍수	32.01.04	서울송문중4	51.01.20~51.08.15
63	최석철	33.11.05	인천공업중4	52.03.15~59.01.05
64	한부수	32.04.10	강화고등공민교중1	51.01.20.~54.07.01
65	한일현	30.07.22	서울청구중3	50.12.20~56.07.23
66	홍성업	34.03.05	인천공업중4	51.01.15~56.06.30
67	하연용	33.05.13	인천공업중5	51.01.12~79.05.31
68	권혁소	33.07.06	인천중5	51.01.07~56.06.03
69	김재욱	34.04.29	서울동신중3	51.01.20~57.04.10
70	김종선(璇)	31.09.01	인천영화중4	51.01.24~54.03.28
71	김종선(仙)	32.09.01.	인천중5	51.01.15~56.12.07
72	김종업	33.11.05	인천영화중3	51.01.24~56.09.05
73	노영남	33.12.04	인천공업중5	51.01.24~55.11.07
74	박준영	34.03.16	인천해성중2	51.01.24~55.01.01
75	서충식	33.08.27	서울조양중4	51.01.21~52.01.15
76	손은준	35.07.16	인천공업중4	51.03.01~53.06.05
77	송덕영	33.05.17	인천공업중3	59.06.08~59.07.31
78	이동호	33.07.30	인천해성중4	51.01.24~56.09.27
79	이상건	30.03.04	인천동산중6	51.01.01~59.09.12
80	이세형	32.12.20	인천상업중5	51.01.14~55.04.14
81	이용재	33.10.23	인천상업중4	51.01.15~53.05.10
82	이윤근	30.11.11	인천공업중5	51.01.11~53.05.30
83	윤병철	30.04.09	인천해성중3	51.01.24~58.09.23
84	장진석	33.09.26	인천공업중4	51.01.10~54.05.01
85	정기석	32.06.25	인천상업중5	51.01.24~56.09.23
86	정명호	32.09.14	인천상업5	51.01.23~56.01.15
87	정태원	31.03.15	성균관대1	51.01.24~53.01.03
88	조병구	32.12.06	인천동산중4	51.12.01~52.04.10
89	조정환	34.08.18	인천중3	52.09.01~58.06.11
90	조순업	30.04.05	인천동산중6	51.01.07~56.06.05
91	천지선	32.11.10	인천공업중5	51.01.24~56.09.23
92	최동환	33.11.14	인천영화중3	51.01.24~56.08.23
93	최명환	31.07.21	서울동양공업중5	51.01.24~56.08.05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입대~제대)
94	이기연	31.04.27	서울중앙농대1	51.01.10~56.06.30
95	임윤순	31.06.16	인천공업중6	51.01.10~56.06.30
96	허혁	31.12.23	인천영화중3	51.01.24~54.09.30
97	한희성	31.11.15	인천공업중6	51.01.24~55.12.07
98	강태진	29.10.27	인천동산중6	50.09.24~56.03.31
99	김좌정	28.11.11	중대인천학관1	51.01.24~60.12.
100	이명범	36.05.04	인천해성중2	50.12.21~57.06.30
101	이석순	30.04.16	서울광명중3	51.01.28~57.11.10
102	이장재	34.01.20	연안중4	51.01.10~55.01.10
103	유덕택	32.12.05	인천중5	50.12.18~53.07.08
104	이강덕	31.05.17	인천중4	51.01.24~52.11.01
105	김현생	32.08.16	인천상업중4	51.01.24~56.06.30
106	장부옥	33.10.04	인천공업중3	51.01.04~51.11.25
107	김진성	32.04.25	인천공업5	51.01.24~56.09.23
108	이재수	29.01.08	서울동대문광동중2	51.01.24~58.07.
109	황주병	34.12.22	인천영화중3	51.01.24~54.08.20
110	민상기	32.03.20	인천공업중4	52.11.04~57.04.01
111	김상익	31.10.23	인천해성중5	51.01.24~58.12.20
112	김선우	34.03.17	인천공업중4	51.01.10~56.06.30
113	김용우	31.08.06	서울공업중5	51.01.10~52.12.10
114	김영환	34.05.01	인천동산중3	51.01.10~56.06.30
115	김윤규	30.08.15	서울한양대학1	51.01.20~55.08.16
116	김은혁	34.08.11	인천상업중4	51.01.24~56.11.01
117	김익수	33.03.26	인천해성중4	50.12.24~52.02.15
118	김재복	31.01.28	서울대학교1	51.01.20~55.03.25
119	노창우	31.04.05	인천공업중4	51.01.12~54.07.15
120	박명계	28.10.30	인천상업중5	51.01.12~54.05.05
121	박정오	34.01.05	인천상업중3	51.01.10~55.02.10
122	홍경화	35.12.15	인천상업중5	51.01.10~58.10.15
123	홍종만	33.12.30	인천상업중5	51.01.10~51.09.05
124	신지성	33.02.07	인천상업중4	51.01.24~53.08.15
125	권태영	28.04.14	경기공업공업중6	51.01.10~55.11.19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입대~제대)
126	권택환	33.10.20	인천중5	51.01.10~55.08.09
127	강태국	31.02.08	인천동산중6	51.01.21~55.10.23
128	김광수	32.09.10	인천공업중4	51.01.04~56.09.15
129	김기익	33.10.10	인천상업중3	51.01.11~52.07.15
130	김덕현	31.04.03	서울건국대1	50.11.03~53.01.28
131	김문갑	33.02.27	인천상업중5	50.12.27~53.06.01
132	김병수	33.07.22	인천상업중4	51.06.04~55.06.25
133	사석환	31.08.23	인천중2	51.01.24~56.08.23
134	송병철	32.07.13	인천공업중3	51.01.25~56.07.09
135	오남환	33.07.02	인천상업중4	51.01.24~56.06.10
136	유명근	35.08.10	인천상업중2	51.01.~56.01.
137	유상열	34.04.28	인천상업중4	51.01.10~52.01.15
138	이강준	32.01.01	인천상업중6	51.01.24~73.09.30
139	이광용	34.03.20	인천공업중5	51.01.24~54.09.30
140	이상신	32.11.19	인천상업중5	51.01.20~54.09.10
141	이성일	31.01.12	인천중4	51.01.24~54.06.20
142	이예화	32.04.21	인천동산중5	51.01.24~55.12.08
143	이의달	32.03.23	인천상업중5	51.01.24~57.08.20
144	이종우	33.01.07	인천중4	51.01.10~
145	이종인	35.12.07	인천중2	51.10.01~53.09.30
146	이철수	32.04.20	서울덕수상업중4	51.01.15~57.04.10
147	장인순	32.06.20	인천동산중3	51.01.15~57.05.10
148	전건식	33.02.18	인천중3	51.01.10~55.02.
149	정동순	29.07.16	인천신신중3	52.02.29~56.02.19.
150	정세택	33.12.13	인천상업중5	51.01.24~54.08.20
151	주정진	33.01.06	인천동산중5	51.01.10~53.12.
152	조동두	32.02.01	인천영화중4	51.01.21~51.08.15
153	차충원	34.06.30	인천영화중3	51.01.10~51.12.20
154	조윤환	32.11.03	신진중3	51.01.24~56.09.18
155	최병윤	33.09.28	인천공업중4	51.01.20~54.03.25
156	최용복	32.05.25	인천상업중4	51.01.12~53.11.12
157	최종배	31.08.15	인천공업중5	53.01.31~73.02.28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입대~제대)
158	홍경화	35.12.15	인천상업중5	51.01.10~58.10.15
159	홍종만	33.12.30	인천상업중5	51.01.10~51.09.05
160	박철준	31.10.06	인천중5	51.06.04~52.04.06
161	이광호	33.09.11	인천상업중5	50.12.26~56.04.20
162	손홍근	33.09.27	인천상업중5	51.01.24~84.08.20
163	심현대	32.08.14	인천동산중4	51.01.24~55.10.31
164	강성표	30.12.05	인천상업중5	51.01.14~54.08.20
165	경석재	34.06.03	인천상업중5	50.12.27~53.04.01
166	권태범	31.06.14	강화중5	51.01.10~54.11.
167	김연배	32.05.08	인천영화중4	51.01.10~55.02.10
168	김탁수	31.09.23	인천상업중6	51.01.23~57.08.20
169	문병학	32.01.25	인천공업중4	51.01.11~55.12.20
170	박의준	34.03.10	인천해성중4	50.01.15~70.02.28
171	이병철	32.07.11	인천공업중5	52.07.02~55.09.16
172	이성희	33.08.24	인천중4	51.01.10~54.11.20
173	이순신	33.07.27	인천동산중5	51.01.10~55.02.15
174	임승도	36.03.28	인천상업중3	51.01.04~51.12.31
175	이태봉	33.11.13	인천동산중4	51.01.14~54.08.20
176	이상순	32.01.08	인천공업중5	51.01.10~55.07.27
177	계범수	33.05.06	인천영화중3	51.01.24~56.08.05
178	김영준	33.08.25	인천해성중3	51.01.24~53.09.18.
179	김영근	35.06.24	인천공업중3	51.01.20~56.12.10
180	김재은	31.03.07	인천상업중6	51.06.02~54.12.19
181	김춘식	35.05.25	인천중3	51.01.21~54.04.18
182	김태성	32.04.27	인천영화중4	51.01.24~56.09.23.
183	김평일	34.08.02	서울동신중4	51.01.24~58.08.
184	류광열	30.01.07	인천공업중4	51.01~54.04
185	민우기	31.08.19	인천중6	51.01.24~54.08.11
186	박명수	34.02.20	인천영화중3	51.01.24~55.05.09
187	변종구	33.02.22	인천공업중5	51.01.24~52.11.29
188	손홍근	30.02.06	인천상업중5	50.09.05~52.12.10
189	송세환	32.03.23	인천공업중5	50.12.~55.0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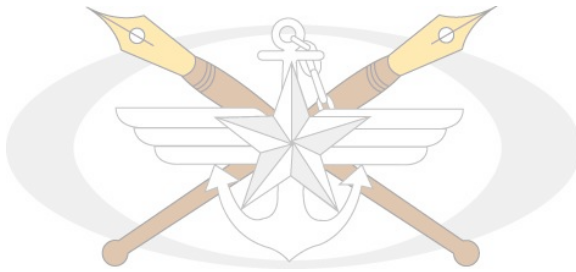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입대~제대)
190	송태일	33.11.19	인천중학5	51.01.20~53.08.
191	심혁완	28.12.25	인천동산중6	51.01.24~53.04.30
192	안윤정	32.08.07	인천동산중4	51.06.04~52.0302
193	오정진	33.08.11	인천공업중4	51.01.24~53.04.30
194	오재근	31.01.21	인천해성중2	51.01.21~51.09.14
195	이광규	32.12.05	인천중5	51.01.24~54
196	이경수	34.05.04	인천중4	51.01.21~55.02.10
197	이수영	31.09.24	인천공업중6	50.12.30~56.03.31
198	이정구	36.09.27	인천중3	50.10.~54.12.
199	전봉천	32.02.20	인천상업중3	51.01.24~55.10.01
200	정대연	29.09.03	서울감리신학대2	51.01.10~53
201	정수훈	32.09.12	인천상업중5	52.02.01~53.07.03
202	차용만	31.07.30	인천중4	1952.12.17~58.07
203	최경환	30.08.02	인천중6	51.01.21~57.03.30
204	최희준	33.10.29	인천영화중4	51.01.24~56.08.05
205	한경희	31.09.22	인천공업중3	51.01.24~52.03.13
206	한점수	33.08.01	인천공업중3	51.01.21~54.11.10
207	윤정섭	30.11.24	인천상업중3	51.01.24~56.09.23
208	계용남	35.03.27	인천상업중3	51.01.20~54.07.
209	문제열	34.02.22	인천해성중3	51.01.10~55.12.31
210	박신웅	33.12.02	서울동성중5	50.12.20~56.02.20
211	송은호	34.10.20	인천동산중3	51.01.14~53.10.20
212	백재익	32.10.21	인천기계공업6	51.01.24~52.11.01
213	유문길	33.01.15	경성상공중5	50.12.01~63.06.
214	유재학	32.10.02	인천중5	50.10.~57.03.
215	이형모	30.05.15	홍익대학교2	50.12.20~52.01.03
216	이황	35.01.15	인천해성중4	51.01.10~57.04.10
217	임명재	34.10.19	서울중3	51.05.24~55.05.24
218	조광재	32.06.23	인천기계공업중5	51.01.21~54.12.31
219	정근	34.03.10	인천기계공업중5	51.01.10~55.12.25
220	유육목	33.01.10	인천상업중4	51.01.10~54.12.25
221	서인옥	33.03.28	인천여자상업중5	51.02.~
222	최춘우	33.06.20	인천방문여중5	51.02.~

[전국학련 연혁]

#1. 전쟁기간 중 활동

일 시	내 용
1950. 06. 25	• 전쟁 발발
06. 26	• 서울 각 학교별로 쫓겨 결의
	• 인천(仁川), 전 인천학도대 조직
06. 27	• 영남(嶺南) 호국단 비상령, 각 학교 순찰
06. 28	• 대전(大田), 반공 학도들 혈서로 참전을 결의
06. 29	• 비상 학도대(非常學徒隊) 조직(수원에서)
06. 30	• 서울·경기 일원의 반공 학도들 속속 대전을 향해 집결
	• 전 인천학도대 인천 관공서 경비 담당
07. 01	• 의용학도대 조직(대전)
	• 충북 백혼단 조직
07. 04	• 광주(光州) 서중 교정에서 학생 쫓겨
	• 인천 애국 학도들 탈출 남하
07. 08	• 대한학도의용대 조직(비상학도대+의용학도대) 부산에 별도의 대한학도의용대 조직
07. 12	• 경남도청 780명 장학회
07. 13	• 군산(群山) 중앙초등학교 교정에 의용군 지망생 집결, 14일 출발
07. 15	• 전북(全北) 학도병 지망 학생 1,500명 전주(全州)역 출발
	• 대전 학도병 지망 학생 대구로 출발
	• 경북(慶北) 도청 앞 광장에서 현지 학생 1차 입대 축하식 거행
07. 16	• 전국학련구국대(全國學聯救國隊) 조직(대구)
	• 경주(慶州) 학생 200명 군 지원
07. 17	• 목포(木浦) 반공 학도 긴급회의
07. 25	• 목포(木浦) 학생 부산에 집결 학도병으로 출정
08. 13	• 8월 1개월간 학도병들은 낙동강 전선에서, 포항, 안강, 기계 등에서 육탄으로 공산군과 싸우며 꽃다운 나이에 산화)
10. 12	• 학무국장, 적색 교원 일소 천명
10. 25	• 전국학련구국대에서 북한 선무공작대 파견
12. 10	• '학련' 선무 공작대 귀경 철수

일	시	내	용
1950.	12. 28	•	대한학도의용대 경기도 본부 산하 2,000여 학도병 지망 학생 납하
1951.	02. 18	•	전시 연합 대학 설치
	03. 16	•	대통령, 학생 복귀 지시
	04. 03	•	학도의용대 산하 정훈 공작대 해산
	04. 14	•	대학생 멸공 구국 대행진
1953.	02. 22	•	전시 학도 총궐기 대회(부산)
	03. 02	•	학도 총진군 격려 대회(중앙청 광장)
	04. 12	•	이승만 대통령 압록강까지 진격 명령
	04. 18	•	출정 학도 장행회(전국적)
	04. 22	•	북진 통일 학도 총궐기대회(부산)
	07. 27	•	휴전



[군산 학도의용군 추모회]

#1. 전쟁기간 중 활동

-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온 강토가 포연에 휩싸여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모교의 4, 5, 6학년 학우 90여 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학도의용군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사범학교는 남녀 각 일개 학급으로서 일개 학급이 60명 정도이며 4, 5, 6년 남학생 총 180명 중 90여 명 약 30% 출전)
- 전투 참전까지의 과정
당시 학도의용군의 出戰과정을 회고해 보면, 북한 공산집단의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 나라가 백척간두의 危機에 처해 있을 때, 師道의 길을 걷고자 學業에 熱中하던 어린 學生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1950년 7월 13일 汽車로 群山驛을 출발하여 全州를 거쳐 南原에 到着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허기진 배를 주먹밥으로 채우고, 夜間 行軍으로 함양을 거쳐 泗川에 到着하였습니다. 訓練을 받지 못한 어린 학생들은 행군하면서 졸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며, 도랑에 빠지는 등 그야말로 고난의 強行軍이 이었습니다.
泗川에 도착 한 후에도 소충이 없어 목총으로 한 달여 동안 訓練을 받으면서, 故郷에 계신 부모형제가 보고싶어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동년 8월 18일, 우리들은 야간이동으로 釜山鎮에 도착하여 軍 수송선인 L.S.T를 타고 포항 남쪽의 九龍浦 海邊에 上陸하여, 이곳에서 陸軍 第3師團에 編入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師團에서 군복과, 철모, 우리 키만큼이나 길고 무거운 M1소총을 支給받았습니다. 그나마 지급받은 소총은 美軍의 剩餘武器라 구리스가 범벅이 되어 있었기에 그걸 손질하는데 무척 고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총사용에 대한 제대로의 敎育도 받지 못한 채(2일간 간단한 敎育), 동년 8월 21일 포항, 안강, 기계의 戰鬪地域에 최초로 참전하였으며, 포항 북방의 천마산 등, 무명고지들을 수차 레에 걸쳐 쌍방간에, 빼앗기고 빼앗는 악순환의 혈투를 전개하였고, 특히 형산강 전투에서는 쌍방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戰爭期間 중 수많은 부상자와 전사자가 속출하였는데. 그 중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29명이 호국의 守護神으로 처절한 犧牲을 당하였지만, 임들의 犧牲의 代價는 끝내 祖國統一로 이어지지 못하고, 護國忠節만이 우리들 가슴 속 깊이 統一의 씨알로 자라고 있습니다.

(현충탑을 건립하기 위한 조사 결과, 호남지역에서 700여 명이 출전하였으며, 군산시 학도의용군은 202명이 전사)

#2. 전쟁 이후 활동

○ 군산사범학교 현충탑 건립에 관한 사항

1) 건립 목적

1950년 6·25전쟁 당시 4, 5, 6학년 학생 90여 명이 학도의용군으로 출전, 동년 8월 21일 3사단에 배치되어 낙동강 전선인 포항, 안강, 기계 전투지역에서 29명이 전사함. 이 산화한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며, 고령화된(80세 이상)참전자들에게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 위국헌신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함.

2) 현충탑 건립 경유

(1) 2005년 1월에는 현충탑 건립을 위한 결단식과 동시에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현충탑 건립위원회를 발족시켰고.

(2) 계속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홍보활동과 동시에 국가보훈처에 예산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6월부터는 동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 그 결과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국가보훈처 6천 2백만 원, *전라북도 도청 1천만 원, *군산시청 1천만 원, 전 동문 찬조금 6천 7백 7만원 계 1억 4천 9백 7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그 외에도 시공회사인 석예석재로부터 설계 등 자료비로 1억 4천여만 원에 해당되는 후원을 받아 건립하였습니다.

(4) 공사는 2006년 5월 9일 계약과 동시에 석재 가공(6월 2일)을 시작으로,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기초공사,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탑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현 현충탑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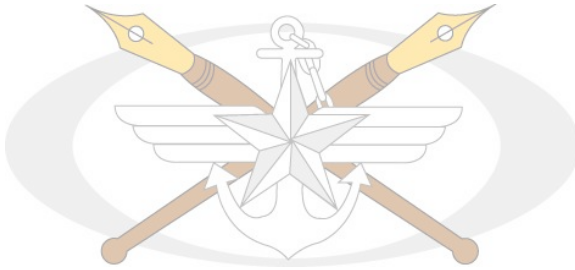
- (5) 기간 중 회장단 회의 23회, 운영위원회 10회 등 전 회원의 의견을 모아 탑 건립에 반영하였으며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 (6) 현충탑을 간단히 소개하면, 탑의 높이는 11m 넓이는 11m × 10.6m이며, 탑 맨 상단은 군산사범 모표인 한글 “사”를 상징하며, 중앙 옥돌에는 헌시, 뒷면은 전사자를 기록하였고, 기단 정면에는 전사자들을 받들도록 비천도를 조각하였습니다. 주 탑 우측 부조 조각은 학생과 군인의 학도의용군의 기상을 조각으로 나타냈으며, 좌측 촛대 조각은 군산사범 연혁을 기록하였고, 그 위에 햇불은 영원하소서의 뜻이며, 뒷면은 옥돌에 교육지표, 회장단, 운영위원, 후원위원, 그리고 805명의 동문찬조자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 (7) 아래 현충탑 사진 참조



전라북도 군산시 나원동 음파공원 내의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현충탑

○ 추모제에 관한 사항

- 1) 2008년 8월 22일 준공과 동시에 제1회 추모제를 거행한 후, 매년 7월중순경(10일을 좌우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음.
- 2) 참석범위
추모회 회원(전국의 회원 300여 명 참석), 군산시 기관장, 35사단 군악대 및 의장대 지원, 시민다수
- 3) 사진첩 참조



#3. 회원 명단

○ 군산사범학교 참전자(전사 및 생존자)

1. 전사자

박영선, 이병림, 김종학, 문백만, 배만선, 송희태, 이진기, 이찬배,
이한용, 초재규, 추대주, 한길만, 김의도, 김형희, 성세경, 최만길,
김계환, 박성춘, 김희옥, 문홍두, 이길금 계 21명

※ 29명중(출전자 30%전사) 21명 확인 8명은 계속 확인중

2. 참전자(생존자)

김효원, 유용수, 이진숙, 송경재, 박영철, 장천옥, 강왕근, 김동열,
고병학, 이병국, 최공진, 채규병, 문희옥, 유흥선, 양한기, 박평숙,
전효엽, 이순화, 조옥진, 안정열, 안효근, 김영순, 이흥구, 김용환,
소관영, 박안적, 고기철, 최한동, 이종열, 장순동, 정재호, 안경열,
이종익, 박봉규, 김순태 계 32명

※ 90여 명이 참전하였으나 전사자 21명 생존자 32명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인원은 계속 추적중에 있음.

* 확인 근거

병적증명서, 학적부(군산대학에 있음), 인우증명서, 전쟁기념관 2층
학도의용군현황, 육군전사감실, 국방부, 전북학도의용군지부, 국회
도서관, 출전자들의 가족 및 친척들의 신고

[태백중학교 학도병]

#1. 회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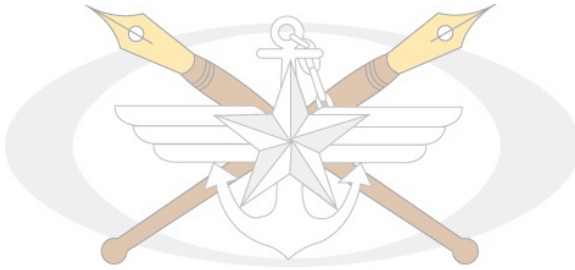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계급)
1	강계창		태백중3	23연대, 51.1.9, 하사
2	고봉학		태백중3	23연대, 51.1.9
3	고완식		태백중2	23연대, 51.1.9
4	구태수		태백중3	23연대, 51.1.9, 하사
5	권시철		태백중	23연대, 51.1.9, 중사
6	권오학		태백중2	23연대, 51.1.9
7	권용낙		태백중4	23연대, 51.1.9, 중사
8	권용섭		태백중3	23연대, 51.1.9, 중사
9	금병선		태백중3	23연대, 51.1.9, 상사
10	금석남		태백중3	23연대, 51.1.9
11	금석만		태백중4	23연대, 51.1.9
12	금육연		태백중	23연대, 51.1.9
13	기명균		태백중	23연대, 51.1.9
14	김경환		태백중	23연대, 51.1.9, 하사
15	김국문		태백중1	23연대, 51.1.9, 상사
16	김명진		태백중	23연대, 51.1.9
17	김봉진		태백중2	23연대, 51.1.9, 중사
18	김상기		태백중2	23연대, 51.1.9, 중사
19	김성진		태백중3	23연대, 51.1.9, 중사
20	김세환		태백중4	23연대, 51.1.9, 중사
21	김시돈		태백중3	23연대, 51.1.9
22	김영균		태백중3	23연대, 51.1.9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 교	기타(부대, 지원일, 계급)
23	김운태		태백중3	23연대, 51.1.9
24	김원국		태백중2	23연대, 51.1.9, 중사
25	김원근		태백중2	23연대, 51.1.9, 중사
26	김응수		태백중2	23연대, 51.1.9, 상사
27	김재봉		태백중	23연대, 51.1.9, 병장
28	김재열		태백중4	23연대, 51.1.9, 병장
29	김재필		태백중3	23연대, 51.1.9, 중사
30	김정용		태백중2	23연대, 51.1.9, 이병
31	김청천		태백중2	23연대, 51.1.9
32	김태옥		태백중	23연대, 51.1.9
33	김해수		태백중	23연대, 51.1.9, 병장
34	김형필		태백중4	23연대, 51.1.9, 중위
35	남경순		태백중3	23연대, 51.1.9
36	문병희		태백중3	23연대, 51.1.9
37	문태진		태백중2	23연대, 51.1.9
38	민경숙		태백중3	23연대, 51.1.9
39	박광열		태백중3	23연대, 51.1.9
40	박기석		태백중3	23연대, 51.1.9
41	박병대		태백중3	23연대, 51.1.9
42	박병소		태백중3	23연대, 51.1.9
43	박성환		태백중3	23연대, 51.1.9, 하사
44	박재하		태백중3	23연대, 51.1.9, 중사
45	박종해		태백중2	23연대, 51.1.9, 인솔교사
46	박효칠		태백중	23연대, 51.1.9
47	백순기		태백중2	23연대, 51.1.9, 병장
48	백영기		태백중3	23연대, 51.1.9, 행방불명
49	백운국		태백중3	23연대, 51.1.9
50	서남수		태백중4	23연대, 51.1.9, 병장
51	손길상		태백중3	23연대, 51.1.9
52	손문석		태백중2	23연대, 51.1.9
53	송기호		태백중3	23연대, 51.1.9
54	송기호		태백중2	23연대, 51.1.9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계급)
55	송점백		태백중3	23연대, 51.1.9
56	송준용		태백중2	23연대, 51.1.9
57	신병낙		태백중2	23연대, 51.1.9
58	신용희		태백중2	23연대, 51.1.9
59	신현태		태백중3	23연대, 51.1.9
60	심상한		태백중3	23연대, 51.1.9, 하사
61	심태섭		태백중	23연대, 51.1.9, 상사
62	안세환		태백중3	23연대, 51.1.9, 하사
63	엄광섭		태백중4	23연대, 51.1.9
64	오성호		태백중2	23연대, 51.1.9, 중사
65	오창남		태백중4	23연대, 51.1.9, 중사
66	원순복		태백중	23연대, 51.1.9
67	원재복		태백중2	23연대, 51.1.9, 상사
68	유병선		태백중	23연대, 51.1.9
69	유수열		태백중3	23연대, 51.1.9
70	윤국식		태백중1	23연대, 51.1.9
71	이경하		태백중2	23연대, 51.1.9
72	이기수		태백중3	23연대, 51.1.9, 하사
73	이명우		태백중3	23연대, 51.1.9
74	이범수		태백중	23연대, 51.1.9
75	이영도		태백중3	23연대, 51.1.9, 중사
76	이용덕		태백중3	23연대, 51.1.9, 상사
77	이용연		태백중3	23연대, 51.1.9, 중사
78	이용운		태백중2	23연대, 51.1.9
79	이운학		태백중4	23연대, 51.1.9
80	이원길		태백중3	23연대, 51.1.9, 중위
81	이원재		태백중4	23연대, 51.1.9
82	이인성		태백중1	23연대, 51.1.9, 중사
83	이재호		태백중3	23연대, 51.1.9, 중사
84	이학배		태백중2	23연대, 51.1.9
85	이희진		태백중	23연대, 51.1.9, 하사
86	임규순		태백중2	23연대, 51.1.9, 중사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계급)
87	임석순		태백중	23연대, 51.1.9, 하사
88	임성모		태백중	23연대, 51.1.9, 하사
89	장덕영		태백중3	23연대, 51.1.9
90	장숙희		태백중2	23연대, 51.1.9
91	장원식		태백중3	23연대, 51.1.9
92	전도철		태백중	23연대, 51.1.9
93	전돈호		태백중3	23연대, 51.1.9, 일병
94	전인화		태백중2	23연대, 51.1.9
95	정기수		태백중3	23연대, 51.1.9
96	정기태		태백중3	23연대, 51.1.9, 중사
97	정낙영		태백중2	23연대, 51.1.9
98	정동관		태백중3	23연대, 51.1.9
99	정범진		태백중4	23연대, 51.1.9
100	정연식		태백중3	23연대, 51.1.9, 일병
101	정연춘		태백중4	23연대, 51.1.9, 대위
102	정원혁		태백중	23연대, 51.1.9, 병장
103	정철화		태백중4	23연대, 51.1.9
104	정춘수		태백중4	23연대, 51.1.9, 중위
105	정해진		태백중2	23연대, 51.1.9, 하사
106	조무창		태백중1	23연대, 51.1.9, 하사
107	조복경		태백중3	23연대, 51.1.9
108	조존연		태백중2	23연대, 51.1.9
109	주동호		태백중	23연대, 51.1.9, 병장
110	주석면		태백중1	23연대, 51.1.9
111	주현구		태백중3	23연대, 51.1.9, 하사
112	채영철		태백중2	23연대, 51.1.9
113	천순선		태백중1	23연대, 51.1.9
114	천영범		태백중	23연대, 51.1.9
115	천학범		태백중4	23연대, 51.1.9
116	최순용		태백중3	23연대, 51.1.9
117	최순학		태백중3	23연대, 51.1.9
118	최완식		태백중3	23연대, 51.1.9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계급)
119	최종권		태백중2	23연대, 51.1.9
120	최형규		태백중4	23연대, 51.1.9, 중사
121	추무환		태백중3	23연대, 51.1.9, 하사
122	하대기		태백중4	23연대, 51.1.9, 하사
123	한상옥		태백중3	23연대, 51.1.9
124	한순갑		태백중3	23연대, 51.1.9
125	허순필		태백중1	23연대, 51.1.9, 중사
126	허영근		태백중2	23연대, 51.1.9
127	허영이		태백중1	23연대, 51.1.9, 상사
128	홍순택		태백중3	23연대, 51.1.9, 중사
129	황두영		태백중2	23연대, 51.1.9, 하사



[정훈국 학도의용군]

#1. 회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참전기록번호)
1	이규원	1925. 6. 2		13-11-024530
2	김상구	1927. 1. 3		13-11-024531
3	이종상	1921. 4. 29		13-10-033262
4	이수학	1926. 3. 2		13-15-020299
5	전한두	1920. 3. 18		
6	이범희	1834. 3. 23		13-12-021171
7	최성택	1930. 3. 2		11-13-025355
8	박성규	1935. 8. 11		13-10-032329
9	정민희	1929. 6. 20		13-15-020722
10	변중섭	1927. 12. 30		13-10-033267
11	김희준	1934. 8. 13		13-12-011506
12	황철수	1926. 3. 10		19-12-021892
13	예종덕	1928. 3. 28		13-13-028661
14	최계환	1929. 8. 19		13-10-034055
15	오세숙	1931. 12. 17		13-13-028721
16	황근옥	1929. 2. 17		13-15-021167
17	이혜경	1935. 2. 18		13-15-021201
18	조숙자			
19	엄기숙			
20	윤천희	1926. 4. 15		19-12-021895
21	최종호	1924. 6. 9		13-33-013573
22	이영재	1930. 9. 25		13-15-021120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참전기록번호)
23	박무성	1922. 12. 17		19-12-021911
24	김영두	1921. 11. 22		19-12-021893
25	이원세	1928. 11. 26		13-14-025605
26	오세봉	1930. 10. 1		13-14-025596
27	김명순	1931. 3. 18		13-13-029378
28	김창명	1927. 6. 21		13-10-030495
29	서영근	1934. 12. 2		13-13-024411
30	전국주	1930. 1. 25		13-12-019582
31	김보현	1928. 2. 28		13-11-021895
32	조의방	1935. 3. 25		13-15-018189
33	한기문	1933. 12. 14		11-11-017346
34	이남훈	1920. 2. 15		19-10-019269
35	이선흥	1927. 5. 25		13-14-016558
36	장성관	1928. 11. 1		13-12-019540
37	황재수	1934. 5. 20		13-10-028975
38	장준근	1933. 12. 15		13-10-035963

[춘천 학도의용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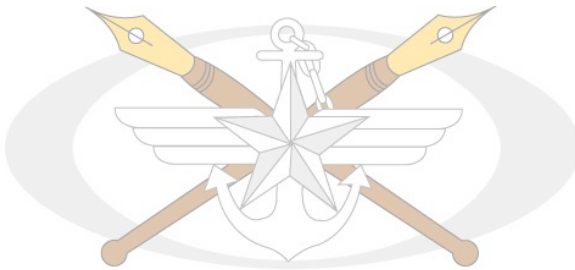
#1. 회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1	오상근		춘천농업고	6사단 민사처, 1950. 10. 초
2	이유승		춘천농업학교	6사단 포병16대대, 1950. 10. 19
3	송대식		춘천농업학교	6사단 포병단, 15사단 포병단, 1950. 10. 8
4	황환민		춘천농업학교	6사단 포병 16대대, 1950. 10. 9
5	반종한		춘천농업학교	UN군 3사단, 1950. 8. 30
6	최창환		춘천농업고	육군본부 특수부대 강원지구 CIC 파견대
7	홍종천		춘천농업고	6사단 수색대, 1950. 10. 초
8	조희연		춘천농업고	6사단 수색대
9	남상인		춘천농업고	포병16대대, 1950. 10. 9
10	노윤호		춘천농업고	7사단 포병16대대, 1950. 12. 10
11	김유환		춘천농업고	6사단 포병16대대, 1950. 10. 9
12	박영한		춘천농업고	6사단 수색대대
13	안성현		춘천공립농업학교	8사단 21연대 1대대, 1950. 12. 27
14	박광서		춘천농업고	전투경찰대 9대대, 1950. 10. 20
15	박선규		춘천농업학교	보병5사단, 1950. 12. 31
16	김용경		춘천사범학교	18대대 전투경찰, 1950. 10. 19
17	박기병		춘천사범학교	포병16대대, 1950. 11. 6
18	변봉모		춘천사범학교	7사단 의무대, 1950. 12
19	성기혁		춘천사범학교	2군단 포병사령부 포병 16연대, 1950. 12. 17
20	신인교		춘천사범학교	2사단 31연대, 1950. 10. 10
21	심상은		춘천사범학교	포병16대대, 1950. 10. 9
22	엄정현		춘천사범학교	6사단 수색대, 1950. 10. 5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23	오홍식		춘천사범학교	7사단 16포병대, 1950. 10. 9
24	용민식		춘천사범학교	전투경찰 9대대, 1950. 9
25	이석근		춘천사범학교	포병16대대, 1950. 10
26	정순길		춘천사범학교	포병16대대, 1950. 10. 8
27	정형섭		춘천사범학교	7사단 16포대, 1950. 10. 9
28	차상은		춘천사범학교	9111부대
29	최증권		춘천사범학교	보병2사단 32연대
30	홍성린		춘천사범학교	포병16대대, 1950. 10. 9
31	권영대		춘천사범학교	해병대1전투단, 서해부대 연평도, 1950. 12. 20
32	박석현		춘천사범학교	9861부대선발대, 11863부대303HID, 3519부대101HID, 1950. 9
33	손영옥		춘천사범학교	1950. 12. 17
34	양승현		춘천사범학교	975부대 20사단 62연대, 1950. 9. 1
35	오태환		춘천사범학교2	보병7사단 포병16대대, 1950. 10. 9
36	이만우		춘천사범학교	국방부 정훈국 학도의용대(가평지대)
37	전명철		춘천사범학교	15사단, 8사단, 1950. 9. 11
38	최운기		춘천사범학교	817부대(포병), 1950. 12. 28
39	한창호		춘천사범학교	6사단 16포병대, 5사단 195포병대대, 1950. 10. 9
40	경광현		춘천사범학교	보병7사단, 1950. 12. 1
41	김동기		춘천사범학교	6사단, 1950. 10. 7
42	김주억		춘천사범학교	2유격대대, 1950. 10
43	민홍기		춘천사범학교	7사단 포병16대대, 1950. 10. 5
44	송중선		춘천사범학교	보병7사단 포병16대대, 1950. 10
45	이명규		춘천사범학교	6사단 19연대 및 미24사단, 미9군단, 1951. 2
46	이필섭		춘천사범학교	보병9사단 29연대, 1950. 12
47	정은환		춘천사범학교	학도병, 1950. 11. 11
48	정응석		춘천사범학교	24사단, 1950. 11. 11
49	황병항		춘천사범학교	6사단
50	김정규		춘천사범학교	6사단, 1951. 3. 20
51	이임표		춘천사범병설중	해병1사단 1연대 1대대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52	고영진		춘천사범학교	1사단
53	김경렬		춘천사범학교	8사단 사령부
54	문규만			신병 보충대(군산), 1950. 12. 7
55	박진화		춘천사범학교6	보병6사단 포병16대대, 1950. 10. 9
56	정윤시		춘천사범학교	육군보병학교

* 출처 :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입회원서(from 전 사무총장 왕선구)



[경찰 학도의용군]

#1. 회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1	구본탁			1950. 8. 5
2	김연재		용산중6	학도의용대(일선대원) 학도경찰대, 1950. 8. 5
3	지용욱		중앙대	학도의용대 일선대 학교경찰, 1950. 8. 5
4	김일현		대구상업중	학도의용대,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5	신석호		괴산농업중6	국방부정훈국직속 대한학도의용대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6	김문식		선산군 오상중	학도의용대(일선대원) 학도경찰 청룡부대, 1950. 8. 5
7	김춘태		안계농업중	대한학도의용대일선대,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8	서영희		대구사범학교	국방부정훈국학도의용대, 학도경찰대, 1950. 8. 5
9	장계숙		인동중	청룡부대, 1950. 8. 5
10	박동주		영남중	학도의용군(일선대원)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11	이철환			청룡부대, 1950. 8. 5
12	남영구		안동사범학교	청룡부대, 1950. 8. 5
13	황하청		안동중6	국방부정훈국직속대한학도의용대,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14	장성덕		영주농업중	대한학도의용대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15	류진수			1950. 8. 5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16	최진숙		안동사범학교	학도의용대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17	김준배		안동사범학교	국방부정훈국직속대한학도의용대,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18	조태영		안동사범학교	국방부정훈국직속대한학도의용대,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19	조주언		안동중	청룡부대, 1950. 8. 5
20	최동훈		청주중	학도의용대일선대,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21	김배달		대구사범학교	학도의용대(일선대원)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22	김태진		대구대	1950. 8. 5
23	유홍준		대전공업중	학도의용대 청룡부대, 1950. 8. 5
24	윤중한		안동농림중	국방부정훈국직속대한학도의용대, 학도경찰청룡부대, 1950. 8. 5
25	류완하		안동사범학교	청룡부대, 1950. 8. 5

* 출처 :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입회원서(from 전 사무총장 왕선구)

[제3사단 학도의용군]

#1. 회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
1	강기남		경북, 미상	
2	감읍봉		진해중	
3	공재용		대구공업중	
4	권영덕		포항동지상업	
5	금병선		태백공업중	
6	길안영		서울한양중	
7	김 실		성광중	
8	김 탄		서울교통	
9	김만규		대구성광중	
10	김말민		영남중	
11	김명상		중앙농대	
12	김명집		대광중	
13	김문호		배재중	
14	김봉갑		보문중	
15	김상수		진해중	
16	김생진		태인중	
17	김성동		진해중	
18	김영근		대륜중	
19	김영근		대륜중	
20	김영환		대구상업	
21	김영환		대륜중	
22	김용득		대륜중	
23	김용섭		서울대 사범대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
24	김용호		감포중	
25	김용환		용산중	
26	김일호		서울중앙대	
27	김장술		보문중	
28	김정식		용산중	
29	김춘식		감포중	
30	김태성		태인중	
31	김해균		대구농림중	
32	김형태		대륜중	
33	김호경		서울교통학교	
34	김화중		배재중	
35	나덕자		성신여중	
36	나미옥		성신여중	
37	노희철		경주문화중	
38	문상동		진해중	
39	박경수		마산중	
40	박명식		수원농대	
41	박승술		영주농업중	
42	박영환		선린상업	
43	박용문		대구공업	
44	박용환		성동중	
45	박인균		교통학교	
46	방수갑		진해중	
47	배덕희		진해중	
48	백명광		마산남경	
49	백영기		청주사범	
50	백태갑		중앙농대	
51	서상각		포항동지상업	
52	서성룡		경북장천오상중	
53	서정도		미상	
54	성태원		미상	
55	손강술		태인중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
56	손영길		미상	
57	손용길		서울 경기중	개명, 현재 손주형
58	신기봉		대륜중	
59	안영걸		서울농대 수의과	
60	어명복		진해중	
61	어철우		진해중	
62	엄팔용		대륜중	
63	오주경		구룡포중	
64	유명옥		서울배재중	
65	유상이		목호여중	
66	유수환		대구용인중	
67	윤 각		청주중	
68	윤영달		오산중	
69	윤재정		신흥중	
70	윤정환		성남중	
71	이균호		경북중	
72	이명수		진해중	
73	이병균		서울배재중	
74	이백수		대구계성중	
75	이상건		경남중	
76	이상일		경남중	
77	이상현		대구중	
78	이상현		중앙대	
79	이영규		포항중	
80	이우근		서울동성중	

[제1사단 학도의용군]

#1. 회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1	손한중	1934. 2. 26	경북중4	1사단 11연대 3대대, 1950. 7. 12
2	최상하	1929. 12. 21	포항동지상업학교5	1사단 11연대 3대대, 1950. 7. 10
3	김규식	1933. 4. 17	포항중4	1사단 11연대 3연대, 1950. 7. 14
4	신윤구	1932. 1. 9	대구 체성중5	1사단 11연대 3대대, 1950. 7. 12
5	김종옥	1930. 11. 19	풍산중4	1사단 11연대 3대대, 1950. 7. 15
6	윤재철	1929. 11. 13	대구 대성중4	1사단 11연대 3대대, 1950. 7. 15
7	이희우	1931. 12. 15	의성 봉양중3	1사단 12연대 특공대, 육군중앙훈련소(학도병1기), 1950. 7. 15
8	이봉조	1934. 10. 7	경주 문화중3	육군 형국대, 1사단, 1950. 7. 15
9	정용수	1933. 7. 25	경주 문화중4	1사단, 1950. 7. 15
10	정연길	1929. 12. 10	경주 문화중4	육본정보국산하 홍국대, 1사단, 1950. 7. 12
11	백승택	1933. 9. 9	경주공업중5	육본정보국(현국대:HID), 1사단
12	김태득	1932. 12. 15	경주 문화중5	보병1사단, 1950. 7. 15
13	김상호	1930. 10. 14	경주 문화중4	보병1사단, 1950. 7. 13
14	안병수	1930. 3. 15	경주 문화중4	1사단, 1950. 7. 15
15	김무상	1932. 4. 8	경주 문화중4	1사단, 1950. 7. 13
16	이창기	1936. 1. 13	경주 문화중3	2군단HID, 1950. 7. 13
17	김용섭	1934. 5. 14	경주 문화중3	1사단, 1950. 7. 15
18	박병달	1933. 5. 26	경주 문화중3	육군현무부대, 1사단, 1950. 7. 15
19	정영록	1932. 2. 5	경주 문화중3	1사단, 1950. 7. 15
20	윤수봉	1933. 2. 3	경주공업고4	1950. 7. 15

순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기타(부대, 지원일)
21	박병조	1931. 5. 30	경주공업중6	1사단, 1950. 7. 5
22	김기주	1930. 1. 24	경주공업중6	1사단, 1950. 7. 13
23	정장술	1931. 9. 22	경주공업중6	육군정보국 헌국대, 1사단, 1950. 7. 13
24	김태조	1931. 11. 27	경주공업고5	1사단, 1950. 7. 15
25	이만출	1932. 5. 21	경주공업중5	1사단, 1950. 7. 14
26	손경중	1926. 9. 2	동국대	삼랑진 신병교육대, 1사단 11연대, 1950. 8. 20
27	최재한	1930. 6. 10	경북안동사범학교	1사단 15연대 1대대, 1950. 7. 15
28	김복용	1933. 3. 29	경남공업중5	1사단 11연대 1대대, 1950. 7. 14
29	강호성	1930. 12. 15	춘양중2	1사단 11연대, 1950. 7. 30
30	박명용	1931. 1. 20	대구상업3	1사단 15연대, 1950. 8. 1
31	양재현	1933. 2. 15	포천중2	1사단 11연대, 1950. 6. 30
32	오상윤	1931. 1. 29	군위중5	1사단, 1950. 8. 5
33	박원효	1934. 12. 4	군위중4	1사단, 1950. 8. 5
34	김대봉	1930. 2. 20	오상고	1사단 15연대, 1950. 8. 13
35	정일태	1930. 9. 25	농림학교4	1사단 12연대 1대대, 1950. 8. 20
36	우병익	1933. 11. 5		2군 G-2 HHD, 1950. 7. 15
37	손대중	1932. 1. 28	대구 경북공립중6	875유격부대, 1경비대대, 1사단 11연대 3대대, 1950. 8. 1
38	손상목	1931. 1. 15	경주 문화중3	1사단, 1950. 7. 15

[학도의용군 관련 사진자료]



〈학도호국단 제2기 훈련 수료 모습(박노을 제공)〉



〈훈련중인 학도호국단(전남여중)과 배숙장교〉



〈교모를 쓰고 행군중인 학생들의 모습〉



〈학도호국단의 제식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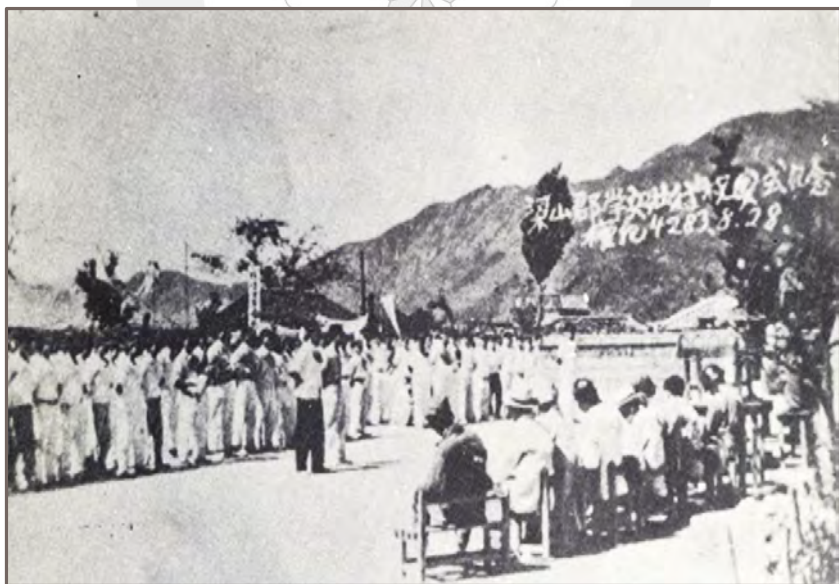
〈학도의용대 결성대회〉



〈대구에서 창설된 여자 학도의용군〉



〈대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학도병(1950. 8)〉



〈양산지역 학도의용군의 출정식(1950. 8. 28)〉



〈대구지역의 학도의용군(1950. 9월초)〉



〈자원입대한 학도의용군의 기초군사훈련 모습〉



〈훈련중인 여자학도의용군〉



〈훈련중인 학도의용군〉



〈전선으로 떠나는 UN군용사들을 환송하는 학도들〉



〈대구역에서 환송을 받으며 출정하는 학도의용군(1950. 7)〉



〈환송을 받으며 출정하는 학도의용군〉



〈전선으로 출정하는 학도의용군〉



〈광주 전투 이후의 학도병 전사자와 부상자〉



〈계급장이 없는 군복과 군모를 착용한 학도병들〉



〈1950년 피난지 부산 천막 교실에서〉



〈학도의용군 무덤을 참배중인 학생들〉



〈대한학도 반공궐기대회〉



〈정전반대 총궐기에 나선 학도호국단, 1951(기록)〉



〈무장한 가평학도의용대원의 모습〉



〈1950년 8월 11일의 격전지 포항여자중학교 전경〉



〈포항전투 생환자(1·2기 생) 기념촬영〉



〈포항전투 이후 단체촬영〉



〈북진중인 제3사단 학도의용군의 여학생(강원도 목호)〉



〈제18포병대대 학도병들 - 강원도 김화전선〉



〈105밀리곡사포 앞 문경덕(용산고등학교)학도병
- 강원도 김화전선, 1951년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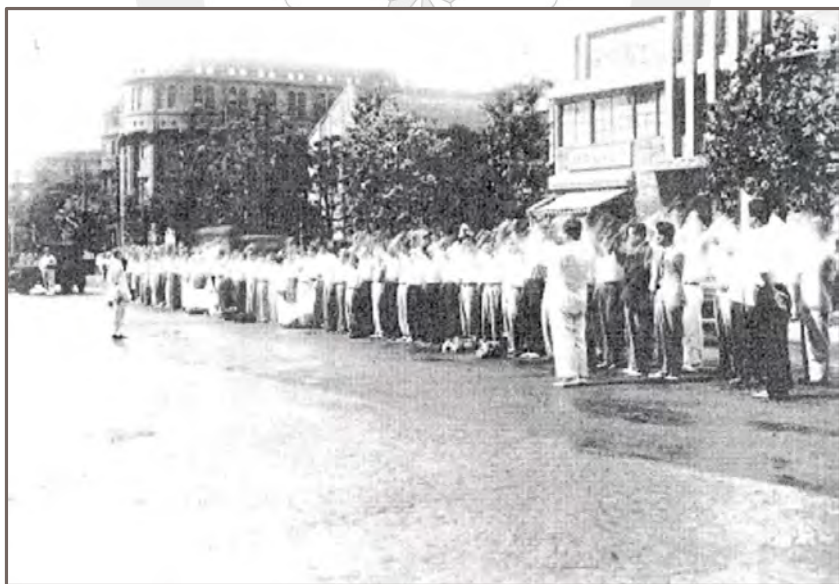
〈서울학도병 6·25참전 1주년기념 - 강원도 김화전선 1951년 10월 20일〉



〈일본에 설치된 의용군 접수처〉



〈출정을 앞둔 재일학도의용군의 모습〉



〈스루가다이(駿河台) 호텔 앞에서 거행된 재일학도의용군 제1진 환송식〉



〈재일학도의용군〉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 재일학도의용군의 출정식(1950년 9월)〉



〈재일학도의용군 출정 송별회〉



〈육군종합학교 22기로 입교하는 재일학도의용군 간부후보생들〉



〈미군 장병들과 함께 조국땅에 첫발을 내딛는 재일학도의용군〉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인천수봉공원)〉



〈재일 학도의용군의 군복에 부착되었던 표식〉



〈인천 학도의용대원〉



〈인천학도의용대원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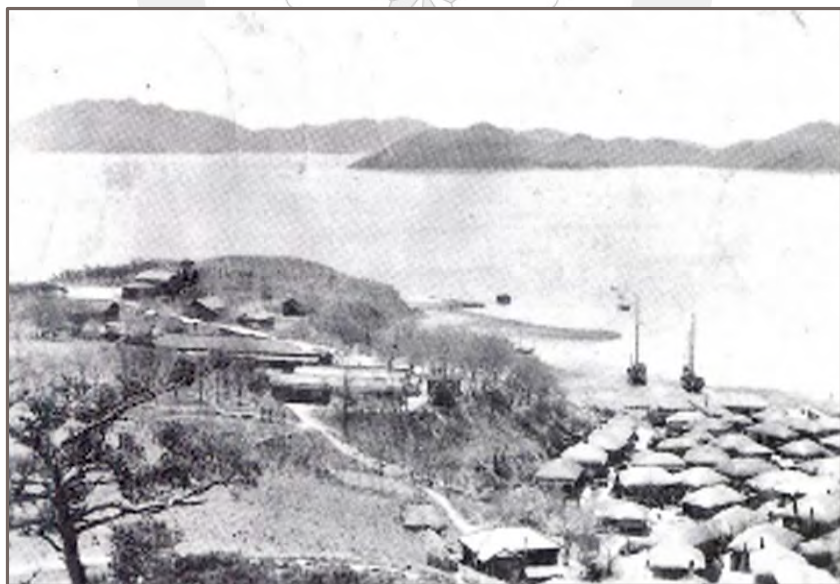
〈마합도 기지의 쌍호대 대원들(1951년 8월 6일)〉



〈배섬(舟島)에서 활약하던 화랑공작대원들(1951년 6월)〉



〈6·25전쟁 발발전 웅진지구전투사령부(제17연대)〉



〈부대본부가 위치한 옹호도 미락동의 전경(1951년)〉



〈적을 창린도로 유인중인 유격부대 선단(1952. 7. 16)〉



〈적지로 출발하는 공작대원들(1952년 3월)〉



〈웅진학도유격부대의 공작선인 동아호〉



〈휴전협정으로 대청도 고주동으로 이동한 학도유격대〉



〈6·25전쟁 당시 태극단원들의 모습〉



〈태극단원이 휴대하였던 태극기〉



〈청석단원 사진〉



〈6·25전쟁 당시 적 치하에서 제작된 대형 태극기〉



〈태극단 제막식 기념(1961. 12. 3)〉



〈고 박정희 대통령 친필 묘명〉



〈장사상륙작전 유격대원이 전투 후 병원장과 함께〉



〈제11회 위령제에 참석한 장사상륙작전 유격대 동지회〉



F01011093

〈학도호국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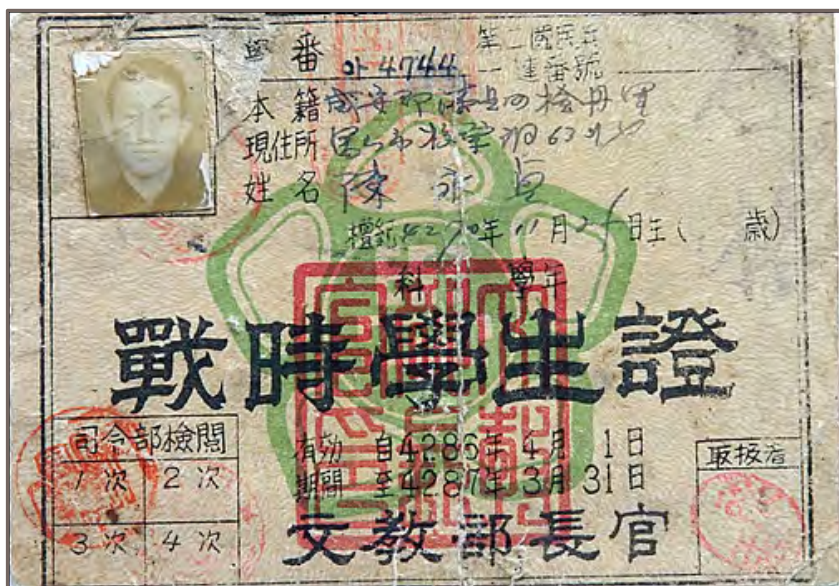
〈학도호국의용대 충청북도 대장(김진영)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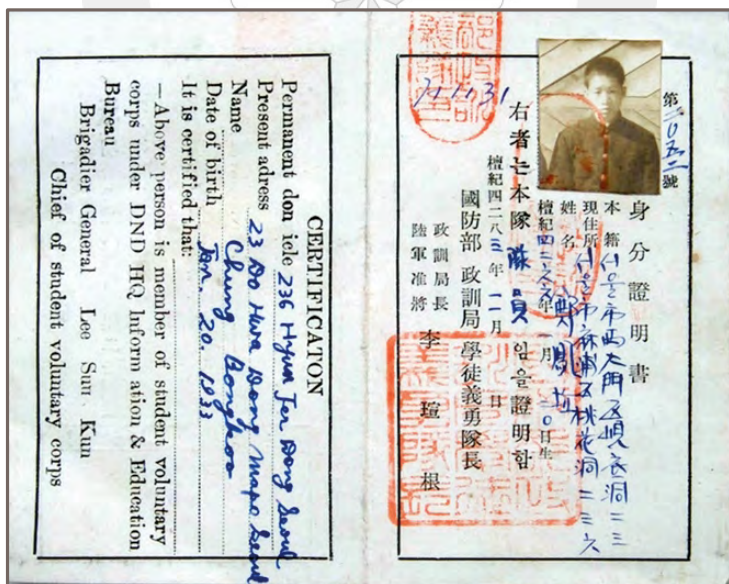
〈학도의용대 제2기 정훈공작훈련 수료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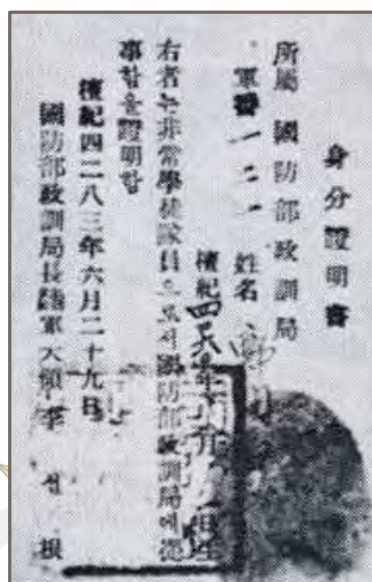
〈학도호국단 수첩〉



〈전시학생증(학국교육자료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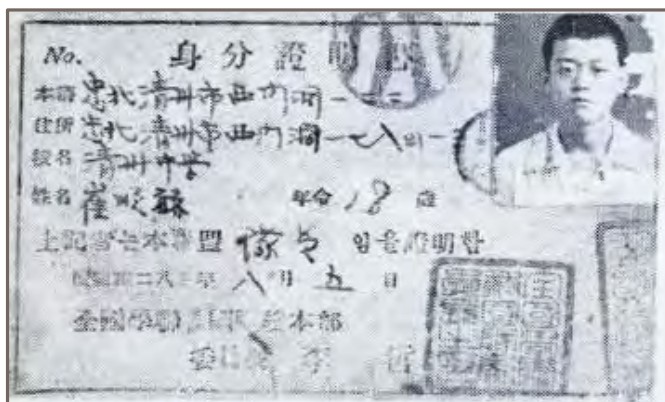
〈국방부 정훈국 학도의용대원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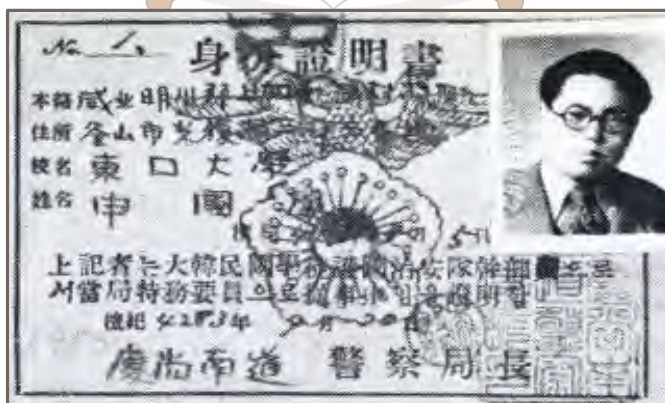
〈비상학도대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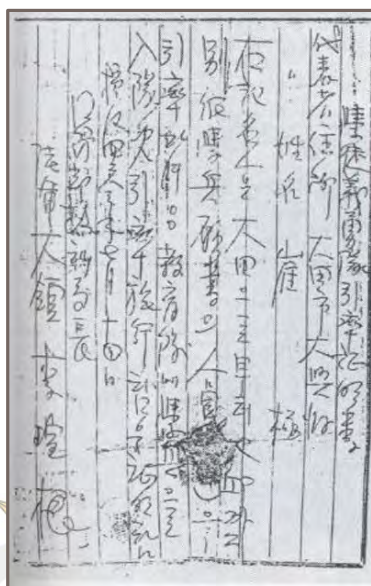
〈학도의용대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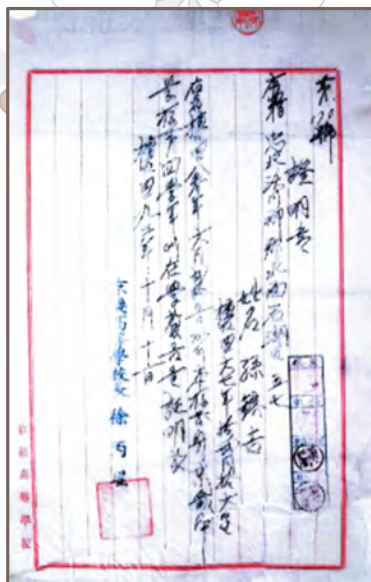
〈학련구국대 신분증〉



〈학도호국치안대 신분증〉



〈학도의용대 인솔증명서(최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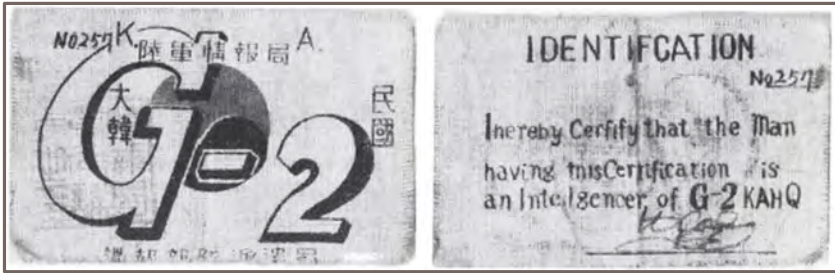
〈학도의용군 대원의 재학증명서〉



〈포항여중전투 참전 학도의용군인 손용길의 문교부장관 표창장〉



〈재일학도의용군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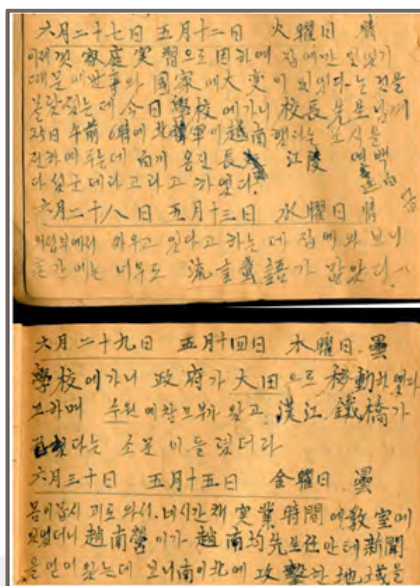
〈1·4후퇴시 유격대에 배속된 40여 명의
태극단 단원이 적 후방교란시 소지한 휘장〉



〈재일학도의용군 윤병은 신분증〉



〈웅진학도유격부대 부대기〉



〈학도의용군의 자필 서한〉



〈학도병의 유품인 만년필〉

[학도의용군 관련 현충시설 현황]

[학도의용군 현충시설 현황 (I)]

● 출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 현충시설 개관

구분	명 칭	시기	소재지	기 타
1	6·25기계안강지구 학도의용군 전적비	2000	경북 경주시 안강읍	기계, 안강전투
2	6·25참전 학도병기념비	1993	여주시 진남체육공원	화개전투
3	6·25참전학도병 순국충혼탑	2005	강원도 횡성중, 고교	6·25참전 학도병
4	6·25학도병 참전기념상	2000	수원시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 농생명고교 출신 13명 추모
5	가평학도의용대 참전기념비	2001	가평군 공설운동장	가평출신 학도의용군
6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현충탑	2006	군산시 은파유원지	군산사범학교 학생 90명중 29명 전사
7	무주학도 6·25참전기념비	2002	무주군 지남공원	무주 학도병 59명
8	서울학도병 참전기념비	2005	용산구 용산동	서울학도병 추모
9	순국학도현충비	1964	전주시 덕진구	5,000여 명 학도의용군 추모
10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	2000	인천시 자유공원	인천 학생 2,000여 명 중 50여 명 전사

구분	명 칭	시기	소재지	기 타
11	제일학도의용군 참전비	1979	인천 남구	제일학도의용군
12	전몰 학도병 추념비	1998	경주시 경주고	경주 중·고교 출신 학도병 추모
13	전몰학도 충혼탑	1957	포항시 북구	포항전투, 김춘식 외 47명 전사
14	태백중학교학도병 전적비	2005	철원군 제3사단	태백중학교 학생 127명
15	학도병 6·25참전기념비	1998	수원시 수원고교	수원고 출신 8명
16	학도병 전적비	1990	경남 하동 화개면	화개전투 40여 명 사상자 추모
17	학도병기념관 (태백중학교)	1991	태백시 태백중학교	태백중 전교생 127명중 18명 전사
18	학도의용군 6·25전적비	1977	포항시 북구 학산동	포항전투
19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포항)	2002	포항시 북구 용흥공단공원	포항전투, 김춘식의 47명 전사
20	학도의용군 파주지대 6·25동란 참전기념비	1992	파주시 장곡체육공원	파주학생 참전 추모
21	학도의용군 현충비	1965	서울 동작구 흑석동	포항전투 소년학도 49명 추모
22	학도의용군 6·25참전 기념상(비)	1979	대구 낙동강승전 기념관	이름 없는 학도의용군 추모
23	호국학도충의탑	2000	포항시 포항고교	포항고 출신 학도병 추모
24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1968	국립 서울현충원	포항전투

[1] 6·25기계안강지구 학도의용군 전적비



1. 기본정보

명	칭	6·25기계안강지구 학도의용군 전적비
종	류	비석
소재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1881-35번지
관리자		경주시 안강읍사무소
관리자 전화번호		054-762-5930
건립년도		2000-11-03
시설규모		가로 3.3m×세로 6.25m, 비높이 5.25m
건평		20㎡
부지면적		330㎡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기계, 안강지구 6·25참전학도의용군 추모
추모내용	한국전쟁시 기계, 안강지구 참전학도의용군의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기념비

[2] 6·25참전 학도병기념비



1. 기본정보

명	칭	6·25참전 학도병기념비
종	류	비석
소재지	전남 여주시 오림동 123번지 진남체육공원 내	
관리자	여주시	
관리자 전화번호	061-690-2321	
건립년도	1993-06-25	
시설규모	기단높이 1.75m, 비높이 1.5m, 가로 3m, 세로 2m	
면적	1,150㎡	
부지면적	10㎡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6·25참전 학도병
추모내용	위 기념비는 6·25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의 기세에 밀려 남하하던 1950년 7월초 전남동부지역 학생 180명이 조국수호를 위해 자원입대하여 1950년 7월 13일 순천 주둔 육군 5사단 15연대 직할대(중대장 : 중위 정태경)에 편성되어 9일간의 기초훈련 후 7월 22일 밤 UN군의 방어선에서 제외된 전북 방어에 투입되었으며, 경남 하동 화개 전투에서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전국 최초 순수 학도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전하기 위하여 1993년 6월 25일 전라남도(5,000만원)와 여주시(500만원)의 지원 및 학도병 동지회의 모금(500만원)으로 높이 1.5m, 가로 3m, 세로 2m의 규모로 건립된 기념비임.

[3] 6·25참전학도병 순국충혼탑



1. 기본정보

명	칭	6·25참전학도병 순국충혼탑
종	류	탑
소재지		강원 횡성군 횡성읍 교항리 64 횡성중·고등학교
관리자		횡성중·고동문화
관리자 전화번호		033-343-0207
건립년도		2005-05-08
시설규모		높이 3.3, 가로 1.5, 세로 1m
면적		8㎡
부지면적		25㎡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6·25참전학도병
추모내용	6·25전쟁 당시 학업을 중단하고 학도병으로 자진 참여하여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다 산화하신 많은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함

3. 관련행사

행사명	현충일 행사 참배
행사시기	매년 6월 6일
행사주관	횡성중·고등학교
행사규모	학생 등 500명

[4] 6·25학도병 참전기념상



1. 기본정보

명	칭	6·25학도병 참전기념상
종	류	조형물
소재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5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정내)
관리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관리자 전화번호		031-259-4360
건립년도		2000-06-26
시설규모		높이 1.11m, 좌대 1.26m×0.6m
건평		3㎡
부지면적		12㎡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출신 참전학도병 13명
추모내용	수원 농생명고등학교 출신으로 6·25에 참전하여 전사 및 생존하신 선배들의 희생 정신과 호국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배들에 전하고자 함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이상에 따라 결정된다. 민족상잔의 아픔인 6·25사변 50주년에 즈음하여 학도병의 몸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신 아름다운 영혼의 거룩한 희생정신과 생존하시는 서른여덟 분의 호국정신을 여기에 새긴다. “광교의 푸른 봄에 동이 터오니 할 일 많은 조국의 날이 밝았다 일어서라 장부야, 큰 뜻을 품고 눈부신 새 역사의 재기를 몰자.” 목청 높여 부르던 교가를 실천하듯 참전 선배 동문들은 큰 뜻을 품고 그 가치를 높이셨다. 젊은 청춘을 바쳐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고 곳곳한 역정을 뒤로한 자랑스런 참전 동문 선배들의 고결한 숨결은 오늘 이 지상 곳곳에 공기처럼 퍼져나간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생명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한다. 광교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리 삶의 귀감을 삼자. 6·25참전 선배들의 조국사랑을 뜨거운 정열과 냉철한 지성으로 참전 동문 선배들이 머물던 이 교정에 그 뜻을 새겨 별빛처럼 후대에 전하고자 이 비를 세운다.

[5] 가평학도의용대 참전기념비



1. 기본정보

명	칭	가평학도의용대 참전기념비
종	류	비석
소재지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21-1 (가평공설운동장내)
관리자		6·25참전유공자회 가평군지회
관리자 전화번호		031-581-5006
건립년도		2001-11-01
시설규모		150평
건평		30 m ²
부지면적		500m ²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 모 대 상	가평출신 학도의용 전몰자추모
추 모 내 용	6·25전쟁 당시 북한공산군의 무력침공을 막고자 애국 학생들이 자진 참가하여 무기를 들고 전투에 참전한 전몰자, 참전학도병을 추모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비를 건립

3. 관련행사

행	사	명	가평 6·25참전 학도의용대 추모식
행	사	시	매년 11월 11일
행	사	주	관 가평 6·25참전동지회
행	사	규	모 350명

[6]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현충탑



1. 기본정보

명	칭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현충탑
종	류	탑
소재지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은파유원지 수변광장
관리자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추모회
관리자 전화번호		02-978-3768
건설년도		2006-08-22
시설규모		높이 11m, 넓이 10m
건평		0㎡
부지면적		192㎡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군산사범학교 출신 학도의용군
추모내용	1950년 6·25전쟁 당시 군산사범학교 학생 90명이 참전하여 전사한 29명의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을 추모

3. 관련행사

행사명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추모회
행사시기	2007년 4월
행사주관	1950년 6·25전쟁 당시 군산사범학교 학생 90명이 참전하여 전사한 29명의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을 추모회
행사규모	300여 명

[7] 무주학도 6·25참전기념비



1. 기본정보

명	칭	무주학도 6·25참전기념비
종	류	비석
소재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지남공원(한풍루공원 내)
관리자		무주군수
관리자 전화번호		063-320-2313
건립년도		2002-06-06
시설규모		높이 2m
건평		0㎡
부지면적		33㎡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무주수복을 위해 싸운 학도병 59명
추모내용	학생신분으로 무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꽃다운 어린생명을 바치고 피 흘린 희생으로 향토수호에 일익을 담당한 59명의 학생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함

3. 관련행사

행사명	현충일추념행사
행사시기	6월 6일
행사주관	무주군수
행사규모	100여 명

[8] 서울학도병 참전기념비



1. 기본정보

명	칭	서울학도병 참전기념비
종	류	비석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용산동
관	리	자 용산고등학교
관	리	자 전 화 번 호
건	립	년 도 2005-10-22
시	설	규 모 가로 1.6m, 세로 2m
건	평	0㎡
부	지	면 적 66㎡
현	충	시 설 지 정 여 부 1

2. 건립취지

추	모	대	상	서울학도병
추	모	내	용	6·25전쟁에 참전했던 서울학도병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 매월 10월 20일 서울학도병 참전 기념식 거행

3. 관련행사

행	사	명	서울학도병 참전기념식
행	사	시	기 10월
행	사	주	관 용산고등학교
행	사	규	모 300여 명

[9] 순국학도현충비



1. 기본정보

명	칭	순국학도현충비
종	류	비석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산27-1
관리자		박항서
관리자 전화번호		063-285-6250
건립년도		1964-06-01
시설규모		5.5m×5.5m×14.5m
건평		0㎡
부지면적		600㎡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장렬히 산화한 의용군 호국영령
추모내용	6·25전쟁 당시 학생신분으로 학도의용군에 입대한 5,000여명과 전사한 수백 명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건립

3. 관련인물 및 공훈현황

관련인물	훈격
이호철	애족장

4. 관련행사

행사명	순국학도의용군추모제
행사시기	매년 7월 13일
행사주관	전북학도의용군사회복지지원회 박항서
행사규모	500여명

[10]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



1. 기본정보

명	칭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
종	류	탑
소	재 지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1 (자유공원 내)
관	리 자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	리 자 전	화번호 032-760-7320
건	립 년 도	2000-08-31
시	설 규 모	탑높이 12.5m, 동상높이 2.2m
건	평	0㎡
부	지 면 적	315㎡
현	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	모 대 상	인천학도의용대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추	모 내 용	인천에서 학생신분으로 2,000여 명이 참전, 50여 명 전사

3. 관련행사

행	사 명	인천학도의용대 전사자위령제
행	사 시 기	매년 9월 18일
행	사 주 관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행	사 규 모	구청장, 지청장, 회원 등 200여 명

[11] 재일학도의용군 참전비



1. 기본정보

명	칭	재일학도의용군 참전비
종	류	비석
소	재 지	인천 남구 주안2동 산29-1
관	리 자	인천 남구청
관리자	전화번호	032-880-4311
건	립 년 도	1979-10-01
시	설 규 모	기단높이 0.45m, 비높이 8.18m
건	평	0㎡
부	지 면 적	1200㎡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	모	대	상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추	모	내	용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남침으로 인해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자 일본의 재일교포 학생들이 이 위기를 구하려고 조국의 전선으로 달려왔다. 바다를 건너 달려온 재일학도들의 장한 뜻을 영원히 기리고 후세 젊은이들에게 조국애에 대한 한 표본으로 남기기 위해 이 비를 건립하였다.

3. 관련행사

행	사	명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식
행	사	시 기	9월말
행	사	주 관	재의동지회
행	사	규 모	500여 명

[12] 전몰 학도병 추념비



1. 기본정보

명	칭	전몰 학도병 추념비
종	류	비석
소재지		경북 경주시 황오동 37
관리자		경주고등학교
관리자 전화번호		054-775-9669
건립년도		1998-01-01
시설규모		비높이 2.9m, 넓이 2.1m
건평		0㎡
부지면적		673㎡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경주 중·고등학교 출신 전몰 학도병
추모내용	1950년 6월 25일 뜻하지 아니한 공산침략을 받게 되자 젊은 학도들은 전선으로 뛰어 나가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웠다. 그들 가운데는 전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았으나 그들의 나라를 위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정신은 비할 바 없는 고귀한 일이었다. 이 땅에 전운이 걷히지 아니한 때 그들의 의를 숭상하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가 많았다. 특히 전지에서 돌아온 학도병들은 그들 순국한 동지들을 그리며 그들 영령들을 추념하는 유적을 남기기 위해 제단과 사친회와 동창회 및 학도호국단 등의 힘을 모아 모교의 뜰에 작은 비를 다듬어 세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남들을 추모하는 정도 없어지는 듯하여 동창회에서는 가신님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추념하는 마음 다시금 높이고자 개교6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으로 국가보훈처의 협조를 받아 새 추념비를 건립하고 옛 비석은 보존하다.

3. 관련행사

행사명	6·25행사
행사시기	6월 25일
행사주관	경주고교
행사규모	80명

[13] 전몰학도 충혼탑



1. 기본정보

명	칭	전몰학도 충혼탑
종	류	탑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03-1	
관리자	포항시	
관리자 전화번호	054-270-2953	
건설년도	1957-06-15	
시설규모	가로 3m×세로 3.4m×높이 8.8m	
건평	33㎡	
부지면적	56㎡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전몰학도의용군
추모내용	학도의용군은 한국전쟁당시 포항지역 전투에 출전, 공산군과 싸워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1950년 8월11일 새벽 김춘식 외 47명의 학도의용군이 장렬히 전사하는 등 희생도 많았다. 이들 전사자들을 위시한 1,349위의 위훈을 길이 남기고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자 건립

3. 관련행사

행사명	추모행사
행사시기	매년 8월 11일
행사주관	포항시
행사규모	300여 명

[14] 태백중학교학도병 전적비



1. 기본정보

명	칭	태백중학교학도병 전적비	
종	류	비석	
소재지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3리 산393(보병제3사단)		
관리자	제3보병사단(1968부대)		
관리자	전화번호	033-458-5568	
건립	년	도	2005-04-07
시설	규모	폭 6.7m, 높이 6.1m	
건	평	10㎡	
부지	면적	99㎡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태백중학교 출신 학도병
추모내용	6·25전쟁 당시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태백중학교 재학생 127명이 보병 제3사단 23연대에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하여 격전지에서 이룩한 험격한 전공을 기리는 한편 호국의 방패로 산화한 전우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전적비를 건립

[15] 학도병 6·25참전기념비



1. 기본정보

명칭	종류	학도병 6·25참전기념비
소재지	관리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250 수원고등학교 교정내 수원고등학교
관리자전화번호	건립년도	031-232-8216 1998-06-25
시설규모	건평	높이 2.5m, 좌대 1.2m×세로 1.3m 0㎡
부지면적	현충시설 지정여부	0㎡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수원고등학교 출신 참전학도병 8명
추모내용	일제에 항거하며 조국을 사랑했던 선인들 그 높은 뜻 이어받아 6·25전쟁의 처참한 전화속에서 몸 바쳐 조국을 지킨 불멸의 용기와 나라사랑 그 고귀한 정신 여기 새겨 영원한 교훈으로 길이길이 남기리.

[16] 학도병 전적비



1. 기본정보

명	칭	학도병 전적비
종	류	비석
소	재 지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3
관	리 자	화개면
관리자	전화번호	055-883-9132
건	립 년 도	1990-09-20
시	설 규 모	높이 0.8m, 가로 0.3m, 세로 0.15m
건	평	0㎡
부	지 면 적	9㎡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 모 대 상	6·25전쟁시 전몰한 이 지역 출신 용사의 넋
추 모 내 용	순천에서 재편성된 제5사단 15연대 1대대(부대장 소령 조남천, 중대장 중위 정태경)전남 동부 6군지역에서 혈서로 지원 입대한 최초의 대규모 학도병 부대로서 전락요충지인 화개에서 7월 25일 적 6사단과 전투 40여 명의 사상자를 매년 7월 25일 생존자 및 유가족이 추모

3. 관례행사

행 사 명	추모제
행 사 시 기	매년 7월 25일
행 사 주 관	유가족

[17] 학도병기념관(태백중학교)



1. 기본정보

명	칭	학도병기념관(태백중학교)
종	류	기념관
소재지		강원 태백시 장성동 109
관리자		태백중학교
관리자 전화번호		033-581-3653
건립년도		1991-02-10
시설규모		2층
건평		567.75㎡
부지면적		349.80000000000001㎡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태백중학교 전몰학도병
추모내용	태백중학교는 6·25전쟁 발발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반년 후인 1951년 1월 9일 박효칠 선생을 포함한 1·4학년 전교생 127명은 나이 어린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태백에서 영주까지 며칠을 걸어 때마침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3사단 23연대에 입대하였다. 이들은 간단한 군사훈련을 받고 학도병 1개 중대로 편성 최전방에 배치되어 영월 녹전지구 전투, 3군단 철수작전, 간성 쏭고개 전투, 피의능선 전투, 가칠봉 전투, 김화지구 전투, 건봉산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나, 이중 18명의 학우가 청운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이에 태백중학교에서는 참전학도병의 명예를 높이고 공훈을 선양하고자 주수복 태백중학교 교장이 학도병기념관을 건립하여 학교특색 교육현장 및 추모사업장으로 활용하였다.

3. 관련행사

행사명	태백중 전몰학도병 추모백일장
행사시기	6월 1일 11:00
행사주관	태백중학교
행사규모	200명

[18] 학도의용군 6·25전적비



1. 기본정보

명	칭	학도의용군 6·25전적비		
종	류	비석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212-1		
관리자	포항시장			
관리자 전화번호	054-270-2953			
건립년도	1977-12-15			
시설규모	가로 3.5m×세로 2m×높이 3m(기단 1.5m)			
건평	15㎡			
부지면적	165㎡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포항지구를 사수하다 전사한 학도의용군의 전공
추모내용	북한 괴뢰 공산군의 남침이 있던 1950년 8월 1일 새벽3시 30분경 중무장으로 탱크를 앞세운 괴뢰군 12사단, 5사단 유격 766부대가 진공상태에 빠진 아군3사단 사령부를 기습하여 올 때 조국을 사랑하는 젊은 학도71명이 교복을 입은 채 MI소총 한 자루에 실탄250발로 밀려오는 괴뢰군의 공격을 11시간 반 동안 버티고 싸우며 반격하다가 실탄이 다하면 개머리판으로 치고 또한 이빨로 물어뜯는 혈전을 거듭하다가 적병의 박격포 수류탄의 폭음 속에 대한 민국만세를 부르다 숨져 갔으니, 이들은 천사에 길이 빛날 호국 학도들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11시간 반의 전투는 무방비 상태에서 방항하던 20여만(피난민)의 시민들을 무사히 피난케 하고 괴뢰군의 주 침공 선을 2시간 동안이나 지연시켰으며 영덕 방면에서 고립상태에 빠진 3사단 주력 부대를 철수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8·15일전 부산 함락이라는 적군 김일성의 지상명령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괴뢰군 300여의 시체를 남기고 퇴각하게 하는 혁혁한 전투였으나 이 전투에서 슬기롭고 용감한 젊은 학도 58명은 영원히 돌아 올 수 없는 조국의 수호신이 된 것이다. 학도병아 잘 싸웠다. 승리의 길로 역적의 공산당을 때려 부셔라. 밀려오는 괴뢰군을 때려 죽여라.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가자 이는 그 날의 학도 의용군들의 노래였다.

[19]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포항)



1. 기본정보

명칭	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포항)
종류	류	기념관
소재지	지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03-14(용흥근린공원 내)
관리자	자	포항시
관리자 전화번호		054-270-2943
건립년도		2002-09-01
시설규모		지상2층 건물
건평		274㎡
부지면적		4,062㎡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6·25전몰 학도의용군
추모내용	6·25전쟁 당시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외 학생들은 펜을 던지고 총검을 잡고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자진 참전하여 꽃다운 나이로 7,000여 명이 산화하였으며 국내학생 5만여명과 재일유학생 641명이 전투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여 만 명이 후방선무 및 공작, 위문활동, 전당 소탕작전 등에서 활약하였다. 특히 이곳 포항은 낙동강 최후 방어선으로 육군 제3사단 소속 학도의용군 71명이 포항여중(현 포항여고)에서 단독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김춘식의 47명이 산화한 곳이며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학도의용군이 희생된 격전지로 이곳 출신 생존 학도의용군은 1979년 8월부터 이곳 탑산에 터를 잡고 학도의용군 전적물 보존, 추념행사 및 현지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 6월 청와대 등 각계에 건의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을 추진, 국방부의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비 중 일부 국비지원으로 포항시에서 2001년 3월~2002년 7월에 이르러 본 기념관을 건립

3. 관련인물 및 공훈현황

관련인물	훈격
김도현	독립장
남자현	대통령장

4. 관련행사

행사명	현충시설 테마탐방
행사시기	연중
행사주관	보훈처
행사규모	연 2,500여 명

[20] 학도의용군 파주지대 6·25동란 참전기념비



1. 기본정보

명	칭	학도의용군 파주지대 6·25동란 참전기념비
종	류	비석
소재지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체육공원	
관리자	파주시	
관리자 전화번호	031-940-4398	
건립년도	1992-10-24	
시설규모	비높이 4m	
건평	0㎡	
부지면적	0㎡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학도의용군 파주지대 6·25동란 참전기념비
추모내용	16~19세에 이르는 파주 학생들이 1950년 12월 6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보병 제1사단 15연대 1대대에 편승하여 싸웠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전사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참전비를 건립하였다.

[21] 학도의용군 현충비



1. 기본정보

명	칭	학도의용군 현충비
종	류	비석
소재지		서울 동작구 흑석동 141-2
관리자		동작구청 문화공보과
관리자전화번호		02-820-1410
건립년도		1965-06-25
시설규모		비높이 6.7m
건평		80㎡
부지면적		264㎡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소년학도 49명
추모내용	한국전쟁당시 포항지구에서 전사한 학도의용병들의 용맹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포항지구 지휘관이었던 김석원 장군이 1964년 5월 사재를 들여 추진, 같은 해 10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학도호국단 및 관계요원들의 협조를 얻어 1965년 6월 25일 이 비를 건립하였음.

3. 관련행사

행사명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
행사시기	매년 8월 11일
행사주관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행사규모	200여 명

[22] 학도의용군 6·25참전기념상(비)



1. 기본정보

명	칭	학도의용군 6·25참전기념상(비)
종	류	비석
소재지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순환로 574-110 (낙동강승전기념관 내)
관리자		한국자유총연맹대구시지부
관리자 전화번호		053-621-9880
건립년도		1979-05-30
시설규모		동상 3.15m, 기단 4.5m
건평		0㎡
부지면적		10㎡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6·25참전학도의용군
추모내용	6·25전쟁에 참전한 이름없는 학도의용군의 전공을 기념하고 청소년의 충효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대구시, 경북도교육위원회 공동으로 건립

[23] 호국학도충의탑



1. 기본정보

명	칭	호국학도충의탑
종	류	탑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288-6	포항고등학교내
관리자	포항고등학교 동창회	
관리자 전화번호	054-242-3313	
건립년도	2000-01-01	
시설규모	비높이 6m, 하단: 가로 2m, 세로 2m	
건평	6㎡	
부지면적	73㎡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포항고등학교 출신 전몰학도병 추모
추모내용	6·25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참전하여 장렬히 전사한 포항고등학교 출신 전몰학도병을 추모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숭고한 희생정신을 항구적으로 기리며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고취

3. 관련인물 및 공훈현황

관련인물	훈격
심남일	독립장

[24]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1. 기본정보

명칭	칭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종류	류	탑
소재지	지	국립현충원

2. 건립취지

추모대상	포항전투 전사 학도의용군 무명용사
추모내용	이 탑에는 6·25 당시 포항지구에서 전사한 학도의용군 김춘식 등 48위의 무명용사 유해가 반구형 석함분묘에 안장되어 있다. 6·25가 발발하여 조국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자 약 5만으로 추산되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구국전선에 자진 참전하여 포항지역을 비롯한 각 지구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7,000여 명이 전사하였으나 시신이나 무덤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이곳에 모셔진 48위는 당시 포항전투에서 중대급 규모의 학도의용군이 괴뢰군 전초부대와 분투하다가 전몰하여 당시 포항여자중고등학교 부근에 가매장되어 있었으나 1963년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들을 국군묘지에 안장할 것을 의결 1964년 4월 25일 대한학도의용군 동지회 주관하에 국군묘지 제5묘역에 안장하였다가 1968년 4월 현재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에 이장하게 되었다. 이 탑은 1954년 10월 30일 “무명용사비”로 건립하였으나 1956년 1월 16일 대표 무명용사 1위를 이 비에 안장하면서 “무명용사탑”으로 개칭하였다가 1968년 4월 대표 무명용사 1위를 남쪽당으로 이장하고 무명용사탑을 현재 위치로 이설한 후 학도의용군 무명용사영현 48위를 이 탑 뒤쪽 반구형 석함에 이장함과 동시에 제단도 이곳으로 옮겨 “학도의용군의 묘”라 표기하고 탑의 명칭도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으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 이 탑은 3개의 아치형의 문형으로 구성되어 중앙의 큰 문형 속에 무명용사탑이 세워져 있고 탑 뒤쪽 중앙에는 사각의 화강암 석함으로 된 반구형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 탑의 석재는 오석이고 그 표면은 황등석이며 아치형 문형은 화강석이다. 탑의 높이 3.6m, 폭 8m, 중앙 문형의 높이 5.5m, 좌우 문형의 높이 3m, 화강석 바닥면적 165㎡이다.

[학도의용군 현충시설 현황 (II)]

● 출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유격부대 및 기타부대)

● 현충시설 개관

구분	명 칭	시기	소재지	기 타
1	6·25참전 영도 유격대 유적지비	1984	부산 영도구 동삼동	반공청년 중심의 영도 유격대
2	강화 유격용사 위령탑	1981	강화군 송해면	제5816부대, 제4863 강화유격대 및 을지타이거 여단
3	고원청년유격대 위령비	1996	고성군 토성면	고원청년유격대 전몰장병 추모
4	독수리 유격대 전적비	1991	포천시 이동면	포천지역 반공청년 63명 독수리 유격대
5	반공유격전적비	1961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시천면 출신 호국영령
6	반공유격전적비	1961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수호를 위한 516명의 영령
7	영도유격부대선열 동지추모비	2003	부산 영도구 동삼동	방공청년 1,200여 명 영동유격대
8	유격 백마부대충훈탑	1992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유격백마부대 전몰 552명의 영령
9	유격군충훈전적비	2001	인천 강화군 교동면	8240부대 타이거여단, 을지제2병단 전사자
10	호림유격전적비	1986	강원 고성군 통일안보공원	강원지역 및 서북청년단원 주축의 316명 유격대
11	6·25참전전몰학우 위령탑	1984	경주시 경주공고	경주공업고교 출신 전몰 학도병
12	헌7학병 6·25참전기념비	2001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헌병학교 제7기 학병 추모

[1] 6·25참전 영도유격대 유적지비



1. 기본정보

명	칭	6·25참전 영도유격대 유적지비
종	류	비석
소재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 29-1
관리자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자 전화번호		051-860-7872
건립년도		1984-09-12
시설규모		비높이 1.5m
건평		0㎡
부지면적		99㎡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6·25전쟁 당시 참전 유격작전 수행중 희생된 대원 추모
추모내용	1950년 11월 당시 월남한 반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유격부대를 창설하고 적 후방에 침투하여 유격작전 중 산화한 명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생존대원들이 건립

3. 관련인물 및 공훈현황

관련인물	훈격
이용락	애족장

4. 관련행사

행사명	6·25참전 영도유격부대 유적지비 추모제
행사시기	매년 10월 첫째주
행사주관	영도유격부대전우회

[2] 강화 유격용사 위령탑



1. 기본정보

명	칭	강화 유격용사 위령탑
종	류	탑
소재지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208-2, 산 6-1
관리자		강화독립부대 유격군 동지회
관리자 전화번호		032-930-3315
건립년도		1981-06-25
시설규모		기단높이 1m, 비높이 13.5m
건평		0㎡
부지면적		1984㎡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육군 제5816부대 유격대와 제4863부대 강화유격대 및 을지 타이거 여단 소속 호국용사
추모내용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남침으로 조국의 위기가 경각에 이르자 평안도, 황해도, 개성, 개풍군 출신들로 구성된 월남애국청년들은 육군 제5816부대로 편성되어 대항하여 과감히 싸웠다.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적의 대병력을 상대로 신출귀몰하는 유격전을 전개하여 강화도 사수는 물론 적의 중추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들 유격대 용사들은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조개와 같이 여기며 용감하게 싸우다 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들 산화한 용사들의 공적과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탑을 건립하였다. 이 위령탑에는 육군 제5816부대 유격대와 제4863부대 강화유격대 그리고 을지 타이거 여단 소속의 영령들을 봉안하고 있으며 가와군 양수면 인화리에 학살된 주민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순의비도 반공유격용사 위령탑 건립시 이곳으로 이전하여 왔다.

3. 관련행사

행사명	호국용사위령제
행사시기	매년 10월 중
행사주관	강화자유총연맹
행사규모	200여 명

[3] 고원청년유격대 위령비



1. 기본정보

명	칭	고원청년유격대 위령비
종	류	비석
소재지	강원 고성군 토성면 토성면 용촌리	
관리자	고성군	
관리자 전화번호	033-680-3230	
건설년도	1996-06-01	
시설규모	비높이 2.04m, 기단높이 0.65m	
건평	10㎡	
부지면적	100㎡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고원청년유격대
추모내용	6·25전쟁 중에 조국수호를 위해 전몰당한 고원청년유격대 출신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

3. 관련행사

행사명	고원청년유격대 전몰장병 위령제
행사시기	매년 6월 중
행사주관	고원군민회
행사규모	150명

[4] 독수리 유격대 전적비



1. 기본정보

명	칭	독수리 유격대 전적비
종	류	비석
소재지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 산146
관리자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
관리자 전화번호		031-536-7200
건립년도		1991-06-06
시설규모		비높이 8.2m
건평		0㎡
부지면적		330㎡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독수리 유격대
추모내용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포천지역의 반공애국청년 63명이 1950년 11월 포천군 신읍에서 조직되어 국군 제2사단 17연대와 합류하여 경북, 의성, 청송, 안동, 예천, 풍기지역과 충북의 제천, 단양지역에서 인민군 제10사단과 공비들을 토벌하고 금화지구전투에 참전하여 일신호국의 정신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 중 16명이 전사하였다. 유격대는 민간인 신분으로 자생조직되었으나 투철한 애국정신과 구국신념으로 참전하였기 그 용맹함이 뛰어났고 전과 또한 컸지만 자신들의 신분이나 전공에 따르는 상훈은 초연하였기에 국가에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져 오다가 1989년 국방부의 전적을 확인받았음. 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 재향군인회, 포천군, 육군 제3070부대의 후원과 생존대원, 전몰대원 유족들의 정성과 포천문화원의 주선으로 관음산 기슭에 이 비를 세움.

3. 관련행사

행사명	독수리유격대원추모행사
행사시기	매년 6월 6일
행사주관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
행사규모	유족, 생존대원

[5] 반공유격전적비



1. 기본정보

명	칭	반공유격전적비
종	류	비석
소재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762-7(사리부락)
관리자		시천면
관리자 전화번호		055-970-7271
건립년도		1961-09-01
시설규모		탑신 : 0.5m×0.23m×1.4m, 탑기단 : 2.4m×2.1m×0.9m
건평		0㎡
부지면적		779㎡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시천면 출신 호국영령
추모내용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과 싸우다 목숨을 바친 시천면 출신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탑을 건립함.

3. 관련인물 및 공훈현황

관련인물	훈격
신익희	대한민국장

4. 관련행사

행사명	현충일 추념식
행사시기	6월 6일
행사주관	시천면장
행사규모	100명

[6] 반공유격전적비



1. 기본정보

명	칭	반공유격전적비
종	류	비석
소재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184-1
관리자		백령면
관리자 전화번호		032-836-3000
건립년도		1961-08-15
시설규모		기단높이 1.92m, 비높이 1.33m
건평		0㎡
부지면적		100㎡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백령도 수호를 위해 산화한 516명의 영령
추모내용	1950년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한 1·4후퇴 당시 이곳 백령도로 북한의 많은 사람이 피난하여 왔다. 1951년 2월 28일에는 유엔군 관할하에 8,000명의 반공유격대(8240부대 동키부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황해도 일원의 기습작전과 백령도 수호에 많은 전공을 세웠으므로 그 전공을 기리고 장열이 산화한 516명 영령들을 위로하고자 장기영 한국일보사의 협조를 받아 이 비를 건립하였고, 비에는 당시 윤보선 대통령의 휘호를 새겼다.

[7] 영도유격부대선열동지추모비



1. 기본정보

명칭	영도유격부대선열동지추모비
종류	비석
소재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29-1(태종대 내)
관리자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리자 전화번호	051-851-7500
건립년도	2003-10-03
시설규모	오석 : 1.6m×0.25m×1.2m
건평	0㎡
부지면적	2㎡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6·25참전영도유격부대원
추모내용	6·25전쟁 당시 함경도와 강원도 출신 반공청년 약 1,200여 명이 부산 영도(태종대)에 본부를 두고 주한연합고문사령부 지휘하에 북한땅에 공중 또는 해상침투하여 적의 군사시설 파괴, 군사정보수집 등 반공유격전 전개하다 전사한 491명의 산화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생존대원들의 뜻을 모아 건립

3. 관련행사

행사명	영도유격부대유적지비추모제
행사시기	매년 10월 3일
행사주관	영도유격부대전우회
행사규모	회원 등 100여 명

[8] 유격 백마부대충혼탑



1. 기본정보

명	칭	유격 백마부대충혼탑
종	류	탑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34번지
관	리 자	천호공원관리사무소
관	리 자 전 화 번 호	02-575-3895
건	립 년 도	1992-07-15
시	설 규 모	높이 8.7m, 탑신 : 직경 1.2m, 동상 2.5m
건	평	0㎡
부	지 면 적	78.59999999999994㎡
현	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유격백마부대 전몰552위
추모내용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 전투부대로 유격백마부대를 구성 자 유쟁취를 위하여 복귀군과 전투를 벌여 군번도 계급도 없이 희 생당하였는바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후대에 기리고 이들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함. 겨레의 자유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6·25전쟁 때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유격백마부대 552위 꽃봉우리의 넋을 위 로하고 그 충절을 후세들이 본받게 하기 위하여 1992년 7월 15일 이 탑을 건립하였음.

3. 관련행사

행	사	명	유격백마부대 전몰552위 추도식
행	사	시 기	매년 10월
행	사	주 관	유격백마부대 기념사업회(김희오)
행	사	규 모	100명

[9] 유격군충혼전적비



1. 기본정보

명	칭	유격군충혼전적비
종	류	비석
소재지	인	인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8-2
관리자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리자	전화번호	032-930-3311
건립	년	2001-01-01
시설	규모	기단높이 1.2m, 비높이 7.2m
건	평	0㎡
부지	면적	869㎡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상	6·25참전 유격군 전몰용사 추모
추모내용	8240부대 타이거여단, 을지제2병단 전사자 추모

3. 관례행사

행사명	유격군 전몰용사 추모제
행사시기	9월
행사주관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우회
행사규모	군수, 지청장 등 300명

[10] 호림유격전적비



1. 기본정보

명	칭	호림유격전적비
종	류	비석
소재지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98-1(통일안보공원내)
관리자		고성군
관리자 전화번호		033-680-3311
건립년도		1986-10-15
시설규모		기단높이 0.3m, 비높이 5m
건평		0㎡
부지면적		502㎡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호림유격대
추모내용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2월 강원지역 청년들과 서북청년단원이 주축이 된 민간인 316명이 유격대를 조직 호림이라 이름하고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1949년 7월 그들은 머리카락을 담배갑 은종이에 싸서 묻고 생무덤을 만들며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동지들의 유해를 거두어 장례를 치러 주기로 혈맹하였으며 복과 무장 게릴라의 남침을 분쇄, 저지하기 위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다 호국의 신으로 산화해 갔다. 이러한 애국청년들의 위훈을 널리 선양하고 후세에 전하고자 함.

3. 관련행사

행사명	호림유격군 전몰장병 위령제
행사시기	10월 15일
행사주관	호림유격전우회
행사규모	300명

[11] 6·25참전전몰학우위령탑



1. 기본정보

명	칭	6·25참전전몰학우위령탑
종	류	탑
소재지		경북 경주시 사정동 70
관리자		경주공고
관리자전화번호		054-775-3984
건립년도		1984-01-01
시설규모		기단높이 1.5m, 탑높이 2.1m
건평		0㎡
부지면적		83㎡
현충시설 지정여부		1

2. 건립취지

추모대상	경주공업고등학교 출신 전몰 학도병
추모내용	경주공업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한국전쟁참전 전몰 학우 위령탑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금을 모금하여 1984년 학교 경내에 이 탑을 건립하였다.

3. 관련인물 및 공훈현황

관련인물	훈격
김도현	독립장

4. 관련행사

행사명	6·25행사
행사시기	6월 25일
행사주관	동창회
행사규모	100명

[12] 헌7학병 6·25참전기념비



1. 기본정보

명	칭	헌7학병 6·25참전기념비
종	류	비석
소	재 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내
관	리 자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관	리 자 전 화 번 호	051-860-7842
건	립 년 도	2001-06-16
시	설 규 모	7m×7m×5m
건	평	0㎡
부	지 면 적	49㎡
현	충 시설 지정 여부	1

2. 건립취지

추	모 대 상	6·25전쟁에 참전한 헌병학교 제7기 학병
추	모 내 용	국난 50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헌병학교 제7기 위하여 기념비를 건립

3. 관련행사

행	사 명	추모제
행	사 시 기	매년 10월 4일, 현충일
행	사 주 관	헌7학병동지회
행	사 규 모	회원 200여 명

○ 주 간

김 상 원(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 집 필

나 중 남(육군사관학교 교수, 책임연구원)

장 성 진(육군사관학교 교수, 연 구 원)

성 연 춘(육군사관학교 교수, 연 구 원)

김 은 비(육군사관학교 교수, 연 구 원)

○ 감수 및 자문

정 토 웅(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양 영 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경 서 호(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회장)

박 양 호(대한학도의병 명예선양기념사업위원장)

손 주 형(6·25참전 학도의용군회 회장)

○ 편 집

손 규 석(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

2012년 8월 24일 인쇄

2012년 8월 31일 발행

발행처 _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09-3188 / FAX : 709-3111

발행인 _ 최 복 진

인쇄처 _ 국군인쇄창(12069465)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